공군

1964年 9月 20日 印刷
1964年 9月 25日 發行

4

第 85 號

박참모총장에 월남 영예(榮譽)훈장

박원석(朴元錫)참모총장은 11월 1일 주한 월남대리대사 고돈타트씨로부터 월남정부의 2급킴칸 영예훈장을 받았다.

장성환(張盛煥)장군 본부 예방

장성환장군이 태국대사로 부임하기에 앞서 11월 3일 본부로 박원석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군인의 길

하나. 우리는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친다.

둘. 우리는 필승의 신념으로써 싸움터에 나서며 왕성한 공격 정신으로써 최후의 승리를 차지한다.

셋.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넷.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을 즐거이 받으며 새로운 전기를 끊임없이 연마하여 강한 전투력을 갖춘다.

다섯. 우리는 존경과 신애로써 예절을 지키며 공과사를 가리어 단결을 굳게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

여섯. 우리는 청백한 품성과 검소한 기풍을 가지며 군용시설을 애호하고 군수물자를 선용한다.

일곱. 우리는 국민의 자제로서 국민을 위하며 자유민의 전우로서 자유민을 위하는 참된 역군이 된다.

상. 전부대장비검열실시
전부대장비검열이 10월17일에제히실시되었다.

중. 중부전선에 신설사이트 기공
박참모총장은 10월 27일중부전선에 신설중인 사이트 기공지를 시찰하였다.

하. TACAN 안테나 창정비에 성공
7항보단에서는 10월 10일국내 최초로 TACAN 안테나 창정비에 성공하였다.

공군 제85호 차례

표지 · 차례 컷… 민철홍

화보 · · · 표지 2 · 3면 및 차례 뒷면

<권두언> 군인과 정신적 여유 · · · · · · · · · · · · · · 김영호(金榮浩) 2
유엔총회와 한국통일 문제 · · · · · · · · · · · · · · · 홍종인(洪鐘仁) 4
미국의 극동 및 동남아 전략 · · · · · · · · · · · · · · 문희석(文熙奭) 9
월남사태의 역사적 배경과 그 전망 · · · · · · · · · · · 홍용기(洪用基) 13

<특집> 한국적 군인상의 발견을 위하여

화랑도의 정신적 바탕 · · · · · · · · · · · · · · · · · 이상옥(李相玉) 18
역사를 통해 본 한국적 군인정신 · · · · · · · · · · · 이선근(李瑄根) 24
근조선의 중문경무사상(重文輕武思想) · · · · · · · · · 이현희(李炫熙) 30
한국적 군인에의 제언 · · · · · · · · · · · · · · · · · 이형석(李炯錫) 36
6 · 25 전란과 한국군의 현대적 성장 · · · · · · · · · · 권정식(權禎植) 42

미국의 대통령선거제도와 그 양상 · · · · · · · · · · · 양흥모(梁興模) 48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상) · · · · · · · · · · · · · · · 이창건(李昌健) 54
달나라 정복의 전망 · · · · · · · · · · · · · · · · · · 이종수(李鐘秀) 62

항공과학
F-5A란 어떤 것 · · · · · · · · · · · · · · · · · · · 문혁(文赫)역 86
대잠수함용 항공기 · · · · · · · · · · · · · · · · · 홍성표(洪聖杓) 90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③ · · · · · · · · · · · · · · 조남식(趙南植) 역술 96
학생운동의 과거와 전망 · · · · · · · · · · · · · · · 문영한(文榮漢) 105

<특집> 새로운 차원에의 모색

기합론 · 심수명(沈洙明) 67
요령론 · 마종기(馬鐘基) 71
고참론 · 김영태(金榮泰) 75
불가능부정론 · 정인영(鄭麟永) 79
명령만능론 · 전영우(全英雨) 82

조각나 칼맑스의 유산 · · · · · · · · · · · · · · · · · 이삼우(李三友) 125
공산주의하의 정치과정론 · · · · · · · · · · · · · · · 박관수(朴寬洙) 119

공군자활사업의 현황 · · · · · · · · · · · · · · · · · 오문환(吳文煥) 144

<병장수기>
동심의 꿈을 이루고 · · · · · · · · · · · · · · · · · 김만용(金萬鎔) 140
S형에게 · 김열회(金烈會) 167
떳떳한 생활이 그리워 · · · · · · · · · · · · · · · · 김승언(金勝彦) 171

<수필>
기상(機上)의 수상(隨想) · · · · · · · · · · · · · · · 박세영(朴世英) 152
모두 잘 살아야 · · · · · · · · · · · · · · · · · · · 성경인(成慶麟) 155
명장(名將) · 김진만(金鎭萬) 160
모기 · 김상묵(金相默) 163

<단편>
노을 · 이규희(李揆姬) 174
추모(追慕) · 오상원(吳尙源) 180

<연재>
익명(匿名)<제9회> · · · · · · 임어당(林語堂) 저, 하정옥(河正玉) 역 134
고난의 935일<제3회> · · · · · · · · · · · · · · · 월레스 브라운 111

편집후기 · 192

자원관리 세미나 개최

미공군의 주선으로 자원관리 세미나가 11월 2일 본부에서 개최되어(사진 하) 각급 지휘관 및 본부 참모들이 참여하였는데(사진 상) 이날 박원석(朴元錫)참모총장은 동 세미나 교육단장 오만 소장에게 기념패를 수여하였다.(사진 중)

군진수칙

일.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겠다.

일.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 나는 전력을 다하여 끝까지 싸우겠다.

일.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계속 항거하고 전력을 다하여 탈출하며 전우의 탈출을 돕겠다.

일.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아국이나 우방에 불리한 여하한 적의 권고나 우대도 거절하여 추호도 적을 돕지 않겠다.

일.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더라도 기밀을 엄수하고 전우를 보호하고 선임자면 후임자를 통솔하고 후임자면 선임자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일. 나는 만약에 포로가 되어 심문을 받더라도 계급, 성명, 군번, 연령을 제외하고는 진술을 회피하며 아국과 우방에 불리한 성명 기타 여하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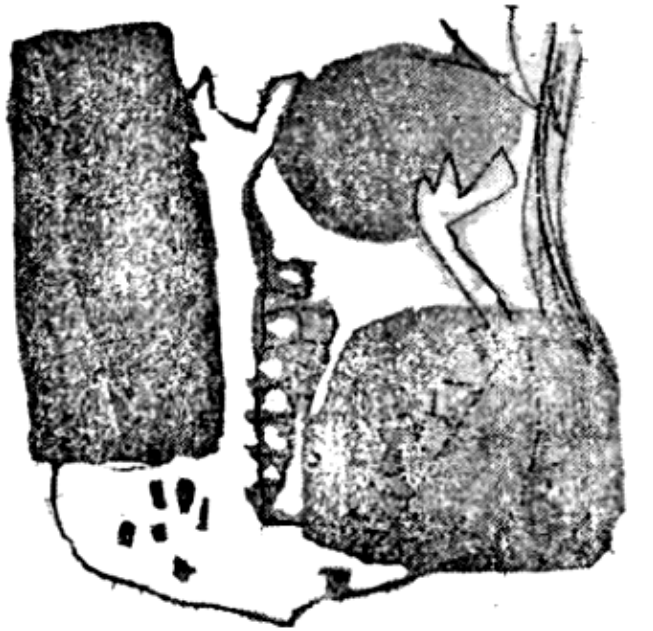
일. 나는 조국에 신명을 바친 대한민국 국인임을 명심하고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

일. 나는 조국을 사랑하며 조국은 나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공 군

제 85 호

1964



발 행 처 ·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 공 군 대 령 김영호(金榮浩)
인 쇄 처 · 공 군 교 재 창
인 쇄 인 · 공군대령 김윤영(金潤榮)

군인과 정신적 여유(餘裕)

정훈감 김영호(金榮浩)

나라가 위급할 때 그 하루아침을 위해서 백년을 기르는 것이 군대고 유사시에는 재빨리 기선을 잡을 수 있도록 늘 긴장과 경계 속에서 임전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군인이다. 더구나 날로 비약하는 과학문명에 따라 고도로 기계화하는 현대전의 양상아래서는 한 순간에서 기선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해서 과언이 아닌 것이다.

백년을 공들여 쌓아 온 전력이 한 순간의 태만과 부주의로 순식간에 무너지고 나라와 겨레의 운명마저 그르치는 예는 그리 드물지 않게 보아 온 터이다. 군인들이 전시나 평시나를 막론하고 항상 사주를 경계하면서 긴장한 가운데 임전태세를 확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대가 엄연히 사람의 집단인 이상 긴장과 주의력의 집중에는 그 한계가 따른다. 사람의 정신력에는 무한대로 뻗을 수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넘어 서면 오히려 능률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군인의 경우도 긴장과 주의집중이 지나치면 오히려 강박관념에서 오는 공포와 불안 때문에 복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사기를 저상(沮喪)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군인이 긴장 속에서 생활하되 이를 조절해 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를 반드시 곁 드려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긴장하고 있되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매사에 진중하기 어렵고 진중을 잃으면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딴 일에서 일을 그르치는 것은 간혹 뒷일에서의 산 교훈이 될 수도 있으나 전쟁에서 일을 그르치는 것은 곧 파멸과 죽음으로 직결되는 것이다.

정신적인 여유는 필승의 신념과 정서적인 안정에서 솟아난다. 불과 20척의 적은 배로 300여척의 많은 왜적을 맞아 유유히 백의종군한 이충무공의 여유나,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방에서 철모도 안 쓰고 태연히 진두지휘한 맥아더장군의 여유는 모두가 필승의 신념에서 울어난 것이었다.

산봉우리를 송두리째 날려 버리는 포화 속에서도 천연스럽게 츄잉 검을 씹어가며 진 랏셀 고지니 헵번 고지니 하는 유머를 잊지 않은 GI들의 여유는 비록 참호속일망정 키타 줄을 튕겨가며 오 수잔나를 합창할 줄 아는 그네들의 정서적인 안정에서 울어난 것이었다.

군인의 긴장을 풀어주고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밖에서는 위문품이나 위문대를 보내고, 안에서는 영내 복지시설을 꾸미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율적인 것이요 제2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스스로 필승의 신념을 견지하고 정서적 안정을 마련하는 자율적이고도 제적인 것에 있다.

필승의 신념을 갖자. 우리는 자유와 평화의 수호자요 국가와 민족의 간성(干城)이다. 정의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것이다. 필승의 신념은 꾸준한 노력에서만 생긴다. 잠시도 쉬지 말고 훈련과 연구를 거듭하여 반드시 적에게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육성하여야한다.

그리고 정서함양을 위해 스스로 발 벗고 나서자. 사무실이나 내무반을 아늑하게 꾸미는 것도 좋고 기지주변에 꽃이나 나무를 가꿔 환경을 미화하는 것도 좋다. 일과 후나 쉬는 날을 틈타 동료들과 어울려 바둑이나 장기를 즐겨도 좋고 합창단 활동이나 등산을 해도 좋으며 내무반 단위나 대대 단위로 차례로 돌아가며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취미강좌를 베풀어도 좋고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운동경기나 오락회를 마련해도 좋다. 또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감상을 해도 좋고, 그림 그리기, 사진찍기, 수집하기, 낚시, 서도(書道) 등의 개인적 취미를 살리는 것은 더욱 좋다. 이런 것이 모두 정신적인 여유를 스스로 마련하여 필승의 임전태세를 확립하는 길이요, 또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멋을 아는 군인이 되는 길이기도 하다.

유엔 총회와 한국통일 문제

유엔은 현재 112개 회원국에 의한 세계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회원국은 유동적인 국제 정세에 따라 각기 자국 본위의 이해관계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통일문제가 금년 유엔 총회에서 어떻게 토론될 것인지는 예견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다.

홍 종 인(洪鐘仁) <한국신문연구소장>

1.

유엔 총회는 금년으로서 제19차를 맞는다. (원래 매년 9월 제 3화요일에 열리기로 되어 있으나 금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영국의 의원선거 등등 때문에 뒤로 연기되었다.)

22차 대전이 끝나기 바로 전인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되던 그 당시 51개국의 회원국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112개국으로서 전후 16년에 그 곱절이나 회원국이 늘었다. 그만큼 세계정세가 변화하고 발전했다고 하겠으나 그 반면에 세계문제는 더 복잡하고 미묘해 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유엔 본부를 방문하고 한국전쟁문제가 상정되는 중간 총회를 방청할 수 있었던 것은 1953년 2월 중순 이었다. 그때의 회원국은 63개국이었다. 한국전쟁이 중부전선에서 극렬하던 때였다. 중공군의 소위 인해(人海)전 작전이라는 것이 한때 우리 전선을 위협하기도 했었으나 제공권(制空權)이 완전히 유엔군에 제압되고 적의 보급이 뜻 같지 못하여 전선의 혼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적으로서는 전선의 장기적 유지가 곤란하여 어떤 종류의 휴전을 모색치 않을 수 없는 때였다. 그러나 전쟁이 밤낮 없이 진행되고 있는 때라 유엔의 최대의 정치문제인 한국문제는 중간총회의 소집을 필요로 했고 이 중간총회에서는 소련의 대표 비신스키를 선두로 하는 공산진영이 전선의 총격전과 다름없는 극렬한 공격의 논전을 펴고 있었다. 당시의 미국대표는 아이젠하위 대통령 밑에 새로 임명된 헨리 가보트 라지 이었다. 바로 지난 여름까지 월남주재 대사로 있던 유능한 공화당 출신의 정치가이었다.

그 후로도 1960년 가을, 소련의 흐루시초프가 구두짝을 벗어들고 책상을 두드리며 총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던 그때의 총회도 한달 가량 구경했다. 다시 작년에는 정부의 특별한 주선으로 또 총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동안 유엔의 발전이나 변화는 회원국이 많아졌다는 것과 아울러 세계문제가 또 그만큼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까지의 한국문제의 토의는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원칙 밑에 진행 되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는 어떨 것이냐? 간단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2.

그러면 유엔이 다루어온 한국문제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를 더듬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 유엔총회의 의사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고 이를 유엔대표단에 의하여 감시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그해 12월 유엔총회에서 한반도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의 길이 열리었다는 것이 한국문제 토론의 확고한 유엔정책의 방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한국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된 민주 독립국의 성취를 위한 유엔의 권능과 권위가 전제로 되어있고 그 권능과 권위란 것은 유엔헌장과 결의의 내용을 뜻하는 것이다. 2, 1950년 6·25의 공산괴뢰의 침략전쟁은 유엔헌장과 결의를 무시하고 파괴한 행동으로서 이미 유엔은 중공과 더불어 괴뢰집단을 침략자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3, 한국에는 한국의 평화적 통일민주독립국가의 성취를 돕기 위한 한국정세의 일반적 관찰을 위해 유엔의 위원단이 서울에 주재하여 해마다 그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케 되어 있어서 그 보고서의 총회상정이 한국문제의 연례적 토론을 필요로 하고 그와 동시에 한국인민들의 통일의 의욕과 방안이 총회에 반영되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4, 이 경우의 논쟁점은 한국의 통일은 북한괴뢰 집단인 인민공화국도 통일의 의사를 가지기는 우리의 마찬가지라고 공산진영의 회원국을 통하여 줄곧 총회에 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면서,

한국문제의 토의는 북한의 당사자(괴뢰집단)의 참가 없이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주창하고 있고 이러한 주창을 공산 진영 국가들은 판에 박은 듯이 반복 주창하고 있다. 5, 여기서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논란이 벌어지는 문제는 대한민국 대표와 동시에 북한의 집단대표도 초청해도 좋으나 그러나 북한 대표가 총회의 초청을 받고자 한다면 유엔의 헌장을 준수하고 그 결의에 복종함으로써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전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6, 이와 같은 토론에서 한국의 동맹국(그중 에티오피아는 근년에 아프리카 정세에 따라 중립태도를 가지게 되었다)을 위시한 서방국가 측 48개국은 확고히 대한민국 측을 지지하고 있고 공산진영의 12개국은 북한괴뢰 측을 지지하고 있고, 그 의는 십 수 개국이 한국 측을 지지하기도 하나 대개는 정세에 따라 기권도 결석도 할 수 있는 믿기 어려운 중립 내지는 불투명한 태도를 가지는 나라들인 것이다.

3.

그런데 세계정세의 움직임은 실로 미묘하다. 엄숙한 현실의 변화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힘의 균형이 달라지며 지역과 종속과 사상과 내지는 종교와 문화관계의 접근과 반발이 해마다 달마다 정치지도면의 채색에 많건 적건 간단없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모든 변화의 가능성은 각기 나라마다 처해있는 자신의 문제를 둘러싼 이웃 나라와의 이해관계에 따르는 것이다. 유엔은 현재 112개의 회원국에 의한 세계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각 회원국의 자기중심의 이해관계를 떠난 원리원칙의 해석도 관난도 있을 수 없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찬성과 다수에 대한 추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역시 국제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고립의 불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회원국에게는 언제나 주권의 독립성이 강조되며 동시에 국제평화와 인류의 복지 향상을 위한 협조정신이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 유엔의 정신이요 모든 회원국의 의무며 또 권리로 되어 있는 것이다.

총회 회의장이나 정치위원회 회의광경도 다채롭지만 회의의 논쟁을 떠나서 한번 대표들의 휴게실을 거닌다면 더욱 놀라운 것은 인종과 사상과 주의의 세계시장을 이루고 있는 풍경인 것이다. 찬성이냐 반대냐, 협조냐 묵인이냐, 주고받는 거래의 끊임없는 흥정은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 오고가는 술잔 찻잔과 더불어 가지가지의 말소리, 웃음소리의 꽃을 피우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모두가 자기 존재, 제나라의 명예와 권위를 밝히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풍경 속에서 속일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대표나 나라마다 지니고 있는 전통과 문화를 배경삼아 자신의 무게를 스스로 다룬다고 해도 그 반면에 그 개인의 자혜와 총명과 풍채가 그 나라의 무게를 다루는 가장 뚜렷한 저울눈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복잡 미묘하다고 할밖에 달리 더 표현할 말이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운데서 한국의 존재, 한국의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을 것인가?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위한 우리 대표단의 일이란 용이치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생각치 않을 수 없다.

한국문제는 2차 대전 중간에 뚜렷한 승리의 목표를 내다 볼 수 있었던 연합국이 다시 전쟁 없는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국제연합기구의 조직을 토론하는 것과 병행하여 전후의 세계정국의 뒤처리 문제 중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요 그 가장 중대한 실책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때문에 6·25의 한국전쟁이 전부터 유엔이 스스로 해결치 않으면 아니 될 자신의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즉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단했다는 사실은 미국과 소련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으며 극동지역의 영원한 평화를 도모한다는 정책의 근본정신을 몰각한 일종의 도박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세계정세를 살피던 십 수 년 전이나 오늘이나 대체로 미국과 소련의 두 나라가 세계문제를 좌우할 수 있는 대립의 중심세력이 되어 있다고 보아 크게 잘못은 아닐 것이나 오늘에 이르러서는 십 년 전과도 판국이 많이 달라졌고 따라서 한국문제의 토론도 기본과제에는 전이나 오늘이나 조금도 다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방식만은 어느 정도로 유동성을 가지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즉 51개의 회원국으로 출발한 유엔이 오늘에 와서 112개 회원국으로 팽창하는데 따라서 국제간의 관계면의 변화와 그 유동성이 더 커졌다는 사실은 결코 소홀히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문제는 국제 세력의 변화에 때가 균형이 달라졌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영국이 전후의 복구를 완전히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때가 1955년 이라고 할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서독이 모두 30억 달러 이상의 저축을 가지게 된 것이 1959년 전후라고 할 것이다. 극동에서는 우리의 6·25전에 중국 본토가 중공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고, 일본은 6·25의 전쟁 덕분에 급자기 부흥하여 지금 그 생산력이 구미의 강대국을 위협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1950년 전후하여 급격히 변화했다. 식민지의 해체로 30몇 개국의 독립국이 탄생했다. 그 뿐 아니고 공산 진영은 소련과 중공이 그 주도권을 에워싸고 마치 전쟁 직전의 적대관계에 놓여 있다. 또 핵무기의 비상한 발전은 핵보유국가로 하여금 다시는 세계적 전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인류 멸망의 두려움을 가지게 했고 따라서 모든 국제간의 분쟁이나 알력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의 길을 모색치 않으면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이 소위 강대국 간의 양해요 또 신념과 같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상적인 동과서의 대립은 여전히 심각하여 민주주의의 명칭은 자유와 공산독재의 두 힘에 의하여 신흥군소국가를 상대로 한 세계여론 동원에 제각기 작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에서 소위 강대국 간에 다시 큰 전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면 사상과 주의와 제도상의 대립이나 간격을 여하간에 접근할 수 있는데 까지 접근하는 것이 인류의 공동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하여서 또 각기 그 나라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태도는 모두가 자기국가 본위의 이기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원래가 국가 간의 교섭이나 담판 등의 외교란 것이 그런 것이고, 공산 진영의 소위 평화 공세란 것도 그런 것이

지만 서방의 자유진영의 공세에도 미국이 소련과의 문화교류의 이름 밑에 자못 활발한 평화공세의 승리적 효과를 거두고 있거니와 영국과 프랑스 등 구라파 제국의 공산국가와의 통래는 사상이 아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영국은 앞서부터 활발히 소련과 접촉을 해 왔고 근자에는 프랑스도 한걸음 더 나가서 중공을 승인 하면서 새로운 중립세력을 형성할 시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이번 가을 총선거에 노동당이 승리함으로써 앞으로 노동당이 집권하면 평화정책은 더 적극적일 것이고 따라서 세계평화의 화근이 되고 있다는 분쟁문제의 해결을 위한 타협의 길을 더욱 모색케 될 것이다.

이러한 정세로 생각할수록, 한국의 통일문제가 금년의 유엔총회에서 어떻게 토론될 것인지 지금 말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난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년 총회에서 111개 회원국으로부터 우리문제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태도를 찬성해 준 것이 65요, 반대가 11, 기권이 24, 결석이 11로서 17차 총회 때보다 찬성표가 2점 더 했을 때 의무 당국이나 또 국민들이 반겨해 하기도 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건대 한 표 두 표를 더 얻느냐 잃느냐의 득표 공작이 곧 국가외교의 근본적 태도나 방식이 될 수 없을 것을 미리 알아 두어야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 향하여 자신의 지위를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국가적 힘을 하루바삐 길러야 할 것이 무엇보다 급한 것이다.

<12면에서 계속> 해군에 의한 봉쇄(封鎖)나 공군에 의한 폭격(爆擊)으로 최종의 승리를 걷을 수 없다면 부득이 지상군부대를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상군부대로 첫째 손꼽히는 것이 미해병대와 '오키나와'의 제25사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점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이다. 왜냐하면 병력의 비중으로 보아 미국의 대(對)게릴라 병력은 중공 월맹의 '게릴라'부대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월터 리프맨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인지반도(印支半島)[인도차이나반도]의 현 사태를 코끼리와 고래의 대결이라고 말하면서 땅의 왕인 코끼리를 바다의 왕인 고래가 공격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또 하나의 결론 즉 바다의 고래가 땅위로 올라오지 못하는 한 코끼리는 지상에서 끝까지 왕 노릇을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아직 코끼리(중공)의 보복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간접적인 보복은 월남에 있는 베트콩을 통해 확연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통킹만(灣)에서의 미국의 공격이 구체적으로 가져온 성과는 무엇인가?

아직까지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만약 인지반도에서의 미국전략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 여기에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가 제시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곧 월남의 중립화라는 드골의 주장이다.

원컨대 우리는 미국의 전략이 성공하여 차지성(此地城)에서의 평화가 도달할 것을 바랄 뿐이다.

미국의 극동 및 동남아 전략

월남사태를 중심으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태도는 오늘날 평화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을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단호한 태도는 항상 구체적으로 표시될 것이다. <8월 4일 존슨 대통령 성명에서>

문희석(文熙奭)
<국방대학원 교수>

1. 월맹에 대한 미국의 보복공격

지난 8월 2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미7함대 소속 구축함 매독스호가 월맹의 근해인 통킨만의 공해상에서 어뢰정으로부터 공격받은데 대하여 미국은 즉각적인 보복공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1954년 인지반도에서 휴전이 성립된지 10년 만에 또 다시 전쟁의 참화가 재발될 듯한 위기가 조성되었다.

미국의 대월맹공격에 대하여 존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즉 "미군에 대한 무력공격이 반복되는데 대해서는 단순히

경계방위체제로서 응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의 반격은 현재 한정되고 적당한 것으로 될 것이다.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호한 태도는 오늘날 평화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을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단호한 태도는 항상 구체적으로 표시될 것이다."(8월4일 존슨 대통령 성명에서)

한편 미국방장관 맥나마라씨는 이러한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미국이 행한 보복공격의 실제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8월4일 밤 미항공모함 타이콘델로호와 콘스테레이션호로부터 출격한 미항공기들은 월맹의 초계기지 4개소(홍가이, 로크챠오, 푹로이, 쾅케기지)와 빈에 있는 석유저장소에 대하여 64회에 걸친 공격을 가하였다. 그 결과 탱크 1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맹의 전 석유저장능력의 거의 10%를 점하는 빈 기지의 90%를 파괴하였으며 어뢰정 25척에 대한 손상 또는 파괴를 주었다. 미군의 비행기 2대가 손상을 받았다. 나는 어제밤(4일밤) 태평양기지에 있는 미군병력을 증강할 수 있는제반조치를 취하였는데 그것은 (1) 공격공모(攻擊空母) 1전대를 미태평양 연안의 제1함대로부터 서태평양으로 배치시킨 것, (2) 공격기, 전투폭격기를 월남에서 이동시킨 것, (3) 전투폭격기를 태국에 이동시킨 것, (4) 폭격기 및 전투폭격기의 수개중대를 태평양의 전진기지로 이동시킨 것, (5) 대잠기동전대를 남지나해로 이동시킨 것, (6) 일부 육군, 해병부대를 경계체제하에 배치한 것 등이다."고 발표하였다.(8월 5일 맥나마라 장관 기자회견에서)

이와같은 전격적인 전투능력의 증강은 당장 그 효력을 발휘하여 예상 가능시 되던 중공의 직접적인 개입을 저지시켰으며 중공으로 하여금 종이호랑이 미국의 실력 앞에 사실상의 굴복을 아니 할 수 없게 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사태진전의 이편에는 중공 자체의 경제적 정치적 제요소와 소, 중공간의 분규(紛糾), 기타 호지명 자신의 결심 그리고 월남에서의 게릴라전 등이 일련의 원인이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태평양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엄청난 보복력에 있는 것이다.

2. 태평양지역의 미국 보복력

미국이 현재 태평양지역에 배치하고 있는 육해공군의 총병력은 약 45만으로서 이것을 각군별로 보면 육군이 9만, 해군이 28만, 공군이 6만이며 하와이에 위치한 미태평양통합군사령부(PAC)의 소속하에 있다.

동사령부의 작전지역은 약 8,500만 평방마일이나 되는 태평양 전역이며 베링해협, 아류산 열도 이남으로부터 버마 인도양, 남태평양 이동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동사령부 예하부대를 살펴보면 육군의 주요부대는 제8군(한국), 제25사단(하와이), 제9군단(오끼나와) 이며 해군으로는 제1함대(본토연안), 제7함대(태평양), 해병대로는 제1해병사단(본토연안), 제3해병사단(오끼나와), 공군으로는 제5공군(일본), 제13공군(비율빈), 제315공수사단(일본)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태평양통합군과 별도로 미 본토에 위치한 전략공군(SAC)의

제3항공사단이 괌도에 배치되고 있으며 핵탄두를 장비한 B-52와 B-58이 항상 전투태세에 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위력을 갖춘 부대는 우리가 잘 아는 미제7함대로서 동함대의 작전구역은 동은 괌도 동쪽 960km의 선, 즉 동경160도에서 서로는 인도양의 동경 90도, 북으로는 소련방과 접하는 베링해, 남은 호주 남단에 이른다.

그러나 1950년 이래 동함대의 실제활동은 대만을 중심으로하는 극동수역이었는데 비해 최근에는 비율빌[필리핀]의 Subic만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아수역이다.

동함대의 병력 및 장비를 보면 125척의 함정(항공모함 5척, 각 6만톤급, 60~90대의 함재기탑재, 미사일 장비 순양함 3척, 구축함 36척, 원자력잠수함을 포함하는 잠수함 7척, 소해정 기타 보조선 74척)과 함공기 650대를 보유하고 있다.

동함대의 편성은 3척의 공격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3개의 기동함대(Task Force)로 되어 있으며 북방기동함대는 일본 요코스카에 기지를 두고 한국, 일본 근해를 담당하며 제2기동함대는 오끼나와에 기지를 두고 대만해협중심 그리고 제3기동함대는 비율빈의 수빅만을 중심으로 동남아일대의 방위를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 제4기동함대라고 할 수 있는 해병대 2,000명을 탑재한 수륙양용함대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기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각 기동부대는 유사시 필요한 지역에 3~4일만에 집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7함대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650대는 함재공격기 A3-D-2, 함재폭격기 A-4D-2를 비롯하여 F-3H-2N 전천후폭격기 F-8U-3 초음속폭격기들이다. 또한 일부 잠수함에는 레규러스 미사일(고체연료사용, 시속 960km, 사정 800km)를 장비하고 있다.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 태평양에 배치되고 있는 미국의 정보능력이다. 이것을 볼 때 월맹은 물론, 이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중공이 감히 보복행동을 감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된다.

3. 미국의 전략

이상에서 기술한 미 7함대의 병력과 장비 및 편성, 최근 인지반도에서 취한 미국의 군사행동을 통해 미국의 대 극동 및 대동남아의 전략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중공을 상대로 제한전쟁에 대비하는 전위전략(前衛戰略)(물론 전면전쟁에 대비하는 전위전략은 수정되고 있지만)의 완성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음미해 보면

(1) 미국은 극동 및 동남아에서의 공산주의침략을 막기 위해 효과적이며 신속한 보복기동 수단을 완비한다.

(2) 이와 같은 보복수단의 사용은 상대적국(특히 중공)의 행동여하에 따라 그 사용의 한계를 짓는다.

제1차적 보복조치로는 해군에 의한 봉쇄와 공군에 의한 폭격이며 그 다음은 단계로 지상부대를 투입하는 것이다.

(3) 보복조치의 지역적 단계로서는 우선 문제된 당해지역에 한하고

그 다음 지원부대의 주둔지역 나아가서는 교전국과 동맹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로 혹 대 한다.

⑷ 이러한 미국의 확고한 보복결의를 적대국가에게 올바르게 인식시키며 판단의 착오가 없도록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즉시 실력행사를 감행한다.

⑸ 이렇게 함으로써 전면전쟁을 예방하고 국지전의 전면전쟁에로의 확대를 예방하며 획득된 전과를 기초로 정치적 협상을 재개한다. 즉 일면전쟁, 일면협상의 양면작전을 채택한다.

이상에서 약술한 것이 제대로 본 미국의 동남아 및 극동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미국은 이미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대량보복전략에 수정을 가하고 국지전과 대게릴라전에 대비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물론 이것은 인지반도에서의 성과 없는 작전에서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운반수단의 개발, 달러화의 방위, 폴라리스 잠수함의 개발 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지반도에서 미국이 받고 있는 중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새로운 결의가 긴급하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 수단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지난 4월 17일 러스크 국방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중공과 월맹에게 경고한다. 양측이 즉시 라오스와 월남에서 손을 떼지 않는 한 전면적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미국은 전면전쟁을 각오한다."는 확고한 태도를 취하는 길밖에 없다.

4. 결어

이번 통킨만에서의 미국의 군사행동은 우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같이 보인다. 사실상 이번 행동은 월맹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중공에 대한 공격이었다. 중공이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공군군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 중공냉전의 격화로서 1950년 체결한 소·중공군사원조협정도 사실상 공문(空文)화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중공이나 그의 동맥국가인 월맹이나 북괴의 보다 호전적인 태도는 결코 평화적인 방법이나 미국의 위협적 태도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전면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월남에서의 공산침투를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전쟁은 봉쇄나 공중폭격으로 승리할 수 없으며 특히 인지반도의 지형적 조건은 미국의 이러한 제한보복의 효과를 심히 제한시키고 있다. 파테트라오나 베트콩을 지원하는 월맹 및 중공의 보급로, 이른바 호지명 루트(육상, 해상을 막론하고)는 위와 같은 미국의 공격으로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 2만에 달하는 월남주재 미고문단의 직접적 지휘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침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다신 강조하지만 인지반도에서의 전쟁은 현재로 보아 핵미사일이나 폴라리스 잠수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 전쟁은 재래식병기 그것도 소총과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진행되는 전쟁이다.

또한 동지역에서의 전쟁은 전투정면과 종횡이 뚜렷한 전투지형을 형성하는 전쟁이 아니다. 따라서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전략은 전술 면에서 커다란 장애 앞에 놓이고 있다. 〈8면에 계속〉

월남사태의 역사적 배경과 그 전망

세계 제2차 대전은 한국과 더불어 월남의 국토를 양단하고 자유, 공산진영의 대리전쟁까지 치르게 했다. 레로이에서 고딘디엠을 거쳐 오늘에 이른 월남은 끊임없는 정치적 불안과 월맹과의 투쟁을 치르면서 바야흐로 전쟁 일보 전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홍용기(洪用基)
〈동화통신 외신부장〉

2차 대전은 독일, 이태리, 일본 등 전체주의를 패망시켰지만 종전 후 세계지도체계는 자유, 공산의 양대 진영으로 부화시켰으며 그 부산물로서 국토가 양단된 지역이 독일, 한국 및 월남이다.

이 3개 지역 가운데 자유, 공산진영의 대리전쟁을 겪은 것이 한국과 월남인데 휴전협정이 성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곳이 남부월남이다. 한국에서는 공산군의 석권(席捲)야욕이 유엔군에 의하여 좌절되고 군사적으로 고정되고 있지만 남부월남에서는 월맹의 지원을 받는 베트콩 공비들이 도처에서 준동(蠢動)하고 있고 일익(日益) 증강되고 있다.

게릴라전으로 시작한 공비들의 규모는 이제 대대병력으로 대공세를 취하고 있어 그 진압이 용이하지 않다. 2만명의 미 고문들과 막대한 군경원(軍經援)으로 지탱은 되고 있지만 미국이 대전(大戰)을 도(賭)하고서라도 적극 개입하지 않는 한 전세의 호전은 기대할 수 없다.

군사작전을 순조롭게 진행하려면 국민들이 단합해서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작금의 남부월남의 사태는 집권층의 세력다툼 종교도간의 충돌, 군중데모로 지장을 받고 있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자유월남을 그대로 존속시켜주는 대지주는 미국이다.

미국은 자유진영의 영도국으로서 어느 지역에서나 독립과 자유를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본분으로 삼고 있다. 미국이 자유월남을 확보하려는 결의를 최근에 입증한 것은 8월초의 통킹만 사건이다.

그런데 월남으로 말한다면 프랑스가 인연이 깊으면서도 현재는 미국에 더욱 의존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대 국간의 시기(猜忌)도 또한 월남 문제해결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그밖에 중공도 한몫 끼고 있어 더욱 착잡(錯雜)해지고 있다. 이 3대국과 월남과의 관계는 2차 대전 후부터 맺어진 것은 아니다.

1428년 레러이가 월남을 독립시킬 때까지 중국의 속령이었으며 18세기 후반부터 프랑스의 세력이 침입하여 2차대전시 한때 일본군이 진주한 때를 제외하고는 2차 대전 종결 직후까지 통치하여 왔다. 1946년 12월 하노이의 무력충돌을 시초로 8년간의 인도차이나 전쟁을 초래 디엔비엔푸의 전투를 절정으로 1954년 7월 21일 제네바에서 휴전을 성립시켰지만 그때부터 17도선을 한계로 월남은 양단(兩斷)의 쓰라림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남북월남은 제각기 정권을 갖게 되었다. 즉 북부월남에는 호지 명을 대통령으로 하는 공산정권, 남부에서는 친미파인 고딘디엠 정권이 수립되었다. 남부에서 프랑스군과 싸운 공산 게릴라는 북쪽으로 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사실은 남부에서 농민으로 가장하고 무기를 탈취하여 1957년에 폭동을 일으켰다. 6년간 공비들은 13,000명의 촌락지도자들을 살해하였다. 월맹으로부터 공산군간부가 침투하여 촌락청년들을 세뇌공작함으로써 공비의 수는 증가하였다.

1959년부터 3년간 공비의 수는 3,000명에서 23,000명으로 증가하여 고딘디엠 대통령은 사이공에 있는 미 군사 고문단의 수를 증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미국은 월남에 고문 천명을 파견하였다.

1961년 6월에는 스탠포드 대학의 스테이리 교수를 파견해서 스테이리 계획을 입안시키고 7월에는 대 게릴라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고딘디엠 정권을 본격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베트콩의 세력은 약화되지 않아 미국은 10월에 테일러 대통령군사고문을 파견했으며 12월에는 헬리콥터 12개 중대를 파견하였다.

스테이리 계획에 의하면 제1단계는 62년 말까지 1년 반 내에 군사소탕작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민들을 베트콩과 격리시키는 전략촌 이라는 새로운 공동사회를 전국에 건설하고 제2단계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제3단계는 월맹과 대결시키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미 군사 고문단들은 최전선에서 실지로 지도하고 정부군의 토벌 지점으로의 공수에 종사함으로써 많은 작전상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이 때문에 62년 2월 사이공의 하킨스 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미 군사원조사령부가 설치되고 3월부터 일출작전 8월부터 서부평정작전 11월부터 효성(曉星)작전을 전개하여 미군 헬리콥터의 기동력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소탕전으로 62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2만명의 베트콩을 살해하였다.

62년 말 현재 미 군사 고문단의 수는 12,000명의 달하였다. 그러나 고딘디엠 정권에 대한 일반의 불만은 높아가고 62년 2월 27일 정부 공군의 불평분자가 전투기 2대로 대통령 관저를 폭격하였고 대통령은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그밖에 카톨릭 교회의 신자인 고딘디엠 정권은 카톨릭교 신도들을 우대함으로써 이해 항의하는 불교승의 분신자살이 있자 이를 계기로 누적된 불만이 폭발, 후에시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는 8월 21일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불교 사원을 급습 탄압책을 썼으나 11월 1일 두홍반민 장군 지휘 하에 쿠데타가 일어나 고딘디엠 정권이 전복(顚覆) 되고 민 장군을 의장으로 하는 혁명위원회가 집권하였다. 독재자 고딘디엠 대통령과 동생인 실권자 고딘누는 살해되었다.

그러나 민 장군은 행정에 능하지 못하여 국내정세가 더욱 악화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자유선거를 가급적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년 1월 30일 한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였다. 이 쿠데타는 무혈혁명이었으며 민 장군을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앉혔다. 칸 장군은 35명의 군사위원의 협력을 받고 국가를 통치하였으며 자기 자신은 수상이 되었다. 사태는 호전되지 않았으며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베트콩은 더욱 대담하여지고 강화 되었다.

달이 갈수록 월남에서 잃는 미국인들의 생명은 늘어났다. 정치적으로도 칸수상은 난처해졌다. 대중의 지지를 받는데 실정(失政)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이공에서는 그의 정권을 타도 하려는 새로운 쿠데타 설이 돌았다. 이런 불안한 환경에서 8월 2일에는 돌발 사건이 통킹만 해서 발생하였다.

동일 아침 미 제 7함대 소속 구축함 매독스 호는 북부 월남 태안에서 20 km 떨어진 수역을 15 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그 사명은 북부 월맹에서 베트콩의 군대 및 보급 물자를 수송하고 있는 정크의 동향을 보고 하는 것이었다. 오전 10시 매독스 호의 함장은 7 5척의 월맹 정크와 소련제 어뢰정 3척을 발견하였다.

매독스 선장은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바꾸었다. 오후 0시 30분 매독스 호는 레이더로 16km 떨어진 지점에 2척의 새로운 함선이 출연한 것을 알려주었다. 오후 2시 40분 정체불명의 목표가 고속으로 접근하여 40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매독스호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오후 3시 8분 어뢰정은 9,000 미터나 접근하였다. 매독스호는 세발의 경포(警砲)를 발사 하였는데 어뢰정 가운데 2척은 5,000m의 위치에서 어뢰를 발사하였다. 매독스호는 방향을 바꾸어 피해를 입지 않았다. 공중지원을 받은 매독스호는 5인치 포로 어뢰정을 공격 1척을 격파하였으며 2척은 도주하였다.

존슨 대통령은 초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차 공격을 받으면 단호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8월 3일에는 하노이 정권에 항의각서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틀 후인 4일에도 월맹의 어뢰정은 역시 공해상에서 초개 중인 매독스호와 씨터너조이호를 공격하였다. 3시간 이상 해전이 계속 되었으며 어뢰정 2척이 침몰, 나머지는 격파당하여 도주하였다.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서 협의를 마친 존슨 미국 대통령은 8월 4일 오후 11시 30분 텔레비전을 통해 미군에 반격행동을 명령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미 함재기들은 4개소의 월맹 어뢰정기지 공격도상에 있었다.

4시간의 공격으로 어뢰정 30척 중 25척을 격파하고 대공진지 7개소를 침묵시켰으며 연료저장소 1개소를 90%파괴하였다. 미국은 동남아 군사력을 증강하고 미군부대에 경계태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존슨 대통령은 전화의 확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며 스티븐스대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석상에서 계획적인 침략에 대한 한정된 반격임을 강조하였다.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서방동맹국은 존슨 대통령의 서약을 지지하였다.

한편 소련과 중공의 반응은 약간 막연한 비난에 그쳤다. 8월 7일 미국상하양원은 미국의 반격을 지지하고 이 이상의 전략을 저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기로 결정한 의결 등을 압도적 다수표로 가결하였다.

한편 월남의 구엔칸 수상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종래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버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태업과 데모는 금지되고 신문검열과 야간통금이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정당과 학생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학생들의 데모 위협에도 불구하고 칸 수상은 8월 6일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하여 강력한 권한을 갖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임시헌법을 채택, 선포하고 민장군을 거세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불만은 즉시 표면화하여 후에시에서 최초로 반정부

데모를 벌이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비난하는 전례 없는 태도를 나타냈다. 다음날인 20일 후에 시에서 불교도들이 회합하여 독재와 불교도탄압을 규탄했으며 21일에는 학생 데모가 여러 도시로 번졌다.

방송국, 공보성 건물에까지 난입하는 데모의 포동화로 8월 25일 칸 장군은 대통령직을 취임하고 임시헌법을 철회함으로써 불교도와 학생들의 요구에 굴하였다. 그러나 칸장군을 대체할 인물이 없어 칸, 민, 키엠 3장군의 삼두지도체제가 군사혁명위원회해체에 뒤이어 수립되었다.

이 새로운 지도체제는 국민회의가 소집되고 신국가원수가 선출되기까지 2개월간의 공백 기간을 메우게 되어있다. 그리고 신 수상서리에는 하버드대학출신의 경제학자인 친미파인사 오안 재정담당부수상이 임명되었다. 이와 같은 정국의 혼란은 대공작전을 적어도 2개월간 후퇴시킨 것이다.

일선군대의 사기가 저하되고, 지방당국의 기능이 마비되어 무법천지나 다름없이 되자 다급해지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테일러 대사를 통하여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고 칸 장군을 권력의 자리에 다시 복귀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칸 장군 없는 월남군의 효과적인 동원은 어렵다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다. 러스크 장관도 칸 장군의 복귀를 희망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하고 공산 측의 압력이 있는 한 어떠한 협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재천명하였다.

가을이 되면 열렬히 자유월남에서 베트콩의 정세가 심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통킹만 사건직후에 순치(脣齒)지간이라고 말하고 적극지원을 약속한 중공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월남의 귀추(歸趨)는 좌우될 것이다. 중공군은 대병력을 월맹국경에 결집시키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해공 군에 있어서는 비교도 안 되지만 지리적으로 보아 대 지상병력을 투입시킬 수 있는 이점을 중공은 갖고 있다. 당부 난은 남부월남에 있는 공비들에 대한 보급을 일층 강화하는 한편 월맹군을 침투시켜 전투를 약화시킨 다음 그래도 승산이 없는 경우 월맹군정규군이 17도선을 남하하는 전법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이 경우 미군은 부득이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새로운 대전을 촉발시키기 마련이다. 통킹만 사건으로 힘의 균형은 달라졌다. 앞으로 양자전화(兩者戰和) 중 택일할 사람은 중공의 모택동이다.

상경하애 정신으로
경례군기 바로잡자

특집 · 한국적 군인상의 발견을 위하여

8·15광복에 이어 창설된 우리 국군은 역사도 일천하거니와 성장과정에 있어서도 초창기에 받은 외적 영향을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해 아직껏 한국군 특유의 모습을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제 세계적 막강을 자랑하고 대외 군사원조로 세계에 떨치는 우리 국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우리들 자신의 모습과 특질을 밝혀 찾고, 정리하고 확립하는 일이 시급함을 느낀다.

화랑도의 정신적 바탕

- 그의 근본이념과 현대적 의의 -

이상옥(李相玉)
<국학대학 교수>

화랑은 봉사와 도의(道義)교육을 목표로 국가에 임하였고 유교와 도교정신위에 불교의 이념이 합친 건국적 지도이념을 그 정신적 바탕으로 하였다.

1. 화랑의 시초

우리는 군인정신의 기본을 멀리 화랑의 지도이념에서 추출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 그 화랑정신이라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기왕에 발표하여 새삼 신론이 나올 리 없겠으나 필자는 화랑정신과 한국 군인들과의 관련을 현대적 감각에서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겠는가를 사적 입장에서 기술하려하며 아울러 이것이 우리나라 군인들의 정신적인 양식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하다.

기록상에 나타난 화랑의 시초를 보면 「삼국사기」 신라 진흥왕 37년조에 남모, 준정의 설화가 나타난다. 거기에 의하면 처음에는 원화라 하여 여자(소녀) 단장이 낭도를 통솔하였다는데 남모, 준정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여 모함으로 인해 두 여자를 폐하고 소년 중에서 덕망 있고 협동정신과 용맹성이 있는 자를 뽑아 화랑이란 명칭으로 했다고 한다. 또 「삼국유사」 미시랑 전에 보면 '대왕이 명을 내리어 원화(원화와 동일)를 폐한지 여러 해 만에 다시 국가를 부흥케 하자면 풍월의 도를 먼저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자, 이에 다시 명을 내리어 양가남자의 덕행 있는 이를 선정하여 화랑이라 일컫고 비로소 벽원랑을 받들어 국선을 삼으니 이것이 화랑국선의 시초이다 운운'이라고 하여 남모, 준정의 화랑설화를 뒷받침해 줌으로써 화랑의 시초가 이때 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 보다 앞선 진흥왕 23년(562) 왕은 국토확장의 일책으로 고령에 있는 대가야를 정토(征討)함에 이찬 이사부에 명하여 출사토록 했ㄷ. 이때 16세의 소년 화랑 사다함이 적진으로 돌격하여 성문을 뚫고 들어가 발군의 공을 세우고 개선한 일이 있다. 이것으로 보면 이미 진흥왕 37년(576) 이전에 화랑제도가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상당히 후대에 기술 편찬된 동국통감에는'진흥왕 원년(540) 신라에서 동남으로 용의(容儀)가 단정한 자를 가리어 풍월주라 이름 짓고 선사(善士)를 구하여 그 무리를 삼았다.'라는 사료에 의한다면 저간의 설을 더욱 신빙성 있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래서 신채호선생 같은 분은 진흥왕시대보다 훨씬 앞선 삼국초기에 이미 신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또 삼국(고구려, 백제, 신라)이 공통으로 시행하였다고 까지 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확실히 믿기는 어렵겠으나 진흥왕 초로 그 연원을 더듬어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화랑이 신라뿐 아니라 고구려, 백제에도 있었다는데 고구려에는 조의선인(皂衣先人)이란 존재가 신라의 화랑과 유사한 것이며 백제에 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어 상고할 바가 없는 것이다.

신라의 화랑도는 일명 풍월도, 풍류도, 국선도, 원화도라고도 하여 그 명칭에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심을 단련하고 도의의 교양을 쌓아 인간 사회생활의 규범을 교육하여 국가의 유능한 인재로서의 모든 조건을 구비케 하여 일단 유사시에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협동정신, 신의, 용맹성을 함양하는 데에 그 근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랑의 시초는 진흥왕초로 봄이 가장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2. 화랑의 사상적 근거

그러면 이와 같은 건실한 이념하에서 기원한 화랑도의 사상적 근거와 그 배경은 어떠한 것이다. 화랑도는 진흥왕때 민간의 청소년들의 수양 단체로서 처음엔 용모 단정한 여성을 단장(원화)으로 하던 원화도를 폐하고 연소청년 미모의 남성을 단장으로 하여 화랑도가 구성되어 도의(道義)정신에 입각한 군사방면의 활약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다.

원래 신라는 씨족제도가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통한 협동 정신이 강력히 나타났다. 신라는 지리적인 연계성으로 인하여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발전해 왔다. 말하자면 산세에 영향을 입어 대천의 기상과 단결력의 과시를 마음껏 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 정치, 경제, 군사방면 등에 이르기까지 화합충성의 덕을 존중하고 무용(武勇)의 기쁨과 국토와 군장(君長)에 대한 숭배의 사념(思念), 쾌활, 명랑, 담백, 청결심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렬히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라 산천초목, 암석 등 수려하고 무한한 기상을 발휘할 자연에 대한 환희와 경건심을 쌓았다. 신라는 부족국가시대

화랑도의 조직표

국선화랑(일명정도) →	화랑(3.4-7.8명) →	문호(門戶)(10-15명) →	낭도(500-1,000명)
(총지휘자)	(지휘장급)	(지휘참모부)	(도졸(徒卒))

부터 원시적이나마 민주적인 기풍과 사회적 기조를 누구나 마음속에 아로새기게 했다. 이와 같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기상과 이념이 화랑도를 낳게 하였다. 환언하면 화랑도의 근본사상이라면 민족고유의 전통과 신앙에서 연유 했다고 본다. 그 전통과 신앙을 잘 표현한 글로서는 「삼국사기」에도 인용한 바 있는 최치원의 난랑비서(鸞郎碑序)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나라의 현묘한 도가 있으니 이를 일컫되 풍류(風流)라 설교의 근원이 선사(仙史)에 상비(詳備) 하였으니 실로 3교를 모두 포함하고 군생(群生)을 접화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입(入)하면 효하고 출(出)하면 나라에 충 하였으니 노사구(魯司寇)의 지(旨)이며 무위(無爲) 한일에 처하여 교를 행하였으니 주주사(周柱史)의 종(宗)이묘 제악을 짓지 아니하고 제선을 봉행하였으니 축건태자(竺乾太子)의 화이다 운운'이라고 한 것을 잠깐 엿본다면 화랑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현묘한 도리가 숨어 있는 것이며 그 근원이 선사에 상비 했다고 지칭하고 있으니 이는 3교를 포함하여 군생(群生)을 교육하는 것이다.

3교는 공자의 유교와 노장의 도교, 석가의 불교를 한데 하모니 하여 교훈적 바탕을 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화랑은 입(入)하면 효하고 출(出)하면 충 한다고 했으니 집에 들어와서는 그 배운 바를 본받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가서는 국가의 충성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일정한 수양 과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수양 과업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상마이도의(相磨以道義) 즉 서로 도의를 닦고 마음의 수양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이성도야(理性陶冶)를 말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서로 시가와 음악을 즐기는 것 즉 상열이가락(相悅以歌樂) 한다는 것으로 도의를 연마하면서 음악과 시가를 읊으며 산수에 묻혀 정서적인 면을 함양 시킨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명산대천에서 유락 하는 것이니 유오산수(遊娛山水), 무원부지(無遠不至)이라고 하여 도의와 가락을 즐기며 심신을 마음껏 단련하고 연마하여 국가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서 도중(徒中)에서 우량분자를 선택하여 조정해 천거하고 유사시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 그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심혈을 경주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곧 무사도와 기사도 정신을 배양, 발휘되도록 하였다. 비록 나이어린 청소년들의 인격수양 단체라고는 하지만 성인이 따르지 못할 훌륭한 인격과 덕망을 구유하고 있었다.

처음엔 유교적 사상을 기초로 하여 국가 사회에 봉사하고 희생적이고 정신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유사시에는 종군 출전하여 국토수호의 역군이 되기도 하고 입산 기도하여 더욱 수양과 덕망, 학식을 쌓는가 하면 신의를 생명처럼 여기여 올바른 일이 아니면 어떠한 압력,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를 이행치 않으며 전쟁에 나아가서는 신의를 지켜 동료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아니하였다. 이들 화랑에게 감화(感化)시킨 가장 큰 계율이라면 원광법사(圓光法師)의 세속오계(世俗五戒)라는 것이다.

원광법사는 화랑 귀산과 취항의 스승이었는데 항시 그는 화랑에게 다음과 같은 5계를 가르치어 그들의 지기(志氣)를 굳건하게 하였다. 나중에 이것이 전체 화랑의 지도이념이 되었다.

① 사군이충(事君以忠)
② 사친이효(事親以孝)
③ 교우이신(交友以信)
④ 임전무퇴(臨戰無退)
⑤ 살생유택(殺生有擇)

이상의 다섯 가지가 곧 그것이다. ①은 임금을 섬기되 충성되게 하라. ②는 어버이를 효도로 섬기라. ③은 친우와 교제하며 믿음으로서 하라. ④는 전쟁에 나가 물러나지 말라. ⑤는 생물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종합적인 이념과 그 정신적인 바탕을 본다면 충, 효, 신, 용, 인의 다섯 가지를 잘 지키고 꼭 이행하여 그대들이(화랑) 몸소 궁행(躬行)하라는 가르침이었다.

원광법사는 승려이면서 불교에 만 치우쳐 가르치지 않고 임금에 신하요 아들이 된 자는 부처의 계시를 잘 지키기 어렵다고 하여 세속적인 개요를 가르쳐 현실에 입각한 국가전체주의를 외치고 실행토록 하였던 것이다. 몸소 실천한 한 가지 예를 화랑 귀산과 취항에게서 서 얻어 볼 수 있다. 두 사람은 백제(百濟)와의 싸움에 나아가 한 사람이 죽게 되자 이어 곧 또 다른 사람이 나아가 그를 구하느라고 진땀을 흘리다가 자기도 그 전장에서 장렬한 죽음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곧 임전무퇴의 정신을 몸소 궁행(躬行)하였던 것이다. 전쟁에 나가 후퇴하게 되면 차라리 자결을 할지언정 후퇴 한다든지 포로로 되지 않았던 것이다. 두 사람은 신의를 몹시 존중하였다. 또 한 사람 화랑 사다함(斯多含)이 대가야를 칠 때 발군의 공을 세운 후 그와 평소에 사귀던 무관랑(武官郎)이 죽음에 그도 7일간이나 먹지 않고 울다가 아사 했다고 하니 신의의 도수가 얼마나 강렬했던가를 가희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대적인 감각에서 볼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핀잔을 보내겠으나 그 굳건한 정신, 국가적인 의무감, 사명감 절대 복종한다는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군인이라면 마땅히 본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화랑도들은 한 가지 유익하고 굳건한 가르침을 받았으면 지체하지 않고 궁행 실천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오계이외에도 국선(國仙) 응렴(膺廉)의 삼미행 즉, 겸손, 검소, 근엄을 지켰으니 일을 처신삼행이라고 부른다. 화랑도의 지도이념은 오계삼행을 바탕으로 하였으니 지(知)는 곧 행(行)을 수반해야하며 행에는 반드시 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방향지(方向知)와 방향행(方向行)이 병행해야만 했던 것이다.

신라인의 지도이념이 곧 화랑의 이념이었으니 신라인은 화랑정신을 구유(俱有)했다고 보겠다. 화랑은 봉사와 도의 교육을 목표로 하여 국가에 임하였으니 화랑은 유교정신, 도교정신 위에 불교의 이념이 합친 건국적 지도 이념을 그 정신적 바탕으로 삼았던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신라가 통삼(統三)의 위업을 속히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화랑도가 무리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현대적 음미(吟味)

신라시대의 화랑도들은 이미 없어지고 말았으나 그들이 남기고 간 오계삼행의 정신과 협동, 신의, 용맹성의 기본이념은 그 후 연면이 계속되어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전통과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유사시에는 독립, 자유, 애국의 정신으로 표현되고 존속하여 온 것이다.

화랑의 국가적인 목적이란 ① 국토방위요 국위선양에 있으니 나라의 어떠한 형태의 위급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일신의 안일을 걷어차고 방어전선으로 나가 국가의 위신을 유지케 하며 ② 상무적 기품의 진작과 민족통일의 정신을 길러 항시 개어(皆禦)의 태세를 갖추어 민족적인 기상을 불러일으키며 그럼으로 인하여 민족통일의 대업을 이룩해야 할 것이고, ③ 대사(大死)에 희생할 봉공기사(奉公棄私)의 정신을 발휘하여 민족적인 양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그 현대적인 감각을 맛 볼 수 있겠다. 그들은 국가와 지기의 안녕을 위해 죽고 의에 살고 죽는다. 장부는 병(兵)에 임하여 죽고 자주지심, 자립과 특지지기(特志之氣)를 닦는 데에 화랑정신 즉 군인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다만 화랑도의 근본사상은 그 형태 풍속 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하나 우리 군인들은 이 정신을 길이 받들고 지켜서 굳건한 내일에의 빛나는 이 나라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특집 · 한국적 군인상의 발견을 위하여

역사를 통해 본 한국적 군인정신

조국 앞에 지충지성, 임전해서 유진무퇴하며 등을 결코 적에게 보이지 않고 시사여귀(視死如歸)한다는 정신이 곧 한국적 군인정신이었다.

이선근(李瑄根)
〈문학박사〉

1. 우리국토와 민족성

산속에 있는 사람이 얼핏 그 산이 아름답고 웅장함을 깨닫기 어렵듯이 우리국토 한반도에 태어나서 내 고향을 지키고만 살아온 일반국민들은 이웃나라 국민들이 왜 우리국토를 가르쳐 옛날부터 금수강산이라고 일컬었는지 얼핏 이해 못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루아침에 이 나라를 떠나서 멀고 가까운 인방과 이국을 살펴볼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국토가 세계에 드문 금수강산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니 우선 세계지도 앞에 고요히 앉아 우리국토를 다시금 더듬어 보라.

아세아 대륙의 동북에 우뚝 솟구친 백두산 영봉을 주산으로 삼고 동남으로 뻗친 그 줄기가 한반도를 이룩하여 삼면이 바다인데 대소항만은 부지기수요 내륙에는 이곳저곳의 명산대천이 산고(山高) 수려(水麗)를 자랑하며, 유곡(幽谷)과 구릉과 옥야(沃野)를 아름답고도 적적하게 누볐으니 창공을 날며 굽어볼 때 뉘라서 금수강산이라 아니할 것이냐.

더구나 이러한 금수강산이 북온대의 요충을 차지하여 불한(不寒), 불열(不熱)하고 춘하추동의 사계도 분명한데 우순(雨順)풍조(風調)하며 청우(晴雨)건습(乾濕)의 도가 모든 생물의 발육에 적합한 터이라 지상에는 오곡백화(五穀百禾)가 씨만 뿌리면 무성하고 지하의 금은동철, 석탄 등 각종 광상(鑛床)이며 내하 연해의 풍부한 어족과 수산자원도 거의 무진장이니 천부의 혜택을 드높게 자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 숨 쉬고 생활하는 인간과 그 자손들에게는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하고 또 수호하고 싶은 것이 우리국토이요 이웃에 살면서 때로 넘겨다보는 이민족에게는 언제나 탐욕침탈의 대상으로 비치는 것이 우리국토이기도 하였다. 그렇기에 이 국토를 사랑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은 아득한 옛날부터 남다른 품성과 전통을 간직해온 것이 사실이다.

첫째, 내 나라의 기후풍토가 남달리 청명하고도 아름답기에 우리미족의 본성은 언제나 광명정대함을 좋아하고 음침 비굴함을 싫어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를 가르쳐 한겨레라고 일컬어 왔으니 이 한겨레라고 일컬음은 결코 단일민족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일례를 들면 고사에 나타나는 황인, 환웅의 환(桓)이라든가 혹은 삼한의 한도 결국은 우리말 한의 음역에 불과하였으니 우리말의 한은 한자의 일(一)과 같은 하나만이 아니요 매우 큰 것과 또 밝은 것을 의미한다. 즉 한울 천의 한이나, 한밭 대전의 한은 매우 큰 것을 의미하고 한빛의 한은 밝은 빛 즉 광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말의 한겨레나 한나라는 한문자의 일 민족이나 일 국가 따위의 좁은 뜻만이 아니요 광명정대한 민족이요 국가라는 것을 의미함이니 우리 민족의 이러한 정신과 자부심은 한누리인 밝은 세계 즉 문화세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온 것도 사실이었다.

둘째, 내 나라 금수강산이 지상지하와 내륙연해의 천연자원을 풍부히 간직하며 인간의 생활과 가축의 사료(飼料)에까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근신(謹愼) 자수(自守)하며 평화를 애호하되 결코 남의 것을 탐내며 침해하지 않았다. 인방의 사서인 「위지」의 소술(所述)을 빌려보면 고대 우리 부여국민의 성격을 설명하여 '그 국인의 천성이 강용하되 근후하여 남을 구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 말을 되풀이하여 보면 백두산 정기를 타고난 우리민족의 천성이 강하고 용감하지만 아름다운 내 국토 안에서 광명정대한 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근신 자수하고도 후덕하여 타국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니 우리민족의 천성이 그 얼마나 훌하였더냐.

셋째, 우리국토를 세분해 보면 허다한 청산녹수가 허다한 계곡과 구릉과 평야를 형성하여 이러한 지리조건이 다수한 부족사회나 부족국가를 형성함에 알맞을지언정 큼직한 통일국가를 형성하기에는 얼핏 보아 부적당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대목거수의 천지만엽만을 보고 그 근간의 하나임은 못 본 것이나 마찬가지로 백두산영봉의 줄기찬 정기와 혈맥이 한반도의 근간으로 뻗쳐 천산만곡을 혼연일체로 조화 통합한 점에 어둔 때문이며 인문의 발달이 자연지리의 소구분을 쉽게 극복한다는 점에 어둔 때문이니 실상을 따라보면 우리민족은 분산 난립에서 일직부터 통합단결의 길을 걸어온 것이 사실이었다.

상고시대의 부여, 옥저, 예, 맥, 마한, 진한, 변한 등등의 열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으로 차츰 정리 병립되고 이것이 다신 신라와 발해의 남북조로 병립되었다가 결국에는 고려조로 통합되어 근세조선(이조)의 말엽까지 어느덧 천년의 단일민족 국가를 형성할 수 있었으니 때로 이방 타민족의 침략과 방해가 심각한 바 있었으나 그때그때 이를 억세게 격퇴 배제하면서 한결같이 자주통일의 대도를 걸어온 것도 정녕 우리민족이었다.

따라서 이상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한반도 우리국토에서 우리민족이 저러한 천성과 전통을 발휘해온 것은 결코 일조일석의 우연한 사실이 아니었으니 이 때문에 세계만방은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를 가리켜 자주통일기의 국호인 고려=Korea를 변치 않고 그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더냐. 마치 중국천하가 진나라 때에 통일되었다 하며 그 자체의 중국은 몇 차례 변했지만 세계 열국이 오늘에도 Chin=China라고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이…….

2. 우리나라의 전사(戰史)와 그 특징

우리 국토와 민족성이 저러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은 전쟁사는 다른 나라의 그것에 비하여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외에서 우리민족을 이방 타족을 선공 침해하는 침략전쟁을 수행해 본 적이 없는 만큼 우리가 치른 전쟁은 매양 외적의 기습침공에서 내 국토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전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외항쟁의 전사는 언제나 그 모습이 처참 가열했으니 다름 아니요 서공 기습해 오는 적의 예봉 앞에 불리했던 서전(緖戰)의 피해와 치욕을 만회(挽回)하기 위하여 억세고 줄기찬 반격을 기도함이 상례였기 때문에 그 모습은 스스로 처참 가열하여

언제나 적아쌍방의 재산에 손실 막대하였다. 고구려의 대수전역이 백만의 적군을 맞이하며 요하의 국경선에서 평양까지 후퇴했다가 드디어 살수의 일전에서 적의 주력을 격파하고 국권 국토를 안보할 수 있었으며 그 후의 대당전에 있어서도 당태종의 십만 대군을 맞이하여 안시성까지 후퇴하였다가 백절불굴의 용성전을 지속한 나머지 드디어 적군을 격퇴할 수 있었고 근세왕조의 임진왜란에서는 도해 침입한 삼십만 왜적 앞에 이삭(二朔)이 못가서 팔도강산이 거의 도륙당하고 국왕과 정부가 의주 고성까지 피난을 부득이했다가도 줄기찬 반격아래 일진일퇴, 7년 항전을 지속한 다음 결국 그 왜적을 격퇴할 수 있었으니 그때그때의 희생과 손해가 그 얼마나 처절하고도 심각했더냐. 그렇다고 끝끝내는 승리하고야만 것이 우리겨레가 겪은 누차의 방어전이기도 하였다.

둘째, 대내에서 우리민족은 자주통일을 위한 전쟁을 부득이 겪었다. 이는 주로 삼국시대의 일이니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병립하여 한동안 계속했던 전쟁은 실로 이 민족의 통일대업을 위한 불가피의 비극이요 희생이기도 하였다.

셋째, 우리나라가 겪은 전쟁사의 종합적인 특징인 국토방위를 위한 대외항쟁이든 통일대업을 위한 동족전쟁이든 간에 이방 타민족에 비하여 전쟁의 빈도가 가장 적었다는 사실이요 그와 동시에 서구제국이 치른 삼십년 전쟁이니 혹은 백년전쟁 같은 장기전이 없었다는 사실이니 이는 우리민족의 천성이 평화를 애호했던 때문이라고 간주될 수밖에 없다.

3. 한국적 군인정신과 그 혈맥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한고 국토와 민족성과 그들이 겪은 전쟁사의 특징을 떠나서 군인정신은 논의될 수 없으니 한국적인 군인정신도 우리겨레가 겪은 전쟁사를 통해서만 이를 찾을 수 있고 이를 엿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가 겪은 큰 전쟁이 거의 대부분 외적의 선공 기습에서 금수강산 내 국토를 수호하자는 방어전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 군대의 성격은 언제나 국민군(National Armed Forces)의 성격을 띄었음이 사실이었다. 근대이전의 중국 일본과 서구제국의 무사, 기사나 군대가 국민대중의 생명, 재산을 수호하기 위해서보다도 흔히 봉건제후의 명리와 탐욕 앞에 충성을 다한 것과는 달리 언제나 국토와 국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궐기하고 또 항쟁하였다.

그렇기에 고래로 우리나라 청장년들은 하루아침에

무사로서 등록하게 되며 그 몸이 가향에 있든 진중에 있든 간에 항시 무예를 연마하며 심신을 수련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다가 일조유사(一朝有事)하여 전선에 나설 경우에는 시사여귀, 생명 재산을 홍모(鴻毛)에 비기우고 끝까지 용전감투하는 것이 상례의 불문율로 되어왔다. 예를 들면 고구려의 선비=조의선인이 그것이니 고구려의 무사들은 검박한 조의=검은 옷으로 몸차림하고 가향에 처했을 적에는 언제나 향당부로에 대신하여 장례, 치도(治道), 축성, 준구(浚溝) 등의 노역을 자진 담당하다가도 적침의 경보 있어 명령이 일하(一下)하면 한동안의 식량까지 자력으로 부담하고 출전 감투(敢鬪)하는 것이 상례였다. 따라서 그들의 견인불발(堅忍不拔)한 국민적 투지는 언제나 소수의 병력을 가지고도 적의 대군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이니 수, 당 양대 제국과의 엄청난 대전에서 고구려가 승리한 것도 기실은 이러한 군대의 사기와 정신이 왕성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점은 신라의 화랑과 낭도들도 마찬가지였으니 특히 화랑의 오계에 나타난 임전무퇴(臨戰無退)와 살생유택(殺生有擇)의 군인정신은 어디까지나 한국적인 특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적침 앞에 만일에라도 후퇴하게 되면 국토와 국민이 패망의 참상을 모면할 수 없게 되니 그 어찌 일보라도 후퇴할 것이며 본성이 평화를 애호하는 민족인데 통일대업을 위한 민족전쟁도 부득이 하게 되었으니 그 어찌 함부로 생명을 살상할 것이냐. 전쟁 아닌 평상시에 가금(家禽)주수(走獸)를 포살(捕殺)할 경우에도 그들은 생식(生殖), 산란의 시기를 피하며 남살(濫殺)을 삼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대의를 위해 살고 대의를 위해 죽었다. 청렴결백하여 그 의가 아니면 비록 천금의 이에도 부동심이라 하였고 사(士)는 지기(知己)자를 위해 죽든지 혹은 전쟁 마당에서 죽을지언정 결코 병들어 상석(床席)에서 죽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 모든 기풍이 대의를 존중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삼국시대의 이러한 군인정신과 군인기풍은 고려시대에도 변함없이 계승되었고 이조의 임진왜란에 이르러 불사조의 혼백처럼 다시금 드높게 발휘되었다. 그중에서도 측히 충무공 이순신의 위대한 생애에서 유감없이 발로(發露)되었으니 이순신은 오로지 위난의 조국을 광구(匡救)한다는 대의에서 살다가 그 대의를 위해 생명도 홍모(鴻毛)처럼 바쳤다.

왜적의 대거 기습아래 조국의 명맥이 풍전등화 같것마는 지배계급의 정치군상들은 피난보따리의 창황한 도상에서도 당파싸움 감투싸움 만에 열중했는지라 그는 이따위 군상들을 애당초 상대 아니하고 구국의 대작전에만 열중하였다. 그렇기에 그는 오로지 서해 어룡동(誓海魚龍動)이요 맹산초목지(盟山草木知)라는 인명으로 그 자신을 달래였다. 그리하여

한산도의 대전첩(大戰捷)으로 기도(旣倒)의 국운을 만회(挽回)했음에 불구하고 원균의 모함아래 매국노의 낙인까지 찍혀 죽을번 하다가 백의종군의 치욕도 무던했건마는 일언반사의 불평도 토로하지 않고 원균 패전 후의 망지소조(罔知所措)한 조국을 위해서는 묵묵히 재기 봉공할 수 있었으며 마침내는 노량의 대전으로 왜적을 완전히 격퇴하는 순간 유탄에 맞아 최후의 숨을 거두되 "전투가 바야흐로 무르익어가니 삼가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말고 독전을 계속하라"는 일언을 남길 뿐이었으니 진실로 거룩하고도 위대한 한국적 군인정신의 도표(道標)가 아닐 수 없다. 영제국이라는 조국을 위하여 연전연승하므로 국가의 최고영예를 획득하고 다시금 싸우다가 트라팔가의 해전에서 전몰하게 되던 넬슨제독은 나의 의무를 다했다는 최후를 남겼거니 이는 당연한 인과였다고 하겠지만 우리 충무공에 대한 천부당만부당의 모욕과 그 자신의 거룩한 최후는 그 얼마나 현격(懸隔)하냐. 넬슨의 최후에서 발로된 그 정신을 서구적 군인정신의 표본이라고 일컫는다면 충무공의 최후에서 발로된 그 정신이야말로 정녕 한국적인 군인정신의 거룩한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조국 앞에 지충(至忠), 지성(至誠), 임전해서는 유진무퇴하며 등을 결코 적에게 보이지 않고 시사여귀(視死如歸)한다는 그 정신이 곧 한국적 군인정신이니 이러한 정신과 그 혈맥은 아직도 우리들 속에 맥맥히 흘러 쉬지 않는다.

필자는 일찍이 정훈업무를 담당하여 종군 참전했을 적에 다음과 같은 대조적인 두 가지 사실을 체험했다.

첫째, 공산적군의 대거불법남침아래 우리 국군이 부득이 도강 남하할 때 수원근처에서 생긴 일인데 강행군 도중의 사병이 심한 기갈을 면하기 위하여 노변의 참외 밭에서 참외 한 개를 무단히 따 먹게 되자 이를 목도(目睹)한 소대장이 그 병사를 꾸짖되 "그대가 군인으로서 아무리 목이 타도 어찌 주인 없는 밭에서 함부로 참외를 따먹을 것이냐"외치며 상당한 엄벌에 처했다.

둘째, 대구시절에 UN군이 초빙해온 정훈의 고문관 X박사를 만나서 간담(懇談)할 때 팔자 묻기를 "전선에 나선 UN군의 사기는 그 무슨 방법으로 앙양시키느냐"고 했더니 X박사 한참 만에 대답하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봉급을 주며 가장 풍부한 식량과 기타의 보급물자를 제공하므로 사기를 앙양 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다. 이러한 답변에 필자는 우리국민의 모습을 돌아보며 한때 어안이 벙벙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필자는 스스로 가만히 외쳤다. 참외 한 개를 무단히 따먹은 부하를 엄책하는 한국적 군인정신이 아직도 왕성하기에 우리 국민은 주먹밥 하나도 변변히 못 먹으면서 저러한 UN군과 어깨를 같이하여 힘차게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근조선의 중문경무(重文輕武)사상(思想)과 군(軍)

군인의 주가는 전쟁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시에는 너무나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채 화제 화 되지 못하여 끝내는 문약에 빠져 군운을 그르친 사례를 남겼다.

이현희(李炫熙)
<인하공대 강사>

1. 고려조의 경무(輕武)관념

고려초로 연원을 찾아 볼 수 있는 중문경무의 사상과 그것으로 인하여 빈번히 야기 되었던 군인의 방향 상실에 대하여 그것을 어떻게 현대적인 감각에서 반성하고 이해해야만 원만한 군인정신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글을 쓰라는 청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받은 어렵고 생각할 제목 밑에 과연 크게 기대할 현문(賢文)이 나올지 적이 의심을 털어 두면서 필자대로의 몇 가지 관견(管見)을 사적인 입장에서 전개 서술할까한다. 이것은 또 한 가지로 지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론의 전개를 장황히 나타내지 못함을 심히 유감으로 안다.

고려시대 뿐 아니라 그 이전 삼국시대로 소급해 더듬어 본다고 하여도 군인의 국가적 의무란 국방에 있었음은 현금이나 크게 차이가 – 형식, 내용 등을 떠나서 – 없다. 특히 군인이 국가에 긴급히 요구될 때는 유사시

즉 전쟁이 유발 되었을 당시의 일이다. 그러므로 군인의 주가는 전쟁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평화 시에는 너무나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채 화제(話題)화 되지 못했음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제 고려조의 무인이 얼마나 정치적인 학대 - 무인의 경멸감을 감수 –를 받았었는가를 인종시대 정중부와 김돈중의 사례에서 지적할 수 있겠다.

고려 인종 11년 겨울 바로 제석 전날 궁중에서는 연례행사의 하나인 나례(儺禮)가 시작되었다. 순서에 따라잡기를 보이게 되었을 때 견용대정(牽龍隊正) 정중부가 종이로 만든 용을 꿈틀거리며 궁정 안으로 들어섰다. 임금이하 태자 만조백관들이 즐비하게 구경하고 박장대소 하였다. 용머리에서 인도하는 대정 정중부는 나의 30이 갓 넘은 청년 무부(巫夫)로서 기골이 장대하며 용모가 헌걸찼다. 둥근 눈을 휘두르며 흰 얼굴에 검은 수염을 점잖게 쓰다듬으면서 사방 한 바퀴를 돌았다. 의식이 끝난 뒤 중앙으로 가 왕께 국궁재배(鞠躬再拜)하고 서서히 물러갔다. 물러서며 뒤로 돌아서 할 때 일진광풍이 불어와 켜 놓았던 촛불이 일시에 꺼졌다. 사람들은 불을 찾으러 웅성되고 있었다. 이때 관중 가운데 삼국사기의 저자이며 유명한 사대가인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 - 내시원 관원 - 은 정중부의 행동이 눈에 차지 않았다.

김돈중은 궁녀들이 촛불을 가지고 오는 것을 한 자루 얻어 가지고 그의 보기 좋게 난 수염의 불을 갔다 대 버렸다. 이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헌데 그들의 대화 가운데서 "무관 놈이 감히 어전에서 시위하는 문관에게 무엄하게 손질하느냐" 하는 것이 나 "무사란 놈이 아니꼽게 무슨 수염을 기르느냐" 한 것 등은 경무사조를 잘 대표하는 말들이다.

이 말은 널리 알려진 사실 이거니와 이로 인하여 무신들은 나중에 문관을 타도하려는 혁명으로 번져가 유명한 최씨에 무단정치가 사상(史上)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숭문 천무정신과 그 사조는 한 세상을 휩쓸게 되어 무인들은 마침내 쿠데타에까지 이르러 구체적으로 국가의 반항하는 비극을 연출하기도 하였으며 동시에 외면당하고 도외시 되었던 무인들의 비전이란 문신들의 전단(專斷)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번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무인 - 군인 - 들의 본연의 임무에서 이탈하여 방향지(方向知)를 망각하고 있었다. 문신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피압당하게 되자 일시적이나마 문신들은 의기를 펴지 못하였다. 그 대신 과거엔 일개 무부(武夫)에 불과했던 자들이 득의지상(得意之狀)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시적이고 사회적인 홍역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다시 정상적인 자기 궤도를 달리기 시작하여 외(外)로는 흉적의 침입

을 막아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믿음직한 자세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천무(賤武) - 혹은 경무 – 관념은 고려 사회와 근조선 사회의 성격이 거의 동일한 것과 같이 조선시대로 내려오면서도 크게 개선 변천 없이 이어 내려오고 있었다.

2. 근대조선의 문운(文運)확립

고려가 망하고 근조선이 새로 건립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이 고려왕조 내부의 제반 제도, 국민생활, 형식 – 사회적 – 규범 같은 것이 전적으로 변천 개조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른바 역성혁명에 불과한 시대적 변모라 해두는 편이 타당할 듯하다.

그리하여 태조 이성계는 구 고려의 국가적인 체제 – 전제군주 국가 –를 그대로 모방, 정책에 반영하였으니 그 한 가지는 고려국민의 환심을 사서 새 왕조에의 협조 복종심을 북돋우려는 정치적 제스처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중문경무 사상만은 반드시 모방만을 위한 모방은 아닐 것이니 이것은 몇 백년간 씻을 수 없는 전제주의 사회내부에서 흠신 젖은 사상적 근원이라고 생각된다. 그는 삼대국시의 하나로 배불숭유 정책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바 있으니 그것은 곧 숭문 사상의 답습과 아울러 근조에서의 강력한 시행에의 재강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뒤 태종을 지나 세종시대에 와서는 내치에도 물론 훌륭한 업적이 있지만 특히 외치에 주력하여 국방에 큰 배려를 보이고 있음으로 보아 약간의 경무사상을 버리고 숭무(?)로의 행진을 했다고 보겠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세종이 영특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흔히 알기에 세종시대는 골든 에이지 즉 황금시대라고 지칭되고 잇지만 세종시대 야인관계를 주 전공으로 삼는 필자는 국내외적으로 가장 혼란과 동요의 시대가 이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세종은 무인을 문인보다 더 우대하였던 것이다.

세조는 단종 복위운동자가 문신출신이 많다고 하여 아예 집현전을 폐지해 버렸으나 문운(文運)을 부흥시키는데 남 못지않는 참회와 재건이 있었다. 그는 발영(拔英), 등준시(登俊試)를 두고 왕이 친히 준걸을 배양하여 국가 유사시에 대비케 하였으며 사서구결을 선집시키고, 몸소 「역학계몽요해」를 작술하고 「동국통감」, 「국조보감」 등을 편집하였다.

그뿐 아니라 천문지리에도 특히 유의하여 규형(窺衡), 인지의(印地儀) 등을 제작하고 불경 연구에 도움을 주는 간행도감을 두어 경서를 편찬 간행하고 일방 원각사도 세웠다. 세조시대는 경무사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문신보다 무신을 총애하였다. 그는 사어(射御)에 능하였을 뿐 아니라 병서에도 통달하였고 더욱이 병학, 무예를 닦는데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었다.

외로는 국방에 크게 주력하여 이시애(李施愛)난의 진압과 양차에 걸친 대여진 정벌 등을 완수하여 오히려 무부다운 기상을 보여 주어 백성의 환심을 사기에 노력하였다. 그것은 너무나 유명한 왕위찬탈사건 때문에 만년에 내심으로는 조심에 조심을 거듭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오위를 확립한 뒤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를 두어 군무를 전담하고 시행하기 어려웠던 오위제를 확립하였다.

근조선 전기에서도 무신과 문신과의 사이에는 좋지 않았음을 보겠으니 남이(南怡)장군의 예를 볼 수 있다. 남이는 태종의 외손 – 선산군남휘의 아들로 일지기 28세의 젊은 나이로 이시애 난을 평정하고 자주 침입해 오는 북방의 여진을 정토하는데 발군의 공이 있었다. 이때 무오사화를 일으키게 한 방본인인 유자광(?~1512)은 세조의 신임을 독차지 하고 있을 때였으나, 그는 아무런 공이 없음을 내심 민망히 여기고 있을 때 후배인 남이가 승승장구 명성을 울리고 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여 임금께 방금 남이가 반란을 꾀하고 있으니 처벌하라고 하여 영의정 강순도 이에 관여하였다는 명목으로 예종 즉위년 10월에 함께 참변을 당하였다. 이것이 비록 타인이 잘되어 감을 보고 시기한 뒤에 일어난 옥사였으나 문신과 무신과의 알지 못할 암투, 반목, 질시로 인한 시한적인 폭발이었다고 생각된다.

어디까지나 씩씩하고 헌걸찬 무신을 중상 모략하던 부패한 문신들의 상투적인 수법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다음 성종은 유교를 치국의 근본으로 삼고 성리학도 번성시켰으며 사예(射藝), 서화도 그 자신이 즐겨했다. 그는 집현전 구제에 따라 홍문관을 두고 용산두모포에 독서당을 세워 청소년들의 문운(文運)을 키웠다. 그밖에 문교정책에는 양현고와 경서 각을 두어 유생들을 길러 냈다. 성종은 압록강고 두만강 방면의 야인들을 정벌하고 내로 문운을 확립하여 명실공히 근조선왕조의 흥륭(興隆)기를 이룩해 놓았다.

이와 같은 문운 융성은 태평의 난숙에 따라 차차 쇠멸(衰滅)해 가기 시작하였다. 고관에서 하급관리에 이르기까지 유흥과 타락의 기풍이 농후하여 회뢰(賄賂)행위가 공공연히 성행되었으며 문운확립의 기수였던 성종도 영흥기생 소춘풍에 빠져 후궁간의 피비린내 나는 암투, 갈등, 시기, 모략, 투쟁, 모함, 질시, 암계, 내홍 등이 일어나서 문신의 부패(腐敗)상을 여실히 나타냈다. 그 실마리는 연산군 때 갑자사화를 일으키게 되어 무고한 사람들의 피와 쟁투를 보이고 말았다. 이런 때 일수록 무인 - 군인

들의 방향의 모색은 더욱 깊고 넓게 사려되고 있었다. 무신과 문신사이에는 양반이요 상놈이요 하는 퇴속적(頹俗的) 풍조를 나타내어 근조(近朝)사회에 있어서의 무인의 방향을 상실케 하였다.

3. 전제군주하의 무인

앞에서도 잠시 논급한 바와 같이 근조선시대 전체를 통관한 정체를 말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전기 고려와 본질상 동일한 전제군주국가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왕은 곧 법이요 왕의 명령이 곧 국가의 명령이 되다시피 하였다. 물론 왕권의 전횡을 다소라도 방지해 보겠다는 것이 삼사의 출현과 그 기능이었다. 다시 말하면 군왕의 통치권과 그 사적인 소유권이 엄격히 구별 실시되지 못하였으며 공법, 사법과 부중(府中), 궁중의 구병을 규정지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국가의 중대한 대내외 정책, 인사문제, 경제 채결문제, 관료의 품의, 중신회의의 의결과 국왕의 재결을 거쳐 육조와 그 소속 어문이 소관의 행정실문에 당하는 계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족(班族)사회의 왕족, 혈연, 공신, 국왕측근자의 정치적 영향이 굉장한 양을 차지하고 있었다. 무인이 국가의 중요정책을 품의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밟아 성립되는 것이 상례겠으나 불안전한 전제적 모순 속에서 하의상달되지 못하였던 것이니, 그 중요 원인을 들어 보면 국왕측근자 중 문신의 작용이 컸기 때문이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전제주의국가에 있어서 국왕의 위치는 관념상으로는 신민의 부모와 같은 존재로서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최고의 통치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왕실을 비롯하여 일부 귀족 신료의 이익과 권욕에 치우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와 풍조가운데서 군인들의 집단적이고 부분적인 조직도 또한 신성한 국방의 의의보다는 고작해야 왕실 호위와 그들의 사병화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이와 같은 사적이고 노예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다.

어디까지나 국가의 권력이 행정 전반에 긍(亘)하는 특정한 세력권을 형성하여 이 밑에서 삼권을 장리(掌理)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왕위계승을 중요시하여 여기서부터 정치적 파란과 우여곡절이 생겨나게 되었다.

국왕 관료기구로서 신료의 충성과 봉사(奉仕)라는 것 – 군인으로서의 국가에 충성심과 표현 – 은 구체적으로 왕실이나 어느 특정인에 대한 그것이 제일의적이며 명분상의 일로 하고 말았다.

관료는 문과 무로 나누워 지는데 문관은 독서인으로

인문적 수양을 요결로 하기에 행정실무 취급에는 전문적 지식이 빈약하며 직위의 고하는 약삭빠르게 타산적이며, 이아(利我)적이나 영리는 그리 대단치 않게 여겼다.

또 무인 – 일반적으로 군인 – 은 분권적 영주제에서 보는 기사, 무사의 유와는 달리 국왕 – 최고 지휘자 – 의 신하로서의 이익을 형성함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 군사의 최고지휘권은 문관 – 문신 –이 장리(掌理)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무백관 등 귀족의 세력은 하나의 단일제를 이루어 왕권을 견제하기로 했으며 중요국사는 중신의 어전회의에서 가결되고 때로는 국왕의 의견과 불일치하여 해결을 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이와 같이 무인의 사회적 지위가 대개 낮았으나 언론은 비교적 개방적이어서 비판과 속언으로 정책적 기조를 이루게도 되었다.

근조선 중기 이후에는 귀족의 세력이 정권욕의 구체화로 되어 분파와 대립상을 일으켜 당쟁과 사화, 옥사 등으로 번져 국가적 혼란만을 야기 시키고 말았다. 근조선 사회의 토지는 국유 – 왕실로서 왕권의 절대성을 이룩하기 때문에 군인들의 혜택도 크게 고려되지 못했음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군제는 복잡 미묘하게 변천과정을 밟아 오는데 여기 제한된 지면으로는 상론할 여지가 없어 생략하고 연면한 군대조직은 1907년 정미군대 해산까지 구제대로 변모해 오다가 일제에 의한 수탈도 조선군대의 진면은 찾아볼 수 없다가 1945년 해방이후 오늘날까지 꾸준한 노력과 국가적 성원으로 강대한 군대가 되었고 오늘날은 경무사상이 대체적으로 없게 되고 말았다.

군은 어디까지나 정치로부터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오직 국토방위와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나가면 그것이 곧 군인의 건실한 미모가 되는 것이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군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이성을 잃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할 정신적 자게가 아니라고 단언(斷言)하고 싶다.

군을 경(輕)하게 보는 태도나 관념은 오직 전제 군왕국가 하에서나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재강조해 둔다.

한국적 군인에의 제언(提言)

군인으로서의 긍지(矜持)를 갖고 성충(誠忠)을 다하며, 기계의 비약적 발전에 따를 수 있는 기능을 연마하고 힘을 쌓는 동시에 군의 순수무잡(純粹無雜)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곧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다.

이형석(李炯錫)
〈전 국방부 정훈국장〉

머리말

오늘날 한국군은 그 정신과 사고방식에 있어서 도한 그 제도, 교육이념, 전술 등에서도 미국적인 것과 일본적인 것 그밖에 외적인 것이 소용돌이 치고 있으니 이러한 현실을 지양, 통일하고 한국군의 독자적인 것을 형성해야 할 노력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수행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제목인데 단적으로 이렇다하기는 힘이 들고 나로서는 경솔하게 말하기도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 바이다. 왜냐하면 외국군의 단장점을 획연(劃然)하게 규제할 수 없을 분더러 한국군의 현실파악도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그저 막연하게 만담식으로 몇마디 말하여 본다면 우리 군인들이 더욱 긍지를 가지고 나라오 겨레에 대한 충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기 위해서는 힘을 더욱 배양하는 동시에 협조정신을 굳게 하고 정치에 초절(超絶)하여야 될 것이라는 당부의 말을 할 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군인의 긍지

년전(年前)에 일본에 가서 자위대를 잠깐 엿본 일이 있는데 제일 느낀 것은 그들의 긍지가 모자란다는 인상이 매우 컸다. 정치가들도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밑이니 만큼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으며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세금의 덩어리라고 욕을 하고 있으니 무리도 아니겠고 또 병사들도 지원제이니만치 구인난인 일본에서 우량한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 리가 없으며 자위대 안에서 기술을 가르치고 이제부터 활용하려고 하면 금시 제대하고 나가서 곧 취직하는 바람에 좋은 기술병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사실을 나의 우인(友人)되는 고급 장령(將領)의 몇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돌아와 우리 한국군인들이 어깨를 쫙 펴고 천공의 일각을 노려보면서 활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후련하여지는 것이었다. 진실로 그네들은 직업군인이요, 우리 군인들은 국민개병제도 밑에 있는 필임(必任)의무병이니 마땅히 높은 긍지를 가져서 당연한 노릇이요, 어찌 감히 세금덩어리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지나간 자유당이나 민주당 정권 때에는 군대라면 곧 착취(搾取)의 대상으로 삼고 군인이라면 곧 비방의 목표로 여기던 국회의원이나 신문기자들이 우글거리던 것을 생각한다면 참으로 격세의 감이 없지 않다. 정치가나 언론인들이 군인을 천대하거나 학대시하는 곳에 군인의 긍지가 싹 틀리 없으며 군인의 자존심이 없는 곳에 강군이 있을 수 없고 정병이 있을 수 없다. 아라비아 사람이나 코사크 사람들이 말을 애지중지하니 명마가 생기는 것이고 수렵가가 개를 사랑하니 명견도 나는 법이 아니겠는가. 평소에 받은 깊은 사고(思顧)에 보답하려는 표정이 용솟음칠 때에 비로써 시사여귀의 용장이 나고 맹사(猛士)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인들은 부디 긍지를 상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의무병으로서 의당 높은 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자고로 군인이라면 가정(家丁), 사병, 용병 밖에는 없음이라는 것이다. 도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나라는 숭문비무의 경향이 많고 무를 경시하는 사상이 현저하다는 것이어서 자칫하면 군인이 아니고 그 밑에 몇 마디 더 붙이기 마련이니 시대사조여하를 막론하고 나는 군인이로다, 국방을 내가 짊어지도 다하는 자존심을 더욱 가져야 하겠다. 그래야만 아전(衙前)이나 군노(軍奴) 도는 사병, 병졸 등의 그릇된 생각을 불식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군노는 양민을 안하무인으로

여기고 무전취식을 예사로 하며 취안몽롱(醉眼朦朧)하여 순경의 뺨이나 치고 부녀자의 손목이나 끌어당기는가 하면 비가 온다하여 우산을 쓰고 덥다하여 부채질을 하는 그러한 족속들인 것이다. 당당한 비 직업군인이 어찌 그의 부형인 국민을 업수히 여길 수 있겠는가?

충성심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전제군주를 모시고 봉건사회 밑에서 자라왔는데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 엄한 군주제도하에서도 반신(叛臣)적자(賊子)가 많이 태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대체 어찌된 일일까? 가까운 이조사만 보더라도 주요한 내란을 자그마치 열두 건이나 헤아릴 수 있다.(정도전, 방간, 이징옥, 이시애, 임거정, 이몽학, 이인거, 이인좌와 정포양, 홍경래의 난과 임진왜란, 그리고 갑신 개혁란과 갑오동학란 등이다) 임진왜란이라는 외우를 겪으면서도 이몽학의 내란만이 아니고 정여립의 반역도 있었으며 또 국경인은 회령에서 그곳에 피난왕자가 있던 임해군과 순호군을 비롯하여 재신료속(宰臣僚屬)들을 모조리 결박하여 왜장 가토기요마사(加藤淸正)에게 넘겨주지 않았던가, 종성부사 정견용이라는 친구는 판관(判官)임순이 같이 왜적에게 항복하는 글을 써서 보내면서 이르되 '나를 사랑하면 임금이요 나를 괄시하면 원수로다. 어찌 섬겨서 신하 아닌 사람이 있으며 임금 아닌 사람이 있으리까'(無我則后 虐我則讎 何事非臣 何事非君) 나는 우리 민족의 충성심에 대해서는 많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윗사람이 아래 사람을 신애하지 못한 예도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니 이조사만 보더라도 영의정, 좌우의정, 육조판서를 지낸 사람으로서 중신고관의 대접을 깍듯이 받고 임석종신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었던가 말이다. 십중 팔, 구까지는 유배 아니면 참형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상하서로 경애없는 곳에 충신이 있을 리 없고, 명군이 있을 수 없다. 태평양 전쟁 때의 구 일본장병 가운데 비겁말련(卑怯末練)한 자도 물론 있었지만 우리가 경탄할만한 용장맹졸이 또한 허다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동부 총 군사령관 스기야마위안(杉山元)이라는 원사 부처(夫妻)는 1945년 9월 12일에 모든 뒤처리를 끝마치고 종용자약(從容自若)하게 자결하였다. 대장으로서는 육군대신 아나미고레치카(阿南惟幾), 제12방면군사령관 다나카시쥬이치(田中靜壹) 모두 자결하였으며 중장으로서는 관도의 오바타에이(小畑英, 31 A사령관) 다케시다카시나(高品彪, 29 D장), Tenian섬의 가쿠다(角田)해군사령관장 및 (제1함대 항공사령부), 뉴기니아의 아다치(安達) 23(18 A사령관) 사이판섬의 나구모(南雲, 31 A사령관), 요시츠구사이토(齊藤義次, 43 D장) 등과 유황도의 쿠리바야시(栗林)병단장, 오끼나와(沖繩)의 우시지마(牛島滿, 사령관), 조이사무(長勇, 참모장)으 비롯하여 후지오카(藤岡, 62 D장), 시마(島, 44독혼여단장), 와다(和田, 포병단장), 아마미야(雨宮, 24 D장)의 6중장이 모두 전사하였다.

또 바다에서는 침몰하는 함선에서 퇴출을 거부하고 함선과 운명을 같이한 함장 초고(猪口)소장(무장) 가쿠(加來)소장(비룡), 야나기모토(柳本)소장(창룡), 야마구치다몬(山口多聞)사령관(제2항공전대) 등이 있다. 그밖에 Buan지구의 야마모토(山本), 야스다(安田) 양대좌 Attot섬의 야스요야마사키(山崎保代)대좌 Biac섬의 카주라메(葛目)대좌 등이 거느린 전장병이 한곳에서 죽었다. 또 카미카제 특공대를 총지휘하여 2,530명의 꽃같은 대원을 자폭육탄으로 만든 제항공대사령장관 오니시다키지로(大西瀧治郎) 중장도 종전 후 자결하여 그 책임소재를 밝혔다. 도한 유황도의 23,000명 오끼나와의 7만명을 비롯하여 태평양 여러 섬과 고립중위(孤立重圍)된 수지(守地)에서 모조리 죽었으며 자진하여 손을 들고 투항한 장병이 없었다는 사실은 오직 감탄할 뿐이니 제2차 대전독소전선에서 한번에 20여 만 명씩 대량 투항한 것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충용된 군대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나는 거의 맹신에 가가우리만치 필승불패를 믿고 최후일각 최후일인까지 싸워낸 구일본군의 충성심을 우리 한국군이 본받아야 될줄로 확신하는 바이다. 나의 동기생인 이과공은 히로시마(廣島)에서 8월 6일 아침에 승마로 군사령부에 출근하던 도중 아이오이다리(相生橋攀)에서 원폭으로 전사하였는데 그의 부무관인 길성홍 중좌는 마치 그 당시 견부에 종기가 나서 같이 승마로 수행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먼저 사령부에 나와 기다리다가 그의 전사를 알고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하여 그의 시체를 공수로 서울에 보내고 난 다음에 종용(從容)히 자결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와엉한 책임감의 발로로서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고로 맹사(猛士)없이는 명장이 없었으며 명장없이는 용병(勇兵)도 또한 없었다. 수어지교라 하지 않았던가.

힘의 배양

오늘날 전쟁의 양상은 눈부시게 달라졌으니 일본의 군사평론가 닌카츠야(任克也)씨는 「백초간의 전쟁」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 근거가 박약한 괴설이라 하겠으나 이 6부의 시간만 있다면 가공할 전율적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이론상 시인하여야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간이란 우리가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이니 그 얼마나 숨 막히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렇다고 하여 너무 근심은 아니 하는 사람이다. 이보다도 훨씬 미약한 효과를 지닌 독가스(독와사(毒瓦斯))를 제2차대전 때에 쌍방 간에 한 번도 쓴 예가 없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물론 쌍방이 Gas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었다) 피아가 서로 시퍼런 칼끝을 상대방 심장부에 맞대고 있으니 무한전쟁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전쟁이라는 것은

힘의 균형이 이우러졌을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그 균형을 오인하였을 때 또는 균형이 깨어졌을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야구의 연구(軟球)만한 크기의 원자잠수함연료를 가지고서 지구를 3회전할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또 1천kg이상의 ICBM 탄도를 가질 수 있는 이 공간에서도 아직까지 19세기의 전술용병이 통용될 것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남북 30km 동서 4내지 10km의 오끼나와 작전에서 7만의 일본군을 섬멸하기 위하여 아니 그보다도 야에다케 산(八重岳)의 조그만 고지를 탈취하기 위하여 미군사령관 Buegner 중장 이하 49,000명의 전사상자(전사자 11,400명)를 냈다는 이 사실 밑에서 증언하려는 것이다. 최후의 결승은 사람이 짓는 것이고 제아무리 기계화 만능이라 하여도 인력이 가장 유효하다는 것은 신명의 큰 뜻인 것이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이 Midway해전에서 정규항공모함 가하(加賀), 적성, 창룡, 비룡의 사척과 253대의 함재기를 잃은 것은 매우 큰 손실이었다. 그 중에서도 제1선에 나서는 가장 우수한 조종사 백 명(함재기는 선상에서 망실한 것도 있음)을 일시에 앓았다는 것이 제일 아팠던 것이니 이들 대부분은 예과련(해군비행예과연습생)으로 15세부터 특수훈련을 받은 그야말로 공중전의 지보(至寶)들이었던 것이다. 항공만이 아니고 소년전차병, 소년통신병을 조기훈련하는 기술자양성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실로 계기는 대량동시 생산이 가능하지만 사람이야 어디 그럴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 다음에는 첩보의 필요성이니 다시 말하면 Black chamber의 활동 위력이다. 제1차 대전 때 영국의 40호실은 먼저 독해군의 암호를 해독하였거니와 태평양전쟁 때 미국은 일본측 음호를 모조리 해독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Midway 해전에서도 일본이 기습을 하려다가 도리어 기습을 당하는 결과가 되었으니 미국은 정보전에서 먼저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이겨놓고 싸웠던 것이었다. 1943년 4월 18일에 극비리에 Lavell서 Buin으로 가던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山本) 56대장을 단번에 격추사 시킨 것도 암호도청의 공이니 정보활동의 전과는 위대하였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위기의식을 더욱 고취시켜야 하겠다. 우리 눈앞에 잇는 북괴는 최악의 경우에는 백두산록 백색지대(지도에 나타나지 않은 지대 길림성에 많음)에라도 들어갈 수 있고 남만주에라도 망명할 수 있으나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우리의 작전은 이도(離島)보다도 더욱 위험한 작전을 각오하여야 하니 북쪽은 적의 진격로로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직 해면만은 적의 해상병력을 둘로 분단하고 아방은

하나로 전력을 통합발휘가 가능할 뿐이지만 이것도 해석에 따라서 양면협공의 기회를 준다할 것이다. 일본군은 흙투성이에 땀 냄새를 피우면서 싱가폴에 쳐들어갔으며 Percival 중령이하 영국 인도군은 호화찬란한 생활 속에서 백기를 들었더니 4년 뒤에는 이와 반대로 영국 인도군은 찢어진 군복차림으로 다시 Malay의 일본군의 항복을 받았다. 역사는 가르치되 망하는 나라는 항상 문약하고 패하는 국민은 대개 사치하였다. 나는 우리의 정치가, 경제인, 지식층들은 하와이주에 살고 있는 기분을 내는 것만 같이 느끼는 때가 가끔 있다. 우리는 건망증에 걸릴 수는 없다. 14년 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나 그때와 같은 완전제공은 도저히 바랄 수는 없고 낙동강의 기적. 또한 기대할 수는 없다. 북괴가 강화 없는 휴전기간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마땅히 유사대비의 힘을 배양하여야겠다. 다시 말하노니 하와이가 아니다. 그 하와이도 기습을 향하였거니와.

군의 순수성

구 일본군은 당초에 정치가 군에 간섭하지 못하는 한 방편으로 또는 내각에서의 군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고려도 있어서 육해양군의 대신을 모두 현역군인으로서만 친보(親補)토록 하고 군부대신 두 사람을 두게 하였다. 그래도 군비문제와 작전용병문제 그리고 참모장교 인사문제 등을 정치가들과 연관 없이 천황에게 직접 유악(帷幄)상진(대신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주하는 것)할 수 있는 군령기관으로서 육군에 참모본부, 해군에 군령부를 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군의 잡종화를 막기 위한 갑옷을 입은 것은 좋았지만 몇 차례의 전승으로 점차 군의 언권이 강해지자 이 갑옷을 입고 흉기를 쥔 채로 정치가의 집안에 토족(土足)채로 뛰어 들어가 그 집의 이절 살림살이까지 한손에 잡아 흔들게 되었다 할 것이니 그들은 대본영, 참모본부, 군령부, 육군성, 해군성의 오인조 괴한이었고 그 계보는 황도파와 통제파의 2대벌로 되어 있었다. 정치하다는 도배들이 검광과 총구 앞에 벌벌 떨고 시키는 대로 하게 되자 이 2대벌은 이번에는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여 자기에게 아첨만 하는 소인의 무리들을 감투행진에 앞장세운 결과 힘의 균형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잘못 판단하고 드디어 대동아전쟁이라는 불장난으로 패가망신케 되었던 것이었다.

이리하여 군국주의의 큰 물결이 태평양에 요란하였고 대본영에서는 육군부와 해군부가 끝까지 통합하지 않고 양립하여 사사건건 서로 항쟁하였다.

〈47면에 계속〉

6 · 25전란과 한국군의 현대적 성장

국군의 현대화는 스스로의 노력과 남의 원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의지의 결여는 물론 현실에서 유리된 과잉의욕도 장애가 된다.

권정식(權禎植)
<육군대령 육본감찰차감>

한국군의 성장과 6 · 25 전란

우리는 얼마 전에 해방 제19주년의 기념일을 축하했다. 그러니까 해방둥이도 어언 열아홉살의 성인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할 나이가 되었다. 해방둥이의 하나인 국군도 그동안 착실하게 성장하여 이젠 우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국군이라는 조직체의 성장을 개인의 자연성장에 비유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금년에 들어와서 비로소 우방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것도 우연한 일치이며 지원의 내용을 엄밀히 따진다면 여력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우방 월남공화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지원단을 파견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 군사지원도 병력의 양적 지원이 아니고 의무부대와 태권도 교관이라는 질적 지원이라는 사실이 역사적인 의의로 흐뭇한 느낌을 갖게 하는 동시에 군이 유의하게 성장했다는 것은 과시할 수 있게 한다.

국군의 이와 같은 성장은 피땀 어린 자력과 막대한 타력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6·25동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는 이의의 여지가 없다. 6·25동란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군이 어느 정도로 성장했느냐

는 6·25동란 이전의 군국과 오늘날의 국군을 비교해보면 명백하다.

1951년 6월 25일 북한 괴뢰군의 기습을 받았을 그때의 우리 국군은 물론 창군한지 일천한 탓도 있었지만 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것이었다. 육군은 7개 사단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 사단들은 포병화력도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소총사단이었고 해군은 미군 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미제초계정 6척과 일본제 박정(舶艇) 6척 도합 10여척이 그 전부였다.

그리고 공군의 경우는 연락용 경비행기 12대와 국민의 정성을 모아 구입한 연습기에 해당하는 건국기(T-6) 10대 도합 22대가 전부였다. 그리고 이 T-6를 가지고라도 적을 공습해야 하겠는데 폭탄이 없어서 치안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일본군이 버리고 간 소이탄을 얻어다가 그것도 목측으로 사람이 떨어뜨리는 희극적인 전투를 감행했던 것이다.

이러했던 국군이 오늘날에 와서는 육군은 18개의 정규 보병사단과 10개의 예비사단을 보유하고 비핵재래식 전쟁은 물론 제한된 핵전쟁도 감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그 실력이 세계에서 제4위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게 되었다. 해군은 신예 구축함을 기함(旗艦)으로 하는 6만톤의 위용을 갖추어 미제 7대의 지원 하에 우리나라의 해역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는 상륙작전은 물론 지상 작전도 아울러 수행할 수 있는 해병사단까지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군은 음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전천후에서 작전을 수 있는 신예 제트기와 북한 전역은 물론 만주의 일부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레이더망을 가지고 24시간 간단없이 우리나라의 상공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총체적으로 우리 국군은 오늘날 자유세계의 효과적인 방패(防牌)로써 그 위용을 과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진정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현대화의 개념과 한국군의 현실

국군이 지나간 세월어간에 착실히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에 현대의 개념을 단순히 고대에 대한 대조적인 역사적 의식이라고만 규정해 버린다면 국군의 전술한 바와 같은 성장과 발전은 현대화의 실을 거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라는 개념은 단지 과거와의 비교에서만이 아니고 이 것과 더불어 미래와의 관계에서 규정 지워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현대라는 의미도 사용하고 있는 모던(Modern) 이라는 말은 원래 현재의 시점의 직전에 과거와 함께 그 직후의 미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Modo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현대라는 개념 자체가 고도의 추상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여기에다 과학을 붙이면 더욱 추상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어 현대화라는 말의 개념 규정은 용이한 것이 아니다.

이 어려움을 타개하는 모험을 시도해 본다면 현대화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내용은 과거를 단절하고 미래를 지향하기 위한 현상돌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시인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국군의 현대화란 질적인 현상돌파를 말하며 질적인 현상돌파는 즉 일체 요소의 과학화를 의미한다.

군의 구성요소에는 사람과 장비라는 유형적인 것과 관리와 운영이라는 무형적인 것이 있다. 그렇다면 군의 현대화란 사람의 머리의 과학화, 장비의 과학화, 관리와 운영방식의 과학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국군이 오래전부터 부르짖어 오던 현대화가 착실히 이룩되었다면 국군의 구성분자는 계급의 고하 직책의 경중을 막론하고 전원이 과학적인 사유 밑에서 거동하고 모든 장비는 과학적인 것이고 또 일체의 운용과 관리는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것들은 동시에 병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현대화의 치료가 있는 것이지 어떤 요소는 과학화 했는데 다른 요소는 비과학적인 위치에 그냥 머물고 있다는 기형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현대화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군의 현 실태를 정시(正視) 성찰 할 때 국군은 현대화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원자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유도무기를 가지게 되었고 신예의 제트기로 장비된 우리 국군을 현대화 되지 않았다니 그 무슨 망발이냐고 따지고들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현대화이지 본질적인 현대화가 아니면 남이 가져다 준 현대화이지 우리 스스로가 이룩한 현대화가 아니다. 피상적 이건 남이 가져다 준 것이든 현대화한 것만이 틀림없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현대화이지 전반적인 현대화는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적인 현대화는 국군을 기형아로 만들었다는 새로운 문제점까지는 제기 시키게 되었다.

진정한 현대화를 이룩하려면 적의 전차를 명중시켜도 파괴할 수 없었던 대전차포 대신에 나이키 호크를 갖게 되고 F-51 프로펠러식 비행기가 F-86 제트기로 바꿔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사유와 사고방식도 새로운 것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과 장비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방식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현대화 이전의 구태가 의연(依然)하다. 우리 국군의 인간관계에는 군주 시대에 조정에나 있던 각하가 있고 인권 이하의 개자식이 있다. 몰 주권적 위법적인 상하관계 대신에 신분적인 우열관계가 상존하고 있다. 여기에서 상굴하교(上屈下驕)하는 비겁이 생기고 감시의 눈을 피하여 사리(私利)와 안일을 탐하는 요령주위가 성행 하는가 하면 간혹은 하극상의 비극도 생긴다. 일사가 만사 면 속담이 되겠지만은 이러한 머리들에 의해서 운용되고 관리되는 국군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기획제도와 행정체계를 도입, 운영시켜도 비효율 불경제가 허다하다.

현대화는 명실이 상부하고 내외가 일치하고 상하가 공통되어야 할 터인데 우리 국군의 현대화는 그렇지를 못 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우리들 스스로의 무자각 불성실에 있었다는 것을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으로부터의 군사원조는 연년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에 의한 장비의 현대화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현상인데 우리들의 자각과 노력해서 이루어질 사람의 현대화와 관리와 운용의 현대화는 부진 이라기보다는 답보상태에 있다는 점을 정시 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 국군의 현대화는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최대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이 군대가 세계 제4위라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 최대의 군대라는 것이 최강, 최선의 군대라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니면 세계 제4위라고는 하지만 군대의 전투력이 수학적 정확성에서 결정지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국군이 부하(負荷)된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기필코 현대화해야 한다. 따라서 현대화라는 것은 우리 국군의 이상적인 과제이다.

우리가 현대화를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현대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현대화의 욕구는 시장을 느꼈을 때 식사를 취하는 식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긴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과제가 될 수도 없다. 이론상 욕구라는 것은

주어진 구체적인 상황 속에 그 무엇인가 부족하고 미흡한 것이 있어서 곤란이 일어났을 때 생긴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욕구충족의 장애로 되어 있는 조건을 제거하거나 변경시켜 곤란을 없앨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그 욕구는 과제(課題)가 된다.

그러나 우리들이 어떠한 과제를 설정할 때에는 그러한 조건을 제거하거나 변경시킬 가능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망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전연 실현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엔 과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단순한 전망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가지가지의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 과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목적이 될 수 없다. 흔히 수단을 고려해서 목적을 설정하지만 현실에 가능성이 있는 목적을 선택해서 그것을 과제로 삼은 다음 그 목적에 의해서 실현의 수단을 결정하는 수도 있다. 어떠한 과정을 택하든 우리 국군의 현대화라는 욕구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당위적인 성격을 띤 것이다.

이와 같은 국군의 현대화는 스스로의 노력과 남의 원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화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결여된 퇴영적 자세는 물론이지만 현실에서 유리된 과잉의욕도 장애가 된다. 흔히들 군의 현대화는 곧 장비군 현대화라고 오해하고 장비에 현대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3군의 균형적 발전을 운위(云謂) 한다. 물론 국군의 장비는 현대화 되어야 한다. 이것 없이는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보조를 맞추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균형된 3군의 힘으로 독자적으로 군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다면야 오죽이나 통쾌하랴.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장비의 현대화가 군의 현대화의 전부가 아니고 원망(願望)이 과제가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끼리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각국과 더불어 살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가지가지의 끈으로 결부된 환경 하에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 환경과 자타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면서 우리 국군의 장비 현대화를 기약해야 한다.

장비의 현대화와 병행되어야 할 과제는 우리들의 사상의 현대화이다. 사상의 현대화란 즉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민주화를 말한다. 개개인의 개인주이에 입각한 현대적인 자아의식의 확립 없이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현대적인 자아의식이 확립되는 날 군대 사회에서는 봉건적인 잠재의식이 일소 될 것이고 전통적인 지배복종 관계나 결합원리가 극복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행동에 통제 원리가 화하여 책임개념이 요령주위를

타파 할 수 있는 것이다.

군대 사회가 민주화하여 권위주의와 도당(徒黨)의식 그리고 요령주의가 일소되어 개개인이 자존과 타존의 균형을 인식하고 상급자 앞에서는 비굴하지 않고 하급자 앞에서는 오만하지 않으며 권리를 찾기 전에 의무를 이행하고 자기의 권리는 양보함이 없이 정당히 행사하되 남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질서가 확립된다면 그러한 사회에서는 이른바 빽이 실력을 유린(蹂躪)할 수가 없고 정실(情實)이 원칙에 우선할 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민주화의 노력이 따르지 않는 군의 현대화는 공염불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민주화의 노력에는 남의 원조가 필요치 않다. 이미 우리들 주변에는 선인들의 심오하고 순란(純爛) 한 역사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이것을 본받고 발전시킬 수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이다. 자각과 노력만이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의식이 민주화하기만 한다면 민주적인 인간이 사리를 공리에 앞 세울리 없으며 민주적인 사고는 낭비와 비효율을 배척하기 때문에 이들이 수행하는 관리나 운용은 자연히 경제성과 효율성을 본위로 삼는 현대적인 것이 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화의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목표에 도달하는 노력의 방향을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게 유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군의 현대화는 장비의 현대화만은 아니며 이것과 병행 시키는 사람의 민주화가 군의 현대화의 첩경임을 명심하고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41면에서 계속>

(해군이 더욱 통합을 반대하였음) Guadalcrana섬에 해군부대가 상륙하여 비행장을 건설한 것을 같은 대본영내 육군부에서는 전연 몰랐으며 미군의 공격을 받고서 비로소 알게 되는 이러한 파국을 벌렸던 것이었다. 내가 이런 말을 왜 길게 하는고 하니 그 이유는 별것이 아니고 군은 정치에 손대지 말고 어디까지나 순수성을 지녀야 하고 각 군이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맺는말

군인 개개인은 비 직업이라는 자존심을 더욱 굳게 하여 국민의 군대로서 성충을 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기 위하여서 기계의 비약적 발전에 순응할 수 있는 기능을 연마하여 위기의식을 뒷받침할 힘을 배양하는 동시에 군의 순수무잡한 성장에 기여하기 바라는 미지(微志)로써 여기에 나는 이 졸문을 감히 엮은 바이다.

<지난 7월 1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와 그 양상

양흥모(梁興模)
〈조선일보 논설위원〉

헌법에 명시된 선거인 제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표면상 간단한 것 같지만 매우 복잡하다. 아마도 세계 각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를 훑어 볼 때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 같이 복잡한 것도 없을 것 같다.

미국은 대통령 책임제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은 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이다. 또 소속당의 당수 격이 된다. 미국 대통령은 또한 합중국 육해공군의 총지휘관이 된다. 연봉 10만불 판공비 5만불 여비 4만불, 그리고 연금 2만5천불을 받게 되어 있는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의 대통령인 동시에 그의 위치는 비단 미국 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인지 미국대통령선거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매우 크다. 4년마다 실시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금년 11월 3일에 실시된다. 이날은 바로 대통령을 선거하는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날이다. 그러면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선출되는 것일까?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권한이라든가, 대통령의 선거 방법은 기본법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미국대통령의 선거 방법은 1787년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제2조에 명시되었다. 즉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선거는 선거인단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선거하게 하였다. 그때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또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결국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하기로 하였다. 그 주의로서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결국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하기로 하였다.

그 주의로서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한다는 것은 그때의 통신 및 교통의 사정으로 누가 대통령에 적합한지 일반 유권자로 볼 때는 알기 힘들다는 데 있었고 또 국회에서 선거하게 되면 대통령이 국회의 지배를 받는다는 데서 타협안으로 선거인단으로 하여금 선거하게 하였다.

그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선거인단이 선출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으나 선거절차는 처음 헌법에서 제정한 것이 적합지 않아서 1840년 헌법 제20조로 개정하였다. 그 경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개정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1787년의 헌법과 개정된 헌법 제 20조를 비교하여보기로 한다. 첫째로, 1787년의 헌법 제2조에 명시된 대통령 선거에 관한 조항을 편의상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각주는 그 주가 합중국 의회에 선출하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총수와 동일한 수의 선거인을 선임한다. ② 선거인은 각각 그의 주에서 집회하고 비밀투표에 의하여 2인을 선거하되 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 자신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③ 최다수의 투표를 획득한 자로서 그 득표수가 선임된 선거인 총수의 과반수에 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④ 만약 2인 이상이 동수의 투표를 획득하고 또 과반수에 달하였을 때에는 하원은 즉시 비밀투표로서 그 중 1인을 대통령으로 선거한다. 과반수의 투표를 획득한 자가 없을 때에는 상원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최고득표자 5인 중에서 1인을 대통령으로 선거한다. 이 때 각주의 대표자는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각주 전체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어느 경우에도 대통령을 선거한 후에 최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부통령으로 한다. 동수의 득표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하원은 비밀투표로서 그 중에서 부통령을 선정한다.

둘째로 1840년에 개정된 헌법 제2조에서 개정된 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선거인은 각각 그 소속 주에 집회하여 비밀투표로써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 그 양자 중 적어도 1인은 자기와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②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대통령으로 투표된 자 중 최고득표자 3인 이하의 인원 중에서 하원에서 즉시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로서 대통령을 선정한다. ③ 부통령의 경우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2인중에서 상원에서 과반수로 선정한다.

그래서 개정된 사항의 중요 대목은 처음 대통령 부통령을 구분함이 없이 덮어놓고 2인을 투표하기로 한 것을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구분해서 투표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전 헌법조항대로의 제도에서 모순이 생겼기 때문이다. 즉 1800년의 선거에 있어서 토마스 제퍼슨과 아론 버어의 표수가 동수(93표)였다. 선거인은 대통령으로 제퍼슨을 아론 버어를 부통령으로 투표하였으나 그 표수가 동일하였다. 결국 상원에 회부되어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버어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러한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헌법을 개정하였다.

투표와 개표

대통령을 선거인단이 간접적으로 선거하도록 미국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전기한 바와 같다. 그러면 선거인단의 선출 및 그들의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2년만에 대통령을 선거할 선거인단의 선거는 11월 첫 화요일에 실시되며 금년은 바로 오는 11월 3일이 해당된다.

선거인단의 수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합한 수이다. 오늘날 미국의 상원의원의 수는 100명, 하원의원은수는 435명으로 그 총수는 535명이 된다. 그러나 개정헌법 제23조에 의거 1964년의 대통령선거 부터는 워싱턴지구에서 대통령 선거인 3명을 선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금년 11월 3일에 선거될 대통령 선거인단의 총수는 538명이 된다. (개정헌법 23조는 1960년 상, 하 양원이 제의하여 1961년 3월 29일 50개주의 3분의 2가 찬동 비준하여 1961년 4월 3일에 정식으로 선포됨)

선거인단의 선거가 끝나면 선거인들은 각주에서 모여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일은 12월 중 제 2수요일이 지난 월요일에 실시된다. 투표가 끝나면 그것을 상원의장으로 보내어 하원의장은 상하양원합동회의석상에서 개표한다. 이 개표일은 1월 6일이다.

정식 개표일이 1월 6일이기 때문에 그때가 아니면 정부통령의 선거결과를 알 수 없으나 11월에 실시되는 선거인단의 선거로서 정부통령은 확정된다. 그 이유로서는 선거인단의 선거에서 그 주가 누구를 지지한다는 것이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각주의 선거인단은 상, 하 양원의원을 합친 수인데 만약에 민주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표수가 많으면 그때 선거인단의 표는 전부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즉 미국 대통령 선거는 주단위로 돼 있다. 이를테면 뉴욕 주의 선거인수는 43명인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 그 표는 전부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여기에 있어서 미국 각주가 가지는 선거인단의 표수 중 20표 이상 가지고 있는 큰 주를 보면 캘리포니아 주=40표 일리노이 주=26표 미시간 주=26표 뉴욕 주=43표 오하이 주=26표 펜실베니아 주=29표 텍사스 주=25표이다. 각주마다 선거인단의 수는 일정치 않으며 전기한 바와 같이 20표 이상이 되는 주가 있는가 하면 최소 3표를 가지고

있는 주도 많다. 이를테면 알라스카 주 델웨어 주 네바다 주 버몬트 주 와이오밍 주 워싱턴지구 등이다.

정부통령후보지명 전당대회

미국 헌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출산으로 인한 시민 또는 헌법 제정 시에 합중국 시민인 자가 아니면 대통령의 직에 선임되지 못하며 연령 만 35세에 달하고 14년간 합중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도 또한 같다(헌법2조5항)고 하여 대통령 후보자의 자격을 명시했다. 대체로 전기한 조항에 의하여 누구든지 대통령에 입후보 할 수 있다고 보겠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대통령 입후보자는 각각 민주 공화 양당의 지명대회에서 결정된다.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한 민주 공화 양당의 지명대회에서는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부통령, 그리고 선거운동에 내세울 정강정책을 결정한다.

지명대회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것도 아니고 또 그 밖의 법으로 제정된 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의 관례가 굳어진 것이다. 민주당이 처음으로 지명대회를 가진 것은 1832년이며 공화당이 처음으로 지명대회를 가진 것은 1860년이다.

민주 공화양당이 지명대회의 제도를 가지기 이전에는 코커스(Caucus)이라고 불리는 국회의원 중심의 당간부회에서 정부통령을 지명하였다.

각 당의 지명대회에는 각주의 대의원들이 참가한다. 지난 7월13일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졌던 공화당 지명대회에는 1,308명의 대의원이 참석했고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뉴져지 아틀랜틱 시티에서 가졌던 민주당전당대회에서는 약 3천명이 참가하였다.

지명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의 선출 방법은 민주 공화양당이 각각 다르다. 대체로 기본석 몇 석에 전번 대통령 선거, 주지사, 또는 상원의원선거에 승리한 주는 몇 표를 더 가산하는 식으로 되어있다.

전당지명대회가 있기 전에 각주는 대의원을 뽑는 예선이 실시된다. 각주의 대의원들이 재명대회에서 투표하는 방법은 그 주 전체의 표를 무더기로 던지는 단일투표를 실시하는 주가 있는가 하면, 대의원 각자의 의사에 따라 투표하는 주가 있다. 즉 지명대회에서의 투표방법은 각주마다 다른 것이 있다. 또 표수의 계산 방법을 보면 민주당은 한 대의원이 반표식 행사하는데 공화당은 1인1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또 대통령에 입후보할 사람은 인기투표를 해 본다. 공화당의 경우 지난 3월 10일부터 6월 초까지 뉴햄푸셔 주, 메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오레곤, 텍사스, 캘리포니아 주에서 골드워터, 록펠러, 닉슨, 스미스 여사, 스타센, 롯지씨 등 여러 후보자의 인기투표를 실시하였다.

인기투표로서 대체로 누가 유력한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인기투표와 함께 자신이 있으면 전당대회 까지 밀고 나가며 그렇지 않으면 아예 사퇴한다. 공화당의 경우 인기투표 과정에서 사퇴한 사람은 록펠러 닉슨 등 유력한 후보자가 있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제1단계의 예선 또는 인기투표, 제2단계의 지명대회 제3단계의 당선거인단의 선거로 나눌 수 있다.

금년 대통령선거의 전망

금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민주 공화양당은 그 후보자를 확정 시켰다. 즉 공화당은 지난 7월 7월 13-16일의 샌프란시스코 지명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자에 아리조나 주 출신 상원의원 배리 골드워터 씨를 그리고 부통령 후보자로서는 뉴욕 주 하원의원이며 공화당의 전국의원장인 윌리엄 에드워드 밀러 씨를 선출했다. 그리고 8월 24일-27일의 아틀란틱 시티에서의 민주당 지명대회에서는 현대통령인 존슨씨를 대통령 후보자로 미네소타 주 출신 상원위원 휴버트 H 험프리씨를 부통령 후보자로 지명했다.

민주, 공화당 할 것 없이 언제나 부통령 후보자는 지명된 대통령 후보자가 결정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있다. 지명대회 과정에서 주목을 끈 몇 가지 흥미있는 것을 보면 첫째로 공화당의 대통령후보자로 배리 골드워터 씨가 선출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골드워터 씨는 보수주의 극단주의 극우주의 파격주의 등 여러 말이 많았고 그가 지명되면 공화당은 분열될 것이라는 말까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빗발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명대회에서는 유례없는 압도적인 다수표로 지명되었다.

둘째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자로서는 현 대통령인 존슨씨의 재출마가 거의 확실했으므로 민주당 지명대회에서는 주로 누가 부통령에 지명되느냐 하는 것이 주목을 끌었다. 민주당의 부통령후보자로서는 현 법무장관으로 있는 로버트 케네디씨, 유엔 대사인 아드라이 스티븐슨씨, 미네소타 주 출신 상원의원 휴버트 H 험프리씨와 유진 J 맥카시 씨 등 이었다.

그러나 존슨 대통령은 지명대회가 있기 전인 7월 30일 기자회견으로 회담하는 인사를 부통령으로 천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으로써 가장 물망에 올랐던 로버스 케네디 법무장관의 부통령지명을 배제했다. 휴버트 H 험프리 상원의원이 부통령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거의 확실했는데 존슨 대통령이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보다 휴버트 H 험프리씨를 의중에 둔 것은 남부주에서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남부주 에서는 케네디 법무장관을 반대하는 율이 험프리 상원의원보다 많다고 한다.

민주 공화 양당은 지명대회와 함께 정부통령 후보자를 확정 시켰는데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자는 북부 출신사람, 그리고 공화당의 부통령후보는 동부 출신사람으로 택하였다. 이는 다 같이 남부출신자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지역적으로 북동부의 표를 얻기 위해서이다.

선거전략 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민주 공화 양당이 지명대회와 함께 채택한 정강정책을 들 수 있다. 공화당의 정책을 보면 ① 연방예산지출 50억불을 감축하고 만성적인 적자재정에 종지부를 찍을 것 ② 소비세를 철폐하고 법인세 개인세를 감소할 것 ③ 정부가 노동분쟁에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전국 노동관계위원회를 개편할 것 ④ 대공정책에 있어서 후퇴와 조화를 거부할 것 ⑤ 유엔은 인구 차를 반영시키도록 할 것 ⑥ 월남에서의 승리를 확보할 것 ⑦ 신무기를 발전시키며 핵금조약이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⑧ 인종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 ⑨ 기업의 자유경쟁을 보장할 것 등이다.

한편 민주당의 정책을 보면 3정책(Peace Prosperity Preparedness)을 내걸면서 미국의 평화와 만민의 자유를 표방하고 ① 민권법시행의 다짐 ② 보건의료제도의 보장 ③ 전략핵군의 우위유지 및 국지전에의 대비 ④ 중공의 유엔 가입반대 ⑤ 대공협상의 겸행 ⑥ 핵무기행사권의 대통령 보유 등을 내세우고 있다.

양당 선거정책의 차이를 알기 쉽게 중요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자면 가장 두드러진 것이 핵무기 명령권 문제이다. 공화당은 나토 사령관에 그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또 사회보장을 함에 있어서 공화당은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에서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 공화 양당의 정책은 크게 보아 그렇게 큰 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공화당원이면서 민주당정책을 따르고 민주당원이면서도 공화당 정책을 따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존슨 대통령과 골드워터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7월 24일 회담하는 가운데 민권법 문제를 선거전에서 피하기로 하였다. 민권법 때문에 남주의 알라바마 주 및 미시시피의 민주당은 존슨을 지지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 공화당원 중에는 골드워터 씨의 정책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지 않기로 한 사람도 많다고 한다.

오는 대통령 선거는 약간의 이와 같은 혼선이 있을 것이다. 골드워터 씨가 지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존슨씨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타났다. 그러나 골드워터 씨가 지명된 후 그의 세력은 차차 증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두 달 동안에 어떻게 변모될지 모른다. 존스 씨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결코 낙관할 수는 없게 되었다. 미국의 여론 조사의 경위를 보면 골드워터 씨가 지명되기 이전에 존슨씨와의 비율을 보면 존슨 74대 골드워터 26이었고 골드워터 씨가 지명된 이후의 여론조사는 존슨 64대 골드워터 36으로 되어있다. (이는 루이스 해리스 여론조사에 의한 것임) 한편 갤롭 여론조사는 존슨씨와 골드워터씨의 8월말 여론이 59대 31로 나타났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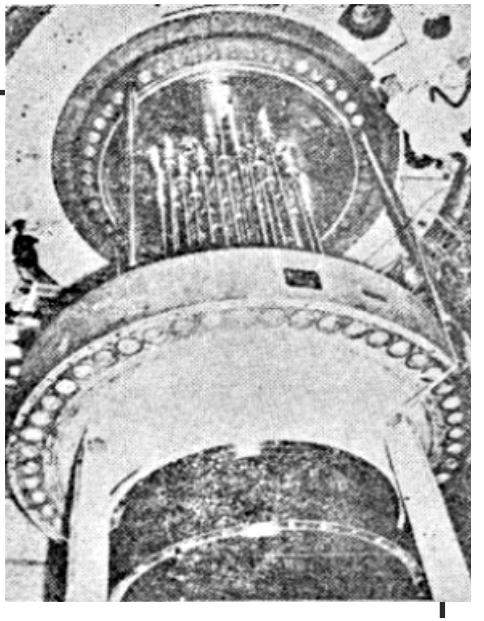
앞으로 골드워터씨는 선거운동기간 중 9만 5천 마일을 유설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그 이전 닉슨씨 보다 1만 마일이 많은 것이고 1960년의 케네디 대통령 때보다 3만 마일이 더 많은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골드워터 씨와 존슨씨와의 대결에서 존슨씨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는 지난날의 예측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껴쓰는 종이 한장
늘어가는 나라 살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상)

-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

이창건(李昌健)
<원자력연구소 연구관>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로우이에 있는 거대한 양키 핵 발전소 내부, 이 원자로는 60만KW의 열량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셋째로 큰 원자로이다.>

원자론(原子論)의 수난(受難)

유명한 고대희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디모크리토스가 아직 살아있을 때인 기원전 384년에 태어났다. 디모크리토스와는 반대로 원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 그는 원자론 대신에 다음과 같은 논법을 전개하였다. "만일 공기와 불이 디모크리토스의 말대로 딱딱하고 적은 원자라는 알맹이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위로 올라 갈 수 있겠는가? 만일 그것이 참말이라면 올라가는 대신에 모래알과 돌처럼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 내에 존재하는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를 설명하기 위하여 몇가지의 단순한 성분을 사용하였다. 즉 그는 만물은 더운 것(온), 찬 것(냉), 젖은 것(습), 마른 것(건)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흙은 차고 마른 것이고, 물은 차고 젖은 것이고, 공기는 덥고 젖은 것이고, 불은 덥고 마른 것이라는 식이었다.

이와 같은 설명방법은 단순하면서도 남의

학설을 아주 멋있게 제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디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은 근 2,000년 동안 영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것이다.

1580년이 될 때까지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에 반대되는 이론을 제의하거나 그것을 공박(攻駁)하는 학설을 발표하면 교수이거나 학생이나를 막론하고 매회 5쉴링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1589년 25세의 약관으로 이태리 피사대학의 수학교수로 임명된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처음 대학에 적을 두게 되었을 때는 3년간 복무키로 되어 있었으나 기한이 되기도 전에 그 대학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피사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자마자 학생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심한 공격을 가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것 때문에 그는 동류 교수들의 노여움을 샀으므로 그들에게 먼저 쫓겨나기 전에 일찌감치 제발로 걸어 나가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이 그 2,000년 동안이나 인정 받아온 학설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위만 가지고도 존경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느냐는 정통론에 집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갈릴레오는 피사의 사탑에서 조그마한 총알과 그보다 백배나 무거운 대 총알을 떨어 뜨리는 실험을 통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케케묵은 학설을 뒤집어엎기 시작하였다.

<원자력이 전쟁에 이용된다면 얼마나 가공스러운가. 1945년 8월 일본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된 10분후의 참상>

한편 불란서의 유명한 화학자 라부아지에도 정말 비극적인 수난을 당하였다. 물질의 화학반응원리와 많은 원소의 성질을 구명하여 발표한 바 있는 이 라부아지에는 프랑스혁명이 일어나고 있던 1794년 어느 날 군인들이 담배 속에 물을 섞었다고 날조(捏造)한 터무니없는 혐의(嫌疑)를 받고 체포되어 혁명군 측의 제판에게 사형

언도를 받았다. 그는 제판도중, 판사에게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 한 과학자로서 조국에 이바지한 여러 가지 업적을 열거하면서 선처를 구하였더니 판사는 그의 말을 가로 막으면서 "우리 공화국은 과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는 처형하고 말았다.

후에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라그란제는 이 사실을 슬피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그 작자들이 그 어른의 목을 자르는 데는 불과 몇 초면 되었을 것이나 이 세상이 그 분과 같은 사람을 또 하나 배출하려면 적어도 몇 백 년이라는 세월을 필요로 할 것이다."

만일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이 만연(蔓延)되어 있던 옛날에 원자력에 관한 글을 쓴다면 나는 틀림없이 벌금을 물어야 하거나 쫓겨나거나 또는 운이 나쁘면 라부아지에처럼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것이지만 마침 때를 잘 타고 난 덕택으로 이와 같은 글을 쓰게 된 것이다.

원자의 크기와 구조

원자도 진주처럼 실로 꿸 수 있는데 어떤 소녀가 60cm 실에 원자를 하나씩 꿴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그 소녀는 대단히 재주가 많고 참을성이 있어서 밤낮 쉬지 않고 1초간에 원자 하나씩을 실에다 꿴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걸려야 60cm 원자 목걸이를 만들 수 있을까? 200년 내로 만들 수가 없다.

수학적으로 대표하면 원자의 반경은 약 10cm 즉 1억분의 1cm알려져 있으나 이와 같이 작은 원자도 사실은 대부분은 텅 비어 있는 허공이고 알짜 물질은 원자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원자핵과 그 둘레를 쉬지 않고 돌고 있는 전자뿐이다.

그리고 원자핵의 반경은 대개 10cm 즉 1억분의 1의 또 10만분의 1cm정도이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허공뿐이고 알짜 물질은 거의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로 적다. 원자가 그렇게 작은데도 그 작은 것은 내부가 대부분 비어 있다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60cm의 길이를 매초 하나씩 꿰어도 200년이나 걸린다는 이 작은 원자의 내부가 얼마나 비어 있는가를 입증하기 위하여 또 하나의 예를 들고자 한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 인구를 30억이라고 하자. 이제 이 30억을 전부 한 장소에 집결시켜 한 그릇 속에 집어넣고 그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알짜 물질만이 한군데 모이도록 꾹 누른다고 하면 얼마나 큰 덩어리가 될 것인가? 불과 1㎤의 입방체가 되고 만다. 이걸 보면 원자의 내부가 얼마나 비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원자가 깨어질 때 나오는 힘

우라늄-235 원자 하나가 깨어지면 평균적으로 약 200Mev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것은 좀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써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라늄-235 원자 하나가 깨어지면 200Mev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와트의 에너지를 내게 하려면 무려 3.1×10개의 원자 즉 31다음에 0이 아홉 개 붙은 것, 바꾸어 말하면 310억 개의 원자핵이 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원잔느 너무도 작기 때문에 1그램의 U-235를 완전히 깨기만 하면 약 3톤의 석탄을 때울 때 나오는 열과 비등한 열량이 나오는 것이다. 즉 우라늄-225는 그것보다 300만 배 무거운 석탄과 같은 구실을 한다는 뜻이다. 여하간 1그램의 U-235를 완전히 분열시키면 하루 종일 1,000킬로와트의 열량을 방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원자로에서는 과거 개월 동안에(수리기간 제외) 겨우 3그램 정도의 U-235를 소모했을 분이다. 이것은 약 2대의 화물자동차에 실은 석탄을 태웠을 때 나오는 열량을 발생시켰음을 뜻한다.

원자로란 말의 유래

인류가 최초로 원자로를 만든 것은 1942년 12월 2일이었다. 그때 미국 시카고 대학에 계시던 엔리코 페르미(Enrico Fermi)교수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진이 핵분열 연쇄반응 장치를 처음으로 만든 것이다.

처음엔 원자로를 영어로 pile(파일)이라고 불렀는데 그 첫째 이유는 그것을 일급비밀에 부쳤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그냥 파일이라고만 하면 그것이 큰 목돈, 말뚝, 화장터의 나무더미, 전지, 연한 털 혹은 치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원자로에는 중성자의 속도를 늦추는데 사용하는 흑연덩어리를 높다랗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쌓아 올린 물건이라는 뜻에서 파일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한다. 그래서 처음 만든 원자로의 이름을 CP-1 즉 시시카고 파일 No.1이라 불렀고 두 번째 것을 CP-2, CP-3…… 이렇게 해서 CP-5까지 나갔다.

요새도 Pile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Nuclear Reactor(핵반응기)라고 하는 것이 상례이다. 원자로라는 말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말이고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중국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따. 자유중국에서는 핵자(核子)반응기라고 하는가 하면 중공에서는 원자반응퇴(原子反應堆)라고 부른다. 이처럼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면 과학적인 표현방법도 달라지니 우스운 노릇이다

현재 지구상에는 384개의 원자로가 가동 중에 있고 건설 및 계획 중에 있는 것이 184기인데 이 568기의 원자로 중에 313기는 미국 내에 3기는 영국에 43기가 소련 내에 21기는 프랑스 또 다른 21기는 서독, 14기는 이태리, 일본에 13기, 캐나다에 9기, 그리고 1기뿐인 나라는 여러 나라가 된다.

방사선상해

원자탄이 폭발하든지 원자로를 운전하면 열 이외에 무서운 방사선이 나온다. 방사선의 영향은 맞은 사람에게 나쁠 뿐만이 아니라 후손에게 까지도 이르기 때문에 방사선 지역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는 1주에 100밀리렙 이상의 방사선에 피폭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1년 동안에는 5렌트겐 이상 못 받게 한다.

사람은 100γ(렌트겐)이상 맞으면 사망자가 나기 시작해서 400γ이면 맞은

사람의 반은 죽고 나머지 반은 살아남는데 살아남는 사람이라 해도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리하여 600γ만 맞으면 95%가 죽고 650γ만 맞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2주 이내에 죽고 만다. 이제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방사선량	0-25γ	25-50γ	50-100γ	100-200γ	300γ	400γ	600γ	650γ
사람에게의 영향	명백한 상해는 없으나 후기영향 예측됨	조혈세포 파괴 그러나 큰 상해는 없음	혈구감소. 상해있음	5% 사망. 무기력	10% 사망. 무기력	50% 사망 (2-12주내)	95% 사망	100% 사망(2주이내)

그리고 하등생물일수록 방사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동물은 1,000γ로 모두 죽지만 세균은 천만γ을 맞아야 전부 살균된다.

종	포유동물	곤충	세균
치사선량	1,000γ	100,000γ	10,000,000γ

세균 중에도 하등세균 일수록 방사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다.

종	효모와 곰팡이	일반세균	바이러스(Virus)
치사선량	1,000,000γ	2,000,000γ	5,000,000γ

방사선의 이용

이처럼 고등동물일수록 방사능에 약하므로 앞으로 원자전이 일어나면 전 인류와 가축, 그리고 야생동물이 모두 사멸되더라도 곤충이라 던가 세균류는 죽지 않고 살아남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나 생물을 멸종시킬 수도 있고 후손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방사능도 잘 이용하기만 하면 굉장히 유익하게 쓸 수가 있다. 그 일례가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의 살균과 종자개량이다.

식품의 살균

식품에 강력한 방사선을 조사시키면 살균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맛이 변하여 먹기 거북하게 되는 수가 있다. 즉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에 불을 놓는 결과가 된다는 경우와 흡사하다. 이제 방사선으로 살균했을 때 맛이 변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되는 것, 맛은 약간 변하나 먹기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 그리고 맛이 나빠져서 먹기가 거북한 것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된다.

좋다	베이컨, 완두, 당근, 닭고기, 돼지고기, 소세지
보통	사과즙, 아스파라거스, 빵, 카베츠, 옥수수, 햄, 시금치
나쁘다	바나나, 셀러리, 치즈, 레몬 즙, 우유, 오렌지 ,딸기, 토마토 즙

미국에서는 돼지고기에 대한 방사선 조사가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돼지고기에 붙어 있어 사람의 선모충병(Trichinosis)의 원인이 되는 기생충 선모충을 죽이기 위함이다. 특히 그 유충은 방사선에 강하므로 코발트 60으로 만γ보다 약간 높은 조사량으로 충분히 죽일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맥주의 살균도 연구되고 있는데, 풍미가 나빠진다는 차점(次点)이 있다. 반면 위스키는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오히려 그 맛이 좋아 진다고 한다.

감자에 코발트 60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조장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 이것에 의하면 조사 후 8개월 만에 꺼내어 먹어 봤더니 오히려 그 맛이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또 18개월 후의 시료를 먹어봐도 좋지 않은 맛이 전혀 없었다고 함으로 감자의 방사선 조사는 매우 양호하며 장래가 극히 유망하다고 생각된다. 이밖에 곡물에 조사하여 해충을 구제하려는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각종별로 조사실례를 보기로 하자

가. 육류

쇠고기

완전 살균량의 10분의 1로 방사선량을 줄여 조사한 후 0.5%의 후말산(酸)소다 및 구루타민산 소다를 첨가하여 섭씨 5도에서 저장하였더니 3개월이 지난 후에도 별로 냄새도 없이 저장되더라는 것이다.

돼지고기

50,000γ에 조사된 돼지고기는 보통 돼지고기 보다 저장기간이 5배나 연장되었다고 하며 조사해도 맛의 변화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나. 물고기

물고기를 부패시키는 것은 주로 박테리아인데 이것이 어육(魚肉)중에 있는 트리메칠아민 산화물에 부패를 일으켜 트리메칠아민으로 변하면 불쾌한 썩은 냄새를 발산케 한다. 따라서 방사선의 효과를 트리메칠아민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어육부패의 원인은 어육 자체 내에 있는 단백질 분자효소를 들 수 있다.

씰 청어 같은 것은 자기 소화에 의하여 액화(液化)해 버리는 수가 있다. 일본에서 실험한 예로는 코발트60 20큐리를 16cm 떨어진 곳에서 실온 섭씨 10도로 12시간 조사 후 20일간이나 방치해 두었어도 별로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다. 곡류

쌀, 보리, 콩 같은 곡물이라든가 그 가공품을 식해(食害)하는 각상충, 바구미들은 비교적 적은 선량인 30만γ에라도 사멸되고 25,000γ이면 곤충의 변태가 온전히 중단된다. 본래의 해충들은 그 변태의 각 단계에 있어서 방사선에 대한 저항력이 다른데 대체로 보아 성충이 될수록 그 저항이 증가하므로 성충의 사멸을 목표로 약 10,000γ만 조사하면 수주내에 전부 사멸시킬 수 있다 한다. 더욱 흥미 있는 사실은 방사선 조사를 받은 곡류는 조사를 안받은 것 보다 조리시간이 단축되는데 이것은 필경 조직 내의 변화에 기인되는 것으로 본다.

라. 야채와 과실

방사선에 의한 변질은 수분함유량이 많을수록 심하다. 따라서 야채나 과실의

경우에는 저장기간과 변질로의 상호관계를 참작해서 선량을 결정해야 한다. 야채나 과실은 대체로 150만γ이면 임계량으로 본다. 즉 150만γ의 선량이면 저장 중 곰팡이의 성장을 충분히 저지할 수 있는 선량이 되는 것이며 이 선량을 넘으면 변색, 불쾌한 냄새, 맛의 변질이 심하게 된다. 실제로 복숭아를 이 임계량이상으로 조사하였더니 갈색으로 되고 냄새도 심하게 나더라는 것이다. 이때 산소를 제거해 놓고 처리한 것은 갈색으로 변하지 않고 도리어 표백이 되었다고 한다.

마. 계란

알을 부패시키는 것은 살모넬라라는 세균인데, 이 균의 살균은 보통 30만γ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알을 가루로 만들 때는 멸균하기 위하여 가열하는데 이때 고열처리를 하면 단백질이 응결하기 때문에 60도 이하에서 단기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섭씨 60도에서 살균이 충분치 않다. 그러나 방사선 처리는 열처리가 아니므로 단백질 응결이 전혀 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종자의 계량

방사선을 받은 종자는 대개 변종한다. 생물학적인 용어를 쓰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에 조사되면 나쁜 방향으로 변종되지만 그 중에는 좋게 변종하는 것도 있다. 이를테면 토마토에 방사선을 조사시켰을 때 그중에 어떤 씨가 열매를 크게 맺었다면 큰 열매들 끼리 서로 접종시켜 토마토를 수박만한 것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쌀을 변종시켜 수확고를 올리게 한다든지, 일 년에 두 번 농사할 수 있도록 빨리 자라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농업경제에 일대 혁명을 가져올 것이다. 종자개량은 비단 곡물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동물 특히 가축에 관하여도 많은 관심을 쏟아 왔다.

우리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로에서 조사시킨 종자는 소나무 씨앗, 대두, 소두, 옥수수, 파, 이스트, 인삼, 쌀 그리고 동물로는 메뚜기 등이 있다. 특히 인삼은 Activation Analysis라는 방법으로 인삼 속에 들어있는 미량의 광물질을 분석해 내고 있다.

노아의 방주

장차 인류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필경 원자탄에 기인할 것이고 또 혹 어떤 부족이나 지방민이 살아남는다 해도 그들은 원자탄으로 야기되는 방사선장애로 인하여 멸종되거나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학가는 앞으로 인류문명은 밀림속의 격류(激流)에서 독목주(Canoe)를 노 젓는 미개인들로부터 재출발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인류가 원자탄으로 멸망되어도 우리 문명의 유산만큼은 장차 살아남을 인종들에게 물려주자는 것이 인류 및 문명의 보호책이요 현대에 있어서의 노아의 방주안 이다.

그 방법은 이렇다. 커다란 연제(鉛製)용기 내에 가문이 좋고 건장한 남성의 정충과 여성의 난소(卵巢)를 저장하여 둔다. 이 연제저장고의 외부에는 자동저장장치가 있어서 대기 중이나 수중의 방사능이 만족할 만큼 충분히 감소하지 않는 한 저장고의 기계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둔다. 그러다가 외계의 방사능도가 최대허용량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장치가 작동하여 정충과 난소가 서로 결합하여 부화하도록 한다. 그로부터 이 인조인간은 자동장치라는 부모의 힘으로 양육되고 규칙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기라는 유모의 도움과 또한 미리 준비된 시청각시설이라는 교수들의 지도를 받아 단시일 내에 피타고라스, 뉴턴, 아인슈타인을 습득하고 성장 후에는 출생지 부근에 매장되어 있는 제반 과학기재를 사용하여 인류문명의 부흥을 도모한다는 안이다.

지금 우리가 향유(享有)하는 문명, 문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인류는 수천 년이라는 유구(悠久)한 세월과 막대한 정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인류와 그들이 쌓아올린 문명이 혹 일시적인 과오로 말미암아 파멸되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탄생할 인조인간들은 일단 인류가 이룩한 문명을 다시는 처음부터 되풀이 하지 않고 현대의 수준에서부터 재출발하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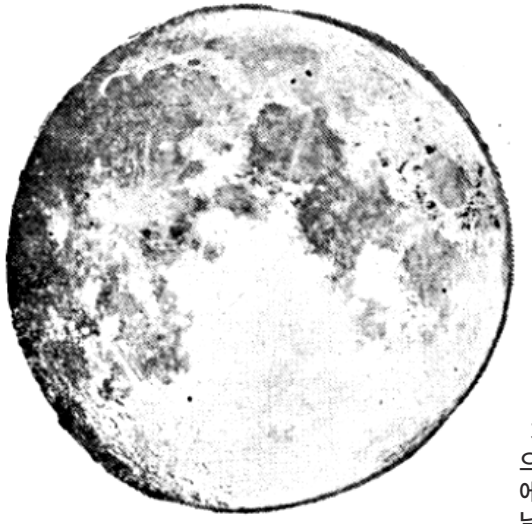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탈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은 결코 어느 층이나 어떤 계급이나 시족일 수는 없다. 그것은 오로지 인류의 장래를 염려하는 인간의 양심이요, 이성이요, 평화 애호심이요, 또한 인류보존욕일 것이다. 살고자 하는 뜻(Will to live)일 것이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려는 마음 바탕에 깃들은 진지(眞摯)한 인간의 성의(誠毅)일 것이다. 이제 살아남을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것이며 우리의 재주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祈禱)일 것이다.

원자력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상의 실용성을 풍부히 지니고 있다함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만일 원자력이 지금까지 파괴수단으로 징용(徵用)되어 왔다는 단순한 이유로써 탕자나 창기의 대우를 받는다면 결코 안 될 일이다. 원자력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노벨(Nobel)과 같은 심정으로 자기의 연구결과의 이용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65페이지에서 계속>

2명이 소기의 업무를 완수하면 로케트로 1명이 기다리고 있는 모선으로 되돌아가서 3명이 지구로 귀환할 예정인 것이다. 그러나 그전에 여러 단계의 아폴로 계획이 실현된 뒤에야 최종적인 아폴로 계획에 착수될 것이다. 아폴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세턴 로케트 초 노바 로케트가 완성되는 것을 그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현재로는 어떻게든지 60년대에 최종적인 아폴로 계획까지 마칠 작정으로 있으나 레인저, 제미니 계획 등이 늦고 있는 것에 비추면 굉장한 노력 없이는 예정대로 되기 어려울른지도 모른다. 한편 소련도 달나라 정복에 대한 구체적인 스케줄을 마련하고 있겠지만 일체 발표된 바가 없다. 만사를 꿍꿍이속에서 진행시키고 있음으로 언제 무슨 극적인 수작으로 나올는지 누구도 모를 일이다. 다만 쿠니크 4호에서 별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은 예에서 보면 소련의 달나라 정복 계획이 예정대로 되어가지 않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어떻든 아폴로 계획 같은 것이 실현되면 그 보다 몇 년 뒤엔 달을 이용하는 갖가지 계획이 진행될 것이고 그 뒤엔 달이 지구의 제7의 대륙이 되어 달나라에 사람이 사는 도시까지 출현하는 것임은 미리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달나라 정복의 전망(展望)



이 종 수(李鍾秀)
<한국일보 과학부>

지구 제7대륙(大陸)으로서 불원간 달나라에 인간도시가 건설될 날도 멀지 않았다.

지난번에 「레인저」7호는 달나라 정복 도정에 새롭고도 뚜렷한 이정표를 세웠다. 달을 정복하려면 먼저 그곳의 상세한 상태를 알아야 하는데 「레인저」7호는 그 사전 임무의 일단을 너끈히 해치운 것이다. 「레인저」7호가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또 다른 일련의 탐사작업이 끝나면 사람이 직접 달을 탐험하러 가게 된다. 일단 사람까지 달을 조사하고 나면 달을 지구의 제7대륙화 하기 위한 초거대사업에 착수될 것이다. 그 다음엔 달도 지구 못지않는 인류의 서식처가 된다. 이렇게 구절을 나열하기란 쉬운 일이지만 그 내용 그대로를 성취시키기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대난사(大難事)인 것이다.

그러나 「레인저」7호가 보여주듯, 끈덕진 노력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이다. 「레인저」7호의 성공을 계기로 다음에 달나라 정복에 대해 전망해 본다.

달에 여행하고자 하는 염원은 처음 탄생하여 이미 수십억 년 전에 탄생한 달을 처음으로 인식했을 땐 공포감이 앞섰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인류는 달을 그저 바라 봤을 테고 그 뒤의 인류는 다시 달을 찬미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러다가 약 2천 년에 달에 한 번 가보고 싶은 엉뚱한 생각까지 품기에 이르른 것이다. 그러나 달에 갈 수 있는 과학의 발달이 없었으므로 당시의 달 여행 동경자 들은 다만 상상으로 달로 가는 여행 방법을 마련하여 소설로 꾸며냄으로써 스스로를 달랬을 뿐이었다. 어떤 사람은 여러 마리의 백조에 이끌려 달나라로 여행하는 방법을 공상했고 또 누구는 아침이슬이 가득 찬 여러 개의 병을 허리에 차고 달까지 간다는 꿈을 꾸기도 했다. 그러다가 약 백 년 전에 포탄에 사람을 태워 달로 보낸다는 줄거리를 소설로 표현하여 오늘의 우주시대를 예언하기에 이르렀다. 한 소설가의 예언은 5천 년 10월 4일 소련의 '스푸트니크'1호의 발사로부터 비롯된 인공위성, 인간위성, 달 탐사위성 등의 성공으로 차츰 적중의 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면 위선 달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개략적으로 알고 왜 달에 가야 하나를 더 들어 보고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자.

달은 말할 것도 없이 태양계 가족 가운데 지구라는 분가(分家)에 딸린 별(위성(衛星))이다.

태양계에 속하는 본성이니 토성이니 하는 분가에도 위성은 있다. 그러나 소속되어 있는 혹성에 비해 질량으로 따져 약 10만분의 1이라는 아주 조그만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달이라는 위성은 지구의 80분의 1(질량으로)이라 딴 혹성에선 볼 수 없는 크기다. 그리고 달의 직경(直徑)은 지구의 그것에 비해 11분의 3정도다.

그 달은 평균 38만 4천 킬로미터 저쪽에서 지구 주위를 공전하면서 스스로도 자전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달나라엔 동화 속에 나오는 옥토끼도 없을뿐더러 생물이 생존하는데 꼭 있어야 하는 공기도 수증기도 없다고 한다. 공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이 직사하는 곳은 눈이 부시고 그 대신 태양이 지면 곧 캄캄해진다. 또한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를 않는다. 공기와 바다가 없어 낮에는 초열(焦熱)의 지옥이고 밤에는 극한의 세계다. 이렇듯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등 생물도 살 수 없는 공간이긴 하다. 다만 유쾌한 듯한 것은 달에서의 중력이 지구에서의 중력의 6분의 1이므로 지구에서 2 미터밖에 못 뛰는 사람도 달에선 12미터 뛸 정도로 몸이 가벼워진다는 점 정도인 것이다. 이러한 자료는 1610년에 이탈리아의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자작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한 이래 최근까지 관측 및 측정을 계속하여서 얻어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달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가 많다. 대기 층이라는 두터운 장벽이 지구 달 사이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어떤 대망원경으로도 관측해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달까지 사람을 보내야 할 까닭이 생긴다. 그뿐 아니라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데서 달의 암석에서 산소는 물론 물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므로 한번 인류가 이 발을 붙이기만 하면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어 그 정복이 서둘러지고 있기도 하다. 그밖에 이왕 미소(美蘇)가 인공위성 경쟁에서 시작하여 우주정복 경쟁으로 번지게끔 되었으므로 국위(國威)을 걸고 가까운 달나라를 누가 먼저 정복하느냐를 다루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미 지나간 달 명중경쟁, 달 사진촬영경쟁에서 달 정탐경쟁, 달 상륙경쟁, 달, 이용경쟁으로 계속해 나가면서 달나라의 정복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회고해 보면 첫 인공위성발사에서 고배를 든 미국은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 달 로케트 발사에 선수를 치고 나섰다. 58년 10월 11일의 '파이오니어'1호의 발사가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실패. 그뿐 아니라 지난 1월 31일엔 '레인저'6호에 이르기까지 무려 14회나 달을 목표로 한 로케트 및 위성 발사에서 실패했다. 달에 명중한 것이 2,3회는 되지만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모두 실패였던 것이다. 이에 반해 소련이 달을 노린 의도는 내막은 어떻든 겉보기론 매우 순조로웠다. 59년 1월 12일 소련은 '루니크'1호 혹은 '메치타'라는 달 로케트를 발사하였다. 그러나 그때엔 달 곁을 스쳐 인공혹성이 되었다. 이어서 동년 9월 12일엔 '루니크'2호를 발사하여 달에 명중시키는데 성공했다. 곧이어 10월 4일에 발사한 '루니크'3호는 3일 뒤인 7일에 영원히 지구를 외면하고 있는 달의 표면(달 전표면적의 41퍼센트)의 4분의 3을 사진으로 촬영, 전송하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소련식 이름이 붙은 달 표면 지도가 그려져 전세계에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소련은 달 경쟁에서 미국을 앞섰다고 자랑을 하여왔다. 그런데 63년 4월 2일에 어떤 의도하에서인지 몰라도 '루니크'4호를 발사했으나, '루니크'1호와 마찬가지로 달 곁을 통과, 인공 혹성화하고 말았다. 결국은 도루아미타불 즉 소련의 아주 얄팍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렇듯 소련이 첫물에서 어느 정도 앞섰다고 우쭐대다가 진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비록 짧지 않은 세월에 걸쳐 허탕을 치면서도 주저앉지를 않았다.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고 무엇이건 잘 못된 점은 개량을 해나갔다. 그리하여 드디어 지난 7월 29일 만만한 자신과 함께 '레인저'7호를 발사했다. 그 「레인저」7호는 68시간 35분의 긴 비행 끝에 소정의 업무를 완수하고 달에 충돌하였다.

소정의 업무란 말할 것도 없이 달 표면의 연속접사작업(連續接寫作業) 및 그 성과의 전송이었던 것은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다.

소련이 약 5년 전에 달 표면사진을 촬영했다하나 그것은 달에서 1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망원 카메라로 촬영해낸 것에 불과한 것, 따라서 달을 연구하는 데 있어선 그다지 큰 과학적 가치가 없었다. 그런데 지난번 '레인저'7호의 경우는 6대의 TV 카메라에 의한 무려 4,224장의 연속적인 클로즈업 사진을 촬영, 전송해 온 것이었다. 달에서 2,092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찍기 시작하여 충돌하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찍어낸 4천여 장의 달 표면 사진은 그동안 궁금히 여겨오던 가지가지의 의문을 풀게 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또한 예기치 않을 만큼 많은 분화구 같은 구멍이 산재해 있다는 것도 알려 주었다. 어떻든 「레인저」7호는 앞으로 사람이 달에 상륙하여도 별 지장이 없으리라는 첫 보장을 해 준 셈이다. 천문학자, 지질학자 등 각 분야의 학자들이 그 사진들을 분석하면 앞으로도 또 다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난번의 「레인저」7호의 성공은 대단히 가치 있게 평가되고 있음은 물론이지만 미국은 결코 그것쯤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 달나라 정복은 이제부터라고 새로이 각오를 다짐하면서 다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배전(倍前)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달나라 정복을 위해 앞으로 할 일이란 무엇일까. 미국은 이번 달 표면을 파악하고 났으니까 다음엔 필경 달 표면의 사진촬영을 노릴 것이다. 앞서 소련은 지구 쪽에서 볼 수 없는 달 표면의 4분의 1을 포함시킨 달 표면을 '레이저'7호 모양 연속 접사해 내고자 할 것은 소련에 대한 체면상 자명한 노릇이다.

달의 전부가 일단 사진으로 찍힌 다음에는 본격적인 탐사에 나설 것이다. 미국은 달의 탐사계획으로 '써베이어'(탐측가) 계획, '프로스펙터'(탐광자) 계획 등 무인탐사계획과 '아폴로'계획이라는 유인탐사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써베이어'는 많은 봉을 원추형의 테두리로 조립하는 것으로서 무게로 약 1톤 '소프트 랜딩'(연착륙)을 하기 위한 역 '로켓'가 다 타고나서 착륙할 때의 무게는 337.5 킬로그램이 된다. 물론 살짝 달에 착륙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의 경우 상당히 세게 충돌하더라도 파손되지 않게는 준비되어 있다. 적재될 기재 중 중요한 것은 4대의 TV 카메라로서 그 가운데 하나는 천연색 사진을 찍어 보내게 된다. 다음에 중요한 것으로는 달의 암석의 성분을 검정하며 보고하는 장치다. 그 장치에 마련된 드릴이 구멍을 파서 바위 부스러기의 분말을 분광기에 걸어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구에 보내오게 되어 있다.

14개월의 '써베이어'가 발사될 예정으로 있는데 '소프트 랜딩'이 한 번도 실험된 일이 없으므로 처음엔 여러 개가 실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써베이어'다음에 발사될 예정으로 있는 것이 '프로스펙터'는 1종의 탱크와 같은 것으로서 달 표면을 종횡무진으로 움직이면서 달의 흙이나 암석을 분석하기도 하고 소량의 견본을 '로켓'로 지구에 보내기도 할 것이다. '써베이어'는 1963년에 발사될 예정으로 있던 것이 연기되어 왔고 '프로스펙터'는 1966년경에 완성될 '새턴 로케트'를 써서 발사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달이 완전히 구명(究明)되어 사람이 가도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될 때에야 비로소 '아폴로'계획에 의해 사람이 달을 탐사하러 가게 될 것이다. 이미 '머큐리'계획에 의해 유인우주비행은 실험 필이니까 '아폴로'계획에 옮겨 가기에 앞서 '제미니'(성좌의 쌍동 좌에서 딴 이름) 계획에 의해 두 사람의 우주인을 태운 위성선의 발사 연습이 있을 예정이다. '제미닌'계획은 '머큐리'계획을 규모를 조금 크게 한 것이지만 그것으로서 우주비행에 꼭 필요한 우주공간에서의 '랑데부'기술을 마스터하는 점이 특이하다. 그런데 이 '제미니'계획의 실현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 '제미니'계획이 끝나야 '아폴로'계획의 실현에 착수될 것이다. 최종적인 '아폴로'계획은 3명의 우주인을 지구에서 출발시켜 달 궤도에 돌입시킨 뒤에 1명을 모선에 남기고 2명을 달로 보내 탐측을 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61페이지에 계속〉

특 집

1. 기합론(氣合論)
2. 요령론(要領論)

새로운 차원에의 모색

3. 고참론(古參論)
4. 불가능부정론
5. 명령만능론

군대는 그 조직과 사명의 특수성(特殊性)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몇몇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불가능을 거의 부정하고 사명의 절대성을 확신하는 외향적인 정신, 요령을 찾고 고참 의식을 갖는 내향적인 관념, 그리고 기합이라는 특수제재행위(特殊制裁行爲)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신이나 관념이나 행위가 있음으로 해서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체(組織體)가 원만히 목적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다고도 하겠다. 그러나 이들이 일부의 그릇된 인식에서 잘 못 작용된다든가 도는 악의에서 다루어진다면 군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전력에도 많은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제 한층 새롭고 높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정리(整理)하고 보다 효율적인 군의 운용을 모색해 보자.

기합론(氣合論)

심 수 명(沈洙明) <공군대위>

하나의 대상에서 또 하나의 대상을 생각하는 작용을 연상이라고 한다. 눈(雪)을 보면 북극을 생각하고, 연필을 보면 종이를 생각한다. 군대란 개념을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생각할 때 우리들 머리속엔 전쟁, 다채로운 의식, 기합 등의 연상 작용이 일어난다. 군대와 기합이 왜 연합하고 있는가. 서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필과 종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다. 군대와 기합이란 엉뚱한 두 개념이 언제부터 왜 접근하였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 우리 세대 이전부터 서로 연합작용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모르긴 해도 갑옷에 창을 들고 한 줄로 늘어서서 적과 부딪쳐 싸우던 고대부터, 순식간에 세계를 재로 만들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한 현재까지 서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국가 목표가 어떻게 다르건, 국가, 이념, 군대교리가 어떻든 간에 세계 어디에 기합 없는 군대가 있는가? 아직 들어본 일이 없다.

하나의 기업경영 집단이 사업에 실패했다면 돈을 잃는다. 운동단체가 경기에 졌다면 영예를 잃는다. 그러나

군이란 특수집단이 패했다면 스스로의 생명과 그들의 조국을 잃는다.

이렇게 행동분야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못 듣는 기합이란 말을 군에서는 군대의 심볼처럼 듣게 되는 것이다.

지금 기합이라는 증오의 대상 개념을 예찬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합 그 자체가 민주국가의 기본정신과 인연이 먼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종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마땅히 배척되어야 할 수단인 것 같다.

그러나 군이랑 특성을 따지고 볼 때 기합의 존재이유를 알 수 있겠고, 존재 불가피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회사원을 양성할 때는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주로 한다. 그러나 군인을 양성할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고 적을 죽일 수 있는가가 주가 된다. 죽고 사는 문제를 부드러운 대화로만 가르칠 수 있겠는가. 기본군사 교육에서 기합이 성행하는 이유도 실로 여기에 연유한다고 본다.

군인들이 며칠을 자지 않고 계속 행군하면 자면서 걷는다고 한다. 그러다가 눈 위에 쓰러져 잠들면 그대로 얼어 죽는다. 머리에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육체는 쓰러져 잔다. 이것이 인간의 안다는 것과 행동한다는 것과의 차이점인 것이다. 이러한 때에 어떤 자극이 필요할까? "X상병 자면 죽네, 일어나 걷게"그의 이성에 호소해서 그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권총을 뽑아 귀에 대고 뺑! 하고 쏜다. 이것이 생사의 문턱을 왕래하는 군이란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군은 목적보다 수단을 앞세우는 비능률적인 집단이란 말도 듣는다. 이와 같이 일반사회에서 별로 이용되지 않는 기합이란 특수 수단이 군대와 접근연합작용을 일으키도록 되었다는 사실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합이란 개념을 어떻게 규제하는가에 따라서 방향은 많이 변할 것이다. 문제의 범위를 좁히고 우리들의 경험에서 이야기하기 위하여 평범한 상식으로서의 기합을 말 하고자 한다.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기합이란 말을 기압(氣壓)이란 말로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이다. 기를 죽이고 정신과 육체를 압축시킨다는 인상을 주는 기압이란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많은 개인운동(당수, 검도, 유도 등등)에서 결정적인 계기에 얏! 하고 스스로에게 넣는 것이 기합이다. 단체경기에서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싸우자! 이기자! 하고 동료 서로에게 넣는 것이 기합이다.

이렇게 생각 할 때 기합은 주는 것이 아니고 넣는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기합이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내지 자극을 기합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어둡지 않은 기합이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어두운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기합이라면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만 이해되고 있었는데 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더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각자는 고유하게 형성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침해될 수 없는 범위라고 본다. 군대가 전투단위로서의 이상적 개인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인간성이나 인격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본다. 그 가장 쉬운 방법은 로봇 군일을 가지는 것뿐이다.

하나의 생명체가 계속적인 육체적 고통 내지 통제를 통하여 규격화할 수 있다는 이론은 파브로브에서 증명되었다. 그러나 군인 전부를 이러한 기계적 방법으로 훈련하여 한 목적에 이용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귀한 가치는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제 이와 같은 기합들이 어떤 필요에서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살펴볼 문제다. 기합을 넣지 않으면 어쩐지 이상해서 주기적으로 이행되는 행사 형이 있겠고, 자기 정당화를 위한 우격다짐형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공로표창의 반대효과를 위한 본보기형도 있겠고, 아들의 종아리를 때리는 심정의 기합도 있겠다. 그 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류를 산할 수 있겠지만 문제 밖으로 한다.

우리들이 여기서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는 기합을 넣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 문제이다. 간단한 제식교련이 고통스러운 기합이 되고, 연속기리로 찔러의 계속적인 반복이 총검술 훈련일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기합이란 개념 중에 묘한 융통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의 경험을 통하여 보더라도 기합을 받고 시원하고 홀가분한 기분을 느낀 때가 있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어린애가 어머니에게 벌을 받고난 후에 느끼는 허탈감 그것이다. 하나의 과오로 인하여 고참병에게 기합을 받고 반부와 반장에게, 주번하사에게, 주번사관에게, 대대선임하사에게, 행정계장에게, 대대장에게 이르기까지 하루를 릴레이 기합으로 바쳤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느껴지겠는가? 반성보다도 반발이 있을지 모른다. 어느 내무반장이 반원 전체를 자기 앞에서는 벌벌

떨도록 다루었다고 한다면 그가 능력 있는 내무반장인가? 동화책 속의 왕국을 건설했다는 바보의 착각일 뿐이다. 이러한 위업들이 과연 전투 목적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많은 부작용의 인자를 번식시킬 뿐이다. 기합을 넣은 사람은 받는 입장이 되어서 넣어야 옳다. 그것은 한 인간이 인간을 특수한 방법으로 다루는 양심이다. 이렇게 거래된 기합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날리 없다. 비인간적인 잔인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기합, 터무니없는 이유로 받아야하는 기합, 여기에 하극상이 빚어지는 이유가 있다. 여기에 병영을 탈출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책임한 상급자의 책임은 너무나 크다. 한 지휘관이나 한 상급자의 행동이 많은 부하들의 생활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기합을 받는 태도를 생각해 보자. 반성적인가 반항적인가가 문제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반항적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군인 이전에 인간의 약점이다. 옛날에 읽은 이솝우화가 생각난다. 개구리들이 모여서 하늘에 빌었다.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 주십시오." 하늘은 그들의 뜻을 귀히 여겨 두꺼비 한 마리를 개구리 나라에 왕으로 보냈다. 그런데 이 두꺼비왕이 너무나 선량해서 개구리들은 다시 하늘에 빌었다. "우리에게 좀 더 박력있고 엄격한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마침내 하늘은 학 한 마리를 그들의 왕으로 보냈다. 새로운 왕은 두꺼비와는 달랐다. 개구리들에게 무어라고 떠들기만 하면 자기의 긴 주둥이로 쪼아 먹겠다고 선언했다. 그 후에 개구리는 거의 종자가 말라갔다. 기진맥진한 개구리들은 모여서 다음과 같이 하늘에 빌었다. "제발 우리에게 선량한 지도자를 보내 주십시오."얼른 보아 넘기면 우스운 이야기에 불과하겠으나 되새기면 많은 뜻이 있는 이야기라고 믿는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기합은 정말 부당한 것인가를 가려보자. 감수하고 만족하는 마음이 부족한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수련은 결코 손해라고만 할 수 없다고 본다. 기합이 군대와 연합하는 이유는 많다. 군대가 가지는 특성에서 볼 때 둘의 연합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기합을 넣는 입장에서 많은 여건들이 고려되어야 하겠고, 받는 입장에서도 반성적인 태도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기합이 인간적이고 지성인을 움직이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야겠다는 것이다.

특집 · 새로운 차원에의 모색

요령론(要領論)

마 종 기(馬鍾基) <공군중위>

A soldier is a soldier. — '군인은 군인이다'라는 말도 물론 되지만'군대는 요령(要領)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다.

영어에서 Soldier가 요령이란 뜻으로 쓰이는 것에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동서고금을 통해서 의미가 별로 색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없다는 감탄사도 나오게 된다.

그렇다. 군대는 요령이다.

군에 들어오기 전에도 어느 연상의 선배에게 들었고 기가 찬 훈련을 받을 때도 줄곧 들어온 말이다. 그렇게 해서—이제 좀 햇수가 지나고 나도 이 군대속에서 조금씩 요령에 물들고 있는지 모른다.

요령은 그럼 무언가?

한글 사전에는'중요한 줄거리'라고 했다. 요령이 좋다.—중요한 줄거리가 좋다.—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럼 혹시'요량(料量)'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뒷 일을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림'—아무래도 뒷말이 우리에게 뜻을 통하게 하는 듯하다.

그래서 요령이 좋다는 말을 쓴다.

이것을 나쁘게 들으면 꾀를 부리고, 일을 안하고,

책임을 면하고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회주의(機會主義) 및 아첨파를 칭하는 듯이 된다.

그러나 다시 소급해서 생각하면 요령(要領)은 요량(料量)의'량(量)'이다. 적시, 적소에 적절한 양을 말한다. 사고와 행위의 절충, 그 양의 한계를 말한다. 말하자면 빈대가 무서워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식의 사고와 행위의 도착상태를 지양하자는 것이다. 요령은 량(量)이다.

인간은 그 스스로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한 개인으로서의 특수성과 사회, 집단의 일원으로 가지는 보편성이다. 눈이 둘이고 코가 하나고 귀가 둘인 것 같은 보편성이요, 한 사람은 그림을 좋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운동을 즐기는 특수성이다.

여기에 보편성은 양성이고 눈에 보이는 대신에 특수성은 대체로 음성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수가 많다.

요령은 이러한 인간의 양면성 중에서 보편성의 필요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요령은 따라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도 규정되어진 때부터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되어 왔다.

군대는 사회 집단 중의 하나이다. 오히려 가장 그 집단을 외향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내면적으로도 성취되어야만 할 집단이다. 해서 여러 종류의 집단 중에서도 이 광대하고 Uniformity를 주축으로 삼는 군대에서 요령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것도 당연한 이치가 된다.

한 동료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다. 군대가 소비적인 단체이니 망정이지 만약 어떤 기업을 위한 생산적인 단체가 된다면 아마 일년도 못가서 망하고 말 것이라고—이 말은 상당히 군대라는 단체에 대해 비관적인 말을 들려주고 있지만 나도 얼마는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군대에 있어서 요령은 이제 거의 다분히 나쁜 의미로 전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오용되고 있는 요령을 바로 잡고 새로운 도약을 마련할 기틀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물론 이것은 한마디 말이나 하루아침의 기적(奇蹟)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우선 확실하다.

20세기의 후반 기계화된 문명, Mechanism에 굴종한 인간의 자세도 넉넉히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다.

36년간의 식민민족, 동족상쟁의 전쟁, 그리고 변전(變轉)하는 정치, 안정되지 못한 경제……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조건들이 이러한 '왜곡된 요령'을 탄생시킨 여건이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아니 거의 전부가 여기서 파생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 발생을 운위(云謂)할 때는 지금 아니다. 그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새로운 토대를 필요로 한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1대의 석학(碩學) 헤겔(Hegel)은 그의 주저(主著)에서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인 것이요,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이다'라고 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성'에 합일할 수 있다는 최고의 정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요령은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당하는 현실, 그 현실적인 요령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심중의 판단, 즉 이성적인 요령이 가미, 합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첫째 중요하다.

심중의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와중의 생활일수록 보이지 않는 것은 순수하고 정확하다. 이렇게 해서 테제(Thesis)와 안티테제(Antithesis)는 충돌(衝突)하여 진테제(Synthesis)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 오갑환(吳甲煥)씨의 「한국 군대의 사회 구조」라는 논고(論考)를 읽었다.

상당히 직설적이고 사소한 점에까지 손을 뻗친 내용이 시선을 끌었다.

요는 군대 사회의 기본 구조는 권위주의적, 공식적, 합리적, 관료적 조직체임을 이야기하고 특히 관료적 조직체의 부작용으로 ① 책임회피 ② 형식주의를 말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책임회피와 형식주의가 말 그대로 왜곡된 요령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요령은, 말하자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말하는 경제원리를 그대로 말하는 듯도 하다. 그러나 단 여기에서 최대의 효과란 것은 한 개인에 있어서의 영달(榮達)이나 돈보임의 도구이지 결코 여러 사람을 위한, 전체를 위한 효과가 아닌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어떻게 하면 최대의 효과를 세상에 유용한, 한 집단, 한 국가에 유용한 효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답은 극히 애매하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심중의 요령, 그 개인의 정신적 지주에서부터 일깨워진 요령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집단에 대한 애착심,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에 대한 부동의 애국심(이 말은 상당히 고루(固陋)하게 들리기도 한다.)이 한 개인개인에게 틀어박혀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히 필요하게 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이다.

이야기를 돌려 영화 중에 'From here to eternity'란 것이 있다.

강등된 사병역으로 Monty가 분장을 하고, 요령 좋은 하사가 나온다. Monty는 요령이 없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그는 그를 해치고 친구를 죽도록 만든 한 상급자를 죽인다. 그리고 은신한다. 하지만 급작한 전쟁의 돌발로 그는 무작정 그의 본대(本隊)로 돌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그의 무리한 행위는 드디어 동료의 총탄(銃彈)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 영화에서 그가 부는 취침(就寢) 나팔 소리에 목이 컬컬해지고 요령 없는 고집에 감동하지만, 결국은 그 요령 없는 고집이 한 집단에의 애착심 한 국가에 대한 책임감의 실천에 더 큰 감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한 사회인으로서 요령을 지닌다.

이것은 적당히 가질 수 있는 보호색에 해당하는 것이다. 요령은 넙치가 깊은 바다 바닥을 헤엄치면서 용불용설의 생리학설을 따라 흙색으로 넓적해진 그 몰골이며, 방아깨비가 풀숲을 헤치기 위해 길다란 몸을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것 같은 하나의 생리적응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생물은 눈에 보이는 것, 본능의 일절, 생명 그것 하나만이 최상의 것이고 또한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Soma와 Psyche로 이루어진다. 굳이 영혼을 말하지 않는다 해도 정신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육체의 보호색뿐이 아니고 정신의 보호색이 있는 것이다. 일시적이고 임기응변(臨機應變)적인 요령만이 아니고 영구적이고 항상 이성의 편에 서 있는 또 하나의 요령이 있는 것이다.

후자의 요령은 자신의 근본이 되고 자신의 올바른 발전을 생각하고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 자신이 속한 나라를 생각하고 정의를 항상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을 키우고 두 개의 요령이 서로 화합 융화될 때 새로운 사고, 정당한 행위가 비로소 발동되는 것이다.

특집: 새로운 차원에의 모색

고참론(古參論)

김 영 태 (金榮泰)

이런 고참

신병교육을 갓 마친 새까만 이등병이 전방부대로 배속을 받았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내부반 동료들에게 대충 인사를 마친 이등병은 정해진 자리에 침구를 펴고 잠을 청했다. 주위의 전우들은 모두 깊은 잠에 들었건만 이등병은 갑자기 달라진 생활환경이라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동안 뒤채다가 막 눈을 부치려는 무렵, 내무반이 떠나갈 듯한'기상!'소리와 함께 주번사관의 호령이 떨어졌다. 완전무장을 한 다음 일체의 침구며 관물을 담요에 싸서 메고 즉시 내무반 앞으로 집합하라는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진 몰라도 특별훈련이라는 이름의 기합이 시작되는 것이다. 쥐 죽은 듯 고요하던 내무반은 한 순간에 수라장이 되어버렸다. 배속 첫날에 당하는 일이라 잔뜩 겁에 질린 이등병은 떨리는 손으로 짐을 꾸렸다. 관물 보퉁이를 메고 간신히 내무반을 나선 이등병은 그만 그 자리에 엎어졌다. 무거워서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러자 이제부터 관물을 지고 중대 본부앞을 돌아 선착순으로 집합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이등병은 눈앞이 캄캄했다. 몇 발자국을 못가서 뒤엎어지고 말았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거들어 주는 사람

이 있었다. 이등병은 그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날 밤일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다.

그가 고참 하사 아무게라는 것은 그 이튿날에야 알았다. 이등병이 인사를 차리고 도대체 힘이 얼마나 세길래 자기 짐 추스르기에도 겨울 텐데 남까지 거드느냐고 묻자 고참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고참은 관물을 꾸릴 때 메트리스를 슬쩍 침상 밑으로 밀어 넣었다고 하면서 군대는 요령이라고 덧붙인다. 이등병은 입이 딱 벌어졌다. 그 뒤로도 고참은 이것저것 이등병을 보살펴 주었다. 기동훈련에서 기진맥진한 이등병을 보고는 6·25전란때 선배들이 겪은 실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등병은 고참을 친형처럼 따랐다. 어렵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일일이 고참에게 물었다. 그때마다 고참은 풍부한 경험과 기발한 요령으로 시원하게 풀어 주었다. 대신 이등병은 가끔 고참의 사랑의 편지를 대서해주곤 하였다.

저런 고참

한 무리의 신병들이 수용연대에 입소했다. 별안간,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놈들이 있으면 앞으로 나서라는 수용연대 고참의 전달이 왔다. 혹시 편한 일을 맡게 되지나 않을까 은근한 기대를 걸고 앞으로 나선 인사들이 열댓명. 한 줄로 늘어서라더니 다음 어명이 걸작이다. 이제부터 제군들은 앞으로 전진하면서 떨어진 오물이 있으면 성냥 한 개비라도 빼놓지 말고 주으라는 것이다. 하도 어처구니가 없는 명령에 놀라움보다는 노여움이 앞섰다. 이렇게 군대의 첫 인상을 싹 잡친 신병가운데 하나가 뒤에 어느 대대본부로 떨어졌다. 거기서 만난 상전이, 군대는 어디까지나 밥그릇과 군번으로 따지는 것이라면서 스스로 고참을 자처하는 일등병이었다. 제가 여태 먹은 콩나물을 이으면 제주도까지 가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신병은 말할 수 없는 설움을 받았다. 밥을 날라 오라는 것은 이도안 난 얘기고, 세숫물을 떠다 바쳐야 하며 심지어는 양말까지도 빨아 대야 했다. 툭 하면, 대학생이라 글씨가 이 모양이냐고 타박이고, 왜 그렇게 요령이 없느냐고 핀잔이다. 새까만 놈한테 무슨 편지가 그렇게 많이 노느냐는 것이고, 왜 넌 화랑담배밖에 피울 줄 모르느냐는 것이다. 비 내리는 새벽, 달 뜨는 저녁, 신병은 남 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럴 때마다 도망해 버리고 싶은 충동이 불꽃처럼 일어났다. 신병은 하루빨리 제 밑으로 더 새까만 신병이 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지그시 어금니를 깨물었다.

고참이라는 것

고참이란 오래전부터 그 일에 종사해 온 사람을 일컫는다. 즉 어떤 분야에서 오랜 연륜과 경험을 쌓아 온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어떤 사회조직에든지 고참은 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는 고참이란 말을 그리 흔히 쓰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고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고참이라는 것을 들고 나서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군대에서는 고참이란 말이 많이 입에 오르내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참 행세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더구나 고참이란 뜻도 앞서 밝힌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게 쓰여지고 있다. 즉 상대방보다 군번이 좀 빠르다거나 혹은 어느 계급 계층안에서 상위서열에 있다거나 하는 상대적인 뜻으로 통한다. 그러면 고참의 지위를 이렇게 전락시켜 가면서까지 스스로 고참임을 내세우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군대라는 조직이 엄격한 계급사회이며 또 그것이 밖으로 뚜렷이 들어나기 때문이다. 엊그제 임관된 하사나 내일모레 중사로 진급될 하사나 겉으로는 똑같은 하사일 뿐만 아니라 선의의 제삼자로부터는 똑같은 하사로 취급받게 마련이다. 바로 여기에 중사될 하사가 느끼는 오묘한 콤플렉스가 있고 그것의 방어기재가 고참이라는 자기합리화의 구성의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따위의 고참 일수록 고참의 권위를 과시하고, 고참의 위력을 누리려고 애쓴다. 다른 사회의 고참이 속으로 고참임을 자부하고 긍지와 책임감을 느끼는 반면에 항용 군대사회의 고참이 겉으로 고참임을 과시하고 자만과 우월감을 품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고참 의식은 장교사이에도 있다. 그러나 장교는 여하간에 부하(사람)를 지위 통솔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콤플렉스나 계층의식에 대한 농도가 그리 짙지 않아 고참 의식도 양성화하는 경우가 드물다.

문제는 남을 통솔하기보다 통솔을 받는 쪽이 많은 사병세계에서 심각하다. 따지고 보면, 외형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 고참이라는 머릿속의 관념이 군대사회 특히, 사병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가볍게 다룰 것이다.

고참의 올바른 이해

고참의 정의를 앞서 말한 군대 내에서의 통념으로 한정지을 때, 군인된 사람이면 누구나 주위에 고참을 같이하고 있고 또 자신도 고참의 위치에 있거나 있게 될 입장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참이란 말은 선배라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할 군인의 대의명분에서 볼 때 고참이란 애기는 정말 인간들의 너무나도 초라한 정신적 갈등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인류의 행복을 꾀하는 군의 입장에선 한갓 퇴색해버린 에피소드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고참의식(실은 선배의식이라고 표현해야 옳다)을 갖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고참의식에만 그치지 말고 고참으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권위와 권한을 찾기에 앞서 품위와 의무를 느껴야겠다. 고참이 신참을 대하는 사회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콤플렉스나 열등의식을 안 느끼고 사는 이가 몇이나 되겠는가? 단지 이런 것들이 엉뚱한 방향에서 보상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 고참이 군대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앞의 두 예에서 밝힌 바 있다. 극히 사소한 얘기 같지만 그 결과는 심각하다. 군의 사기와 전력을 좌우하는데 까지 뻗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른바 신참이 고참을 보는 정신적 자세다. 군대생리에 익지 못한 적지 않은 초년병들이 고참에 대해 회의적이다. 물론 고참의 처신에서 상대적으로 형성된 관념의 발로일 수오 있겠으나, 그보다는 기정질서에 대한 이유 없는 반항의식의 징표라 하겠다. 어느 사회조직에서고 연륜과 경험은 정당히 평가되어야 한다. 군대라 해서 그것이 부정되어야 할 아무런 구실도 없다. 후배로서 선배를 존경하고 받드는 일은 우선 인간의 도리다. 하급자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상식이전의 군대예절이다. 그리고 이러한, 하급자의 올바른 태도는 상급자의 긍지와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거듭 말하거니와 고참이 지위를 내세우기 전에 의무를 느끼고, 신참이 타당성을 밝히기에 앞서 복종을 따른다면 군은 항상 충천하는 사기와 충일한 전의로 이룩된 막강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단언한다. 바로 이것이 군대사회에서 고참을 이해하는 올바른 자세라 하겠다.

특집 · 새로운 차원에의 모색

불가능 부정론

정인영(鄭麟永) 〈소설가〉

운명과 신의 독약(毒藥)

전쟁은 끊임없이 사나운 열풍처럼 인간의 대지를 휩쓸었고 그 비정한 교류 속에서 무수한 인간은 십자가를 그으며 쓰러져가곤 했다. 너무나 많은 허무와 공허한 언어들이 사자(死者)의 입에서 또는 살아있는 동류들의 폐부(肺腑)에서 어두운 하늘을 향하여 비말(飛沫)처럼 뿌려지곤 했다.

현대는 신의 영토가 위축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오랜 세월을 두고 지상에 군림하던 신의 위력앞에 인간을 스스로를 왜소한 양처럼 자각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신의 아들들이 눈보라 치는 혹밀(酷密)의 육선(陸線)에서, 열대의 밀림 속에서, 사막에서, 하늘에서, 바다에서, 그들의 최후를 경건한 기도 속에서 파묻고 말았던 것이다.

시들어가는 장미(薔薇)의 의지처럼 하늘을 향하여 슬픈 종말을 수놓은 병사의 마지막이 간단없이 되풀이되는 황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의 옷자락을 향하며 끊임없는 손짓을 되풀이하는 슬픈 영상들. 현대는 이렇게 허망한 시공을 향하여 인간에게 돌팔매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영일(寧日)없는 추억처럼 욕망의 그늘에 도사린 독사의 혓바닥을 바라보며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미래는 한갓 남의 영토에서 벌어지는

탈춤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벽지(僻地)에서 신은 차츰 퇴색해 가고 있다. 배신과 불신과 매도의 그늘에서 쇠잔해 가는 위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야차(夜叉)처럼 허약한 인간의 폐부를 파고 드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병사들이 황량한 적지에서 기도 속에 스스로의 마지막을 투신하게 되는 것이다. 영일없는 그들의 삶을 위하여, 그리고 허망한 운명의 뒤안길을 벗어나기 위하여 허약한 육신과 영혼을 맡기는 것이다. 마치 의지할 곳 없는 슬픈 고아가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며 그의 하나님과 운명을 생각하듯이…….

히로이즘의 어제와 오늘

우리들 역사의 계곡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다. 마치 신화의 주인공처럼 광활한 그들의 의지와 욕구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남는다.

인간은 그 본질의 심연(深淵)속에 많은 신적이고자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들 주변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화와 함께 무수한 영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다 신의 아들들이었으며 인간의 동류는 아니었다. 절대의 이상을 향한 그들의 의지는 항상 인간의 편이 못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들 신화의 주인공들과 함께 영웅을 숭배하였으며 또한 흠모하여 왔던 것이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나폴레옹)는 의지는 신의 속성이지 인간의 속성은 아니다. 인간은 항상 고독하며 허약하며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할 뿐인 것이다.

신적인 속성과 인간적인 속성은 고래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본래 신적인 속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의 인간적인 속성의 욕구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 인간적인 속성의 욕구가 어느 인간의 행위에서 당위적인 것으로 현존하게 될 경우 그것이 신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갈채를 받은데 불과한 것이 아닐까. 물론 이런 신적인 속성이 세계를, 또는 역사의 현상을 뒤바꾸어 놓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작업이었으며 신의 작업은 아니었다.

전대의 영웅들은 이런 신적인 속성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전능하였다. 그리고 이 그들의 전능은 풍토와 양식에 있어서 고전적이었다. 알프스를 넘은 나폴레옹도 역시 이런 고전적 양식의 의미에서 영웅이 아니었을까.

그러므로 현대인에게 그의 의지와 업적은 추억처럼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폐부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속성에 대한 욕망의 현실일 따름인 것이다.

그러면 현대의 히로이즘은 무엇인가. 현대의 히로이즘에는 당돌함이 없고 신적인 속성이 없으며 고전적인 여운이 없다. 현대의 히로이즘은 대지를 향하여 손을 뻗지도 않으며 준험한 알프스의 신화를 창조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의 냉철한 인간적인 속성을 향하여 돌처럼 싸늘하게 굳어 있을 뿐이다.

기개있는 영웅이 되기 전에 인간적인 성실성의 기수(旗手)가 되고자 한다. 그리하여 현대의 히로이즘은 소박한 인간적인 체취 속에서 하나의 미래를 스스로를 떠나 생각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욕망을 넘어 선 이데에 의한 창조와 존엄이 따른다.

그리하여 현대의 히로이즘은 영웅이 되기 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고 있다.

인간적인 가능성

현대는 모든 가능성의 영역에서 평등이 보장되어 있다. 영웅은 존재하지 않으며 가능성의 독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한 시민사회에서 인간들의 미소가, 그리고 행위가, 의지가 항상 공존하는 내일처럼 우리 앞에 다가서는 것이다.

두 차례의 대전(大戰)과 급격한 문명의 비약은 세계의 양상을 일변시켰고 많은 인간에게서 고전적인 사고를 앗아갔다. 그리하여 급변한 시공을 사는 우리는 샤머니즘을 거부해야만 하게 되었다. 이 샤머니즘이 신적인 속성과 통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 신적인 속성을 떨어내 저린 순수한 인간의 면모를 찾은 셈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현대인은 외향하는 정관(靜觀)에서 내향하는 정관으로 전향시키고 있다. 이 내향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침묵이며 동시에 포효이기도 한 것이다. 침묵하고 포효하는 인간의 내향한 의지앞에는 항상 행위가 기다리고 있으며 이 행위 앞에 모든 가능성이 균등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계층의 인간과 모든 업종 앞에서 영일 없는 삶을 영위하는 인간 앞에 모든 것이 가능성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가능성은 스스로의 인간의 의지로 정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죽음과 공존하는 것이며 죽음은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명령만능론(命令萬能論)

전 영 우(全英雨)
〈동아방송 아나실장〉

1.

국가 입법작용에 의해서 제정되는 형식의 하나인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것을 명령이라고 총칭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명령 또는 금지를 정하는 규범 즉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또는 해서 안 됨을 정하는 규범을 우리는 명령 규범이라고 한다.

군 사회에서의 명령은 후자에 속하는 하나의 명령 규범이라고 본다.

군기가 어지럽혀지면 군 사회는 존폐(存廢)가 목전에 달한 것으로 알아야 할 만큼 군기는 군 사회의 근간인 것이니 그만큼 통수(統帥) 내지는 명령 계통의 확립의 기반위에서 비로소 군기가 논의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말이 바로 군기 확립을 위한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를 모르겠다.

말하자면 명령지상이 무엇보다 군기확립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명령계통을 떠나서 군기나 군 사회를 운위할 수 없을 만치 군의 명령규범의 중차대함은 재론을 요치 않는다.

저반 모군에서 소위 탈영자 자수기간 설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과거 군 이탈자가 전무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으려니와 이것은 명령 위반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과오가 아닐 수 없고 일정의 휴가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루쯤 미귀영하는 처사—실은 단 1분 1초도 어겨서 안 됨에도—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경례의 결례에 이르기까지, 군 사회에서는 어느 때 어디서고 명령의 규범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고 이 규범을 조금도 어길 수 없게 돼 있다.

더구나 전시에는 임무지의 사소한 임의이탈로 말미암은 처형도 불소(不少)함을 알고 있다.

군기가 엄한 군대일수록 명령계통이 확립, 일사불란한 것이다.

명령일하 어떤 작전명령이라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세가 말하자면 임전(臨戰) 자세가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명령은 존엄성마저 지니게 되는 것이다.

명령 규범을 대충 살펴봤지만 군 사회 도처에 명령은 수시고 작용하고 있음을 알겠다.

실전으로는 아이크가 지휘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부터 최근 있었던 이동 공수작전인 빅 리프트작전에 이르기까지 그 성공은 명령계통의 확립이었음은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명령은 일방적이므로 절대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절대성으로 해서 명령이 때로는 대규모의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지만 이 절대성으로 해서 명령이 때로는 부작용을 가져 오는 예도 적지 않은 것이다.

그 하나는 명령 과잉으로 해서 생기는 폐단이 있는바 명령 수행자 즉 수명자(受命者)의 능력범위가 고려되고 있지 않는데서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의 명령에서 오는 폐단으로 하여 그 수명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부작용이 그것이다.

또 명령을 하는 측에서 공사를 분간 못하고 사를 공처럼 착각하고 명령형식을 취하므로써 공의 처지에서 명령을 발하여도 이것이 수명(受命)하는 측에서는 사적인 명령으로 착각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은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에서 오는 상의하달(上意下達)의 원만한 소통의 불능에서 오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다.

더욱이 사사로운 개적(個的) 감정이 개입된 명령은 온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듯이 명령의 정당성이 결여된 명령이 발(發)해지면 명령계가 문란(紊亂)해질 수 있는 요소가 싹터 끝내는 하극상(下剋上)을 빚어낸다든가 군기의 문란을 자아냄으로써 군은 유형무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3.

군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는 말이 있듯이 군 사회는 우선 인간 사회로 통해야 한다.

인간인 연후에 군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군 사회가 특수 사회라 할지라도 그 성원 구성이 인간으로 되는 이상에는 군 사회 내부의 대인관계는 중요한 것으로 보아진다. 여기 사람에 대해 알아 볼 필요를 느낀다.

사람은 생리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가 있다고 Murray는 말한 적이 있지만 생리적인 욕구는 차치하고 사회적인 욕구를 더듬어 보자.

사람은 누구나가 모두 제 사상이나 감정이 남의 것보다는 우월하다도 생각한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하여 반발(反撥)하고 회피하고 방어하려는 욕구가 있다.

또 남을 지배하고 남에게 복종하고 남과 동화(同化)하고 남과 이화(異化)하며 자율하려 하고 나아가서는 남을 공격하려는 욕구 등을 지니고 있다.

나를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명예욕이나 권리 욕 금욕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애정의 욕구도 우리에게서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 모든 인간의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즉 욕구 만족의 대상이 결핍될 때나 욕구와 욕구 사이에서의 대립 상극에서 오는 갈등도 또한 욕구 불만을 자아낸다.

욕구가 좌절되면, 심리적인 긴장이 일어나므로 긴장을 푸는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공격 행동이다.

불리한 사태에 직면해서는 모든 것을 외부나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려는 것이나 욕구불만 욕구좌절을 자책으로 자학하거나 어떤 문제를 중화시켜 해소하려는 일이 모두 공격 행동에 속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좀 더 분석 설명한 Freud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욕구 불만이나 욕구 좌절을 인간은 도피로 대신한다.

부끄러워하고 쓸쓸히 여기고 하는 따위는 다 사회적인 현실 도피이며 욕구나 관념을 의식화시키지 않으려는 무의식 작용으로 욕구불만이 억압된다.

어떤 일정의 대상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나 기분을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으로 옮겨서 욕구를 충족시키는 치환, 억압된 욕구를 사회에서 인정하는 형식으로 변용해 나타내는 승화, 자기 욕구나 태도를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갖는 성질 속에서 찾고 자신을 위무하려고

투사하는 본능이 인간에 있다.

행동의 본래의 동기를 숨기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려 한다든가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고 일부러 그와 반대되는 행동으로 역반응을 일으키는 것 등은 모두가 사람의 욕구 불만에서 우러나오는 심리 현상이다.

Freud는 이처럼 인간의 모습을 분석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도시 인간이면서도 등잔 밑이 어두운 탓에서인지 자신의 성정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인간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할 것이 나와 너 우리 자신을 분석 파악하는 것이다.

4.

명령을 발하는 명령자나 명령을 받는 수명자간에 명령수행은 하나의 인간관계로 본다.

인간관계의 터전에서 명령이 수행되는 군기는 엄수돼야 한다.

이 말 자체에서 어떤 모순을 돌출치 모르겠으나 인간성이 더 참작돼야 할 때나 군기가 더 중시될 때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서 명령이 발해지고 명령이 수명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명령을 인간관계와 군기로 병기해 본 것이다.

자못 명령 만능론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첫째, 인간관계의 바람직한 개선이요 둘째는 엄격한 군기이되 셋째는 유능한 지휘관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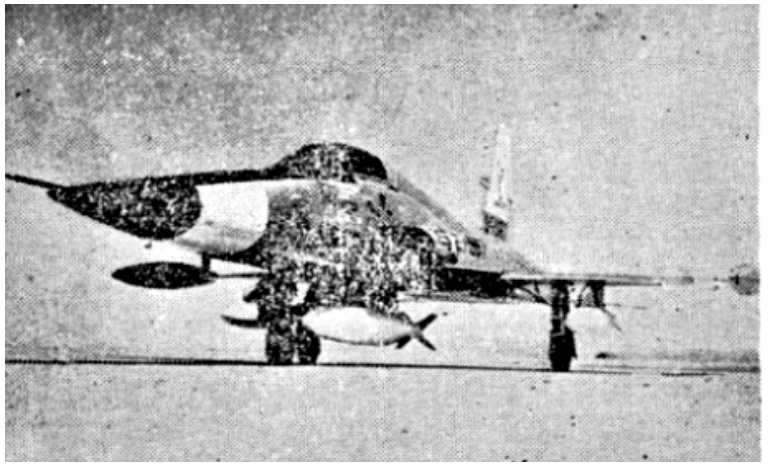
첫째와 둘째 항목은 서상(敍上)한 바도 있지만 다음 셋째 항인 유능한 지휘관이란 그 부하를 통솔함에 있어 늘 개개인을 인간적으로 이해 파악해야 할 것은 물론 지휘관으로 손색없을 솔선수범과 책임은 스스로 지고 모든 영광은 부하에게 돌려 줄 줄 아는 인간상이 아닐까?

내유외강이되 우선 인간성이 투철한 지휘관이 바람직하다.

군력을 따질 줄 모르는, 어느 면에서나 보다 나은 부하를 질시할 줄 모르는 상급자의 명령에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똑똑한 놈은 바보가 되고 바보는 똑똑해지는 곳이 감히 군 사회를 지칭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없기 위해서도 민주적 군 사회의 명령만능은 인간관계의 바람직한 토대에서 이룩되어야 할 게 아닌가?

다만 군기는 군 사회인 한 추호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이다.



<F-5A 용자(勇姿)>

F-5A란 어떤것

- F-5A 프리덤 파이터(Freedom Fighter) -

문혁(文赫) 역

하우즈 유엔군 사령관은 지난번에 한국공군은 1965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F-86세이버 제트 전투기 대신에 새로운 F-5A란 신예 전투기로 장비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F-5A전투기는 지금 북괴가 보유하고 있는 MIG21기를 능가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이 대외군사원조를 위해서 고안해 낸 신형 전투기이다. 다음에서 그 구조 및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MAP 신전투기

이 F-5A전투기는 미국의 공군기도 해군기도 아니다. 순전히 미국의 대외군사원조계획(Military Assiat Program – MAP)에 의해서 우방제국에 공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산한 것이다. MAP이란 미국이 직접 병기를 무상 공여하여 자유진영의 수호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군사원조계획이다. 현재 서방측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와 일부 중립국에까지 대규모의 미국원조가 미치고 있는데 그 중에 전투기만 보더라도

F-86, F-84, F-51, F-47 등이 공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종들은 10수년을 경과함에 따라 차차 구식화되고 공산측이 보유하고 있는 MIG 17, 19, 21 등의 신 기종에 대항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초음속 전투기의 원조를 목적으로 나타난 것이 신 MAP 전투기인 것이다.

이 MAP전투기후보로 최후까지 우열을 다투었던 기종은 3기종이 있었다. 첫째는 소국원조용으로 해서 간이화된 로케트 F-104-17 스타파이터, 전술전투기고, 둘째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지상 전투기, 제한 전천후형 F08U-2 NE, 또 하나가 이 노스로프 N-156(F-5A) 경량전천후전투기였다. 신중히 심사한 결과 1962년 4월말 노스로프 N0156을 선정하고 이 신전투기에 F-5A란 명칭을 붙이게 된 것이다.

이의 선정에는 동기의 성능과 함께 사용하기 쉬운 점에 큰 원인이 있었다.

연습기형 T-38의 성공

동기에 미국공군이 관심을 표명한 것은 1956년 초경이었다. 그 후 동기는 00개의 풍동모형에 의해서 함계 3,100시간의 풍동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기초형이 확정되었으나 1958년 2월 25일에 미 공군은 복좌초음속연습형 N-156T를 차기 미 공군 연습기의 평가용으로 해서 4기시작(試作)의 계약을 체결, T-38 Talon이라 해서 생산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 힘을 얻은 노스로프 항공회사 수뇌들은 전투기형 N-156F에도 시작개발계약을 체결하고 3기에만 시작(試作)을 하게끔 했다. 이렇게 해서 연습기형 T-38의 시작 제1호기는 1959년 4월 10일 초비행에 성공하고 이어서 전투기형 N-156F도 동년 7월 30일에 초비행, 그 제1회의 비행에서 마하 1을 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구조와 특징

N-156F의 주익은 저익편지식(低翼片持式)이고 종횡비 3.75 테이퍼 비가 0.27이다. 전연(前緣)에는 이중후퇴각이 붙어있다. 전연부터 25%의 위치에 있는 후역각은 25도이고, 익후비(翼厚比) 4.8%, 익단면의 더욱 두꺼운 부분은 전연부터 45%의 위치에 있다. 주익은 편측씩 1체로 되어 있으나 6개의 항(桁)이 있다. 주항은 15% 위치의 전항과 44% 위치의 후항부터 된다.

미익(尾翼)은 전금속제편지식이고 주익과 동양(同樣)으로 전연(前緣)후퇴각 붙임으로 되어 있다. 수평미익과 방향타도 파워 작동식이고 트림탭이 없이 조종기구의 가운데 방향 자세의 타면(舵面) 안정장치가 있다. 동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타 감각장치는 F-86 등과 같이 스프링 펀치로 기구를 간단히 하고 있다.

항착장치는 인입식 삼차륜형으로 수각(首脚)은 전방으로 올리게 된다. 만일 작동기구가 고장이 나도 각(脚)의 중량과 풍압으로 펴게 되어 있다. 주각은 차간거리 3.3m이고 부(不)정지(整地)에서도 이착륙을 충분히 한정하게 할 수 있다.

콕핏은 온도조정장치가 되어 있는 완전여압식이고 사출좌석을 갖추고 있다.

N-156의 전자장치

동기의 화기관제장치(FCS)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자유로 선택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장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후즈 TARAN 레이다 화기관제 항법장치인 것이다. 이 장치는 전천후탐색, 조준 추미(追尾)기구가 있고 레이다 조준, 목시조준의 어떤 방법으로도 기관포, 로케트탄, 폭탄,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리고 저공에서도 토스폭격과 스키프 폭격이 가능하다. 조정석에는 110도 각도의 PPI 레이다 스코프를 갖추고 있고 자동안전조종장치(SANAC)도 마련되어 있다. 자동대피나 충돌공격이 가능하다. 조준거리는 18km 이상이다. 또 N-156은 고도 17,200m까지 속도 마하 2까지의 범위 내에서는 정확히 현재지(地)를 표시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비행에 대한 자동적항법이 가능하다.

통신전자장치도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선택하는데 기본적인 장비는 VHF 무전기 TACAN 항법장치(방위 및 귀역(歸役)표시기) 적과 아방의 식별장치(51F) 등이 있다.

다채로운 무장

무장은 동기의 성격상 다종다양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 기내에 고정무장이 없고 동체하면 파일런(1), 주익하면 파일런(4), 주익단미사일런치(2)에 붙이게 되어 있다.

공대공유도탄은 노루 AA25 등을 4발까지 익단과 익하면 외측 파일런에 붙이고 공대지 유도탄은 노루 AS20, AS 25, AS 30 등 3-5발을 동체와 주익하면 파일런에 붙이게 된다.

폭탄은 950kg 전술핵폭탄 1발, 또는 450kg 공성능폭탄 2발, 또는 225kg 폭탄 4발, 또는 340kg 네이팜탄 2발을 달게끔 돼있다. 이밖에 2.7인치 공대공로케트탄, 19발포트 5인치 공대공 로케트탄, 4발입 포트 7.7m 4연 발칸기총포트 등이 갖추어져 있다.

특수한 것은 사진정찰용 18인치 카메라 1대, 3인치카메라 3대와 일체의 사진촬영용 기구와 전원장치까지 포함된 270kg 정찰용 포트가 준비되어 있고 이것을 붙이고 간단히 전술사진정찰기로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N-156의 성능

(속도) 현재의 N-156C형으로는 최대 속도는 마하 1.55이다. J85엔진을 사용해서 금후의 속도향상은 마하 1.7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나 마하 2이상에 달하려면 CF700엔진의 탑재가 필요한 것이다. 초음속비행이 가능한 범위는 해면상에서 16,200까지이고 그 이상의 고도에서는 아음속으로 된다. 아음속 순항속도는 마하 0.94이다.

(상승성능) N-156C의 전투상승한도(매분 160m 이상의 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는 고도)는 18,000m이고 해면상의 상승률은 매분 11,600m에 달한다. N-156E형에다 CF700엔진을 사용하면 전투상승한도 20,000m 해면상승율 매분 13,000m를 낼 수 있다. 실제의 중무장상태에서 이륙부터 전투고도까지의 상승은 2분 이내로 할 수 있고 그 간에 초음속에 달할 수 있다. 상승간의 평균 수평속도는 435kt(900km/h)이다.

(항속성능) N-156C의 연료소비율은 순항속도 마하 0.94에서 매시 2,950kg이다. 동체내연료만으로 항속시간은 36분, 증조(增槽)를 붙였을 때에는 최대 약 2배의 항속시간을 지속할 수 있다. 55갤론의 증조를 사용해서 합계연료 탑재량 1,135갤론(4,290리터)의 경우에는 경제순항속도(마하 0.7~0.8)로 비행해서 최대 항속거리는 3,150km에 달한다. 공중급유장치도 붙일 수 있는데 동기의 연비율이 적으므로 1대의 Kc0135 급유기가 있다면 1개비행대 25대의 N-156을 4,630km까지 이동시킬 수 있다.

(이착륙성능) N-156C의 증조 없는 표준이착륙중량 5,610kg에 있어서 이륙지상활주로 거리는 590m이고 착륙활주로거리는 590m이다. 최대중량의 7,320kg에 있어서도 1,310m의 활주로에서 지상 15m의 고도에 달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00m 이상의 활주로를 사용하면 완전한 행동이 가능하다. 또한 동기는 미국이 보유한 초음속기 가운데 초원지를 이용해서 이착륙이 가능한 유일한 기체이기도 하다.

(운동성) N-156의 운동성능은 다른 미국 전투기와 비교해서 월등하게 좋다. 특히 저공에 있어서의 운동성이 양호하므로 선회반경이 적고 운동의 제한이 전혀 없다. 기체의 하중제한은 중앙동체하 빠이론에 하중을 탑재했을 경우 7G, 주익하면 빠이론에 하중을 탑재했을 때가 5.7G이다. 그러나 실제의 상태에 있어서 공대지공격을 위해서 동체하면에 950kg폭탄을 탑재하면 하중제한은 4.5g로 된다. 공대공공격의 목적으로 AAM 4발만을 양주익단 및 주익하면 외측 빠일런에 탑재한 상태에서는 7G의 하중한도까지 충분히 안전하며 어떤 제한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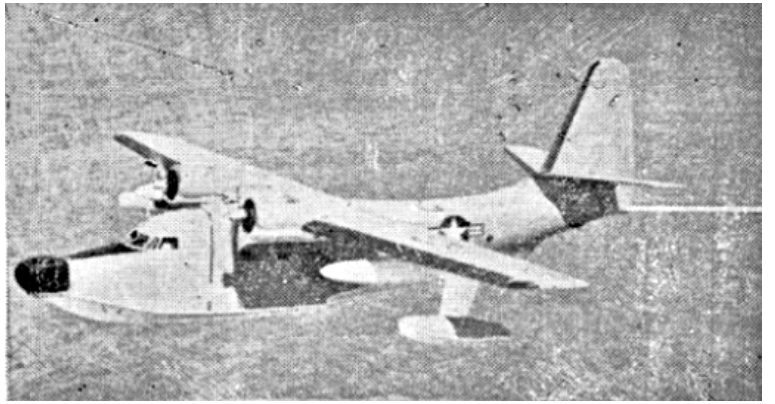
전술전투기로는 제일류

성능에서 보더라도 노스롭 N-156전투기는 제일류의 존재이다. 별로 볼품은 없으나 국지의 전술전투기로서 저공의 속도, 운동성, 장비 등이 탁월하다는 것은 현재 NATO의 주력인 FIAT G91 등과 비교해 보아도 곧 알 수 있다. 그러나 N-156의 참으로 이점은 이러한 표면의 수자에만 나타나 있는 제반의 요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동 기체의 안전성, 취급의 간이성, 기체와 지원기계의 경제성, 그것에 훈련의 용이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안전) N-156이 더욱 특징인 것은 경량의 기체에 2기의 소형 제트엔진의 장비가 되어 있다. 초음속제트기의 승원으로서는 엔진의 정지와 비행중의 연료결핍의 공포는 부외자(部外者)의 상상을 뒤집을 정도인 것이다. 이것이 동기와 같은 쌍발형식에서는 일개의 엔진이 정지해도 충분히 비행이 가능하므로 파일럿의 안전감은 상당히 큰 것이다.

이것은 공중에 있어서의 고장뿐만 아니라 실전에 있어서 피탄 등의 영향도 경감하고 연료부족의 경우 체공시간이나 항속거리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기상변화 등에 대비하는 처치도 안전성이 크다.

<95 페이지에 계속>



<Hu-16 ALBA TROSS 대잠기>

대잠수함용항공기

홍성표(洪聖杓)
<공군소령>

오늘날 핵잠수함의 전략적인 가치가 최고조에 달했음은 기지(旣知)의 사실이거니와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를 방어하는 대잠문제는 또한 심각하게 취급하기에 이르렀다. 일찍이 노틸러스 핵잠수함으로 1958년 8월 5일부터 도합 8,000N/M에 걸쳐 96시간동안 북극빙하의 98% 수중잠항에 성공한 보도를 듣고 소련해군의 한 고위 장성은 대잠문제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였다는 비관적인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것은 소련의 영구적인 요새지라고 생각하였던 북극빙하가 미국 폴라리스(Polaris) 핵 잠수함의 공격기지로서 가치가 크게 인정되게 된 것도 그 이유이거니와 그 보다도 수개월을 두고 수중에서 잠항하면서 지구의 7할을 점하고 여하한 지역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신호에 의하여 소련 중심부를 핵탄두로 공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인 가치를 소련도 예견치 못 한바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소련은 제2차 대전 후부터 재래식잠수함을 건조하여 대소형 도합 500척까지 이르렀던 것인데 이는 미국본토를 공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은밀성과 기동성이 좋은 잠수함으로 미국 양 해안에 접근하여 미국의 REGULUS와 같은 지상공격용 유도탄으로 쉽사리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보다 원자력기술의 우위를 가지고 장기간 잠함 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먼저 건조하였는데 최근 2,500N/M사(射)의 폴라리스 A-3형이 발사성공하여 이미 작전용으로 취역되었으며 41척의 핵잠수함을 65년까지 모두 건조하고 67년까지 작전용으로 취역 배치시킬 계획으로 되어있다.

극동에는 괌도(島)에 그 기지를 두고 금년 9월초에 폴라리스 A-3형 16기(2차 대전, 대전전화력과 대등)를 장비한 다니엘분호를 배치한 이후 금년 내에 테큼세호 등 2척 그리고 내년 말까지 7~9척의 폴라리스 핵잠수함을 배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소련도 핵잠수함건조에 치중하여 그간 많은 핵잠수함을 건조해 왔는데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정 600~1,500km(340~800N/M)의 유도탄을 3~6기 장착할 수 있는 원자력잠수함이 15척이고 그 외에 미국의 REGULUS와 같은 순항용 유도탄을 2~3기 적재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이 45척 그리고 대잠용 원자력잠수함이 10척, 같은 임무를 가진 장거리 재래식 잠수함이 250척, 기타 각종 잠수함이 20척 등 도합 430척이다. 이 같은 잠수함의 배치현황을 보면 한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태평양함대에 핵잠수함 7척을 포함한 각종잠수함 120척, 발트함대에 177척, 북양함대에 60척, 흑해함대에 73척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소련의 잠수함중 핵잠수함은 미국의 폴라리스 잠수함과 같이 수중에서 탄도탄을 발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정도 1,000N/M이내에 들기 때문에 비교적 미국은 소련의 핵잠수함으로부터 위협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최근 제2차대전까지만도 대잠방어가 30N/M이던 것이 오늘에 와서는 1,500N/M까지 연장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소련의 태평양함대잠수함만이 한국에 대한 위협의 대상이 아니고 중공도 대형은 W급(1,050톤), 소형은 MS형(250톤)에 이르기까지 모두 32척을 보유한 것과 외지에 의하면 북괴해군에서도 W급(1,060톤) 2척을 동해안에 보유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잠수함의 위력은 한국해군의 직접적인 위협일 뿐만 아니라 W급만 해도 약간 개조하면 순항용유도탄을 장비할 수 있어서 한국전역에 대하여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W급의 100N/M 함포는 수심이 깊은 동해연안의 군사시설 특히 아공군의 레이다 사이트는 초격에 공격목표가 되어 한국에서도 대잠문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국은 주로 해군의 수상함정에 의한 대잠방어문제만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은 한국에서 북괴가 재침시 잠수함의 증강을 예상할 때 커다란 위협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잠수함은 전시에만이 아니라 휴전상태에 있는 현재에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괴는 말할 것도 없다. 중공, 나아가서는 소련의 잠수함까지도 삼면이 바다로 쌓인 한국연안에 대한 정찰 및 고의적인 기뢰부설 등을 감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일부정보 소식통에 의하면 북괴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남한을 교란(攪亂)시킬 목적 하에 대량의 게릴라 대원과 소수의 간첩을 투입하기 위하여 소형의 잠수함을 북괴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대잠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함정에 의한 방법보다 적극적인 항공기에 의한 방어방법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근거로서는 잠수함의 발전을 들 수 있는데 현재 북괴, 중공, 소련의 각종 잠수함을 대상으로 탐지하여야 하며 북괴만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미 W급 재래식 잠수함을 대여한 소련이 공격용 또는 대잠용 핵잠수함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대잠수작전에서 각종잠수함의 탐지범위는 각기각식한 것으로서 단위시간내의 대잠소해면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탐지범위×속도(시고)=소해(掃海)면적

(탐지장치사정×2) (탐지용함정, 항공기)(평방단위/시간)이라는 수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공식에 의거하여 각종 잠수함의 탐지할 수 있는 실제 시간당 소해면적을 보면 함정SONAR 탐지거리 1.5N/M×2=3평방N/M, 함정의 속도 15N/M, 소해면적 45평방N/M이 된다.

그러나 항공기의 경우를 보면 SONO BUYU를 장비하고 한국에서 도입 가능한 S-2D (TRACKER)는 평균 순항속도가 200N/M로 보더라도 그의 소해면적은 함정속도 15N/M 대신 200N/M를 곱해주면 600평방N/M가 되어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탐지목적장비의 속도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이 같은 비례는 만약 항공기가 레이다로서 축전지를 재충전하기 위하여 배기구를 수상위로 내놓고 다니는 장수함, 또는 비록 재래식이라 할지라도 스노클을 장비한 잠수함을 탐지한 경우는 훨씬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

배기구를 수면 상에 내놓고 다니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레이다의 탐지거리를 보통 30N/M로 보는데 이때 소해면적은 탐지면적 60평방N/M, 항공기속도 200N/M로 계산해서 12,000평방N/M가 됨 으로써 함정에 장비된 레이다 같은 성능을 가졌다고 가상하더라도 불과 900평방N/M밖에 되지 않아 훨씬 열세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항공기에 의한 대잠작전에 유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모두 스노클을 장비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님으로 그의 탐지거리는 같은 레이다의 성능으로도 반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탐지장비의 속도가 같다 하더라도 반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의 계산의 결과로써 탐지용 장구가 같다 하더라도 그의 차이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날은 대잠장비는 항공기로 대부분 충당하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소형 항공기 500여기가 순전히 대잠용으로 현재 취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대잠기종은 임무기호에 영어의 S자가 붙은 S-2D(S2F-3)TRACKER는 순전히 대잠용으로 제작된 이외 P자가 붙은 P-2H(P2V-7 NEPYUNE) 4발(2발 PROP, 2발 ET) 초계기를 비롯하여 P-3A(P3V-1) CRION 4발 TURBOPROP기 SP-5B(P5M-2S) 쌍발기,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는 HU-16(sa-16) ALBATROSS 등 고정익기가 있고 또한 대잠기로써는 기본 임무기호 앞에 개조기호 S자가 붙은 것은 헬리콥터이지만 대잠임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조한 것이 있는데 그의 전형적인 것이 SH-3A(A-61B) SEA KING 쌍발 TURBOPROP기 SH-34G(S-58) SEAHORSE PROP기가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해군은 함재공격기로 사용하는 A-4C(A4D-2N) 전천후항공기를 대잠작전에 취역시킬 전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잠항공기에 적재한 탐지용 장비를 보면 가장 기본적이며 주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레이다인 코데 레이다의 전파는 물을 투과할 수 있는 것이 겨우 1미터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중에 있는 장수함은 탐지하지 못하고 수면 상에 올라온 잠수함 또는 수중에서 잠항하면서 발동기의 배기구를 수면 상에 노출한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이다.

그 다음 소나(SONAR)는 수중에 있는 잠수함을 탐지하지 못하는 레이다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써 음의 속도가 지상 15도C인 경우 1초간에 340미터인데 수중에서는 4도C인 경우 1초간에 1,500미터라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인간의 귀도 들을 수 없는 초음파를 사용해서 레이다의 원리와 같이 초음파를 송신하면 목표물에 부딪쳤다가 되돌아오는 반향(ECHO)를 측정하고 그의 방위, 거리, 심도 등을 탐지하는데 이를 ACTIVE SONAR라고 이 외에 PASSIVE SONAR로써 수중청음기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수중청음기는 함선, 잠수함, 어뢰 등의 스크류가 회전하는 소리를 보통 1,000개 이상의 마이크로폰으로 감청하는 것이다.

가변심도 SONAR(VDS)라고 하는 것은 미 해군이 개발한 SONAR 인데 수중의 온도의 변화를 이용한 장비로써 탐지거리는 선체에 장비한 일반적 소나의 1배반 내지 5, 6배(약 56km)라고 하며 수백미터 수중 깊이 집어넣어 끌고 다니는 것이다.

가변심도 소나는 일명 적외선 탐지기라고 하는데 이는 특히 장시일을 수중에서 잠항하는 핵잠수함에 유효한 것으로서 핵반응로에서 나오는 열을 주위의 수중온도와 구별하여 탐지하는 것이다.

SONABUOY는 부표 중에 있는 마이크로폰과 이것에 의해서 감청된 소리를 전파에 실어서 송신시키기 위한 송신기와 전원을 담은 것으로써 항공기미부에 매여 달고 수면 상을 비행하는 것이다.

MAD(MAGNETIC ANOMALY DETECTION)는 제2차 대전 말기에 일본해군

이 발명한 것인데 그 원리는 잠수함은 철제이기 때문에 수면 상 또는 수중에서도 부근의 지구자장을 흔들어 놓는데 이러한 지구자장의 흔들림을 검지하는 장치로 항공기에 많이 장비한다.

전자기탐지장치는 최근 개발한 것으로써 잠수함과의 통신은 10~19kc 범위(範圍)의 전파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이를 곧 탐지하여 적의 잠수함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끝으로 핵잠수함의 출현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탐지하기가 수 백 배 곤란하게 되어 새로운 탐지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차폐물로부터 이탈되는 핵반응잠수함에서 나오는 미소한 방사능을 탐지하는 것이다. 물론 핵잠수함은 인체에 악영향을 받지 않기 위하여 방사능을 완전히 차폐하였는데 과연 어느 정도를 탐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이상과 같은 대잠항공기의출현과 잠수함탐지장치의 발전은 그만큼 대잠문제가 심각화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여 주는 것이다. 대잠문제에서는 적 잠수함을 신속히 탐지하였으나 여하히 이를 격파할 수 있느냐 하는 파괴무기가 또한 많이 발전해 왔는데 그의 무기종류로써는 대부분이 수면상의 함정으로부터 공격하는 것 뿐, 항공기로부터 공격하는 유도탄은 없다. LULU라는 핵탄두는 공중대수 중 유도탄이 있었으나 별로 그 성능이 좋지 못하여 실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 같다.

대잠공격유도탄에는 ALFA(RUR-4)라 하여 순양함과 구축함의 포대로부터 발사하여 사정 1,000YDS 이내의 수중잠수함을 고성능 폭약으로 공격하는 것 이외에 ASROC(RUR-5)는 탄두 앞에 SONAR를 장착하고 발사하면 적의 잠수함의 음향을 쫓아가 음속 1배로서 8N/M의 거리내에 있는 목표물을 장(裝)탄두로 공격하는 ASROC(RUR-5)가 있는데 이 ASROC도 순양함과 구축함에서 발사하게 되어 있다.

ASTOR는 아직 실전용으로 장착하지 않은 듯한데 잠수함에 장착하고 있다. 적 잠수함을 발견하면 11 N/M 이내에서 유선조종으로 핵탄두(IUKT)를 발사하여 공격하게 되어있다. SUBROC(UUM-44)는 현재 작전용으로 대부분의 대잠핵잠수함에 장착되어 있는데 사정은 25~30N/M이고 유도방식은 특이하게 관성유도로서 수중에 있는 장수함으로부터 발사하면 일단 수면 상에 올라왔다가 다시 수중에 있는 적 잠수함을 핵탄두(2,000KT)로 공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핵탄두를 이용하는 것은 수중은 공중보다 그 충격파가 심하여 해면상의 함정은 2,000PSI이면 격파되는데 잠수함은 수압에 잘 견디도록 제작되었음으로 약 3,000PSI가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20KT의 핵탄두면 수중에서 2,000PSI가 발생하는 충격파의 거리는 반경 2마일은 된다. 그 이외의 범위도 수중핵폭발시의 충격파는 잠수함 자체를 파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부의 각종 기계를 파괴시켜 그 기능을 상실케 한다.

결론적으로 대잠문제는 미국으로서는 1,500N/M의 탐지거리를 갖게 하는데

이렇게 원거리 내에 있는 적 잠수함을 발견하기란 대단히 곤란한 문제 중에 하나다. 그리하여 미국은 일찍이 1958년도에 ALFA 작전단을 구성하였는데 여기에는 기함1척, 항공모함 1척, 구축함 8척, 잠수함 2척 그리고 항공기는 S-2D 1개대대, 헬리콥터 1개대대와 지상기지를 P-2H 1개대대 그리고 병력 5,000명으로 구성하고 적극적인 대잠작전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한국에서도 늦은 감은 있지만 현재의 수상함정에 의한 대잠작전을 지양하고 항공기로서의 대잠작전을 수행하여 휴전 시에는 대남한에 대한 적 잠수함의 정찰활동, 게릴라 투입을 사전에 탐지하고 전시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련 태평양 잠수함대의 태평양진출까지 UN군과 더불어 한국해협에서 저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잠항공기는 그의 선정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고가인 최신형으로만 도입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한국현실에 알맞은 기종을 선택하여 점차로 전환 도입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을 첨언(添言)하면서 대잠기의도입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89 페이지에서 계속>

(간이) N-156이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과 정비에 손이 덜 든다는 것은 특히 야전에서의 사용에 큰 위력을 갖는 것이다. 통상의 센추리시리즈 전투기가 비행시간 1시간당 40인이상의 정비를 요하나 동기에 있어서는 그 반 이하인 16인으로써 족하므로 정비원이 수를 감소하고 보다 많은 비행이 가능한 것이다. 작전 중의 턴어러운드(되돌림) 시간도 귀역(歸役)에서 다음의 발진까지 무장의 재장착을 포함해서 불과 7.5분으로 가능하다. 3회의 출격때마다 산소보급이나 점검을 실시하고 15분간의 지상시간이 있으면 전투행동이 가능하다.

(안전) N-156은 타의 전술전투기보다도 20~25%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현재의 형편으로 봐서 500대 생산하는 경우 1대당 기체가격은 약 6,500만원 정도이다. 또 비행시간당의 자연소비도 통상의 초음속전술전투기의 약 2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N-156으로 편성하는 부대는 기체의 구입가격, 지상지원기계의 가격, 소요인원, 유지비 등의 면에서 필요한 경비는 다른 초음속기를 장비하는 경우의 2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

(훈련) 동기는 고등훈련기 T-38과 아주 같다. 승원(乘員)의 훈련은 아주 간단하며 실용전투기의 단계에서는 단순히 FCS의 사용관숙(使用慣熟)과 추격에나 대지공격의 전지훈련뿐이고 조종훈련의 필요는 전혀 없다.

참을성을 기르자

참을성이 적은 사람은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약한 사람이다. 한 줄기의 샘이 솟은 땅틈을 헤치고 솟아 나오듯 참고 견디는 힘의 광명을 얻기 어렵다. 오늘 어려운 일을 참고 극복하였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강한 힘의 소유자인 것이다. 곤란과 장애물은 언제나 새로운 힘의 근원이다.

<럿셀>

군 사

클라우제비츠의

전 쟁 론

③

조남식(趙南植) 역술
〈공군중위〉

전회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전쟁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정치적 도구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관점을 취함으로써만 전(全)전쟁사를 이해하는데 당착(撞着)에 빠지는 일이 없고 훌륭한 전쟁 서적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와 같은 관점을 취함으로써 전쟁을 야기 시키는 동기와 정열의 성격에 따라 전쟁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설명해 준다.

무릇 정치가와 전쟁지도자들이 판단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면한 전쟁에 있어 이와 같은 관점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은 카멜레온처럼 주위 환경에 따라 변화가 무궁한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를 지배적인 요소와 관련시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세 가지 요소가 조화하여 전쟁의 성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즉 맹목적이고 자연적인 충동으로 간과할 수 있는 증오와 적개심(敵愾心)의 본래적인 격렬성, 감정의 자유로운 활동을 촉구하는 개연성(蓋然性)과 요행(僥倖)의 작용, 순 지성의 영역에 속하는 정치적인 도구로서의 부차적인 성격,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하여 기묘한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3요소 중 첫째 요소는 국민에게, 둘째 요소는 전쟁 지도자 및 그의 군대에게, 셋째 요소는 정치가들에 게 주된 영향을 받는 것이다. 즉 전쟁 중 나타나는 격렬성은 이미 전쟁발 발전에 국민간의 감정속에 있었던 것이고 우연과 개연이 지배하는 용기와 재능의 영역은 지휘관 및 그의 군대의 특성에 의존하는 것이 고 정치적 목적은 정치가들의 결정에만 좌우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전쟁의 본질 깊은 근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것이 전쟁의 규모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무시하거나 이들 간의 관련성을 자의로 고정 공식화하는 이론이 있다면 이러한 이론은 현실적으로 모순에 빠지고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상의 3요소가 균형을 이루게 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마치 태양과 지구와 달의 인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여하튼 전쟁의 개념에 대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론의 체계를 확립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제일보이며 동시에 이에 이르러 비로소 전쟁의 중요 특색을 판별하는 능력이 생긴다.

제 2장 전쟁의 목적 및 수단

전장에서는 전쟁 본질의 다양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본 장에서는 그 다양성이 어떻게 전쟁의 목적 및 수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정치적 목적을 달(達)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서 전쟁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정치적 목적이나 전쟁의 각기 특수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쟁을 순이론적인 면에서 고찰할 때 전쟁에 있어서 정치적 목적은 전쟁의 영역 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왜냐하면 전쟁이 아방(我邦)의 의사를 적에게 강요하기 위한 폭력행위 일진데 모든 행위는 적의 저항력을 분쇄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순 이론상의 목표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이론으로부터 연역(演繹)하였지만 이론과 현실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현실로서 간주(看做)하고 검토하기로 하겠다.

저항력분쇄에 대하여는 적의 군사력, 영토, 저항의지의 3개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군사력은 저항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정도로 철저하게 분쇄 하여야 한다(아직까지 말하여온 군사력 분쇄란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한 것이다). 국토는 새로운 군사력이 성장하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점령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상의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적의 저항의지를 파최(破摧)함으로써 적의 정부와 그의 동맹국들 하여금 강화(講和)에 응하거나 적의 국민들로 하여금 굴복(屈服) 하도록 하지 않는 한 전쟁은 끝났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적의 전국토를 점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부에서 혹은 그의 동맹국의 원조로서 충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화 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은 전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종결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예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강화(講和) 그 자체는 잠재하고 있는 허다한 분쟁의 불씨를 소멸시키고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여하한 상태 하에서라도 평화를 구하고자하는 사람들이 항시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람들은 강화조약이 체결되면 즉시 저항의사를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화와 동시에 전쟁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전쟁은 끝난 것으로 간주 하는 것이다

이상에 열거한 3요소 중 군사력은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먼저 파괴하고 국토를 점령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며 이상의 2가지를 성공한 후 여전히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적으로 하여금 강화에 응하도록 강요할 수가 있는 것이다. 통상 적의 군사력 파괴는 점차적으로 수행되며 국토점령이 수반하게 된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서 적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순서는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항상 이 순서대로 수행되는 것도 아니다.

적은 군사력이 현저하게 약화되기도 전에 후방으로 철수하는 수도 있고 때로는 외국 영토로 도피하는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국토의 대부분 내지 전부를 점령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쟁의 목표 즉 적의 저항력 분쇄는 현실적으로 보편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도 아니다. 따라서 이론상 하나의 법칙으로 만든 것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쌍방 중 어느 일방도 저항력이 분쇄 되었다고 생각되기도 전에 심지어는 힘의 균형이 변화되기도 전에 강화가 이루어지는 예가 얼마든지 있다. 또한 적의 군사력을 분쇄 한다는 것이 관념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적이 아방 보다 훨씬 강력한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전쟁의 목표는 순리론으로부터 연역한 것과 현실적인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론과 같이 힘의 차이가 현저한 양국 간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물질적 힘의 불균형은 어느 정도 정신력으로 극복하여 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의 차이가 있는 국가 간의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전쟁 도중에 강화의 요인이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공의 불확실성이며 둘째는 성공을 위한 희생의 과대이다.

전장(前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은 시종일관 엄밀한 내적 필연성의 법칙에서 벗어나고 개연적 타산에 따르며 이는 전쟁을 야기 시킨 제 조건의 관계가 추측에 의한 것일수록, 동기와 긴장이 약할수록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현저하다. 따라서 개연적 타산이 강화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용이하게 상상할 수가 있으며 전쟁에 있어서 일방의 군사력이 완전히 잔멸(殘滅)될 때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방의 동기와 긴장이 약할수록 사소한 불리점이 나타나기만 하여도 즉시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타일방이 예측하였다 할 것 같으면 적을 잔멸시키려 하기 보다는 추측을 실현시킬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강화의 요인은 기왕에 지불한 희생과 계속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한 고려이다. 전쟁이 맹목적(盲目的)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에 지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표의 크기에 따라 지불하여야 할 희생의 한도 및 전쟁의 지속하여야 할 시간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불할 희생이 목표달성 후에 얻게 될 이익보다 더 커진다면 이 목표는 포기(抛棄)하게 되며 전쟁은 끝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일방이 타방을 완전히 제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쌍방은 성공의 가능성과 지불해야 할 희생을 고려함으로써 강화의 계약을 만드는 것이다. 만일 동기의 강도가 쌍방이 동등할 경우에 정치적 분쟁은 평행 점을 찾아 해결되는 것이고 쌍방은 모두 일면에서 얻는 만큼 타면에서 잃은 것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래의정치적 목적은 전쟁이 경과하는 동안에 매우 변질하고 심지어는 전혀 다른 것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승산에 대한 예측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고 적의 영토를 점령하는데 사용하는 노력과 적으로 하여금 성공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하는데 노력을 집중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같을지라도 전혀 다른 것이다.

예컨대 적의 군사력을 공격할 경우 제1격에 이어서 적을 완전히 잔멸(殘滅)할 때까지 계속적인 공격을 가하여야하는 경우와 한 번의 공격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아군의 우세를 느끼고 초래될 장래의 결과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도록 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하는데 족할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예측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로 적의 군사력을 파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적의 군사력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적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도 필요한 만큼 점령하면 되는 것이고 적의 잔멸이 목적인 전쟁에서 영토점령은 부수적인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적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은 적의 군사력타도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아군의 목표가 적의 군사력타도가 아니고 또한 적은 유혈의 결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적의 방어가 약하거나 전혀 없는 지역을 점령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적으로 하여금 장래의 결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한다면 이는 또한 강화에의 첩경이기도 하다.

적의 군사력을 타도하지 않고도 적으로 하여금 전쟁의 승산에 대하여 우려를 갖도록 하는 특수한 수단이 있으니 국제정치상의 권모술수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예컨대 적의 동맹을 이간시키거나 그 동맹을 무력화시키는 술책 혹은 아군이 새로운 동맹자를 얻는다든가 국제여론을 아국에 호감을 갖도록 하는 방법 등, 이렇게 된다면 아방에 승산이 매우 커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가 있으며 적의 군사력을 타도하는 것보다 목표달성의 훨씬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다음에는 적의 전투력소모를 여하히 증대시키느냐, 즉 적으로 하여금 그들의 목표달성에 대한 대가를 여하히 증대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적의 희생증대는 적군을 파괴함으로써 그의 군사력을 소모시키고 아군의 정복에 대한 적의 영토상실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런데 적군을 괴멸시키는 것과 적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은 각기 그 의미하는 바가 다르고 택하는 작전도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차이는 세밀한 것이지만 이 세밀한 차이라도 전쟁의 동기가 약할 경우에는 작전선택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이해하면 전쟁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하에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코 전쟁의 본질과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니며 과오도 또한 아닌 것이다.

이상 말한 두 가지 수단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적의 손실을 증대시키는 특수한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침공으로서 이는 적의 영토를 장구하게 점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적의 영토내에서 징발(徵發) 또는 황폐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적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적의 군사력을 잔멸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적에게 전반적인 손해를 가하려는 것이다.

둘째 방법은 적에게 가장 손해를 끼치게 하는 방향으로 술책을 쓰는 방법이다.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하나는 효과적으로 적의 군사력을 타도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적군의 타도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군사적인 과정이고 후자는 정략적인 방법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양자 공히 군사적인 것으로서 다만 주어진 조건을 여하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 있게 이용하느냐의 차이에 불과하다.

제3의 방법은 적을 피폐케 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적용방법이 다양하고 광범한 점에서 앞서 말한 두 가지 방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이 표현은 구두상의 정의 이상으로 사실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다.

적을 피폐(疲弊)시킨다는 것은 장기간 단속적(斷續的)인 행동으로서 적의 물질적, 정신적 힘을 점차적으로 고갈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쟁의 지속시간에 있어서 적을 능가하고자 한다면 되도록 적은 목표에 만족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목표가 클수록 적은 애착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지불하여야 할 희생은 더욱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가장 적은 목표는 순저항으로서 이는 적극적 의도가 없는 싸움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취하는 수단은 목적이 적은데 비해 매우 큰 것으로서 따라서 성공의 가능성은 가장 큰 것이다. 그러면 이 소극적인 방법이 허용되는 한도는?

물론 피동적 행동에 일관한다면 전쟁은 그만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저항이란 적의 군사력(공격력)을 파최(破摧)시켜 그들의 기도를 포기하도록 하는 능동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즉 적의 군사력 파괴만이 방어에 있어서 목표가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목표달성의 소극적인 이면인 것이다. 방어만의 소극적 기도는 적극적 기도와 비교할 때 그 효과에 있어서 손색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극적 기도는 적극적 기도보다 성공하기 용이하며 따라서 더욱 확실한 것이다. 그런데 소극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잃는 효과는 시간 즉

전쟁의 지속시간으로 상살(相殺)할 수 있으며 따라서 순저항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소극적 행동은 전쟁의 지속시간에 있어서 적을 능가하여 적을 피폐케 하는 적절한 수단이다. 여기에서 전쟁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공격과 방어의 차이가 유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순저항에 모든 수단을 집중하는 소극적 행동이 전투의 우세를 가져오고 적이 가지고 있는 여하한 우세라도 상실시킬 수 있다면 전쟁의 지속시간에 있어서 적을 능가함으로서 적이 요구하는 정치적 목표 이상으로 적의 손실을 증가시켜 적으로 하여금 공격을 중지하도록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약자는 강자 앞에 저항함으로써 적을 피폐시켜 그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7년 전쟁에 있어서 프러시아의 Frederick 대왕은 오스트리아를 능가할 만한 힘이 없었다. 그러나 Frederick대왕은 기술적으로 그의 군대를 절약하고 집요(執拗)한 저항을 함으로써 연합군으로 하여금 상상했던 손실 이상으로 피해를 입혀 Silesia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에 있어서 목표달성의 과정은 여러 가지 있으며 따라서 적의 군사력파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적의 군사력파괴, 적의 영토정복, 일시적인 점령, 징발(徵發)과 파괴를 목적으로 한 침공, 혹은 국제정치상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권모술수, 심지어 적의 공격에 대한 수동적 대기 등……, 이들은 각 경우의 특수한 조건에 따라서 적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다른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목표달성의 여러 가지 상이한 과정에 있어서 개인적인 특성을 경시할 수가 없는 것이니 인간 상호간의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물질적 제요소를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전쟁에 있어서 위로는 내각으로부터 아래로 전장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인물의 특질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목표달성의 가능한 과정의 수가 무한히 많아질 수 있다는 증거이다.

그런데 목표달성을 위한 일반적이고도 유일한 수단은 전투이다. 전쟁의 형태가 아무리 다양하고 비록 백병전의 증오와 적개심의 격렬한 발산과 내용이 다르고 또한 많은 요소가 실제 전투자체와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나타나는 일체의 현상은 항상 전쟁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전투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연원을 전투과정에 있어서

군사력의 사용을 살펴봄으로써 간단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사력 즉 무장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전투관념이 항상 그 근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력의 양성, 유지, 사용 등에 속하는 모든 것은 군사행동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력의 양성과 유지는 이의 사용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전쟁에 있어서 전투는 개인과 개인 간의 격투가 아니고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전체적이고 조직적인 것이다. 이 전체적인 전투를 두 가지 단위 즉 주체적 단위와 객체적 단위로 나눌 수가 있다. 군대는 병사의 집단으로 기본단위를 형성하고 이 기본단위가 모여 차상급단위로……, 고급단위로……, 이렇게 하여 군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각단위에 의한 전투도 단위를 형성하는 것이고 각 단위 부대가 수행하는 전투의 대상도 단위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객체적인 전투의 단위를 교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투의 개념이 일체의 무장력 사용에 근저하기 때문에 전투는 수개의 교전을 배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군사행동은 직접간접으로 교전과 관련시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며 병사가 징집되고 피복장비를 지급하며 급양, 훈련, 행군 등 모든 것은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장소에서 싸우기 위한 준비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군사행동을 교전으로 분석한다면 일련의 교전을 정리함으로써 군사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교전에 있어서 모든 행동이 적군의 타도 혹은 적의 전투능력을 박탈(剝奪)하는데 지향하는 것은 교전의 개념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의 무장세력 타도는 교전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교전의 목표가 다만 적의 무장 세력을 타도하는데 있는 수도 있지만 이는 필수적인 것도 아니며 이와는 전혀 다른 목표를 갖는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적군의 타도가 정치적 목표달성의 유일한 수단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교전이 지향하는 목표도 일률적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심지어 적의 무장 세력을 타도하는 교전에서 조차도 반드시 직접적인 목표가 적의 무장세력 타도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거대한 군사력은 매우 복잡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사용될 때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군사력이 전투에 사용될 때에 매우 복잡한 조직을 갖고 종적 횡적으로 상호관련을 가진 복잡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때로는 전체적인 조직체의 각부분(교전)은 그 자체가 적의 군사력 타도와는 다른 목표를 갖는데 이러할 경우 목표달성의 도중에 생기는 적의 군사력 타도는 간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일개대대의 병력이 한 고지로부터 적군을 축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그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지역의 적군을 격멸하는 것은 그 수단 혹은 부차적인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만일 공격의 의도를 시위함으로써 적을 구축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지를 점령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적의 군사력을 더욱 격렬하게 타도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까지는 일전장의 군사적 행동에 대하여 살펴봤지만 비단 군대와 군대간의 대결뿐 아니라 국가대 국가, 국민대 국민의 대결무대인 전(全)전쟁국면에서는 이와 같은 예가 더욱 많아지고 복잡하여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련의 전투를 정리하여 여러 단계의 중간목표를 만들고 그 결과로 최초의 수단과 최후의 목표 간에는 현저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교전의 목적은 대적하고 있는 적의 군사력타도가 아니고 다만 수단으로 될 수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종류의 전투에 있어서 적의 군사력 타도는 문제외이고 교전은 다만 힘의 척도에 지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교전 그 자체는 무가치한 것이고 그 결과 즉 교전이 이루어 놓은 사실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쌍방의 군사력 차이가 현저하게 커서 일견 그 불균형을 알 수 있다면 교전은 일어나지 않고 약자는 즉시 양보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전의 목적이 항상 적의 군사력 타도가 아닐 수 있고 또한 교전을 전혀 행하는 일이 없이 예상되는 교전의 결과와 그 결과로 생길 수 있는 제 사항을 추측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대전역(大戰役)에 있어서 실제로 행하는 교전이외에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있다.

목적은 하나뿐이다.

땅위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 그러나 모든 길의 종국에 이르는 목표는 하나뿐이다. 인간이란 누구나 진실을 그의 마지막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길은 사람들이 각기 혼자서 걸어야 하는 외로운 길이며 또 곤란한 길이다. 그러니까 진실하게 살아 나가는 방법은 가장 곤란한 일을 묵묵히 자기 혼자서 해 나가는 데에 있다.

〈헤르만 헤세〉

학생운동의 과거와 전망

문 영 한(文榮漢) 〈문교부 장학관〉

우리나라의 학생운동을 역사적으로 고려한다면 소위 1885년 근대학교의 발족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근대학교의 발족은 당시의 사회정세로 미루어 보아 우리 국가의 근대화와 또한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을 위시한 외국선교사의 원조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고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 시초의 근대학교는 배재학당이며 학생운동도 이 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배재학당의 교우회가 그 중심이 되었던 것이다.

이 학생 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그들의 운동 목표는 봉건적인 우리 사회를 근대화하는 데 있었으며 활동은 주로 민중계몽에 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학보를 발간하고 강연회 웅변대학 등을 개최함으로써 민중을 계몽하고 본무(本務)이었던 학업보다도 이에 치중되었던 것도 당시의 사회상으로 보아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와 병행하여 둘째로 당시 학생들의 운동 목표는 일제의 침략적인 야욕과 일부 몰지각한 국민의 매국적(賣國的)인 행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민족적인 자각을 고취하는 한편 항일투쟁의 선봉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1. 일제 강점기의 학생운동

이와 같이 한일합병 전의 우리나라 학생운동은 조국의 근대화와 조국수호의 일념에 불탄 운동이며 몽매한 국민의 지도자로서의 선봉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학생운동도 합병 이후에는 일본의 노골적인 침략행위에 의한 강압으로 표면화하지 못하고 지하로 숨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의 학생운동보다도 해외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 있어 일경(日警)의 눈초리를 피해 가면서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그 절정에 달한 것은 3·1 운동이라고 하겠다. 이 3·1 운동은 우리 민족투쟁사에 있어 길이 빛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도 역시 우리 학생들이며 세계 학생운동

사에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거룩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을 계기로 일제는 표면상으로 유화정책을 취하고 각계 학교에 명목상으로는 교우회 조직을 인정하고 학예활동과 체육활동을 권장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감시는 더욱 격심하였으며 표면적으로 평온한 것 같았으나 내면적으로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계속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특히 학생운동을 통한 교지도 검열(檢閱)을 받아야 할 형편이었으며 다만 운동경기만은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이도 민족적 감정으로 인하여 대립의식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광주학생사건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였던 민족적 감정의 폭발이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봉기된 학생의 애국운동이었다는 것을 실증해 준 것이라고 하겠다.

광주학생사건 이후 일본의 동양제패의 야욕은 더욱 확대되고 만주,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계기로 우리 학생운동에 대한 강압은 형용할 수 없는 정도로 격심하였고 그들은 소위 우리 국민을 황국민 하려는 불순한 생각으로 왜곡된 사관을 나열하여 우리의 성명까지도 약탈하려고 하였고 그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 학생을 전장대열에 또는 근무봉사라는 강제노동을 강요하기에 이르렀으나 이에 항거한 것도 역시 우리 학생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한민족은 역력히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한말 일제시대를 통한 우리 학생운동은 우리 국가의 근대화와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항거하는 데 그 목표가 뚜렷했으며 이에 학생운동이 직결되었고 우리가 독립국가로서 오늘과 같은 발전을 하게 된 것도 학생운동의 결실이며 우리나라 학생은 민중 속에 있었고 항시 민중의 등불이 되었던 것이다.

2. 4 · 19 이후의 학생운동

8·15 해방 직후에는 국내사정이 그대로 학원에 반영되어 좌우양익의 대립이 막심하였고 중등학교와 대학의 학생들은 학생생활의 기관인 학생회를 중심으로 맹휴(盟休)와 반맹휴의 소동으로 학원의 질서는 일시혼란에 빠졌었다. 이러한 것이 동기가 되어 1949년 4월 22일에는 학도호국단의 결성을 보게 되었으며, 당시의 학도들의 선서에 보면 '우리 학도는…… 모든 반민족적 행동과 반국가적 이상을 철저히 쳐부수고……' 또는 '우리 학도는 학원을 바로 잡아'라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또 그것은 당시의 국내정세로 보아 애국학생들의 충성심의 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애국애족의 정신과 반공방일의 정신함양을 목적으로 삼아 발족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해방당시의 무질서하고 불안하던 사회정세가

그대로 학원에 반영되어 일대혼란을 야기하였을 때 학도호국단은 애국애족하는 학생단체로서 학원을 정화하는데 큰 공적을 남기었으며 또한 6·25동란 당시 호국정신에 불탔던 수많은 애국학도가 멸공전선 대열에 앞서 귀중한 생명을 희생한 사실도 우리 학생운동사상에 길이 빛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공적을 남긴 학도호국단의 활동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숨길 길 없다.

첫째로 관료적인 색채가 농후하였다. 학도호국단의 조직이 중앙, 지방학교에 이르기까지 일률적인 조직체를 가졌던 까닭으로 관료적이라는 평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며 또한 각급학교 및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식적인 면에 치중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실제 활동에 있어서도 학생자체의 의욕적이며 자율적인 활동이라기보다는 훈련적인 요소가 다분히 내포되고 있었다.

둘째로 활동은 일부 학생에게만 국한되는 사례가 허다하였다. 단적으로 말해 학도호국단의 활동은 간부중심의 활동이었으며 전학생을 위한 활동이 되지 못하고 자발적인 활동이라기보다도 타율적인 활동이었다고 하겠다.

셋째로 순수한 학생단체로서의 활동을 전개할 수가 없었다. 발족당시는 애국학생단체로 출발한 학도호국단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그 순수성을 상실하고 사회의 현실이 그대로 학원에 도입되어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많았으며 특히 대학에 있어서는 3·15선거를 계기로 학생 상호간의 대립이 심했던 예도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이 이상과 같은 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부정과 불의를 간과하지 못하는 애국정신에 불타고 있으며 특히 애국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3·15 부정선거 감행을 계기로 구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항하여 4·19의거를 거사하자 전국학생은 이에 호응하여 구정권을 타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 애국정신과 민주주의 사상을 해외에 선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민주번영의 터전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 사실을 길이 우리 역사상에 기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3. 4·19이후의 학생 운동

4·19의 학생의거는 세계역사상에서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애국운동이었으며 또한 귀중한 학생활동으로서 크게 평가되었던 것이다.

4·19전의 학생운동의 총결산을 뜻하는 구체적인 예이며 우리나라 학생들이 얼마만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애국애족정신에 투철하였던 가를 실증하여준 것이다. 학생의 힘으로써 구정권이 타도되자 사회의 구질서는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도 또한 우리 학생이 선두에 섰던 것도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 환경이 즉각적으로 학원에 반영되어 과거의 부정부패 및 반민주적 요소를 정화하기에 총력을 경주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면에 전학원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과도정부는 무엇보다도 앞서 과거 어떠한 의미에서 어용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된 학도호국단을 해산시키고 이를 대신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각급 학교에 자치회를 부활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과도정부 당시의 학교자치회의 활동은 학원내의 새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었으나 종국에 있어서 내분 등 심각한 학원의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학생 운동간에 있어서도 학원의 무질서로 원활한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억에 새로운 것은 4·19학생의 의거를 계기로 많은 학생단체가 난립되고 그것이 분파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권이 민주당으로 옮기어지자 민주당은 자신이 정권을 쟁취하였다기보다는 학생의 힘에 의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던 관계로 당초부터 무능력한 정부로서 구체적인 학생지도에 대한 정책을 세우지 못하고 지나친 민주주의를 표방한 나머지 방임적이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즉 학원 내에 용공적인 학생단체까지 설치되어 그 활동이 표면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학생동향은 뜻있는 국민에게 놀라운 일이었으며 학원이 정치와 결합하는 악례(惡例)를 남길 우려가 다분히 내포되었던 것이다.

4. 5 · 16이후의 학생운동

4·19이후의 학생운동은 과거에 대한 항거적인 경향과 사회의 혼란이 그대로 학원에 반영되어 학원의 무질서를 초래하였고 또한 학생운동 그 자체도 정치적인 색채가 농후하였다.

이러한 사회의 혼란과 국가 및 민족의 앞날을 걱정한 나머지 애국현역군인들이 주동이 되어 혁명을 일으키게 까지 되었던 것이다.

혁명정부는 혁명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사회의 청신(淸新)한 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우선 학원의 부정부패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기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또한 무질서하였고 파쟁을 일삼던 학교 자치회는 재건학생회로 개편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통제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4·19이후 대외적인 운동에 치중되었던 학생운동이 학교활동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이라기보다도 사회정세의 한 반영이라고 보겠다. 그 실제 면에 있어서는 재건국민운동본부하의 농촌계발운동, 신생활운동, 자매결연, 하계학생노동봉사 등을 열거할 수 있다.

5. 제3공화국 수립 후의 학생운동

민정으로 이양된 지 일천하나 외형적인 면에서는 혁명시기의 어느 정도의 통제에서 벗어나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학교 자치활동이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자치자체의 정비 목표도 확립할 정신적 태세도 갖추지 못한 채 정치사회의 일시적인 이 학원에 반영되어 학생들의 지나친 현실참여는 3·24데모를 실시하여 6·3데모로 절정에 달하자 정부는 본의 아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그동안 학생활동은 일시적인 중단을 면할 수 없게 되고 정부와 학교는 학생운동의 정상화를 강구 중에 있다.

6. 학생운동의 전망

이상과 같이 학생운동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개관하였으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금 후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새로운 진로가 개척될 것을 확신한다.

1) 지도자의 결핍

학생운동은 어디까지나 교육활동의 일환인 만큼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현재에는 지도자의 결핍을 첫째로 들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시대고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청소년 학도를 옳은 방향으로 지도하는데 그 순진하고 감수성이 충만한 젊은 학도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도성을 구비한 지도자가 무엇보다도 긴요하다. 특히 사회질서가 문란(紊亂)하고 혼란에 빠져 국민이 갈 바를 찾지 못하는 실정에 있을수록 지도자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해방이후 사회불안이 거듭하여 왔으며 과연 학생운동을 지도할 만한 지도자가 있었던가를 냉정히 자기 반성할 필요가 이으며 지도자 양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2) 지도정신의 확립이 필요하다

해방이후 불행하게도 국토가 양단되고 사상이 대립되었으며 경제적, 정치적 후진성을 면치 못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지도철학이 긴요한 것이다. 과연 과거에 어떠한 지도철학이 있었던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지도 관념을 가지고 임하였던가?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냉정히 반성 검토할 때 어떠한 압력이나 불안에도 휩쓸리지 않은 확고한 지도철학이 확립됨으로써 학생들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옳은 학생운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생운동은 그 순수성을 생명으로 삼아야한다

배우는 학도는 학문의 연구와 체위향상 및 특기 취미의 신장이 그 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현실참여는 본질에 이탈되는 일이라고 하겠다. 특히 새 헌법에 있어서 교육의 자주성의 보장을 규정한 그 근본정신도 이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원을 정치적인 유혹에서 보호하고 학생운동을 어디까지나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학생운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민주적인 생활경험이 실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자치능력이 부족하며 특히 해방이후 학생운동이 타율적인 면이 농후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학생들 자신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결핍하였고 활동 자체가 획일적이며 아무런 창의성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금후에는 학생을 신뢰하고 그들의 자율적인 운동을 조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한번의 실패가 있었더라도 내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5) 학생 자체의 자각과 책임과 의무가 긴요하다.

오늘 학생운동을 냉정히 검토할 때 학생의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행동으로서 사회의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과거 식민지시대에는 항거가 그 주된 목적이었으나 우리 국가 우리 정부가 수립된 오늘의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라는 공동의식이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운동은 학생의 본연의 자태에서 벗어나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공명심에 좌우되어서도 아니 된다. 이상 몇 가지 문제점을 개관하였으나 이는 내일의 학생운동에 있어 정상적인 발전을 기대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특히 우리나라 학생운동사는 국가와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내일의 우리 학생운동도 민족과 국가와 더불어 그 운명을 같이 할 것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고난의 935일

이 훈 구 초역

7, 천진이냐 북경이냐

그날 밤, 나는 조금도 잠을 잘 수 없었다. 흥분으로 잠이 오지 않아 몇 번이고 계획을 재검토하여 어딘가 미비한 점이 없는지 조사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없는가 심사숙고했다. 다음 날은 시간이 가지 않아 무척 지루하게 보냈다. 저녁 늦게 식량을 침대 밑의 저장고에서 꺼내 옷의 포켓으로 옮기고 취침시간이 왔을 때 짚 포단 속으로 들어갔다. 다음엔 발 멍에를 풀고 오버슈즈를 벗어서 구두를 만든 끈으로 졸라맸다. 이것으로 완전히 준비가 끝나고 신경이 가라앉게 되었다.

밤이 되어 두 번째의 경비병 교대가 있었을 때, 나는 계획을 단행할 기회가 왔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경비병은 다행히도 가장 동작이 둔한 놈이었다. 경비병이 들여다보는 구멍에서 사라지자 나는 곧 일어나서 낭하의 가장 끝까지 간 것을 확인하고 불을 끄고 전구를 빼낸 다음 소켓을 위로 올려서 금속편을 밀어 넣고 전구를 다시 끼었다. 나의 탈주계획은 거기서 막혀버렸다. 소켓의 스위치를 돌렸으나 예상한대로 퓨즈는 날아가지 않고 톡톡하고 큰 소리를 냈을 뿐만 아니라 더욱 곤란하게 된 것은 꼭 한곳만의 불이 꺼졌는데 그것이 나의 감방이었다.

곧 경비병이 달려왔다. 내가 탈주를 포기하고 겨우 이불만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문구멍으로 회중전등의 빛이 들어왔다. 처음 그 광선은 내 위에서 멈추고 그 다음 방안을 한 바퀴 비치고 나서 전등에서 다시 멈췄다. 경비병이 몇 번 문을 탕탕 두들겼으나 나는 자고 있는 체 하고 그동안에 발 멍에를 끼웠다. 경비병은 나에게 일어나서 전등을 키라고 했다.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였다.

경비병이 들어와서 소켓의 금속편이 발각되면 큰일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침대에 돌아왔으나 경비병의 감시가 엄격해져서 그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날, 아침식사가 끝나자 소장이 왔다. 나는 전전긍긍하였다. 어제 밤, 전등이 꺼진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새 옷 한 벌과 장갑, 구두를 주고 갔다. 무엇 때문에 새 옷이나 구두를 주었는지 의심하고 있을 무렵, 감방 문이 열리고 나오라는 신호로 나는 위층의 큰 방으로 끌려갔다. 소장과 경비병 두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먼지를 피할 색안경을 끼라고 하더니 긴 검정양말을 머리에 뒤집어 씌웠다. 몸의 어느 부분도 완전히 덮혀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형? 아니면 시베리아행? 중공의 다른 감옥으로 옮기려는 것일까? 나는 미지의 것을 그저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을 가리고 발에 쇠사슬을 채우고 수갑을 챈 다음 밖으로 연행 당했다. 눈을 천으로 가리고 있었으나 먼지를 피하는 안경의 끝으로 엷은 양말의 표목을 통해서 조금은 외부를 볼 수 있었다. 밖에는 크라이슬러의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나를 그 뒷자리에 밀어 넣더니 양편에 경비병이 한 놈씩 앉았다. 소장은 운전수와 나란히 앞자리에 앉고, 창은 온통 커튼이 내려져 뒷자리는 밖에서도 보이지 않고 또 안에서도 밖을 볼 수 가 없었다. 차는 문을 나서자 남쪽 길로 돌아섰으나 그 뒤론 방향을 분간할 수 없었다.

몇 분 뒤에 차가 멎었다 시끄러운 소리와 냄새로 정거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객차 안에 들어서자 한가운데 앉히더니 눈가림을 풀어주었다. 차는 전에 탔던 것과 같은 구조였으나 훨씬 깨끗했다. 찻간에는 경비병 4명과 나뿐. 차가 움직이자 나는 커튼 끝에서 들어오는 햇빛으로 방향을 측정했다. 처음 2시간가량 기차는 북북서로 달리더니 정오경부터 남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기차는 14시간 달려서 최후의 정거를 했다. 출발지가 안동이었다면 천진, 봉천이었다면 북경이라고 나는 판단했다. 지프로 약 20분가량 달려 감방에 내던져졌다. 이번 감방에 비해 보면 지금까지의 것은 큰 저택이라고 해도 좋다. 폭이 1미터 20센티, 길이가 2미터 70센티 가량의 넓이로 한쪽은 거의 폭파 같은 침대가 차지하고 있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2월1일이다 중국공산당의 손님이 된지 20일째였다.

저녁식사 후 소장과 장교제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통역이다. "이름은?"

나의 대답은 중국어로 번역되고 만사는 틀이 잡힌 대로 진행되었다. 그 형무소의 일정표를 알려준다. 오전 7시-기상, 7시부터 7시 20분까지-산보, 7시 20분-조식 7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침대에 착석, 11시 40분부터 정오까지-산보, 정오-식사, 정오부터 0시 20분까지-착석, 5시 40분부터 6시까지-산보, 6시-식사식후-바스켓을 비운 다음 착석, 8시-취침. 기가 막힌 일과다. 1시간과 20분간 좁은 방안을 돌아다니다가 11시간 반 동안이나 침대에 걸터앉으라는 것이다.

이튿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잠이 깨어 바야흐로 일과가 시작되었다. 경비병이 들여다보는 구멍으로 손가락을 들이 밀고는 걸으라고 신호한다. 나는 운동부족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명령에 따랐다.

다음 일과는 조반이다. 쌀로 만든 죽과 빵이었다. 그 후는 착석인데 20분이나 걸어서 피로했기 때문에 나는 잠시 앉아 있었으나 곧 실증이 났다. 솜 든 옷과 그 밑에 비행복 두벌과 자켓을 입고 있는데도 춥다. 스토브의 파이프는 조금도 방안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으며 나는 규칙을 무시하기도 했다. 방안의 창문은 밖을 향해서 열도록 되어 있어 매일 아침 밖의 경비병이 그것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를 넣어줄 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 그 때문에 곧 방은 냉랭해져서 저녁이면 나의 용변 바스켓에는 얼음이 얼곤 한다. 창을 열면 한기와 더불어 밖의 잡음이 들어와서 이것이 어느 정도 추위를 잊게 해주었으며 기분전환이 되었다.

두 가지 문제의 소리가 특히 나의 관심을 끌었다. 한 가지는 배의 고동소리와 흡사했으나 북경이든 천진이든간에

나는 근방에 기선이 드나드는 하천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 커다란 운하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커다란 운하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평저선(平底船)이 드나드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른 한 가지는 호각소리를 닮은 이상한 소리였다. 벽돌이 깔린 길을 진흙투성이의 바퀴가 삐거덕거리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 소리는 공중을 쫓아다니는 것 같이 들렸다. 몇 번이고 창문 틈으로 내다보고 있는 동안에 정체를 알아냈다. 그것은 비둘기 발에 호각이 매어져 있는 것이었다. 나는 이 형무소에서 나흘을 지냈다.

8, 24시간의 차렷 자세

2월 5일. 한 밤중에 소장과 경비병들이 와서 선잠을 자고 있는 나를 두들겨 깨웠다. 수갑이 채워지고 검은 헝겊으로 눈이 가리워 졌다. 형무소밖에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지프 속에 나를 밀어 넣었다. 어디로 연행되어 가는지 알 수 없었으나 약30분 걸렸다. 지프에서 끌려 내려 낭하를 몇 개지나 다섯 번째의 공산당 호텔 안에 연행되었다. 실내에 들어서니 눈가림과 수갑을 풀고 발 멍에까지 제거되었다.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착각했다.

소장과 새로운 관리인이 인도절차를 끝냈다. 벽 한구석에 판자 두 석 장을 막아 약 80센티 폭과 길이 2미터정도의 선반이 만들어 졌는데 그것이 침대였다. 그 밑에 담요 두 장과 엷은 포단이 접혀 있었다. 자라는 경비병의 신호에 따라 자리에 눕자 친절하게도 담요로 둘러 싸주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받아오던 대우와 전혀 달라진 것으로 기이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경비병은 그저 이 공산당의 형무소에서 죄수가 자는 방법을 표시하는데 불과했다. 나는 등을 벽에 대고 왼쪽 겨드랑이를 아래로 해서 얼굴이 들여다보이는 구멍에서 막 바로 보이게 잠을 자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고 있을 때는 눈을 감고, 일어나 앉아 있을 때는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니까 왼편겨드랑이를 아래로한 옆을 향한 차렷 자세다. 뿐만 아니라 잘 때에는 불빛을 정면으로 비추어댔다. 나의 심문계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중공의 인도주의'의 좋은 표본이었다.

이튿날, 조반 후에 나는 운동을 하기위해 방안을 거닐었다. 그러자 경비병이 화를 발칵 내고 들어와 강제로 나를 앉혔다 그리고 앉은 채로 똑바로 건너편의 벽을 바라보고 얼굴을 좌우로 돌리거나 상하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두 다리는 바닥에 딱 붙이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손은 무릎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차렷 자세로 앉아 있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안하면 수갑과 발 멍에를 채운다고 위협이다. 점심이 왔다 바켓을 받았을 때 수를 헤아려 보았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대여섯 정도다. 감방 문 여는 것을 헤아려 보았다. 4번뿐이다 그렇다면 어느 감방 안에 두 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된다. 내 감방의 양옆문은 열리지 않았다. 낭하를 사이에 둔 건너편 감방에서는 동양인 여자의 목소리가 나고 다른 두 감방에서도 중국말소리가 나는걸 보니 나머지 한방에 미국사람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알 도리가 없었다.

다음 날, 소장과 여자통역을 통해 옥 측을 들었다. 일과는 먼저 번 형무소보다 간단했다. 산보는 할 수 없다. 잘 때와 변소에 가는 시간외는 항상 앉아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앉아 있는 시간이 10시간. 자는 시간이 11시간, 방구석에 놓여 있는 물통을 사용할 때도 경비병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복 시에는 엄벌에 처한다. 나는 질문을 몇 마디 하려했으나 질문은 허용치 않는다고 대번에 구박을 맞았다.

그날의 두 번째 즉 마지막 식사는 오후 늦게야 들어 왔다. 굶주린 배는 먹어도 먹기 전과 다를 바가 없다. 아직도 취침 전까지 몇 시간 더 앉아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생각하면 배알이 꼴려서 앉아 있는 것이 바보짓만 같았다. 나도 서서 방을 걷기 시작했다. 경비병이 문을 두드리며 앉으라고 야단이다. 항변해 보았자 별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나는 문 가까이 가서 설명하려 했다. 그는 중국말로 뭐라고 씨부려 대고 나는 나대로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소릴 질렀다. 곧 경비병 두 명과 소장 및 장교 한 사람이 달려왔다. 장교가 어찌된 일이냐고 영어로 묻는다. 말해 보았다 뾰족한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이지만 나는 이 기회에 품고 있는 불만을 모두 털어 놓았다. 장교는 말없이 내 말을 듣고 있다가 그 말을 소장에게 전하고 그의 대답은 기다리지도 않고 나 있는 쪽을 향하더니 규칙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의하였다. 마치 분별없는 어린애를 달래는 어조였다. 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나에 대한 경비는 한층 심해졌고 다음날 아침엔 내가 눈만 조금 딴 곳으로 돌려도 아우성이다. 내가 항거를 하자 또 소장과 그 일당이 달려오더니 이윽고 나는 손이 뒤로 묶인 채로 다시 수갑과 발 멍에가 채워지고 말았다. 깊은 밤중에 피를 빨아 내는듯한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 지난밤에도 같은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는 지붕 위를 지나가는 바람소리로 알았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걸리지 않았으나 이번은 진짜 비명임을 알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비명은 연속적이 아니라 가끔 중국어의 노한 음성과 심문관의 격노한 소리 같은 것이 끼어 들렸고 다시 이에 중국어로 대답하는 가냘픈 소리가 들리다가는 비명이 일어났다. 나는 그것이 미국인의 소리가 아닌 것이 기뻤다. 내가 눈을 뜬 것을 알아차린 경비병은 다른 경비병에게 낭하 끝의 문을 닫게 했다. 그래서 비명과 고함소리가 약간 덜 들렸다.

아침에 조식이 끝나자 뜻밖에 수갑과 발 멍에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경비병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엄한 경고를 받았다. 나는 경비병의 존재를 무시하고 불행한 현재를 될 수 있는 대로 잊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상상하기도 했다. 나는 전에 신안특허 레코드플레이어의 고안을 계획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번 기회에 머릿속에서 그것을 고안하여 드디어 완성했다. 완성한 뒤에는 생산코스트를 계산하는데 며칠 걸렸다. 그 결과 현 시장가격으로는 비싼 것이 판명되어 이번에는 여러 장치를 간단히 하는 방법을 고안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감방에서 시간을 메우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9, 용변제도

형무소생활 32일째 되던 정오. 보통의 동양인 보다는 훨씬 큰 몸집을 한 푸른 제복의 사나이가 나를 끌어냈다. 나는 머릿속의 레코드 플레이어 작업을 걷어치우고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수상히 여기면서 따라 나섰다. 낭하 밑의 두터운 문을 비스듬히 열더니 간수가 뭐라고 소리를 지른다. 딴 체의 경비병에게 우리가 통과한다고 말한 모양이다. 경비병이 응답하자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 안의 어느 문 앞에서 다시 소리 지르고 또 응답이 있고 우리는 들어섰다. 감방은 양쪽 합해서 모두 20개, 문이 견고하고 들여다보는 구멍이 매우 작은데다가 그 위에 천 조각을 씌운 점이 내가 있는 감방과 달랐다. 방안에 들어서자 나는 어떤 책상 앞에 섰다, 맞은편에 남자 한사람, 여자 두 사람이 앉아있다. 세 사람, 모두 장교제복이다. 여자장교중의 한사람이 통역 이다."이름은?" 미공군소위 윌레스 L 브라운 대답은 했지만 경례는 하지 않았다."앉으시오" 나는 뒤에 놓여 있는 낮은 의자에 걸터앉았다. 세 사람 모두 계급장은 달고 있지 않았다. 남자장교가 다시 지껄이고 그것이 통역되면서 나는 이곳에 끌려온 이유를 알게 되었다. 새로운 심문이다.

그들의 표현으로서는 회견이다. 이것은 일종의 소개회견으로 대부분의 시간은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소비되었다. 나의 입장은 중대하다. 가급적 협력해야 한다. 그러면 관대한 대우를 해준다. 나는 전쟁포로가 아니고 전쟁범인이다. 따라서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평화 애호의 중국인민'에 대한 나의 태도를 알려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치 못한다면 나에게 불리해 진다. 고집을 부리면 그들의 참을성도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상이 그들의 기대였다. 불쾌한 회견이었지만 그들의 어조는 별로 거칠지도 않고 답변을 거부해도 위협하지 않았다. 그들의 말에는 흥미가 없었지만 오랜만에 영어를 듣는 것은 즐거웠다. 회견은 한 시간쯤 걸려서 끝났다. 그날 밤에도 또 비명 소리가 들렸다.

이튿날 오후 두 번째 신문이 있었다. 내용은 지난번과 같은 설명이었고 나의 개인경력에 대해 두서너 가지 물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묻는 것을 기회로 몇 가지 불만을 털어놓았다. 왜 운동을 시키지 않는가? 왜 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가? 그랬더니 장교는 자기 소관 밖의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곧 또 회견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는 더욱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라면서 말단의 소위정도가 가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으리라고는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 너의 태도를 시험해서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를 결정짓고 싶다. 고 덧붙인다. 나는 또 심문에 끌려갈 것이라고 예기하고 있었으나 사흘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실망조차 하였다. 심문받기가 좋을 리는 없지만 지루한 옥중생활의 심심풀이는 되었다. 더구나 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심문관을 괴롭힐 자신이 있었다. 몇 번이고 시도한 끝에 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다른 동료와 같이 있도록 해줄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갖고 있었다. 한편 경비병은 나를 괴롭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내가 소변 통을 너무 자주 이용한다면서 용변을 볼 적마다 방에 들어 와서 실제로 용변을 보는가 확인했다. 이렇게 되니 나도 신경을 쓰게 되어 소변을 정말 볼 수 없게 되고 경비병은 더욱 나를 의심하게 되었다. 다음번에 용변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는 교대시간까지 기다리게 한 다음 비로소 백만 불이라도 내 주는듯한 표정으로 허가를 한다. 나는 이에 대항하는 꾀를 생각하고 상번경비병이 온 직후

와 직전에 용변을 보기로 했다. 그러면 소변통까지 가는 회수가 늘어서 운동을 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오래 못 갔다. 경비병이 나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비병은 소변을 하루 5번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아침 기상 시에 식전과, 취침 전 다섯 번이라는 것이다. 공산당이 사상을 통제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용변통제라니 터무니가 없다.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겐 그런 것이 불편하지 않은지 모르나 나처럼 앉아만 있는 사람에게 하루 다섯 번이란 괴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때때로 참을 수 없으면 마루에 흘려버릴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중국인 앞에서 자제심을 잃은 일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 결과 여러번 괴로운 것을 참지 않으면 안 되었고 앉아 있는 고통이 더 심해지게 되었다. 이것을 늦추는 유일한 방법은 정신을 분명히 활동시키는 것밖에 없었다.

축음기의 고안을 이미 오래전에 끝냈기 때문에 조작이 잘 되는가 여부를 레코드판 몇 장으로 시험한 다음 딸기 따는 기계의 고안을 시작했다. 이것이 완성되면 미국에 돌아가서 큰 재산을 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연구해본 결과 실패를 인정했다. 다음은 건축업에 종사했다. 이 분야에서의 나의 지식은 목공인 아버지의 잡지에서 주워 본 것 뿐인데 그 것으로 충분했다. 간이 주택에서 큰 저택에 이르기까지 손에 닥치는 대로 설계하고 기억에 남아 있는 경치 좋은 곳에 적합한 주택을 하나씩 지어나갔다. 주택하나를 완성하는 데는 재료비의 계산까지를 포함해서 수 주일씩 소비할 때도 있었다. 완성된 집에서는 며칠씩 생활해 보며 살만한 가를 조사했다.

불행에 대한 체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소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있다. 사람은 흔히 큰 불행에 대해서는 체념을 갖는다. 그런데 조그마한 기분 나쁜 일에 대해서 오히려 감정을 억제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은 큰 불행보다는 사소한 일에 있다. 사소한 기분 나쁜 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치고 또 그 사소한 일들이 도화선이 되어 큰 불행으로 발전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감정의 그릇이 기울면 엎질러지는 물과 같다. 그러니까 늘 조심성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한번 기울면 평화와 조화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울기 쉬운 순간에 억제하도록 애를 써라.

〈알랭〉

공산주의하의 정치과정론(政治過程論)

박 관 수(朴寬洙)
〈한국반공연맹 이사장〉

1. 마르크스 주의의 동기(動機)

마르크스 주의는 국민을 가혹하게 억압하는 프러시아 왕정을 지나치게 옹호한 헤겔 철학을 비판하는 데 그 동기가 있다.

'독일의 현실을 보라! 일전(一戰)이 꼭 있어야겠다. 물론이다! 그것은 역사수준이하니까'라고 외치고 프랑스 시민들은 대혁명을 단행하여 정치적 해방을 잘 얻었는데 독일 시민들은 겁만 내고 봉건세력과 몰래 야합하여 정치적 자유도 못 얻었다고 분개했다. 이것이 마르크스의 혁명관이요 이 혁명을 담당할 사람은 근로자 계급이라고 보았다.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향하는 운동이요 해방은 그 최종 목표라고 한 헤겔 사상을 이어서 이것을 근로자 계급의 해방에 결부시키고 이 계급이야말로 인간해방을 완성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곧 무산대중이 일어나서 독일의 봉건세력을 철저히 분쇄하고 그 자들이 그 세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뒤 독일의 정세는 어떠하였는가. 1867년에 보선법(普選法)이 실시되어 노동자도 선거권을 가지고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최하층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이 일반시민과 동등대우를 받게 되고 1918년 혁명으로 마르크스가 그처럼 분개하던 독일왕정의 최후성벽도 무너졌고 이제는 혁명을 일으켜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졌다. 19세기 이후는 여러 다른 나라들도 민주주의를 발달시키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는 헌법을 채용하고 만인평등의 보선제를 실시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허용되었으니 이 이상 더 항거할 것도 없어졌고 그 위에 노동법이 실시되어 일반국민보다는 노동자를 더욱 더 보호하게 되었으니 새삼스럽게 폭동이나 혁명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여년 전 마르크스의 낡은 사상을 지금 와서도 그대로 맹종하여 혁명이나 폭동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역사의 착오요, 문화의 반역이요, 인류의 해독인 것이 분명하다.

슈왈스실트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실상 마르크스는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일도 없으니 그 독특한 감정과 고유한 성격을 이해할 리도 없고 또 노동자 계급의 해방론은 완전히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의 생각이요, 딴 사람들이 노동자를 위한 운동이다 라고 했다. 이것을 보면 마르크스가 실지로 경험도 하지 아니한 것을 단지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본데 불과한 것이다. 그런 것을 사정이 완연 다른 딴 민족에게 적용하려니 여러 가지 모순과 착오가 아니 생길 수 없다.

2. 레닌주의의 발족

마르크스주의를 러시아에 도입하여 제정(帝政)을 타도하고 공산주의의 실천지침으로 개편한 것이 레닌주의다. 이로부터 마르크스주의는 공산주의 운동의 정신적 무기로 더욱 연마되고 발전되었다. 레닌주의는 연구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레닌이 직접 참가한 혁명운동에서 체험한 것이다. 1903년 당대회에서 조직문제를 가지고 대논쟁이 벌어지자 레닌 안이 다수의 찬성을 얻어서 볼쉐비키가 성립되었다. 레닌은 노동자 계급의 전투부대로 당을 보고 당원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한 뒤에 입당을 허가하고는 당의 강령과 규약을 강철같이 지키고 그 조직속에서 신명을 바치고 활동할 것을 강요했다. 볼쉐비키는 문자 그대로 직업혁명가의 집단체다. 부레일스포드의 말과 같이 '공산당원이 되기는 프러시아의 참모장교나 카톨릭의 주교가 되기보다도 더 어렵고 입당한 뒤에도 거침없는 숙청(肅淸)이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레닌은 첫째 의회를 무시했다. 이것은 자본가나 지주들의 특권옹호기관으로 본 것이다. 둘 째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의 전위(前衛)부대로서 당의 규약과 간부의 지시를 강철같이 지켜야 한다. 중립태도나 비판의 자유는 숙청의 대상이 된다. 셋째 노동동맹군을 결성하여 제정 러시아를 타도하고 장차 닥쳐올 제국주의와의 전쟁을 준비한다. 1914년 일차 세계대전이 폭발되었을 때 레닌은 동지들에게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외쳤으니 그 심술(心術)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국제전쟁을 내란으로 이끌어라. ―, 우리 정부가 패망하도록 꾀하라. ―, 노동자는 총 끝을 우리 장교와 자본가에게로 돌려라. ―, 군인은 적과 교환하기를 힘쓰라.

3. 제정 러시아의 몰락

레닌이 망하기를 원하던 그 조국 제정 러시아의 현실은 어떠하였던가. 1905년 일본과의 전쟁때 대중이 봉기하여 '피의 일요일'의 비극을 빚어내어 전국에 폭동이

파급된 일이 있었다. 이때 처음으로 헌법제정 국회 개설이 되었으나 황제는 임의로 개폐(改廢)할 권한을 가졌고 선거법은 지주나 유족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왕조가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서구적인 의미의 데모크라시란 것은 제도상은 물론 사상적으로도 엿볼 수 없었다.

1차 대전이 벌어질 때 국정은 참으로 암담했다. 군대가 약한 것은 아니나 장교가 무능했고 관리는 부정, 부패, 반역의 행동을 거침없이 했고 규율과 도의는 날로 허물어져 갔다. 전쟁으로 생산력은 저하되고 식량은 떨어지고 민심은 절망되어 모든 것이 허탈로 돌아갔다.

이 위기를 수습해야 할 니코라이 2세 황제는 우유부단이었고 우수(優秀)한 정치가는 나오지 않고 궁정(宮庭)안에는 간신들이 판을 치고 라스퓨-탕 이라는 요승(妖僧)까지 나타나서 알렉세-푸 황태자의 병을 고친다하고 괴상한 기도를 올려 알렉산더 황후의 총애를 받고 국정에까지 간섭하는 세도를 부렸다. 여기서 국민들이 분기한 것이 1917년 2월 혁명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정은 무너지고 르보푸를 수반으로 케렌스키를 법상으로 임시정부를 세워서 민주주의화에 노력했으나 급작된 일이라서 순조롭지 못하고 좌우익 양편의 공격을 방어, 단호한 처리를 못하는 사이에 망명에서 돌아온 레닌이 볼쉐비키를 이끌고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토지해방과 평화운동을 일으켰다. 그 뒤 케렌스키가 수반(首班)이 되어 레닌을 억압하고 정부를 개편했으나 국민의 반감은 심해지고 위기를 벗어날 길이 없었다. 이 때를 이용하여 볼쉐비키가 무장으로 봉기하여 10월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다.

4. 볼쉐비키의혁명의 모순성

소비에트 혁명은 마르크스가 말하듯이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생산성이 팽창하고 자본주와 노동자 사이의 생산관계가 모순에 빠져 더 나갈 수 없을 때 역사적 필연성으로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레닌은 이것을 '제국주의측' 이라는 괴상한 것을 새로 내걸고 볼쉐비키 혁명의 정당화에 무한히 노력했으나 이해가 안간다. 그 이듬해에 헌법회의를 소집했으나 그 회의는 볼쉐비키의 주권을 인증하지 아니하므로 이것을 해산하고 볼쉐비키만의 회의로 헌법을 제정했다. 이 헌법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독재를 위하여 소비에트 제도를 채용하고 새 정권이 나오기를 바랐으나 결국 공산당간부의 수중에 정권은

떨어진 것이다.

한편 1919년 볼쉐비키 군사가 반혁명군을 진압하는데 성공은 했으나 전쟁과 혁명의 탓으로 국내생산력은 저하되고 기근(饑饉)상태는 계속되고 구(舊)지도자들은 살해 또는 망명하였으므로 국민은 지도자, 생산계는 경영자를 잃어서 정치 경제 문화가 모두 마비상태에 빠졌다. 그 위에 공산주의의 사회화를 강행하려니 각종의 모순과 혼란이 연달아 생기고 말경에는 식량공출(食糧供出) 문제로 농민들의 반란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서 레닌은 참다 못하여 토룻키의 반란을 무릅쓰고 NEP라는 새 경제정책을 채용했다. 이것은 농민에게 어느 정도의 사유재산과 사적경영을 허용하게 시장은 다시 열리고 소생산업자들은 자기 손으로 자기물품을 제조(製造)도 하고 판매도 하는 자유가 인정되었다. 그 결과 저락(低落)되었던 생산력은 회복되고 민심은 안정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자본주의와 상통(相通)한다고 해서 볼쉐비키 정통파들은 크게 놀라고 극력 반대했다.

레닌은 그 반대를 완강히 물리치고 이 신정책을 실시했다고 한다. 이런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기만책(欺瞞策)이다. 그 당시 레닌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경제정책을 세웠더라면 금일의 구미(歐美)와 같은 큰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볼쉐비키의 정책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도 모순이요, 레닌주의의 원리와도 상원(相遠)된다.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것을 내걸었으니 이런 것이 그 자들의 기만책이다.

5. 소비에트의 기구(機構)

볼쉐비키는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의 전술대요 그 계급조직의 최고형태라고 한다. 당은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고 노동자계급의 독재를 위한 투쟁에서 노동자 농민 모든 근로대중의 지도권을 확보한다. 당의 모든 기관을 지도하고 사회주의사회의 효과적 건설을 보장하고 철과 같은 규율에 의하여 결합된 통일적인 전투조직이다. 곧 의사의 통일과 행동의 통일이다. 신당원은 특정한 견습기간을 경과한 후보자 정치적 훈련학교졸업자 당의 강령과 규약을 습득한 자 중에서 엄선하여 입당을 허가한다. 노동자계급의 전투조직으로서의 당은 필연적으로 군대조직의 명령 지배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당의 조직원리는 최저에서 최고에 이르는 모든 지도기관은 선거의 원칙을 적용한다. 고차기관의 결정은 저차기관과 모든 당원에 대하여 절대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당은 지역적 생산원칙에 따라 민주적 중앙집권주의의 기초위에 구성된다. 각 조직의 최고 지도체는 총집합 총 협의회 총회의들이다. 이 회들은

그 집행기관으로서 활동하고 또 각 조직은 모든 시무(時務)를 지도하는 위원회를 선출 구성한다.

당조직의 기구(機構)는 다음과 같다.

㈠전연방회의-당중앙위원회 ㈡<리 존>협의회, 민족공산당회의<리 존>위원회, 민족공산당중앙위원회 ㈢시, 지방협의회—시, 지방위원회 ㈣공장, 촌락, 집단농장, <마신, 토락터-,스테 존> 적군부대, 관청,-총집회,-제1차 조직협의회-제1차 당위원회 제작소 당위원회, 공장당위원회등 권한의 순서도 이 차례대로 간다. 당 중앙에서는 형식상 회의기관이 최고지위를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위원회의 서기국이 당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정치국에는 저명한 정치가를 망라(網羅)하고 중앙기관은 당의 두뇌가 되어 있다.

공산당은 세포조직으로 구성되는 거대한 유기체다. 부르조아 정당에서는 단지 선거를 통해서 일반대중과 접촉할 기회를 갖지만 공산당은 일상 항시적으로 연속해서 언제라도 민중의 대동원이 가능할 기초를 마련하고 그 접촉도 민중의 생활 전면에 미치고 있다. 이것이 더욱 더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치적 지도는 군대내부에서도 실시된다.

그것은 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정치목적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하다. 당은 대중조직으로 어떠한 곳에라도 조직망을 가지고 있다. 마치 모세관과 같이 비당원인 대중속에서도 공산정책을 침투시킨다. 또 당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벌(派閥)적 투쟁이나 분열적 투쟁에 대해서는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무자비하게 처단한다. 중앙에서 결정된 것은 신속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당 총제위원회에서 하는 질문에 성실한 답을 거부한 당원은 즉각 처벌을 당한다.

그밖에 당원은 소정의 당비를 정성껏 바쳐야 한다. 이 기구조직을 보면 무산대중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요, 완전히 억압하고 구속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6. 레닌주의의 모순성

레닌의 실천면을 따져보면 모순면이 적지 않다. 무산대중의 독재란 것과 전위(前衛)란 것은 서로 맞지 않는다. 혁명운동에 앞장서서 지도하고 권력을 잡는다지만 무산대중이 모두 그런 것이 아니오 엄선된 몇몇 사람에 불과하다. 같은 당원이면서도 조직체이니 만큼 지도하는 층과 지도받는 층이 자연히 생기고 소수가 다수를 지도하게 되고 때로는 일인독재의 경우도 있게 되니 그것이 곧 레닌,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이다. 일인독재를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이라고 억지로 변명하지만 이것도

일종의 사기(詐欺)다. 전위(前衛)다, 독재다, 하니 무산대중이 모두 상전같이 되어 별안간 권세를 부릴 때가 온 것처럼 착각할는지 몰라도 실상은 무자비하고 잔인한 공산두목들에게 우마처럼 기계처럼 다루어져서 그 가혹한 억압에 무산대중은 신음할 뿐이다.

당의 방침을 결정하는 데는 각급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다지만 실상은 하급에서 차례로 토의 결정되는 것이 아니오, 상부에서 결정된 것만을 하급에 전달하여 절대복종할 것을 강요할 뿐이다. 항상 존재라는 것은 복수의견의 종합이 아니고 강압이다. 이것은 당내에서뿐만 아니라 당 외 일반대중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으로 강행된다. 그 결과 정치란 것은 필연적으로 공산당의 일방적지배가 되는 것이오, 당 두목의 일인독재가 되어 버린다. 비합법적 조직체를 가지고 비합법적 정치활동을 하자니 국민의 희망을 들어줄 수도 없고 부득이 당원의 독재간부 또는 변목(變目)의 독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7. 공산주의의 허위성(虛僞性)

일반대중과 공산당원의 의견이 항상 일치될 수는 없고 일반당원과 간부와의 희망이 동일할 수도 없고 간부와 두목과의 정책이 합치될 수도 없다. 당원은 각종훈련을 받아서 당규와 지령을 엄수하고 당 간부에게 절대복종하는 것이 지상명령이다. 소비에트 조직에서는 공산당의 정책이나 지도방법에 대하여 비판이나 반대는 절대로 허용 안된다. 만약 한다면 그것은 즉각 추방이오 숙청이다. 당 간부의 의사와 국민의 의사는 당의 선전(宣傳)과 교육과 획일적 훈련으로 무리하게 합치되도록 강요한다. 곧 국민대중의 절대굴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구나 소비에트에는 자유 입후보가 아니오 추천선거제다. 그러므로 선거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임명과 마찬가지다. 그 위에 소비에트에는 결사의 자유가 없다. 레닌은 타당의 존재를 일절 엄금하고 공산당으로 유일한 독점배타적인 일당독재제로 삼았다. 소련에서는 공산당의사외에 국민의 의사가 있을 수 없고 소련의 의사는 당간부의 의사요, 또 그것은 최고 일인자의 의사가 되는 것이니 일인의 의사가 얼마나 강제적인가는 제 20회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연설한 비밀보고를 보더라도 분명히 이해가 된다. '스탈린은 남들에게 설득하거나 설멸하거나 협조를 요망하거나 하지는 아니했다. 자기 생각을 남들에게 강압해서 자기 의사에 완전히 복종할 것을 강요했다. 스탈린의 의사에 반대하거나 자기입장을 정당하다고 변명(辨明)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물론하고 간부계급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살되지 아니하면 안되었다'고 했다.

<흐르시초프> <스탈린> <레닌> <맑스>

조각난 칼 맑스의 유산

공산주의는 세계적이냐
민족적이냐

이삼우(李三友)

1.

19세기 후반에 들어와 자본가들의 횡포와 사회 불평등 현상에 반기를 들고 세계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자라고 외치던 공산주의의 파동은 지난 1세기 동안 물결처럼 전세계에 펴져 세계의 1/3의 지역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수천, 수억의 신도를 자랑하는 종교처럼 되었다.

그간에 치열한 공산당의 반대운동이 세계도처에서 있었고 수많은 이론상의 논쟁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둘러싸고 진전돼 왔지만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아성은 불사조인양 견고히 지탱되어왔으며 그를 신봉하는 인구가 점차 증가일로에 있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떤 국가 어느 사회에서든지 대중과 노동자들을 파고든 이 운동은 빈자와 약자의 구제를 호소하고, 독점과 부정에 대한 정화운동이라는 윤리를 들고 나섰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여파로 몰락되어간 소자본주의와 기술인을 포함하는 대다수의 대중들은 멋모르고 쌍수를 들었으며 이와 같은 공산주의의 매력은 문화, 언어, 관습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침입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혈연과 전통, 문화를 통일하는 단위로서의 민족성마저 붕괴시킨 사상적 운동의 흔적을 공산주의 이전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공산주의는 세계주의를 부르짖고 실로 세계적인 기구로 번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2, 3년간의 공산세계의 내부동정을 주시한 사람이라면 이상 더 공산주의의 힘이 민족과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단결되어 있는 것이라 보기 힘들 것이며, 이러한 공산당 내부의 균열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그것은 이념의 힘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 같은 위기에 이끌려가고 있음을 쉽게 케치 할 수 있다.

역사발전의 도상에 어떠한 정지도 용납할 수 없었던 헤겔의 변증법을 도용하여 전통과 제도를 파괴하고 난 뒤 새로운 질서와 이념 속에 영구히 안주시키려했던 맑스 주의자들은 이제 자승자박의 경지에 들어간 감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지상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세계공산화와 공산주의의 세계성이 부정된 것이라면 이상 더 시대적 필연성을 갖지는 못할 것이며 도처의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국가들이 통일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공산당의 형식과 방법을 취하지 않고도 자국의 문제를 자국의 역사와 환경에 따라 해결해 갈수 있는 것이라면 세계 공산당대회같은 독선적이며 원맨쇼 같은 모임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얼마전 까지도 맑스를 사상적 조상으로 소련을 세계 공산당의 조국으로 섬기던 그 후예들이 어떻게 그 색채를 달리해가며 그들이 받은 칼 맑스의 유산을 어떻게 찢어 나누어 가고 있는지를 실례로서 찾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2.

공산세계를 분열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동인은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신념과 국가민족적인 이익사이의 모순 속에서 비롯되기 시작하였으며 이것은 오늘날 공산주의를 세계주의냐 민족주의냐의 양자택일적 고민 속에 몰아넣고 있다. 그러면 공산세계를 분열에로 이끈 민족주의는 과연 언제부터 배태되었으며 이것이 공산주의의 세계주의와 어떤 관계를 맺어 왔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앞선 공산주의 역사를 참고해 봄이 좋을 것이다.

1818년 독일과 유태계의 혼합된 피를 받고 태어난 맑스는 1843년 그가 편집하던 신문이 폐간 당하자 모국을 떠나 파리와 브라셀에서 4년간 살았으며 1848년 혁명 당시 독일로 돌아 왔다가 다시 추방되었고 마침내 정치적 급진주의자였던 그에게 안식처를 기꺼이 제공했던 영국에서 생애를 마쳤다.

영국학자 아이사야 베르린경은 맑스는 강력하고 능동적이며 구체적이고, 불의에 대한 날카로운 감각을 타고 났지만 예외로 감수성은 예민하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맑스는 민주주의의 자유와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의 낭만적 공상에 대해서 용서 없이 반박하였을 뿐 아니라 이상주의적으로 감동된 선의의 수정주의자들에게 마저 역사의 불변의 법칙에 대한 돈키호테적인 광란의 몸짓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사회의 급진적 재건에 있어서 이론과

실천을 일치시키려 했던 맑스는 당시의 철학자들이 세계를 변개(變改)시켜야 하는 본래적 의무를 망각하고 세계를 대변하는데 그쳤다고 비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맑스는 개혁철학자로서의 공산주의가 이러한 역할을 분열 없이 해낼 수 있다고 보았으며 공산주의국가들은 형제정신을 갖게 되리라고 유토피아적 전망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이상주의적이었던 그의 시대착오적인 판단이었다.

그는 유명한 「공산당선언(Communist manifesto)」에서 한 나라 안에서 계급차별을 폐지시켜 버린다면 국가간의 적대의식은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그러나 맑스의 생전에 이미 프로레타리아운동을 국제적으로 전개하려던 그의 신념은 노동자측의 위험한 민족주의에 의해서 무섭게 수행된 예가 많았다. 그리고 1883년 맑스가 죽은 뒤, 세계노동계급이 조화되어 나가리라고 믿던 그의 신념은 점차 부정되어 가고 말았다.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통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1889년 파리에서 창설된 Second International은 다음의 두 가지 딜레마 때문에 파벌분쟁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 두 가지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로 적대국에 있는 나라의 노동자의 당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 인가하는 문제와 공산주의가 성취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개혁(Reformation)과 혁명(Revolution), 어느 것이 더 좋으냐 하는 문제였다.

그런데 그 첫째문제는 맑스의 기대와는 너무나 어긋난, 잔인한 방법으로 해결되었는데 1924년 8월 1차대전이 일어나자 유럽의 각국 노동자들은 열심히 서로 죽였으며 결과로 수백만의 노동자 청년들이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그 후 3년뒤 맑스의 이론을 실천적 정치학과 융합시킨 이데올로기의 천재였던 레닌(Lenin)이 맑스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독재를 선포함으로써 공산주의는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다.

<붉은 광장의 무덤에 누운 예언자 레닌의 시체>

최초에 레닌은 러시아 혁명이 주변의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혁명을 일으켜 주지 않는 한 성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하여 레닌은 Third International을 1919년에 조직한 뒤 본부를 모스크바에 두고 고급밀사들을 산업이 발달된 유럽 각 국가에 밀파하여 공산주의 혁명을 조장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인근 국가에 새로운 혁명의 기색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소련의 볼셰비즘이 외부원조 없이도 지탱되어 나갈 것이 확실하게 되자 Comintern(The third international)은 광범한 변질을 겪었다. 즉 세계 각국의 노동자들을 조화시켜 횡적으로 동일한 평지위에 두려던 애초의 기도와는 달리 소련은 고차적으로 훈련된 비밀공산당원을 통해 세계 공산국가를 종속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스탈린(Stalin)대에 와서는 Comintern을 세계사상 가장 잔인한 정치구조로 변질시켜 세계공산당원의 기본적 충성심이란 소련연방공화국에 대한 것을 말하게끔 만들었다. 그리하여 각국의 공산당원들이 자기국가의 이익을 배반하고 가장 친근한 벗을 희생한 예는 수도 셀 수 없으리만큼 많다. 어떻게 보면 세계노동자들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단합했던 것 같은 이 현상은 맑스의 신념을 실현 시킨 듯한 감을 주는 것도 같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결국 소련혁명의 성공이 공산당의 세계적 승리를 보장할 것이라는 신념을 소련은 외국공산당에게 강요하였으며 이러한 신념이 약해져 가는 기색이 보이면 외국공산당에게 거대한 자금을 대주던 모스크바는 엄격한 훈련통제를 실시하였던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마저 모두 실패되고 말았을 때 스탈린은 주저하지 않고 테러의 수법을 써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에 끝까지 응하지 못했던 외국공산당 지도자들이 모스크바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수 백 명씩 도살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소련 독재식 국제공산당활동은 2차세계대전으로 더욱 강화되었는데 소련 공산주의는 러시아의 국경을 넘었으며 변질되었다. 즉 스탈린은 그의 전시동맹국에 대한 선물로서 Comintern을 1943년에 해체시켰으며 소련의 붉은 군대는 서쪽으로 행진해 갔다. 한편 동부유럽의 공산당지도자들은 전후에 모국으로 돌아와 스탈린 정부에게 자국의 정부가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운동했다.

1949년 동독에서 탈출한 볼프강 레오나드는 그 당시를 회상하기를 지령을 포함한 비밀전문에 대한 행동적 반응은 거의 자동적이었으며 당 노선이란 거기에 짜 맞추어 넣은 것이었다고 했다. 스탈린은 그의 생활의 마지막 날까지 유고슬라비아라는 유일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세계를 통해 공산당활동의 전권자 였다.

3.

스탈린 독재자의 소련공산당에 대하여 최초의 반기를 들고 도전해온 자는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였다. 유고의 도전은 1948년 6월에 처음으로 공식화되었으며 이때 모스크바는 티토원수의 수정주의가 스탈린주의 지주에

<스탈린과 흐루시초프가 다정했던 한 때(1937)>

대한 최초의 틈바귀라고 비난하였다. 스탈린 독재에 굴복하기를 반대하면서도 맑스주의를 근본적으로 견지한 점에서 티토는 러시아 공산주의에 대하여 최초의 실제적 대안을 제공한 자였다.

유고주재 전 미국대사였던 죠지 F 케난씨는 앞으로 출판될 「공산세계와의 외교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소련 블럭의 통일은 유고슬라비아가 탈당한 쇼크에서 완전히 회복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유고의 탈당은 소련이 독주하는 식의 통일과 원리가 맑스의 사회주의적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인가 아닌가 또한 모스크바의 명령에 맹목적인 복종을 하지 않고는 완전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는가 하는 간담이 서늘할 문제를 제기시켰기 때문이다."라고 서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고의 이탈쯤, 스탈린이 살아 있는 한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스탈린이 죽고 제20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가 스탈린의 범죄를 고발하자 문제는 달라졌다. 즉1956년 2월의 동대회에서 흐루시초푸는 '사회주의에 이르는 길은 독립적일 수 있다.(the way to socialism can be separate)' 는 명제가 맑스와 레닌에 의해서 지지되었으나 스탈린에 의해서 억제되었다고 비난하면서 그 자신은 이를 시인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와 같은 흐루시초프의 선언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사회주의라는 최종목적을 향한 그 방법과 노정이 통일된 것이 아니어도 좋다는 말은 이제 정설이 되었으며 이러한 판정은 더욱 오늘날의 공산당을 분열의 틈바귀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이다.

스탈린의 격하와 그 뿌리를 제거시키려는 흐루시초프의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도를 넘어 자기 자신에까지 해가 미치게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세계 공산당은 그로부터 독주식 집단체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독재와 기만에 의한 체재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각 국가들의 내셔날리즘적 경향이 짙어져 바야흐로 공산국가들은 그 양상을 달리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로서 스탈린의 가장 충성스런 제자였던 이태리 공산당지도자였던 토글리아티는 재빨리 그 자신의 공산주의이론인 다수중심주의(Polycentrism)를 선도하여 과거 이데올로기적 권위체였던 단일중심주의(Monocenterism)를 배격하였다.

그 후 몇 달이 안 되어, 러시아의 직접적

군사지원 없이 정부를 수립한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 지도자인 모택동(毛澤東)은 흐루시초프의 교리의 새로운 혁신을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소·중공간의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론적 대립에도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소·중공의 분쟁이 열을 올리고 있을 무렵 동구의 가장 엄격한 스탈린주의 국가인 알바니아는 북경에 합세하여 모스크바에 대항하였다. 그 후 몇 년 만에 전 공산당세계는 홍분에 휩싸였으며 여러 가지 색채를 띈 칠면조와 같은 느낌이 없지 않다.

이제 공산주의라는 어의(御衣)는 정치적 파벌의 무한한 다양을 거의 전부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평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즉 통일된 한 개념을 자칭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된 유동적 상태의 전부를 대표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었다. 어떤 그룹에서는 자기들의 성격과 의무를 변경해 가고 있는 것 같으며 다른 당에서도 교리의 직선을 따라 여기저기서 파열을 일으키고 있다.

친북경파인 페루에서는 정통을 부르짖고 있는 반면 친모스크바 분자들은 당의 본부사람들과 신문마저 통제하고 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두 개의 공산당이 있는데 하나는 우세당인 친소파인 'Communist party of Australia'이고 또 하나는 친중공파인 'Communist party of Australia(Marxist-Leninist)'이다. 다른 나라의 공산당들도 아직 표면적으로는 통일성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파벌주의에 의해서 분열되어 있다.

수 개 월전 15만 명의 당원을 가진 강한 친소파 인도 친 공산당 전국 위원회가 중단되고 말았는데 104명의 전국위원 중 32명에 불과한 친중공파 위원들을 축출하는데 실패하였던 때문이다. 이 논쟁에 직접으로 가담하지 않은 다른 공산당들도 심각한 반응을 보였는데 베네수엘라 공산당 지도자이며 카스트로와의 관련 때문에 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 구스타보 마카도는 "최근 뉴스위크지에 소·중공분쟁의 틈은 우리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는데 그것은 우리들을 완전히 혼란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부모들이 싸움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느낌이다"라고 논평하고 있다.

<지금은 견원지간(犬猿之間)이지만 한때는 형제지간이었던 흐와 모(毛)>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으로

소·중공의 분쟁 때문에 수많은 군소 공산당들이 파동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중공의 틈바귀가 생김으로서 세계 각국의 공산당들이 세력을 얻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은 다음의 몇 가지 가운데 있다고 저명한 평론가들은 말하고 있다.

즉 러시아의 보수주의든가 중공의 혁명주의든가 유고슬라비아의 수정주이든가 아니면 이 세 가지를 혼합한데다 라틴적 경박성과 흥행적 기분의 혼합마저 곁들인 쿠바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공산국가들의 이론적이고도 세력분포적인 분열 파쟁이외에 또하나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의 공산당도 점차 자국의 성격과 이익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중공분쟁 그 자체보다도 훨씬 중요하며 공산당 측으로서는 블록의 대립보다도 더 위험한 것인데 공산주의의 세계적 확대와 통일을 목표로 한 지도방침을 비웃는 듯 그 개별국가의 내부에서 민족주의적 사상이 움트고 있다는 사실은 불원 세계 공산당은 붕괴시킬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4.

국가 간의 상호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같은 사상과 이념을 간직했던 공산주의 신봉 국가간에 틈이 생기고 서로 반발한다는 것은 계급만이 타파되면 국가 간의 적대의식은 사라질 것이라는 공산당선언속의 맑스 철학을 비웃어 주는 결과에 불과하다. 도대체 이데올로기가 인간성을 압도할 수 있고 한 나라의 국민이 어떤 유혹과 압제에 이끌려 자국보다도 종주국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과 전제부터 그릇된 판단이었다.

그러나 서구적 민족주의정신이 뿌리깊이 박힌 유럽에서 이와 같은 전제는 당치도 않는 얘기이다. 최근 영국외상을 지낸 바 있는 Ernst Beyin이 당시에 한 예언이 들어맞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유럽의 전 국가들이 내일 공산주의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과 같은 국가적 문제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명언이다.

이 사실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유럽 국가들의 공산당이 별반 다름이 없는 프로파간다와 슬로건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고 보면 공산주의를 채택한다는 것도 국가를 번영시키고 타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한 방책으로서 시도해 보는 것에 불과하며 하등의 이론적 필연성이라든가 절대적 신념으로써 받아 들인 것이 아님을 간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단일세계공산당에 반기를 드는 예는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 예로 이태리 공산당은 지금 공산당파이기 보다는 이태리파의 색채가 더 짙으며 또한 그들은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로마에서 정부인쇄소를 경영하는 한 공산당 지방당의 서기는 "우리는 먼저 이태리국민이며 그 다음 공산당원이다"라고 말했다하며 또 한당원은 "우리는 이론을 찾기에 눈이 어두운 프랑스인과 같지 않으며 교리의 문제가 제기될 때에도 우리는 매우 현실적(Practical)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태리공산당 지도자인 톨리아티(Togliatti) 자신도 170만이란 당원을 가진 서부유럽 최대의 공산당 리더로서 이태리의 정치적 전통에 매우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방책을 쓰고 있다. 올해 71세의 노지도자인 그는 매우 탄력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다수중심주의적 지도방법이 그의 나라에게 구미공동시장 회원권을 얻게 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의회수단을 통해서 구조적 개혁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에서 지배권을 얻지 못한 공산당으로서는 가장 큰 당을 이끌고 있는(약 2백만의 당원) 인도네시아의 DN Aidit에게서도 엿보이는데 그는 맑시즘과 레닌이즘의 인도네시아화 라는 그의 목표를 거듭거듭 천명(闡明)하였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정부를 버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며 위대한 애국자인 스카르노 대통령으로 버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Aidit는 국내적으로 민족주의자인 스카르노 정부를 지지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중공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가 북경에 기대고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적이 있다.

즉 "중공은 아시아에 있고 인도네시아도 아시아에 있다. 우리는 미국제국주의라는 공동의 적을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북경에 가까운 이유이며 중공이 북미주에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대외정책이 전혀 국가적 이익에 근거하고 있는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말로써 우리는 국가 간의 블록형성이 미소를 중심으로 한 이념적인 것에서부터 점차 이해관계에 따른 동맹국과 적대국의 그것으로 전향해가고 있음을 넉넉히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쿠바 역시 이데올로기적 문제와는 거리가 먼 국가적 이익을 쫓고 있는 한 좋은 예이다.

기질적으로 봐서 흐루시초프의 주의 깊은 중도주의 보다는 모택동의 혁명적 정열에 훨씬 더 가까운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는 아직도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소련과 한 대열에 정렬해 섰을 뿐이다. 그리고 모스크바가 거대한 액수의 원조를 인색하게나마 계속해 주기만 한다면 카스트로는 중공에 대해서 동정을 갖는다 하더라도 소련 측에 계속 가담할 것이라는 것이 평론가들의 견해이다.

칠레의 한 공산당원은 논평하기를 중공은 "중공은 프로파간다를 날려 보내고 소련은 선전을 보트로 띄어보내는데 자연히 어떤 친구들은 북경에 더 동정하는 것이지만 도대체 누가 선전문에 의해서 당을 운영할 줄 아느냐"고 했다.

이 민족주의의 여파는 동구에까지 미쳐 그 상호관계마저 국가적 이익에 따라 결정되어 가고 있다. 그 중 루마니아는 이미 자신의 목표를 상당히 독립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는 구라파공동시장에 대항하는 소련중심의 Comecon에 가담하기를 거부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소·중공분쟁에서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교전문가들에 의하면 조만간동독을 제외한 동구 모든 나라가 루마니아의 예를 따를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동구제국이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것보다 러시아가 동구를 더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소련의 위성국임을 자부하던 공산주의 여러 나라에서 민족주의자들의 분파적 운동이 촉진되어 가고 있으며 무슨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외교계에서는 현재 친소파의 공산당 그룹이 약 20여개 있으며 거기서는 각종의 선전 간행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제 블록 밖에서의 이같은 분파적 싸움은 중공이냐 소련이냐의 양자택일적 싸움으로 발전할 것이며 비록 소·중공이 싸움을 그치고 조정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따라서 그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전망되고 있다.

이를 알아챈 흐루시초프는 세계 공산당의 평등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것은 그가 진실로 실현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며 그의 군소 공산당국가들은 이를 열망해 마지않는 바이다. 그러나 공산당이 소련에서보다 자기국가의 이익에 더 기여한다는 사실은 자유세계를 안심케 하는 일은 못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국가일수록 공산당은 자기국가에 더 신임을 얻으며 보다 영향력을 끼칠 정치세력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보면 세계 정치양상은 동서의 분립에서 다수 중심적 양상으로 판도를 바꾸어 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맑스주의의 유산은 그가 예언한대로 물려지지를 못했다. 후계자들이 그 취지를 잘 몰라서가 아니라 민족국가를 초월한 이데올로기적 통일이란 본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형제와 부모친지를 부정하고 사회계급으로서 통일하려는 맑스의 생각은 그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전체를 종합하려했던 헤겔(Hegel)의 철학은 아니었다.

이러한 그릇된 방법론에서 근본적으로 실패한 공산주의는 이상 더 세계적 공동체를 자부하거나 지향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세계주의에서 민족주의에로 전락하는 것이 그들의 방향이라면 국가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에서 보다 개인과 인격을 주장하는 개인위주의의 사상과 실천에로 이행하는 것이 다음 단계일지도 모른다는 전망에 강한 부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흐'의 계산착오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격하운동을 맹렬히 실시하면서 자기는 스탈린과는 반대되는 정책을 쓰기로 하였다. 즉 스탈린의 우상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방식을 지양하고 농민 노동자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인정하는 완화정책을 쓰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 인정정책은 자유주의 국가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자유를 말살해버린 곳에서 남의 자유가 부럽다고 전시효과만을 위해 도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프링을 잔뜩 눌렀다 놓으면 팍 튀는 것처럼 폭력과 압제의 끄나풀에서 놓이고자 하는 욕구는 사방에서 불같이 일어났다. 문제는 국내에서보다 국외에서 더 커졌다. 반스탈린운동은 국내에서 그칠 것이라는 흐루시초프의 생각은 계산착오였던 것이다.

익 명

The Secret Name

임 어 당(林語堂) 저
하 정 옥(河正玉) 역

〈제 9 회〉

2. 켈러비행장 사건

이것은 1937년 1월 23일에 있은 피아타코프에 대한 재판이다.

피아타코프는 노(老)볼쉐비키 당원들 중 가장 유능하고 성실하며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의 하나였다. 피아타코프가 재판을 받고 살해된 이 사건은 또 하나의 날조된 죄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탈린이 피아타코프나 오르조니키드제 등 그의 친구들을 어떻게 팔아 먹었으며 죄인의 자식들을 죽이겠다고 한 위협이 죄인의 자아비판(自我批判)에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한 실례로서 흥미를 끌고 있다.

1937년의 일이다. 이 해 봄에는 기타 30명의 고위층 볼쉐비키 당원들이 살해되고 여름에는 투카쵸프스키 장군 외에 여덟 명의 장군들이 살해되는 한편 그 밖의 노(老)볼쉐비키 당원들이 집단적으로 자살했다. 카메노프, 지노비에프 외에 14명의 고위층 볼쉐비키 당원들이 피살된 이후 1월에 열린 재판은 반년 토록 긴 시간을 끌었다.

피아타코프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레닌 밑에서 일하던 가장 유능하고 우수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경제학자인 동시에 유능한 행정가이며 조직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히 내전 중에는 용감한 사람으로 알려졌었다. 1929년에 국가은행의 은행장으로서 그는 그니에즈드니코프스키가에 있는 아무도 돌보지 않아 헐어빠진 낡은 집에 방 둘을 차지하여 처자들과 함께 살았다. 그는 부카린과 함께 유능한 두 청년으로 병칭(竝稱)되던

사람으로 레닌이 그의 유언 중에서 말한 여섯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다. 1917년 그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지하투쟁에 참가하기 위하여 레닌에게 접근하는 높은 지위(국가은행의 대표위원)를 사퇴했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천재였기 때문에 소련 공업화의 주요업무를 그에게 의뢰하였다. 그래서 스탈린은 그의 친척이며, 교육은 의사조수 공부밖에 안했으나 음모(陰謀)공작에 좋은 짝인 조지아 출신 오르조니키드제를 중공업부 인민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피아타코프는 그 차장으로 썼다. 피아타코프는 이미 정치와 손을 떼겠다고 맹세하고 그의 생활은 곧 그의 노동이라고 말했다. 관료로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독차지했던 그가 엷은 황갈색의 값싼 게다가 그의 체격에 너무 작은 옷을 언제나 걸치고 있어야 했다.

재판정에서 피아타코프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즉, 1935년 12월에 그가 공무로 베를린에 여행하여 50,000,000마르크를 주문하였을 때, 그는 하루 밤을 이용하여 특별기편으로 오슬로에 갔었다는 것이다. 켈러비행장에 내려 트로츠키가 집으로 차를 몰았다. 거기서 그들은 독일의 무력원조를 받아 소비에트 정권을 전복시킬 계획을 짜고 또한 그는 국내에서 노동자들의 사보타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소비에트공업의 파괴공작을 더욱 강화하라는 트로츠키의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이 증언은 세부적인 데까지는 언급하지 않은 퍽 모호한 것이었다. 피아타코프는 단지 그가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비행기로 오슬로에 다녀 왔다고만 했을 뿐이다. 브리스톨 호텔 사건에서 대실패를 맡본 NKVD는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잡힐만한 것을 피하느라고 세부적인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았다. 이 증언에 대한 물샐 틈 없는 예방책이 오를로프의 저서에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의 저자 오를로프는 그가 OGPU의 경제관리처 부처장으로 있고 피아타코프가 최고경제회의의 우두머리로 있었던 1924년부터 피아타코프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었다.

다음의 이야기는 오를로프가 이 사건의 처리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피아타코프는 열 살 먹은 아이가 하나 있었다. 당시 볼쉐비키 지도자들은 전년 여름에 이미 처형된 볼쉐비키 지도자들의 아이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어 왔다. 그들은 스탈린이라는 인간은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NKVD는 자식이 있는 죄수일수록 자아비판의 도구로 사용하기가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아타코프는 굽히지 않고 꿋꿋한 태도로 심문자들에게 이야기 할 것을 거절했다. 그는 전쟁중에 여러 차례나 목숨을 잃을 뻔 했던 사람이며 아직도 그는 자존심을 상실하지 않은 꿋꿋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런 관계로 결국 오르조니키드제가 나타났다. 그는 피아타코프와는 밀접한 사이이며 명의상의 상사였다. 스탈린과 동향(同鄕)인 조지아 출신으로 명랑하고 몸짓을 써가며 말을 잘 한다고 소문이 난 친구였다. 바로 그 친구가 하루는 감옥으로 피아타코프를 찾아왔다. 그들 두 사람은 비밀실에서 은밀히 만났다. 오르조니키드제는 심중한 어조로 스탈린 자신으로부터 전하는 약속을 이야기했다. 피아타코프가 자아비판을 수락한다면 그의 생명은 보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차차 알게 되겠지만 하여튼 오르조니

키드제는 아마 피아타코프에게 절대로 처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증했을 것이다.

그러나 피아타코프는 꿋꿋이 버티고 듣지 않았다. 비길 데 없이 단단한 성격이었다. 며칠 후 오르조니키드제가 다시 찾아 왔다.

"유리(피아타코프의 이름), 나는 자네 친구의 신분으로 찾아왔네. 나는 자네를 위해서 지금까지 싸워 왔네마는 앞으로도 자네를 위해서라면 이 싸움을 그치지 않겠네! 난 그 사람하고 자네 일을 가지고 늘 얘기했는데……"

오르조니키드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한 비극의 배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피아타코프는 오르조니키드제를 완전히 신임했고 오르조니키드제는 스탈린을 완전히 신임하는 처지였다. 이때까지 NKVD는 피아타코프의 부인을 압박하여 그들의 어린아이를 살려 준다는 교환 조건으로 자아비판을 시켰다. 하지만 이제 피아타코프도 점점 마음이 누그러져서 결국 증언할 것에 동의했다.

재판을 한 번 하려면 그 준비 공작만 하는 데도 보통 몇 달씩 걸린다. 피아타코프는 1936년 가을에 야고다의 주관하에 체포되었다. 그러던 것을 지금은 예즈호프가 인계받고 외무처장인 슬루츠키가 자아비판(이 사건 중에는 전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물론 증거물 준비는 아니다)의 준비 책임을 맡게 되었다. 처음에 슬루츠키는 피아타코프와 트로츠키 사이에 교환될 우편을 통한 통신 관계도 포함시켜서 증언을 준비했었다.

그 이야기를 오를로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크레믈린에서 열린 어느 회의석상에서 스탈린은 피아타코프의 <증언>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는 피아타코프의 공술에서 그가 트로츠키의 지시를 우편으로 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트로츠키와 직접 만난 자리에서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피아타코프가 트로츠키를 만나기 위해 노르웨이로 여행을 갔다는 이 유명한 전설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새로운 설법이 궁경(窮境)에 빠지지 않고 순리적으로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스탈린은 NKVD의 외무처장 슬루츠키에게 피아타코프가 트로츠키를 만나러 가기 위해 여행했다는 이야기가 그럴 듯 하도록 베를린과 오슬로 간의 기차시간표를 자세히 알아두라고 명령했다.

나는 1937년 2월 내가 파리의 베르제레교원 요양소에 있을 때 슬루츠키가 나를 방문해 와서 그의 입으로 직접 크레믈린에서의 제2차회의 정상(情狀)을 들어서 자세히 다 알고 있다.

그 회의에서 슬루츠키는 스탈린에게 그가 수집한 데이터는 피아타코프의 노르웨이 여행에 적용시키는 데 적합지 않다고 보고했다. 현행하는 기차시간표에 의거해서 따져보면 피아타코프가 베를린을 떠나 오슬로에 가서 벡살구(區)의 트로츠키 거소(居所)에서 그와 회담을 하고 다시 베를린까지 돌아오는 데 적어도 이틀의 시간

이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래서 슬루츠키는 다음과 같이 경고(警告)했다. 즉 그렇게 오랫동안 피아타코프가 베를린을 떠나 있었다고 증언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베를린 주재(駐在) 소련무역대리점 사람들은 피아타코프가 매일 독일의 여러 상사단체와 회의를 하고 또 거의 매일같이 그들 단체와의 협정에 조인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슬루츠키의 보고가 여간 못 마땅한 것이 아니었다. 피아타코프의 오슬로 여행이 불가하다고 반대하는 이유를 미처 다 듣지 않고 그는 입을 열었다.

"기차 시간표에 관련된 이야기야 물론 당신 말이 옳겠지."

하더니 신경질을 벌컥 내면서

"하지만 피아타코프가 비행기를 타고 오슬로에 갔다 온다면 왜 안되겠오? 비행기라면 하루 밤 새에라도 충분히 갔다 올 거요."

라 했다.

스탈린의 그 대답에 대해서 슬루츠키는 또 다음과 같은 난점을 제시했다. 즉 비행기는 승객이 몇 명 되지 않고 또 승객의 명단이 일일이 항공회사 기록부에 등기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미 마음에 결정을 지었다.

"피아타코프가 특별기로 다녀왔다고 하시오."

스탈린은 결국 명령을 내렸다.

"그런 용무로 라면 독일 당국에서도 좋다구나 하고 비행기 한 대쯤 내줄 거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슬루츠키는 스탈린과의 이 회답 내용을 비밀리에 나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알고 보니 슬루츠키는 몇일 후 똑같은 이야기를 프랑스 주재 NKVD대표에게도 역시 <대단한 극비리에>했었다. 그나마 외무처의 어떤 관리가 있는 앞에서 그런 소리를 지껄였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결국 피아타코프는 그의 아내와 자식의 생명을 보전하고 자기자신의 목숨도 역시 건질 희망을 걸고 1월 23일 역사적인 증언을 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1월 25일 노르웨이 신문 Aftenposten지에 다음과 같은 부정기사가 발표되었다.

얼토당토 않은
피아타코프 트로츠키의 오슬로 회담

……그는 단엽기(單葉機)로 켈러비행장에 내렸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동비행장으로부터 전해지는 소식통에 의하면 1935년 12월 중에는 단 한 대의 민간항공기도 착륙한 일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또 한번 스탈린의 NKVD는 철(鐵)의 장막 밖에서 꼬리

를 밟혔다. 그것은 정말 검찰관인 비신스키에게는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겨울 동안에도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명서를 제출했다. 그 말대로 비행기는 착륙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증명서는 노르웨이 당국으로부터 입수된 것이 아니라 모스코에 있는 소비에트 외무인민위원회의 영사부에서 나온 것임이 드러났다.

불행히도 1월 29일 또 하나의 노르웨이 신문 Arbeiderbladet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본지 기자는 오늘 켈러비행장의 책임자 굴릭센씨와의 전화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었다. 즉 1935년 10월 중에는 켈러비행장에 어떠한 외국항공기도 착륙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며칠 후에는 또

…동비행장의 官報에 의하면 1925년 9월서부터 1936년 5월 1일 사이에는 켈러비행장에 단 한 대의 비행기도 내린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트로츠키는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전해왔다. 그는 비신스키에게 피아타코프가 1935년 12월의 어느 날 밤에 오슬로에 다녀왔을 때의 상세한 패스포트 내용과 노르웨이의 비자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비신스키는 이 도전에 응하지 않았다. 재빨리 30일날 피아타코프를 사살해 버렸다.

여기다 트로츠키는 또 일격을 가했다. 그는 그 자신이 재판을 받기 위해 모스코로 가겠다고 건의하고 또 소련 정부는 그들 노르웨이로부터 송환(送還)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실상 그는 노르웨이 정부가 이 송환을 반대하리라는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 송환시키려면 수속절차로서 소련 정부는 먼저 트로츠키에게 죄명을 씌워야 하기 때문이다. 소련이 켈러 비행장에의 비행기 여행을 굳이 고집한다면 이는 세인들로 하여금 브리스톨 호텔 사건의 추문(醜聞)을 새삼스럽게 상기시키는 처사가 되고 말 것이다. 스탈린은 실제 행동에 옮기기에 앞서 재삼 숙고하였다.

트로츠키는 이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결국 스탈린은 침묵을 지키고 입을 열지 않았다.

켈러비행장 사건은 재미있게 전개되어 갔다. 3주일 후인 2월 18일 오르조니키드제가 신비속에서 죽었다. 후르시초프의 말에 의하면 오르조니키드제는 권총자살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원래 소련의 신문에 보도되기는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했다. 피아타코프의 처형에 잇달아 너무나 빨리 일어난 사건이었다. 아마 그는 스탈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항의하고 그들 두 조지아 친구들은 다투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연 오르조니키드제는 죽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기 자신이 존경하는 친구를 유인하여 죄를 짓게 하고 그를 기만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 목숨을 끊었을 것이다. 이 사건은 잔 마사리크의 자살을 증명해 준 의사가 몇주일 후에 그도 역시 자살했던 사건을 상기시켜준다. 도의와 양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1937년 여름에 일어난 집단 자살 사건에는 이러한 성질의 것들이 많았다.

피아타코프의 재판으로 해서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일면을 보고 알게 되었다. 그것은 범인의 애인·아내·자녀·손자들에 대한 위협이다.

후르시초프가 한편에서 이 자아비판이라는 잔혹한 형벌수단을 강조 비판하고 있을 때 자신이 NKVD의 중요관원이었으며 당내의 특권계급 및 그 가족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오를로프는 피고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하는 위협만큼 피고로 하여금 법정에서 자기 죄를 인정케 하는 데 더 좋은 방법은 없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피고는 그의 사랑하는 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이다.

카메노프를 위시한 모든 사람들의 경우가 다 그러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수개월 때로는 일년여의 준비기간이 있고 그러는 동안에 카메노프는 증언할 것을 거절했다. 그는 야고다가 말한 바와 같은 자녀들에 대한 위협을 믿지 않았다. 볼쉐비키당원은 그래서 스탈린은 새로운 방법을 택했다. 즉 1935년 3월에 공포한 법률의 12세 이상의 아동은 성인과 같은 형벌을 받아야 하고 국가재산(국영농장의 곡식과 같은 것)의 절도범은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되살린 것이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1932—33년 대기근 때 스탈린은 거지 아이들이 열차에서 물건을 좀 훔쳤다고 하여 그들을 공산당의 감옥에 가두고 또 총살시켰었다. 그는 이를 법률에 적용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합법화하려고 했다. 1935년의 일이다. 우크라이나의 부랑아검거문제는 이제 그 최대의 위기를 모면한 셈이다. 새로이 공포된 그 법률이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당시 모스코의 각 신문에 이 법률안이 발표된 이후 피체(被逮)된 사람은 누구나 다 NKVD가 준비한 죄목을 그대로 고백 증언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를로프는 다음과 같이 썼다.

아동들에 대한 이 법령(法令)은 피체된 볼쉐비키 당원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압박을 가하는 데 가장 유효한 도구의 하나로서 스탈린 재판소의 병기고(兵器庫)에 모셔졌다. 스탈린은 당(黨)의 중앙위원회 서기인 니콜라이 예즈호프를 NKVD에 보내어 모스코 재판의 준비공작을 감독하도록 했다. 예즈호프의 명령을 받들어 NKVD의 조사원들은 죄인을 심문하는 동안에는 항시 아동들에게 사형을 적용시킨 이 법률을 그들의 책상위에 놓고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의 자녀에 대한 이러한 위협의 운용은 비단 피아타코프나 카메노프의 경우에만 유용히 쓰인 것이 아니라 전 주영국대사였던 그리고리 소콜리코프의 경우도 그러했고 파울 이바노프 크레스틴스키 그리고 알렉산더 카린의 가련한 딸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였다.

<다음호에 계속>

나의 조종생활(操縱生活) 종횡담(縱橫談)

동심의 꿈을 이루고

김만용 (金萬鎔)
<공군대령 공본비행안전과장>

어려서부터 유달리 뜀뛰기, 공차기, 말타기 놀이 등 활발하고 거센 장난을 즐기던 나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에 이상한 호기심과 매력을 느끼면서 철이 들고 성장했다. 그리던 중 중학교를 나오고 마침 6·25 전란이 일어나 군문에 들어가게 되자 나는 꿈에도 동경하던'하늘의 용사'조종사가 되어 조국의 하늘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고 마냥 푸른 꿈에 부풀었다. 엄한 시험을 거쳐 합격통지를 받자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지고 두 팔뚝에 용솟음쳐 오는 억센 힘을 누를 길이 없었다.

진해기지에 입대해서 1개월간의 단기지상교육을 마친 우리는, 전란 이듬해 7월 중순께의 어느 무더운 날, 두근거리는 가슴을 달래며 보라매의 요람인 사천기지로 옮겼다. 그곳 정찰비행전대에서 약 70시간의 L-4 관숙 비행을 마쳤다. 그런데 비행기수는 적고 훈련받을 사람은 많아 교육훈련계획에 많은 무리가 있었으며 더구나 당시의 사천기지는 시설이 미비한데다가 시공 중에 장마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오로지 우수한 조종사가 되어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는 한 마음으로 서로 앞을 다투어가며 훈련에 열중했던 것이다. 내 정성은 드디어 열매를 보아 근 100명의 훈련생중에서 40명안에 뽑혀 T-6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나도 거기에 한몫 끼게 되었다. 나는 이 과정에서도 낙오되지 않으려고 속으로 무진 애를 썼다. 이런 과정에서 T-6 관숙 비행도 어지간히 익숙하게 되었을 무렵, 어느 날 오후에 F-51단독비행 점검을 한다는 갑작스런 전갈이 왔다. 때마침 점심시간이라 동료들도 입속에 밥을 넣은 채 멍하니 올 것이 왔구나 하는 표정들이었다. 그 당시의 심정으로는 자신이 없어 겁에 질린다는 게 아니고 시국과 환경도 그렇고 해서

속성과정을 부디 잘 해내자는 신중을 기했기 때문에 자연 정도 이상으로 긴장하게 마련이었다. 요란한 엔진소리와 함께 이륙하고 나서 장주(長周)를 벗어나고 얼마 있다가 고도계를 들여다보니 여간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었다. 벌써 머릿속에는 내려가서 착륙해야 할 근심이 앞서는 것이었다. 워낙 F-51은 중량이 묵직한데다가 제일 조작하기에 힘들어 자신을 갖기 힘들고 어찌된 셈인지 착륙 시에 많이 사고가 나는 걸 가끔 보아 왔기 때문에 은근히 겁이 났다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숙련된 조종사들도 이륙시 보다 착륙시에 훨씬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애송이 햇병아리에 있어서랴...> 이렇게 하여 수개월에 걸친 비행교육과정 그것을 뒷받침하는 심신양면의 정신무장을 위한, 고된 훈련을 쌓고 비로소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 아니 기백 있는 전투 조종사로서 의젓하고 야무지게 빨간 머플러를 휘날리며 52년 9월 2일 많은 선배 조종사들 틈에 끼어 처음 출격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출격 직전의 순간, 나는 심장에 야릇한 흥분의 고통을 느꼈다. 정말 이 순간을 위해 그토록 어렵고 힘든 훈련과 고통을 감내해 오지 않았던가. 그야말로 일개의 필부가 일시에 제왕이 된 듯한 그 감격은 참으로 조종사가 아니고서야 느껴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조종간을 굳게 잡고 먼 창공을 응시하며, 스스로 조국의 간성임을 자부해 보면서 이 몸을 조국에 바칠 것을 다짐하던 그 감개무량하던 순간을 일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출격의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두터워지는 전우애, 편대원 사이의 말 못하게 애틋한 정, 기지를 떠날 때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기지장병들의 눈물어린 환송이나 환영, 살을 깎는 듯 한 무서운 추위와 삭풍 속에서도 내일의 출격을 위하여 밤을 낮으로 새우는 일선 정비사들의 노고, 이런 등등의 정성어린 협동정신의 보람이 공군에만 특존(特存)하는 공지일체의 비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줄 믿는다.

그동안에 정말 목숨이 순간을 왔다 갔다 하는 아슬아슬한 고비도 많이 넘겼다. 그해 12월 중순의 어느 날, 원산지구 적 보급로 차단 임무를 띠고 출격하여 제4편대장으로 폭격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1,500피트 고도에서 갑자기 엔진이 정지되었다. 아주 당황하여 이리 저리 망설이고 있다가 혼합기를 짙은 위치에 놓고 스로틀을 줄였다가 넣으니 그제서야 엔진이 겨우 살아나서 그야말로 위기일발에서 모면한 일이 있었다.

<애기(愛機)앞에 선 필자>

그 아찔한 순간이 얼마 흐르는 사이에 불시착 장소를 찾으려고 3번 기가 침착하게 뒤따라 주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다음해 1월 상순 어느 날, 기상조건이 그리 좋지 않았으나 사리원지구 적보급로 차단 임무를 펴고 16대의 편대군이 출동했다. 기상이 점점 악화되어 구름은 낮아지고 시계(視界)가 막혀 그 이상 편대비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되자 요기 중 몇 대는 이탈하고 나머지 7대도 미션 아웃되어 질서정연치 못하게 간신히 기지에 돌아왔다. 다행히도 한 대의 사고도 없이 전기가 돌아오긴 했으나 참으로 불안한 비행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되살펴 보아도 조종사 각개인의 정신무장이 튼튼하게 되어 있었고,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 졌었음을 상기할 수 있어 지금도 믿음직스런 마음이 더욱 튼튼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몇 사람의 전우가 순직하여 애석하였으나 그런 일이 있을수록 배전의 투지와 용기로서 직진의 목표물을 적중시키려는 의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이었다.

출격을 시작한지 6개월만인 53년 2월 16일 동료 몇 사람과 같이 나는 1000회 출격의 기록을 세웠다. 1000회 출격이란 영광스러운 이름 뒤에는 공지일체의 협조, 단결과 불타는 투지가 있었고 또 한 꺼풀을 더 벗기면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살찌게 한 선배들의 지도와 정비사를 비롯한 관계 요원들의 피눈물 나는 노고가 있었음을 생각할 때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낀다. 승리 없는 전투가 휴전되고 우리공군에서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제트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공군의 면목을 일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날의 경험을 살려 신예 제트기의 운영에도 많은 기술 향상과 경험을 얻게 되었다.

도입 초기의 2,3년간은 기술미숙으로 사고도 자주 일어나 고귀한 인명과 고가한 항공장비의 손실도 있었으나 그 후부터 정신무장과 기술향상을 더욱 굳건히 하여 같은 원인으로 일어나는 유사사고는 많이 감소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나 60년 3월 비율빈의 클라크 기지에서 열린 플라잉 브라더스(태평양지구 공군사격대회)에 참가하여 우리 조종사들의 탁월한 사격기술과 기동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민주우방의 아낌없는 찬사도 받았고 그 후 매년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하는 데도 어느 정도의 실력을 닦아 놓으면 대외적인 활동분야를 넓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잘 알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여 더 높은 수준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니 우리 조종사들도 좁은 바탕에서의 자신이 아니라 보다 넓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 겨누어 이길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야겠다. (물론 그 과정에 있긴 하지만) 복잡다난한 사회생활의 한 부분인 군인생활이고 그 군인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조종사로서의 긍지를 간직함과 동시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신적인 지주를 더욱 굳게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신념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어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잘 가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자기가 보아야 할 기술지시서를 세밀하게 읽는다든가, 상급자나 전우간의 공적, 사적인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한다든가, 복잡하고 상이(相異)한 성격과 정서, 그리고 가정환경 등의 아주 사소하면서도 중대한 점들을 잘 관찰하여 항상 안정된 전체적 생활 분위기에서 안전한 비행생활을 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갖추어서 보다 나은 성과를 올리는 데에 조종사 자신들의 열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되리라고 믿는다.

대개 사고란 조종이 익숙치 못한 초기와 이제는 노련한 조종사가 되었다고 방심하는 그 시기에 잘 발생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우리는 일시라도 방심 말고 평상시의 비행안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것이다. 아홉 번 비행기를 잘 타고 마지막 한번을 잘못하여 사고를 일으킨다면 자신은 물론, 가족, 전우, 국가에까지 누를 끼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F-5A 최신예기의 도입과 운영을 눈앞에 두고 더욱 자중하고 실천적이어야 하겠다. 이럭저럭 비행기를 타다 보니 무사하게 되었다는 퇴색된 생각은 하루 바삐 씻어 버려야 한다. 높고 푸른 하늘을 우러러 보기도 하고, 때론 자그마한 손으로 매만져보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면서 오늘도 끝없이 푸른 가을 하늘을 날면서 작은 눈 크게 뜨고 넓은 하늘 좁게 가자란 말귀를 입속에서 외이면서 벅찬 가슴에 한 줄기 낭만을 씹어보는 것이다.

공군 자활사업의 현황(現況)

오 문 환(吳文煥) <공군소령>

국가의 주요 시책인 식량증산운동에 호응하여 당군에서도 작년부터 부대내의 유휴지를 최대한으로 개간(開墾), 영농(營農) 자활사업을 시작했다. 그동안 많은 수확을 얻어 노고의 흐뭇한 보람을 느끼는 오늘 현재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고 있는지 여기서 그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자활사업의 의의

국가의 식량증산운동 정책은 전국의 유휴지 320만 정보(町步)의 개간을 서둘러 식량권 확대 조성으로 식량 수급 책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 이르렀음에 군에서도 유휴지 개간에 착수하게 되었다.

당초 시작은 정부시책에 따라 국민 된 자격으로서 부응하였지만 실로 국가적 현실에 당면한 양곡사정은 농업 국가이면서도 연간 수백만석의 잉여농산물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야만 하는 딱한 사정에 있으며, 그래도 해마다 춘궁기가 되면 절량영세민(絶糧零細民)이 우리들 고향에서 속출되고 있는 마당에 식량증산운동은 자못 그 의의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일찍이 서둘러졌어야만 하였을 것이다. 기왕에 늦게나마 내세워진 증산시책에 온 국민은 각기 직분을 가리지 않고 농민과 더불어 하나로 집중되는 한편 구체화된 실천계획과 행동체제 아래 총동원하여 거국적인 운동이 되어야 하겠으며 군인이라 하여 나라 사정을 방관할 수 없고 역군으로서 또 국민 된 자격으로서 틈틈히 여가를 이용하여

온 겨레와 함께 증산운동 즉 자활사업에 매진하여야만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공군은 거개가 광범한 기지에 주둔하고 있어 한 평에서 한 두 이상의 곡물을 걷을 수 있는 옥토가, 무성한 잡초로 우거진 채 군인 스스로 자활하겠다는 의욕적인 정신자세만을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

2. 자활사업 경위(經緯)

63년 6월 27일 최고회의 지시각서 제5호로 군기지내의 공한지(空閑地) 활용지시가 하달되어 추곡 증산을 위한 긴급파종이 서둘러져 일차로 고구마를 비롯한 추경작물이 파종되었고 시설국주관으로 피마자 452kg를 종자로 각 기지에 할당한 바 있다.

63년 7월 10일 시설국이 주관하던 자활사업은 군수국으로 이관되었으며, 각 부대 자활사업 관계관(關係官)회의를 개최, 급작스런 지시에 의한 파종기를 놓치지 않도록 긴급 해결책을 강구하는 한편 기술적 재배 관리를 위한 자활담당요원 21명을 육군예비사단에 파견 교육케 하였다.

그 뒤 63년 9월 6일 자활사업은 극난(克難)계획의 일부로서 공군본부 기획국에서 통할(統轄)지시되어 뚜렷한 하나의 과제로 발족을 보게 된 것이다.

3. 63년도 자활사업

당초 63년도 자활사업은 여러 가지 농사의 준비기간을 가질 수 없었으며 더욱이 토질, 기후, 계절 등, 자연적 조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연속되는 한해(旱害)와 파종기의 상실은 소기의 성과는 물론 바라볼 수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파종 이후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 비배(肥培)관리가 소홀하였고 영농자금의 뚜렷한 해결책도 없었거니와 파종 전에 하여야 할 기초적 작업인 정지(整地), 기경(起耕), 기비(基肥) 등을 장만할 수도 없었으니 결과적으로 사업성과는 불량할 수밖에 없었다.

64년도 자활사업 실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별표(別表) 1)

이는 평년작에 비하여 불과 15~20%에 해당하는 극히 불량한 실적이며, 그 요인을 간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상기한 바와 같이 파종기를 실기(失期)

<별표 1>

순번	작물명	경작면적	수확고	단위	평당평균수확	단위	평당평균수확	단위
1	고구마	(평) 12,180	22,980	kg	1.8	kg	2.6	kg
2	배추	7,364	5,700	〃	0.7	〃	3.75	〃
3	무	3,020	1,326	〃	0.4	〃	1.2	승(升)
4	피마자	17,396	58	두(斗)	3	합(合)	0.8	〃
5	모 밀	3,555	10	〃			1.5	〃
6	콩	1,130	325	kg	0.2	kg	1.1	〃

7	팥	250	150	kg	0.6	kg		
8	조	400	15	두(斗)				
9	당 근	·	2,400	개(個)				
10	가 지	·	1,800	〃				
11	녹 두	1,000	2	승(升)			1	승(升)
12	참 깨	340	10	kg			1.2	승(升)
13	보 리	21,680	미수확					
14	기 타	4,865	·					
15	계	75,210						

하였고 파종전에 하여야 할 작업준비를 전혀 할 수 없었으니 농사는 땅에 씨만 뿌려서 거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파종 후에도 거의 방치상태로 놓아둔 채 기술적 비경관리를 기하지 못하였고 또 그럴만한 성의마저 사실상 찾아 볼 수 없었다.

셋째 작물 재배상 소요되는 영농자금의 공식적 뒷받침이 없었다.

넷째 일원화된 체계가 서 있지 않아 애매한 담당부서는 책임 있는 하나의 임무로 추진하지 않았다.

다섯째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관심의 희박(稀薄)에서 오는 전장 병 문관의 정신적 참여자세로서 이는 가장 중요한 기본문제점이라 하겠다.

4. 64년도 사업

㈠ 방침

64년도의 자활사업방침은 63년도의 해결점(실패요인)을 참작하여 이를 시정해결하고 전부대가 부대임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경작을 획책하였고

<별표2>

작 물 명	경작면적	목표량	영농자금 배정표
호 박	45,000(평)	180,000 kg	—
감 자	11,850	11,850	63,150 원
고 구 마	24,350	49,200	181,830
소 채 류	22,100	82,915	202,820
콩	21,900	3,650	113,910
축 산	돼지 87	177	
축 산	토끼 545	1,345	
계	80,200	326,715 kg	665,200

부대별 경작현황

<별표3>

작물 구분 / 부대	호 박		고 구 마		감 자		봄채소		가을채소		콩류 기타		계	
	면적	예상량	면적	예상량	면적	예상량	면적	예상량	면적	예상량	면적	예상량	면적	예상량
본사(本司)	(평) 1,920	(Kg) 9,600			(평) 2,050	(Kg) 1,510			(평) 840	(Kg) 2,240			(평) 4,810	(Kg) 13,350
공사교(空士校)	2,040	10,200	(평) 10,000	(Kg) 22644							(평) 6,000	(Kg) 4,340	18,040	37,184
기교단(技敎團)	14,278	71,390	5,800	13,124	2,500	1,845	(평) 3,700	(Kg) 13,387	16,180	60,750	5,500	(사료작물)	47,958	160,946
10 전비(戰飛)	8,000	40,000	7,550	17,120			5,000	18,675	3,700	13,500			24,250	89,295
11 전비(戰飛)	3,300	16,500	4,070	9,250					4,500	16,870			11,870	42,620
107 기단(基團)	17,172	85,860	300	680	1,000	733	3,940	14,625	7,000	25,875	13,000	2,200	42,912	129,973
106 전대(戰隊)	3,544	17,729					4,600	17,212	3,000	11,250	7,560	1,335	18,704	47,526
교재창(敎材廠)	574	2,370			425	310	845	3,150	850	3,375			2,694	9,205
23 정보(情報)	600	3,000	400	890			420	1,575	250	1,000	1,150	186	2,820	6,651
216 전대(戰隊)	300	1,500			400	288	400	1,462	1,600	5,700			2,700	8,950
30 방관단(防管團)	3,520	16,600	3,900	8,850	700	510	1,220	5,175	1,850	6,750	3,700	4,500	14,890	42,385
33 구조(救助)	200	1,000	1,150	2584							750	374	2,100	3,958
공비교(空飛敎)	1,770	8,850	1,000	2,245	2,100	1,554	2,650	9,930	1,000	3,700			8,520	26,279
40 분창(分廠)	800	4,000			150	110	300	1,125	440	1,300			1,690	6,535
계	58,018	288,599	34,170	77,387	9,325	6,860	23,075	86,766	41,210	152,310	38,160	12,935	203,958	624,857

사업의 방향은 양곡증산으로부터 부식물 즉 채소류, 감자류(甘藷類) 또는 두류(豆類)작물의 식부(息婦)로 전향하였다. 그 이유로는 사업 자체와 군인간에 직접적인 수혜(受惠)를 갖기 위함이며 특히 재정의 긴축으로 인한 불가피한 부식의 질적, 양적 저하를 최대한 충족함에 있었다. 다행히 영농자금에 대하여는 국방부로부터 부식비를 조상(操上) 영달사용(令達使用)토록 조치되어 부대별 계획경작에 다소나마 사용할 수 있었다.

(二) 부대별 경작계획

64년도 자활사업 운영방침에 의한 당초 계획 현황은 별표 2와 같았다. 그러나 실지로 개척 경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광범한 면적에 이미 파종착수(播種着手)한 바 각부대의 지대한 관심을 우선 찾아 볼 수 있다. (별표 3)

(三) 성과분석

이와 같은 경작면적에 의한 작물별 수익 및 영양상의 성과를 분석해 본다. (별표 4) 수익면으로 볼 때 6,028,219원은 영농자금으로 665,200원을 공제한 5,363,019원의 수익을 볼 것이며 이는 병력에 비하여 1인이 300원, 2, 3평을 경작한 셈이 되는 것이다.

<별표 4>

(1일 1인의 기준량)

열량	단백질	지방	VtA	VtB1	VtB2	Niacin	VtC
Cal	g		IU	mg	mg	mg	mg
3,535	120	40	5,000	2	2	16	90

영양상으로 본다면 총생산량 624,857kg에 함유되고 있는 열량은 1인1일 섭취기준량 3,535Cal에 비하여 84,268명이 1일 소요되는 Cal를 충족케 되는 것이며 이는 연간 230명이 취할 열량을 획득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도한 단백질 함유량은 4,493명이 1년간 섭취할 수 있는 65,589,000g의 단백질을 얻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별표 5)

열량과 단백질 간에 현저한 차이를 위에서 볼 수 있다. 즉 단백질 획득 량은 연간 4,493명에 비하여 열량은 230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자활사업으로 수확한 작물이 거개가 채소류로서 얼마 안 되는 소량이 함유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으니 균형 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기지내에서 또는 피고지(避高地)에서 제여건이 구비

<별표 5>

작물명	수량	단위	전액	Cal	단백질	지방
호 박	(kg) 288,599	(원) 10	2,885,990	86,465,690	(kg) 3,460	(kg) 577
고구마	77,837	20	155,674	107,415,000	856	234
감 자	6,860	20	13,720	4,939,200	165	34
채 소	239,076	10	2,390,760	43,033,680	3,108	418
콩	12,935	45	582,075	53,033,500	58,000	2,260
계	624,857		6,028,219	297,887,070	65,589	3,583

작물명	칼 슘	VtA	thia mine	Niacin	Ribo flain	Ascorbie Acia
호 박	(kg) 6,000	(JU) 99억	(g) 11,000	(g) 17,200	(g) 23,000	(g) 230만
고구마	2,200	7천80만	10,000		3,800	155만
감 자	343		11,000	3,430	205	
채 소	16,735	3천만	14,000	96,600	215,000	670만
콩	1,640	130만	7,700	41,300	2,100	
계	26,918	199억 5,280만	182,700	157,330	244,105	1,055만

된 축산사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많은 열량과 기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을 것이며 또 농사와 상보되는 유기물질의 구비(廐肥), 퇴비(堆肥)를 손쉽게 얻을 수 있으니 자활사업상 불가분의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면적의 경작에 따르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작업량을 볼 것 같으면 1인 2, 3평으로서 연 2회의 2모작을 한다면 5~6평이라는 협소한 면적이며 매일 여가시간 5~0분이면 능히 감당할 작업량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1일 5~0분의 작업량에 불과한 조그만 성의로써 이와 같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자활사업의 의의를 인식하고 열과 성으로써 상, 하 구애 없이 협심하여 작업을 하면 연간 필요로 하는 채소류의 부식물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5. 사업진척현황(64년 7월 20일 현재)

계획된 파종이 끝나고 전반적 작물의 생육상태는 대체로 큰 피해 없이 보편적인

부대별 급식현황

<별표6>

작물 / 구분 / 부대	호 박		감 자		봄채소		가을채소		콩류 기타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면적	예상량	면적	예상량	면적	예상량	면적	예상량
본사(本司)	(Kg) 3,269	(원) 9,807	(Kg) 3,300	(원) 33,100			(평) 840	(Kg) 2,240			(평) 4,810	(Kg) 13,350
공사교(空士校)	149	1,046							(평) 6,000	(Kg) 4,340	18,040	37,184
기교단(技敎團)	10,730	43,020	2,159	15,113	(평) 3,700	(Kg) 13,387	16,180	60,750	5,500	(사료작물)	47,958	160,946
107 기단(基團)	2,520	10,080	810	21,900	5,000	18,675	3,700	13,500			24,250	89,295
106 전대(戰隊)	1,800	7,200					4,500	16,870			11,870	42,620
10 전비(戰飛)	6,373	38,238			3,940	14,625	7,000	25,875	13,000	2,200	42,912	129,973
11 전비(戰飛)	740	5,180			4,600	17,212	3,000	11,250	7,560	1,335	18,704	47,526
30 방관단(防管團)	965	3,860			845	3,150	850	3,375			2,694	9,205
교재창(敎材廠)	60	480	947	9,470	420	1,575	250	1,000	1,150	186	2,820	6,651
23 정보(情報)					400	1,462	1,600	5,700			2,700	8,950
216 전대(戰隊)	340	5,000	600	6,600	1,220	5,175	1,850	6,750	3,700	4,500	14,890	42,385
공비교(空飛敎)	1,439	10,073	3,549	55,344					750	374	2,100	3,958
40 분창(分廠)	610	5,490	75	1,375	2,650	9,930	1,000	3,700			8,520	26,279
33 구조(救助)	60	560			300	1,125	440	1,300			1,690	6,535
계	29,055	140,134	11,440	142,902	23,075	86,766	41,210	152,310	38,160	12,935	203,958	624,857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특히 온상재배를 실시하여 전문적인 기술재배로 일반농가 이상의 단위생산량을 올리고 있는 부대도 있고 파종기에 장기간 계속되는 강우로 다소의 수해를 입은 부대도 있다. 특히 호박은 어느 부대고 과잉생산할 정도로서 자대급식에 충당하고도 남는 다량을 영외자에게 수차에 걸쳐 분배하는가 하면 고아원이나 이웃돕기 운동에 기증한 부대도 있다. 파종된 작물중 봄채소류와 감자는 7월 20일 현재 거의 수확이 완료되었으며 이의 부대별 생산 급실 실적은 별표 6과 같다.

각 부대로부터 종합완료보고도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으나 계절로 보아 이미 감자와 봄채소는 거의 수확이 끝났을 것으로 생각하며 감자의 수확 종합현황은 목표량인 6,860kg에 비해 167%에 달하였고 봄채소는 목표량 86,766kg에 비하여 83%의 낮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급식 메뉴에 의한 균일한 급식을 위해 생산량 중 잔량이 각부대마다 미 보고된 채 저장된 양도 있을 줄 아나 소채(蔬菜)류는 토양의 조건과 비배(肥培)관리에 많은 손이 가는 작물이기 때문에 계획량에 도달한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어려운 것이다. 여하간 감자 봄채소의 면적은 총 계획면적의 22분의 1에 해당되며 수확량은 74,508kg은 목표량 624,857kg에 비하여 8.4분의 1에 해당되니 연말 목표량의 예측대로 624,508kg를 약간 넘는 625,867kg이 예상된다.

전망

이와 같이 여가시간의 활용에 의한 경작은 계획대로 거의 의심이 가지 않을 만치 정확하게 100%의 성과가 낙관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자활사업에 대한 자신과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야만 할 것이다.

국고예산에서 연간 부식비가 1억 3천8백 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1인 평균 57평을 연 2회의 이모작으로 경작하면 상기 국고의 절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검소한 생활기풍도 체력 증강도 자활사업으로 자연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의 번영을 위하여 오늘의 내핍과 근면은 참고 견디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연차적으로 농지를 개량하여 다수확재배를 서두르고 급식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 개인이나 군인이나 나아가서 국가적 경제자립에 이바지되고 있음을 자부하면서 맹목적인 작업 의식을 버리고 목마른 생물에 물을 길어다 줄줄 아는 정성어린 성의로써 다 같이 증산운동 즉 자활사업에 참여하여야 할 줄 믿는다.

월세계십왕복(月世界十往復)

에어 프랑스 항공회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동사 소속기들이 지난 1년 동안에 비행한 거리의 통계는 8천만 킬로미터(2천만리)인바 이는 지구와 월세계간 거리의 20배나 되는 것이라 한다.

바야흐로 인간의 월세계 정복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앞으로 얼마 후에 월세계 여행의 특별관광 코스가 생겨 매주말이면 각 항공 회사에 월세계 여행객들이 붐빌 날도 멀지 않은 듯…….

수 필

기상(機上)의 수상(隨想)

박세영(朴世英) <변호사>

지난달 하순께 한라산(漢拏山)을 등반(登攀)하기 위하여 비행기로 제주도(濟州島)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쾌청한 일기에서 기체 밖으로 내다보이는 산과 들, 그리고 강물줄기들이 선명하게 시야에 접어들어 아름다운 전망에 눈을 빼앗긴 채 자신이 지금 고도 7천의 상공에 떠 있다는 것도 잊고 있었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거리와 지붕들이 늘어섰고 푸른 밭고랑과 논배미가 내려다보이며 길게 뻗은 도로에는 자동차가 딱정벌레처럼 느릿느릿 기어가는 것이 마치 장난감 같다고 생각했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내 조국! 그런데 그 조국의 강토(疆土)는 왜 저리도 헐벗었을까, 자연이 자연 그대로일 때 그건 모두 아름다운 것이다. 산, 들, 강물, 그리고 바다도 하늘도 초목도, 고기도 새도 어느 하나를 들고 보아도 미(美) 아닌 것이 없다.

나는 산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러기에 김포(金浦) 공항을 떠나면서부터 줄곧 내려다보이는 산을 조감(鳥瞰)하며 공상의 날개를 훨훨 펼쳐보는 것이었다.

천고에 도끼자국이 들어가지 않은 원생림(原生林)이 울창하고 그 속에 노루와 사슴과 토끼가 뛰노는 풍경이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우랴. 푸른 산, 이끼 낀 바위, 맑은 공기와 청순한 석간수(石澗水)…….

봄이면 생명력이 약동하여 새싹을 돋아나게 하고 다시 무성한 여름철을 거쳐 만산을 단풍으로 곱게 물들이는 가을, 그 가을의 산 속에 주렁주렁 매달린 머루,, 의 풍성한 향연(饗宴)…….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 부르지 않았던가.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바로 내려다보이는 헐벗은 산처럼 메마르기만 한 것을 어찌하랴. 공상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올 때 저절로 터져 나오는 한숨은 굳이 까닭 없는 일은 아니리라. 지금 우리나라는 삼팔선이라는 국경아닌 국경에 허리가 두동강 나 있고 그 두동강 난 남쪽에 2천 몇백만이란 인구가 저마다의 삶에 허덕이고 있다.

차가운 인정세파 속에서 생의 비참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그 몇이나 될까.

주위의 그 누구를 바라다보아도 참으로 누구하나 남을 위하여 봉사할 마음의 여유는커녕 모두가 서로 반감, 질투, 의혹과 불안 속에서 불행한 나날의 생을 영위(營爲)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뿐…….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은 생물적 생명의 진화발전의 정점에, 다시 말하면 의식 내지는 양심을 가지는 최고의 존재라고 한다. 이 최고의 존재가 다른 동물에서는 볼 수 없는 추악과 잔인, 부도덕 그리고 불행한 생활 속에서 허덕여야 하다니….

이성이라는 게 참으로 있다면 좀 더 합리적인 삶의 방도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때때로 자칭 애국자요, 우국지사로 자처하는 사람을 본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과연 애국이던가? 도대체 애국심이란 무엇일까? 물론 애국심이란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 애국심이라고 할 때 얼른 생각나는 것은 고향의 산천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의 나라에 대하여 자연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다. 그 애정이 얼마나 거센 것인가는 멀리 고국을 떠나 타향에 있을 때 현저하게 느끼게 된다. 고향에 머무를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지만 일단 이국의 하늘 아래 서게 될 때 내 고향의 산천과 내 가족, 내 집, 내 동무 그 어느 것이고 그리 웁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다.

레온하르트 프랭크(Leonhrt frank)는 '조국이란 우리가 어린 시절 석양에 뛰어놀던 오솔길이요, 석유 등잔이 조용히 비쳐주는 밥상머리요, 식민지, 제품을 팔고 있는 이웃집 쇼우 윈도이다. 조국이란 우리들이 열매 익기를 바라던 뜰 앞의 호두나무요, 잔잔히 흐르는 시냇물이요, 뒷동산 구부러진 등성이를 말함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센트 헤레나에 유배된 나폴레옹의 꿈에 나타난 것은 파리의 화려했던 생활이 아니고 휘젓한 코르시칸의 풍물이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애국심이라는 것의 가장 깊은 뿌리, 그 가장 직접적인 형식은 어떤 고귀, 위대한 그 무엇에 있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사소한 생활감정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을 낳아 준 어머니를 사랑하고

수 필

제가 커난 집을 사랑하고 어린 시절 시냇물 따라 반딧불 쫓던 고향산천을 사랑한다. 그리하여 내가 낳고, 크고, 또 죽어서 묻혀 질 그 땅, 조국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건 인정의 자연이요, 하나의 본능일 진저 그 자체 선악의 가치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른바 애국심이라는 것이라면 문제는 이 애국심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보다도 우리들 누구나가 다 가졌을 이 애국심의 감정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닐까.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J, G, Fichte)—나폴레옹 점령하의 백림(伯林)에서 '독일국민에 고한다'라는 명 강연으로 유명—의 한 친우가 그에게 '나는 날마다 오후에 30분씩 애국의 실천을 하고 있다'고 말한 일이 있었다. 어떻게 하는 건가 물으니 그 친구, "나는 날마다 신문을 읽고 정부(政府)의 활동 중에서 가장 찬양할 수 있는 걸 찾아내고 그게 발견되면 내 정신을 그에 집중하여 즐거운 명상에 잠기기도 하였으며, 만일, 불행히도 그런 만족 할만한 게 없으면 그날의 기사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골라 그걸로 대용하고 참지"라고 하더라나 관념론 철학자 피히테의 친구다운 이야기지만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만한 애국의 실천도 찾아보기 힘드니 말이다. 날마다의 신문을 보면 어찌도 그리 추악한 것뿐인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너는 애국의 실천자인가고 물으면 나 역시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용기도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내가 언제 어떻게 애국을 실천해 본 일이 있는가? 어떤 친구는 나더러 "너는 언제까지나 보헤미안으로서 방황(彷徨)을 하겠느냐"고 말한 일이 있거니와 그 친구 말마따나 나는 영원한 보헤미안인지도 몰라 하지만 나도 때로는 깜냥대로 애국의 실천이 어떤 것인가 쯤은 생각할 때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애국의 객관적 형태란,

첫째로 동포의 고난이 바로 내 고난이라는 걸 몸소 느끼고 그 고난의 극복을 스스로 떠맡고 그런 실천, 흔히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어느 특권층의 이익이 숨겨져 있는 수가 있는데 이건 동포에 대한 소박한 애정이 아니라 허위(虛僞)와 기만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관용의 정신이다. 관용(寬容)은,

바로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아는 것. 자신만이 애국의 화신이라 생각하고 걸핏하면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는 건 민주사회의 국민의 자유를 막는 것이요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를 기회주의자나 아첨배(輩)로 만드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 가령 그 사람에게 주관적 성실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광신이나 열광이 3천만을 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게 아닌가. 우리는 관용(寬容)의 존엄성을 배워야 한다.

셋째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듯이 남의 나라도 존중해야 한다. 자기 나라만이 일등국이 되기 위해서 타국민의 행복을 무자비하게 짓밟는다든가 한 나라의 독립을 위협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열백 번 애국이라는 추상명사로 가장하더라도 양두구육(羊頭狗肉)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남의 나라 주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남의 나라로부터 침략 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진대 그 이치는 자명한 것이리라.

끝으로 우리 모두가 세계사의 기본방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참다운 역사의 방향을 파악하면 국민 모두가 정의와 자유를 구가하며 그 창의성을 발휘하여 역사의 흐르는 방향으로 진군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에 호응하는 진군도상에서는 명리를 위하여 아부하고 굴종하는 노예근성의 소유자란 있을 수 없다. 권력에 짓눌려 진리를 왜곡하는 자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불신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 아닌가.

이 생각 저 생각에 잠기는 동안 비행기는 망망대해를 날아 조국의 남단인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내일은 저 한라산 상에 발 디딜 것을 생각하니 새삼 가슴이 벅차오른다. 뭉클 솟아오르는 감회를 안고 다시 지상의 사람이 되니 오후 6시 15분.

수 필

모두 잘 살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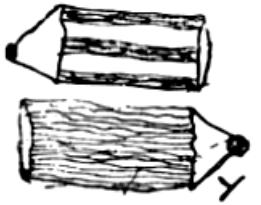
성(成)경(慶)□ <국립국악단장>

우리 집에는 생일이 같은 식구가 두 쌍이나 되어 우연이지만 기이함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 어른은 음력 생일을 그대로 기입한 것이나 아이들은 모두 양력으로 호적에 올려 주었다. 내가 나던 1911년 음력 9월 18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니까 바로 11월 9일이 되었다. 그런데 내 맏아들의 생일도 양력으로 11월 9일이 되어 나와 큰 아이는 생일이 똑같다. 아내의 생일은 음력으로 7월 8일이다. 셋째 딸아이의 생일이 양력으로 8월 그믐께가 되면서 음력으로는 공교히 7월 8일이 되어 저의 어머니와 같았다. 출생신고는 양력으로 계출하고도 생일은 음력으로 기념하는 것이어서 모녀의 생일은 여러모로 경제가 되는 이득도 없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던 1945년 8월 15일은 음력으론 7월 8일 이었고 그날은 마침 우리 집 셋째 딸아이의 돌이었다. 지금처럼 집집마다 라디오가 있는 20년 전이 아니었다. 통장(그때는 조장이었다고 기억한다)집에 내려가 똑똑치는 않으나 일본이 항복한다는 일본 천황의 중대방송을 들었다. 아주 짐작이 없는 게 아니었지만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스스로를 잃을 것 같은 도취와 황홀, 배급양곡을 아끼어 만든 즐거운 돌떡으로 한 집안의 경사는 마냥 부풀기만 하였다. 할 일도 많고 꿈도 많았다. 그런 속에 쓰러질 듯 빗긴 고옥 초가에 눈이 가면서 하루바삐 버젓한 집을 장만하리란 욕망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쳐 나는 얼마, 이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 이렇게 이기스러운 졸한 사나이일수 있나 하고 스스로를 서글퍼 하였다. 그러구러 20년,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이 음력으로 7월 8일이어서 나는 일층의 감회를 새로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돌장이 아이는 여대생으로 성장했지만 면해 보리란 초라한 집에서 하루같이 20년을 보낸 것이다.

가구들과 식탁을 같이 하고 모녀의 생일을 축복하면서도 심사는 한결 담담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절벽감은 체념의 탓인지도 몰랐다. 이제는 부질없는 기대를 걸고 안심할 나이도 가버렸다. 그리고 보면 아이들도 요즘은 지쳐있어 통 말이 없는 것이다. 집을 팔고 먼 교외로라도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강경한 주장이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출가한 둘째 아이가 문화촌으로 이사를 갔다. 이웃이 의젓할 뿐 아니라 부모요 동기가 낡은 집에 웅크리고 사는 동정도 있어 집을 팔고 문화촌으로 나오라고 성화를 댔다. 건물은 보잘 것이 없고 땅값을 건지면 겨우 거기 나가 용신할 1동과 능히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용기 없는 나는 딸과 사위의 권유도 좇을 도리가 없었다. 무슨 동네가 땅값이 전혀 오르지를 않는다. 공무원의 재산등록이 있어 집값을 알아야 하겠기 조카를 시켜 동네 집 주름에 얼마나 나가나 알아보라 하였더니 평당 7,8천원 가겠다는 냉정한 대꾸라는 것이다. 벌써 여러해 전에 한평에 10만환은 나간다 했고 40만환은 넉 히 받는다고 장담한 사람도 있는데 이건 오르기로만 작정인 작금 물정에 내 동네 땅값만 예외인가 하고 분개하길 마지않았다. 근처 다른 복덕방에 한 번 더 알아보라 하였더니 거기선 평당 만원은 나간다고 일러 주더라는 것이다. 날로 달로 곱으로 뛰는 금싸라기 같은 땅도 있는데 어디서 이런 억울한 지대에 집을 마련했나 하는 원망. 지금은 비록 집을 판다 해도 그 돈으로는 문화촌에는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에 크게 손재라도 본 것 같은 아쉬움이지만 그야말로 후회막급. 재산등록은 그런대로 신고를 마치었다 20년 전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그래서 20년을 두고 한결같은 생활수준이라면 상을 탈 것인가 벌을 받을 것인가 스스로 궁리하여 본다.

수 필

여기서 생각나는 옛날의 이야기. 청렴결백한 늙은 재상은 아예 집을 돌아보지 않아 사는 살림이 말이 아니다. 여름에 비라도 오면 그냥 지붕이 새어 호사스런 의장의 기구인 일산을 내어 겨우 비를 피하였다. “어느 때나 이 고생을 면하오?”정경부인이 대감과 일산 밑에 쪼그리고 앉아 역정이다. “허어 그런 소릴, 우리집은 그래도 이 일산이라도 있으니 비를 막지만 일산 없는 백성들의 정상을 생각하여 보오”재상은 제법 기고하여 철없는 부인을 타일렀다. “일산 없는 집이 어디 우리 같을 줄 아셔요?”. 부인도 지지않고 맞섰다. 세상을 아는 대로 확실히 대감보다 부인의 눈이 더 밝았던 모양이다. 청렴하고 개결한 것은 마땅히 칭상할 일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재상이 비를 일산으로서 막았다는 실화는 결코 자랑일 수가 없을 것이다. 몸을 닦고 집을 가지런히 하고야 능히 천하를 다스릴 자격이 있다고 일러오지 않았던가. 내 집은 비가 새어도 백성은 걱정 없이 잘 살게 하였다면 이야기는 또 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저의 집을 그 꼴로 하고 있는 주제에 백성을 복되게 하였을 어진 정치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무능한 위정자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이기 우리는 이날 빈궁의 굴레를 벗어 던지지 못한다고도 이를 수 있다. 역설적이긴 하나 깊이 생각게 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재미있는 우화. 하느님이 형별을 맡은 신에게 벼락방망이를 주고 세상에 내려가 가장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을 벌주고 오라고 일렀다. 벼락방망이를 든 뇌신은 인간에 내려와 외롭지 못한 악인을 찾기에 고심했다. 하나 있기는 있었다. 큰 도둑이었던 것이다. 수고하지 않고 남의 재물을 훔쳐다가 도둑답지 않게 알뜰히 살고 있었다. 깨끗한 덩그런 집이며 제 자리에 놓인



윤기 흐르는 가장집물.
그보다 아름다운 아내와 사랑스런 아들딸을 거느리고 화평하고 단란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죄는 미워도 죄 없는 처자며 공든 재물을 무단히 깨뜨릴 수가 도저히 없었다.
"그래 벼락방망이를 쓰지 못했단 말인가?"
하나님이 물었다.
"아닙니다. 그냥 돌아오기도 무엇하고 하던 차에 하도 역겨운 광경이 눈에 띄어서 그를 대신해 벌주고 돌아왔습니다."
뇌신의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외 따른 언덕에 쓰러져 가는 초옥이 한 채 있었다.
주인은 글을 아는 선비인 듯싶은데 그리 늙은 나이도 아니면서 바로 볼 수 없는 초췌한 형국이었다.
집은 오래 돌보지 않아 지붕이 패이고 기둥이 기운데다 문짝이요 창호가 하나도 없는 것은 모두 떼어서 아궁이 밥이 된 게 의심되지 않았다.
그런 답답한 살림에 제법한 세간이라고 있을 턱이 없었다.
더욱 가증한 것은 오랜 장마에 방이 누습하고 한기가 오니 선비는 불 끼를 넣고자 한 귀 기둥뿌리를 도끼로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백방으로 생각해도 쓸모 있는 위인일 것 같지가 않았다.
간고한 살림보다도 불평과 원한으로 충만한 선비의 응고된 노기가 더욱 미웠고, 죽어도 아깝지 않는 인간일 것 같았다. 때려 부셔도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살림이요 집이었다.
"더 살아 고생을 하느니 죽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느끼어서 죄는 비록 없지만은 벼락방망이를 던지고 돌아왔습니다."
의당 도둑이 받아야 할 두려운 형벌을 죄 없는 선비가 무정히 받아야 했다는 역리, 배율.
결코 불의를 권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은 모로매 잘 살아야 하고 모두 잘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차가운 교훈이 아닐까.
이 나라는 너 나 없이 못 사는 겨레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수 필

못 사는 탓은 개인에게도 있고 좁은 땅 많은 인구에 돌릴 수는 물론 있다.
가난이 죄일 수도 없다. 부끄러움일 수도 없다.
모두들 잘 살기 위해 나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진정 무엇인가.
8월 15일은 오고 또 간다.
그렇게 희망에 부풀던 가슴들에 새로운 심지를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우리는 모두 잘 살아야 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무진 다짐에서부터 다시 내딛기로 하자.

명장(名將)

김 진 만(金鎭萬) <고대교수>

힘이 세고, 성질이 포악해서, 사람 잡기를 이 잡듯이 해치우는 인물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을 말로 죽여 내거나, 도처에 계집을 길러서 호색을 다한다고 해서 그런 인물을 가리켜 명장(名將)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어쩌면 우리의 전통적인 명장관 속에는 다분히 봉건적인 감상이 깃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무변(武弁)으로 시작해서, 일찍이 뛰어난 무술로 세상사람의 칭송을 받고, 싸움에 나가서는 큰 전공(戰功)을 세우고, 그러다가 세상이 어지러워 지면 풍운을 타고, 나라를 평정해서 마침내는 천하를 호령하기에 이른다는 식의 쾌남아(快男兒)를 대장부라 하고 명장이라 일컫는지 모른다. 백두산석에 칼을 갈고 두만강수를 군마에 먹여서 공을 세워, 스물여섯에 병조판서(兵曹判書)를 한 남이장군(南怡將軍) 같은 이가 있다. '남아(男兒) 이십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한다면,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하겠는가 하는'글을 지은 것이 남이(南怡)라면은 또 판서 벼슬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큰 야망을 달성하는 것을 '평국(平國)'이란 말로 노래했다면 남이는 실상 명장이나 대장부의 영예를 완성하지 못했다. 남이는 진중(陣中)에서 숨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옥사(獄死)는 그대로의 낭만적 매력이 있지만 명장의 최후로서는 좀 섭섭하다. 나이 이십에는 아닐지라도, 한창때에 문자 그대로

평국(平國)하고, 平天下해서 과연 후세로부터 명장의 칭송을 받는 인물을 서양에서 고르라면 당장 '시저'와 '나폴레옹'을 들 수 있다. 부하의 칼에 맞아 죽었다든가, 러시아에서 크게 패했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인으로서의 경력은 찬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 남의 나라 옛날이야기이고, 우리나라의 무인들 가운데서 명장을 고르라면 누구를 꼽아야 할까.

고려때에 최충헌(崔忠獻)이란 자가 있었다. 출신은 비록 무변(武弁)이었지만, 싸움을 하는 데는 별반 취미가 없고, 전장에서가 아니라 조정(朝廷)과 그 언저리에서 남을 헐뜯고, 죽이고, 내종에는 형제끼리 싸움질을 해서는 제 마음대로 왕을 세웠다. 폐(廢)했다 하고 마침내는 스스로 집권을 했다. 중이 염불에는 생각이 없고, 엉뚱한 젯밥만 탐낸다는 식이 최충헌의 행적이었다. 어중이떠중이가 저마다 나라를 탐내고, 세상이 되어가는 품은 꼭 벌집을 쑤셔 놓은 것 같이 소란하고, 어지러운 판에, 이런 생쥐 같은 인물이 하찮은 권모술수로 나라를 제것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갈 리가 없었다. 최충헌은 추장(醜將)이었다.

이성계(李成桂)는 원래는 이보다 나은 인물이었다. 소위 위화도 회군이라는 반역을 범하고, 제 말대로 하면, '임금 곁에 있는 악한 자들을 없애서 선영(先靈)을 편안케 하리라'하고 결국 군국의 대권을 제 손아귀에 넣고 말았지만, 위화도의 반역을 저지를 때까지의 이성계는 이름 난 무반(武班)의 집에 태어나서 일찍부터 외적과 싸워서 큰 공을 세웠고, 군사를 몰고 위화도까지 출사(出師)했다는 사실이 그의 무장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해 준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상한 풍습이 있어서, 외적과 싸워서 공을 세우거나 지는지 이기든지 용감하게 싸우다가 싸움터에서 죽어가는 무인은 용장이니 명장이니 해서, 하다못해 야담거리라도 삼지만, 싸움은 남보고 하라고 하고 자신은 조정 속에서 동료 무반이나 문신들을 모함하고 죽이고 해서 제 실속을 차리는 무장을 업수이 여긴다. 최충헌이는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었고, 회군 이후의 이성계가 또 그랬다. 이제 이성계를 가리켜 명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스스로 자신의 후손을 위해서 왕조를 시작한

인물에게 명장이란 이름이 오히려 불경해서가 아니라, 회군함으로써 그는 명장의 영예를 누릴 자격을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이다.

최충헌 때는 대소무변(大小武弁)이 멋대로 날뛰던 때여서 진실한 무신의 보기를 찾기 힘들었지만, 이성계 때에는 무인으로서의 그의 타락을 증거 해 주는 무장다운 무장이 없지 않았다. 최영(崔瑩) 장군이 바로 그런 무장이었다. 이성계의 정략에 희생이 되어, 처음에 유배당했다가 순군옥(巡軍獄) 속에서 참살(斬殺)된 최영의 최후가 너무나 무참했지만 생전에 그가 쌓은 전공과 명에 대하여 나라를 지키려는 굳은 결의와 또 이성계의 반역을 당해서 취한 순결한 절개는 명장의 칭호에 알맞았다. 그러나 진실로 명장다운 명장은 이순신(李舜臣)이었다. 여기서 충무공의 무공을 다시 외울 필요는 없다. 「난중일기」나 시문, 또는 충성과 애국심이 줄줄이 넘쳐흐르는 「장계」들이 말해 주는 그의 뛰어난 문재(文才)를 말해서 무엇할까. 또 전장(戰場)에서도 민생을 생각하고 둔전(屯田), 식화(殖貨)의 방책(方策)을 구상하던 그의 놀라운 경륜(經綸)을 따로 회상해서 무장으로서의 이순신의 영예가 더해지는 것도 아니다. '순신은 일 무인이 아니요, 임진의 난을 선기(選機)로 한 조선인 진골두(眞骨頭)의 표현자요, 또 1시대 1국토에 한하는, 명장 애국자일 뿐 아니라, 조선인의 소심을 토양으로 한 인류 성선 최고 발영(發英)이라 할 자로……'하는 육당(六堂)의 평가가 과찬이라고 해도 좋다. 나는 이순신을 명장 중의 명장으로 만들어 주는 사실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는 정유년 5월, 왜적이 재침하여 오던 때 모함을 당하여, 죄인으로 서울까지 호송(護送)되어 오던 때, 지나던 곳곳마다 남녀노소가 모여 들어서 "사또는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습니다."하고 통곡을 했다. 이것은 곧 '쿠오 바디스 도미레'의 외침과 통하는 것이었다. 또 하나는 혁혁한 무공과 백성의 거의 신앙에 가까운 신뢰와 지지를 받고도, 그는 끝내 최충헌 이성계의 전철(前轍)을 밟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기

김 상 묵(金相默) <공군문관>

이 세상에 무수한 벌레가 서식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모기란 놈이 제일 밉다. 요놈이 요새 흔히 유행하는 뇌염병균을 옮겨 준다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 모기는 날 때부터 아주 고약한 습성을 타고 난 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하수구나 돼지우리 같은 불결한 곳에서만 유충기를 지낸 놈이 감히 사람이 사는 곳이면, 안방이건 사랑방이건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아름다운 규방(閨房)에까지 버젓이 침입해서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구경을 돈 한 푼 안 들이고 샅샅이 하니 도시 염치라곤 한 푼 없는 놈이다.

내 몸을 그놈들 쪽에서 본다면 마치 우리가 공룡 10마리쯤은 대하는 느낌이들 텐데도 전연 두려운 빛(생각)없이 악착스럽게 덤벼들 때에는 정말 분통이 안 터지고는 견딜 수 없다.

가뜩이나 때늦은 더위가 한창 맹위를 떨치는 때인지라 나같이 뚱뚱보는 솔직히 말해서 제몸하나 간수하기도 무척 힘이 드는데 요놈의 하찮은 모기떼들과 밤새껏 싸움판을 벌려야 하는 내 처지가 가엾게 느껴질 때가 많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기만 해도 꽤 많은 종류가 되며 그 중에서도 몸집이 아주 작고 검은 빛이 나는 놈이 제일 악착스럽다.

요놈들이 낮에는 보통 우물속이나 숫채 구멍 변소 구석 또는 방안에서도 가장 어둡고 음침한 장롱 뒤쪽에 숨어 있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비로소 일제히 행동을 개시해서 사람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한다.

벼룩이나 빈대도 여름 한철 사람들에게는 무척 귀찮은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체신에 비하면 모기들처럼 대담하지는 못하다. 그래서 살짝 사람들에게 달려들었다가는 어느새 꺼져버리는 말하자면 얌체족에 속하는 미생물이다. 그러나 모기란 놈들은 좀 다르다. 이놈들이 몰려올 때에는 의례히 '윙윙'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면서 먼저 시위를 한바탕 벌인 다음에 한놈 한놈씩

산개(散開)하면서 전투자세를 취한다. 이쪽 편에서 한 놈이 '윙~'하면서 목덜미를 스쳐갈 때 다른 놈들은 재빨리 넓적다리에 붙어서 그 뾰족한 주둥이를 깊숙이 피부 속에 꽂고 실컷 흡혈을 하는 것이다.

이런 모기들의 습성을 이용해서 내 편에서 방어태세를 강화하면 저 놈들은 곧잘 반문지계(反問之計)로 응해 오고 있다.

나는 한 마리의 모기라도 잡아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무의식중에 잠든 아내의 볼이나 가슴팍을 육중한 손바닥으로 후려친다.

깜짝 놀란 아내는

"아니, 이 양반이? 갑자기 도셨나 봐."

그렇잖아도 등골에서는 땀방울이 비오 듯 줄줄 흘러내리고 모기와 한창 싸우느라 지쳐버린 나에게 이런 아내의 불평이 예사로 들릴 리가 없다.

"뭐야, 남편에게 그런 고약한 말버릇이 어디 있단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쥐꼬리 만한 월급 가지고 살림을 꾸려가자면 보통 신경을 써서 되는 줄 아세요? 김치 담기, 빨래에 애들 치다꺼리로 하루해가 짧을 지경예요. 당신은 남들처럼 아내 호강은 못 시켜줄망정 왜 돈 안드는 잠도 실컷 못 자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부싸움이 전주가 되어 내게는 오히려 손해가 더 많다. 여기서 내가 한마디라고 대꾸하면 태곳적 얘기부터 시작될 터이니까 참아 버리는 게 수다.

"여보 그만 둡시다. 공동의 적은 모기니까."

어느새 대군의 모기들이 온 몸을 뒤 덥고 침이 꽂혔던 자국마다 콩알 만한 혹이 하나씩 생겨버려 아무리 긁어도 시원치가 않다. 이때서야 나는 비로소 내가 요놈들의 반문지계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다시 맹렬한 토벌전을 전개한다. 그러나 이놈들이 살려는 노력도 필사적이어서 완전히 섬멸시킬 수는 도저히 힘드는 일이다. 전등을 켜면 재빨리 숨어버려서 쉽사리 잡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뚱이 자체가 보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눈을 크게 비벼뜨고 찾을 래도 여간해선 잘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아내가 그놈들에겐 원자탄이라 할 수 있는 PDP를 뿌리라고 제의해 오지만, 나는 이것을 깨끗이 사절한다. 그건 내가 하찮은 미생물이라도 대량

학살을 하는 것이 '생명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인도주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다만 나는 선천적으로 그런지는 몰라도 모기약 내음새 가 싫다는 것뿐이다.

하루 종일 근무처에서 시달리고 나면 집에 와선 말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피곤한 터에 모기약은 극도로 신경을 자극해서 그 내음새가 완전히 가실 때까지는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아 더욱 피로가 가중된다.

또 모기장도 그렇다 서너 평쯤 되는 대청마루에 큼직한 것을 치고 잔다면 몰라도 궤딱지만한 방에 손바닥만한 모기장 속에서 두셋이 찡겨지내 자면, 콩나물 처지를 못 면하는 것이니 차라리 모기란 놈들에게 약간의 희생을 당하더라도 차가운 온돌방에 등을 붙이고 있는 편이 훨씬 편하다.

그래서 나는 PDP는 말할 것도 없고 모기장까지도 치지 않고 여름철을 지낸다.

그러자니 자연 모기떼들과 밤새껏 공방전을 벌이지 않을 수가 없다. 어느 때는 너무 화가 치밀어 제일 밉살스러운 놈 한 마리를 생포해 가지곤 요놈을 손바닥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후려쳐 죽여 버리면 직성이 풀릴 때도 있다. 그러나 도시 감정이 없는 조고만 생물에게 너무 하리만큼 잔인한 보복은 장부로썬 도저히 할 것이 못된다고 곧 후회하면서 파리채를 다시 잡아든다.

한여름 동안 모기떼와 실갱이를 벌이고 나니 이제는 웬만큼 이놈들의 생태라든지 습성을 짐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기이하게 생각하는 것은, 머리털보다도 더 가늘고 연약한 주둥이 흡혈침(이건 나대로 붙인 이름이지만)이 그 단단한 피부 속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꽂혀지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도 내가 더욱 중요한 교훈을 체득한 것은 모기와 같은 곤충사회에도 적자생존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요놈의 모기들이 이렇게까지 악착스럽게 덤벼드는 것도 실상은 살기 위한 투쟁에 불과하다, 그놈들에겐 우리들 인간처럼 빈민가의 토굴 속에서 그대로 앉아 굶어 죽을 필요는 조금도 없다. 또 대학을 나온 수많은 고급 실업자와 같이 거리를 방황할 필요가 없으며, 이데올로기 문제로

수 필

투쟁까지 일으킬 이유는 더구나 없다. 다만 왕성한 식욕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이 그들 생활의 전부다. 그 조고만 배때기를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건 도박을 해야 하며 파리채에 박살이 된 동료의 시체에서 피를 채취해야 한다. 이걸 못 하는 놈은 생존의 가치가 없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들 인간에게서도 쓸데없는 가식이라든지 복잡한 절차를 생략해 버린다면 올바른 얘기가, 이놈들 모기떼완 백지 한 장의 차이밖에 더 있겠는가 싶다.

이제는 밤도 꽤 깊어졌고 그토록 벌떼 같던 모기들이 뜸한 걸 보니 한껏 배를 채운 모양이다.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모기란 놈들과의 전쟁은 오늘은 일단 끝난 셈이지만 그놈들에 비하면 몇 백만 배나 될지 모르는 나 같은 뚱뚱보는 지금껏 이놈들 때문에 진땀을 뺀 생각을 하니 어쩐지 허전한 느낌이 든다.

또한 우습고도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손끝에 닿지 않는 조그마한 모기와 밤새껏 싸웠으니까 말이다. 앞으로 요 못된 얌체족인 모기들의 기습이 없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으나 도무지 잠이 오지를 않아 이리저리 자리만 고치다 어느 틈엔지 잠이 들었는지 확실히 분간키 어려우나 옛 고향 어린 시절 시골에서 모기와 싸우다 결국 모깃불을 지펴놓고 멍석위에서 잠자던 기억이 어슴프레 하게 떠오르며 내가 지금 누운 곳이 그곳 같은 착각을 일으킨 것 같은 느낌, 역시 꿈인 모양이다.

제발 얄미운 모기들이 오늘밤만이라도 기습해 오지 말기를 바라면서 나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남을 설득시키려 하지 말라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면 그 의견이 모두 다르다. 당신의 의견이 비록 옳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남을 설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설복당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의견이란 못질과 같다. 그러니까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자꾸 깊이 들어간다. 진리는 인내와 시간이 절로 밝혀 준다. 〈톨스토이〉

S형에게
-어느 정훈장교의 수기-

수 기

김열회(金烈會)
<예비역 공군중위>

[제1신(信)]

S형!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행정과장이 불러서 갔더니, 오늘부터 주번(週番)을 상번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S형과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신임소위라 깔보고 그러는 것 같아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부임일자부터 따지더라도 꼭 열이틀 밖에 안 되는데 정식명령도 없이 왜 벌써 주번을 세우느냐고 항의했더니

"소위가 하라면 하는 것이지 무슨 잔말이 많아, 응?"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회보를 턱밑에 던지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무력한 내 처지로서는 아무리 정론을 들고 따지더라도, 저쪽 편에서는 얼마든지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입장이므로 복받쳐 오르는 분통을 꾹 누르고 이걸 깨끗이 감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S형! 지금 이곳은 백합처럼 탐스러운 함박눈이 차분히 쌓이고 있습니다. 영내사병의 대부분이 X-mas 외출을 나갔기 때문에 내무반에는 신병 서너 너댓 명이 남아 자리를 지키면서 저희들끼리 도손도손 무슨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는지 측은한 생각마저 들더군요.

끝이 보이지 않는 활주로위에 낙조(落照)가 짙게 물들어가고 눈 속에서 깜박거리는 신호등이 적막감을 더 해주고 있는데 이 순간, 언젠가 형에게 말씀드린 경(暻)이의 그리운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은 심정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녀가 열정의 상징이라는 빨간 장미꽃잎을 넣어 만든 X-mas카드를 어루만지는 것으로 흐트러진 제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처음 상번신고를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가 보니까 주번하사를 빼놓고는 모두 훈련의 때도 채 가시지 않은 신병들뿐인데 식당 보수 관계로 내무반에서 밥을 나눠먹는 모습이란, 꼭 어미 떨어진 병아리처럼 느껴져 심한 충격이 가슴을 아프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정훈장교로서 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영내사병에 대한 내무생활의 개선에 일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메모해 두면서도

과연 내 힘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적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S형! 이제 내일이면 하번(下番)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태껏 외면으로만 관찰해 온 비행단의 생리를 실감하게 된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세모(歲暮)를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에는 소원이 성취되시기를 빕니다.

[제2신(信)]

비행단에 부임해 온 지도 벌써 두어 달이 실이 되는가 봅니다.

J정훈감님의 간곡하신 부탁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곳에 내려올 때에는 영 발길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생소한 땅이기도 했지만, 비행단하면 파일럿트들 등쌀에 죽어나는 줄만 알았기 때문인데, 정작 겪어 보니까 사람들이 무던히 좋습니다.

이제는 조종사들도 차츰 낯이 익어가고 비행단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사정쯤은 대개 알게 되었습니다.

제트기로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만 보았지 이렇게 가까이서 본 일이 없었지만 지금은 별로 신비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고막이 터질 듯 한 제트폭음 소리가 벌써 하도 젖어 놓으니까 전연 감각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업무 면에서는 아주 백지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나는 주로 실무지식이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부대사 정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도 수집된 자료는 풍부해서 작업을 해나가기가 훨씬 수월했으며, 작년 말까지의 부대정사(部隊正史)는 완전히 편찬된 셈입니다.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이것이 이 기간 동안 내가 이뤄 놓은 공이라면 공이랄 수도 있겠지요.

S형! 나는 적어도 교육에 있어선 처음부터 규정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정훈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문화교육 내무반장교육, 기타 등등해서 무려 스무 시간이 가까운 터에, 비행단과 같은 상황 아래서 신이 아닌 다음에야 이걸 무슨 재주로 다 해냅니까?

그래서 나는 격주마다 한 시간씩 내무반장 집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내깐엔 내무생활의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서 내무반장들로 하여금 정훈교육에 관심을 높여 가도록 할 의도에서였습니다. 아직은 시행착오의 과정이니까 결과가 어떻다고 측정하기 곤란하지만, 아무튼 여러모로 도움이 된 건 사실이지요.

그 한 예가 100여 명이나 되는 내무반장들과 이제는 아주 친밀한 사이가 되어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을 서로 토론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니까.

교육에 대한 반응이 어떻다거나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처지로서는 사병들의 '키 멤버'라 할 수 있는 내무반장과 이처럼 가까워졌다는데 대해 커다란 수확을 거둔 것이라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S형! 지금부터 나는 정훈에 무관심한 지휘관이나 장병들을 어떻게 하면 '나'와 가까이 접근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유의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medeir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 같군요. 장래에 대한 성과는 미정이지만 어쨌든 나는

지금 앞날을 위해서 자기 PR이 필요한 때이니까 한번 모험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제3신(信)]

S형! mass-com의 놀랄만한 위력을 이번에 직접 체험했습니다. 내 자신의 개인 PR을 하기 위해서, 또 대인접촉(對人接觸)을 보다 넓게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media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지는 이미 오래 됩니다.

나는 이렇게 착안(着眼)하자 우선 대내보도(對內報道)에 주력(注力)을 두고 부대 PR을 위한 것이라면 대소사를 가리지 않고 기사화했습니다.

「공군위클리」지에 십전비관계기사(十戰飛關係記事)가 많은 지면을 차지하게 되니까 장병들도 자연히 관심을 갖게 되어서 시나 수필, 단편 같은 걸 써가지고 와서 꼭 좀 게재되도록 힘써 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말이지, 투고하는 작품이라는 게 거의 형편없는 수준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오리온 아가씨의 「교환양(交換孃)의 수기」와 시 한 편을 골라 내가 창작하다시피 고쳐서 「위클리」에 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사자들은 '자기'의 작품과 이름이 활자화했다는데 퍽 신비감을 갖는 모양이어서 여간 기뻐들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가씨 덕택으로 교환양들이 정훈관 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되고 서울이나 시내 통화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덜커덕 됩니다.

요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대대(大隊)의 조그만 행사, 예를 들면, 대대장 이취임식, 대대비행안전회의 같은 걸 비롯해서 별로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 선행, 미담의 주인공이 속출, 이를 취재해 달라는 전화가 귀찮을 정도로 옵니다. 이런 경우 '사실의 보도'만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더군요. 우리들이 OJT 받을 때에 '사실의 보도'만이 기사로서 생명을 갖는 것이며, 또 이것이 보도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귀가 아프도록 들어 왔지만, 막상 실무부대에 와서 보니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S형! 내가 온 지는 불과 몇 개월 밖에 되지 않고 또 계급은 비록 '소위'지만 많은 고급장교와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장교들은 꿈도 못 꿀 일을 정훈장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많습니다. 나는 이 동안 몇 분의 대대장을 골라 「위클리」지에 연재하였는데, 모두들 자기 PR이 싫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개인 프로필을 나쁘게 쓸 수야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일반적인 뉴스 취재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사말미에 대개 내 이름을 넣는 걸 잊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무슨 공명심에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게재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겠다는 사감(使感) 때문에 그런 것은 더구나 아닙니다. 될 수만 있으면 우리 부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을 보다 더 많이 알게 하고 또 내가 '그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곳에 처음 와서 고아처럼 외롭던 일을 생각해 보면 벌써 내게도 많은 후견인들이 생긴 셈이지요. 많은 전우들이 나를 돕고 있는 한 나는 결코 고독하지 않을 겁니다.

S형! Line 정비사들의 거치른 얼굴에 차츰 활기가 돌고, 쌓였던 눈덩이가 자꾸만 스러지는 걸 보면 봄소식도 문턱에 왔나 봅니다.

[제4신(信)]

S형! 두려움과 불안속에서 막연히 기다려졌던 창단기념행사를 무사히 끝마치고 나니 한숨을 좀 돌릴 것 같습니다. 실상 정훈행사로서는 별로 크게 벌린 것도 없지만 행사진행경험이 전연 없는 나에게는 꽤 벅찬 부담이었으며, 준비기간을 한 달 남짓이 잡았는데도 하는 일마다 틈이 생겨서 당초계획을 여러 번 변경해야 했습니다.

사진전시회만 해도, 처음에는 전지(全紙) 60점을 계획했던 것인데 전시작품의 소재가 비슷비슷한 것이 많고, 또 전시판(展示板)을 제작할 자재지원이 뒤따르지 않아 결국 사진규격을 11×14 이상 여러 종류로 나누고, 작품수도 40점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사진전이 의외로 호평을 받게 되어 나는 마음속으로 여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창단기념사를 계기로 안에서 뚜렷한 일을 한 것은 없어도 대외적으로는 많은 지방유지급 인사와 언론인들을 알게 되었다는 게 무엇보다도 기꺼운 일입니다.

S형도 알다시피, 재경부대의 대외보도나 섭외관계는 모두 본부에서 맡고 있으니까 대민관계에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을 것이지만, 이곳에서는 사정이 아주 달라서 어떻게 기자들을 솜씨 있게 다루느냐에 따라 정훈관의 역량이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소홀히 돌려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곳 S시만 하여도 기자의 총수가 어중이떠중이 합쳐서 백여 명 가량 헤아리는데, 내가 아는 정도는 지사장 급을 포함해서 3천5백 명 내외에 불과합니다. 하기야 자기들끼리도 얼굴을 서로 모르고 지내는 판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어쩌다가 단장 이름으로 막걸리 파티라도 있게 되면 불청객들이 기자랍시고 우루루 몰려오는 데는 정말 질색이지만 보통 있는 일이고, 어느 때 다방에 볼 일이 좀 있어 들르게 되면 의례히 몇 사람씩의 찻값을 곱게 물리는 것도 알고 보면 모두 이 양반들입니다.

정훈장교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의 보도가 두렵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을 굽혀가면서까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좋은 낯으로 대해야 하니 그게 보통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S형!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곳에 K라는 아주 걸물의 여기자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도 우리 또래고 얼굴도 그렇게 미운 편은 아닌데, 성격으로 봐선 남자도 그런 사람이 드물 정돕니다.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는데 다짜고짜로 악수를 청하고

"김형이시랬죠? 아직 총각이시랜, 우리 연애 좀 해 봅시다."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응수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한참 쩔쩔 맸습니다. 나주에 들은 얘기지만 이 정도는 이도 안난 것이고 술도 정종이면 반 되 주량은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녀와는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며 비행단 일이라면 그도 애써 돌봐 주고 있습니다.

S형! 이젠 완연히 봄입니다. 아카시아 꽃잎이 한창일 때면 우리도 꽤 성숙해 지겠지요. 이번 창단 기념식 때 H상사가 단장 표창을 받았다는 걸 알려 드립니다.

떳떳한 생활이 그리워

수 기

-어느 도망병의 수필-

김승언(金勝彦)
<공군병장>

비겁한 순경(順境)의 생활보다 떳떳한 역경(逆境)의 생활이 한층 값진 것임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도망병의 수기를 쓰게 될 줄이야 꿈에라도 생각했으랴. 그러나 나의 이 고백이 다른 전우들로 하여금 또 다시 나와 같은 순간의 실수를 범하여 불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의 기쁨은 없겠다.

× × ×

충청북도의 고요한 충주 땅은 나의 조상 때부터 살아온 포근한 고향이다. 나는 어릴 때 어머님을 일찍 여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난 외아들이다. 중학교 때부터 고향을 등지고 줄곧 객지생활을 하여온 나는 나도 모르게 객지생활의 분위기가 점차 몸에 스며들어 외고집 통으로 변해 졌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성격은 나의 신상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주위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보단 오히려 나의 고집과 판단에 맡겨버리는 수가 왕왕 있기 마련이었다. 나는 서울에서 K대학에 재학 중 61년 4월 1일 공군에 입대하여 약 3년 동안 성실히 군복무에 임해왔다. 1963년 4월 18일은 나의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내가 외아들인데다가 또 남녀가 20세 전후가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야 된다는 고향의 뿌리 깊은 세습이 나로 하여금 서둘러 결혼을 하게 만들었다. 물론 자의반 타의반 이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의 결혼은 시기가 약간 빨랐다. 나는 그 당시 몇 개월 후면 만기 제대를 할 수 있었는데 집안 어른들의 권유에 따라 결혼하여 버렸던 것이다.

첫 번째 도망

주말마다 특 박 외출을 받아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충주를 왕복하는 것이 나의 꿈같은 낙이었다. 그러나 결혼 초부터 일주일에 한번 씩 찾아오는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나의 처는 애정의 굶주림에서 방황하듯 항시 고독에 젖어 있었고 때론 사사로운 일에 신경질을 부리는 등 차츰 부부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처는 이러한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이 서울로

이사 가서 거기서 새살림을 꾸며 보자고 졸라대는 것이다. 그러나 완강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우리의 요구조건을 허락해 주실 리 없었으니 이날 밤새도록 계속된 가정불화는 나로 하여금 생의 의욕을 상실토록 만들어 버렸다. 처는 처대로 집을 뛰쳐나갔고 나는 나대로 귀대일자가 넘었는데도 귀대치 않았으니 도망병으로서 낙인이 찍혔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로부터 나는 원주, 홍천, 서울 등의 친척집을 전전긍긍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무질서한 생활을 약 2개월 가까이 하고보니 이젠 이런 생활에 지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이때 삼촌으로부터 이런 생활을 하루바삐 청산하고 자수하여 떳떳하고 밝은 생활을 하라는 충고에 따라 51일간의 도망병생활을 거두고 자수했다. 그 후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6개월 징역에 집행유예 1년을 받고 재생의 길을 찾았다.

두 번째 도망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나는 가정을 정리하여 화목한 살림을 다시 시작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가정불화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고 남부럽게 살아 보아야겠다는 굳은 결의로써 얼마 동안을 지냈다. 더구나 나를 아껴주신 대대장님 이하 동료들 특히 내무반 동료들에게 앞으로는 성실한 생활을 함으로써 과거의 실수를 씻어 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렇게 지내다가 제대일자를 10여일 남겨놓고 음력설을 맞아 고향에 내려갔다. 시골에 지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알겠지만 나는 이날 밤 섣달그믐이라 하여 동네 청년들끼리 모여 화투, 술 등을 즐기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정이 넘었다. 새벽녘에 집에 돌아가 보니 자지않고 촛불을 켜놓고 기다리던 처가 그동안 참고 기다리던 울화통을 터뜨린 것이 그만 도화선이 되어 이튿날 정월 초하루 아침까지 계속된 싸움은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데까지 번져가 버렸다. 이제는 세상살이가 모두 귀찮고 조용히 속세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나는 이때 완전히 이성을 잃었으며, 내가 군인이라는 생각도 이미 잊어버렸다. 이때부터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입고 두 번째의 도망병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 길로 홍천에 계신 고모댁을 찾아 거기서 몇 일 쉰 다음 취직이나 장사한다는 등의 핑계로 2만원을 얻어 가지고 서울로 떠났다. 우선 주머니에 현금 2만원이 들어있으니 마음은 든든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심신에 몰려드는 압박감과 초조감은 항시 마음을 불안케 했다. 서울에 올라와서 학창시절에 사귀었던 친구들을 찾아 취직부탁을 하여 보았으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 장사라도 하여보려고 여기저기 쫓아 다녀 보았으나 이것도 마음대로 될 리가 없었다. 나의 소속 부대는 xx에 있기 때문에 나의 부대 장병들을 서울에서 만날 우려가 없었으나 그래도 길을 걸어 갈 때 푸른 모자를 쓴 공군만 보면 나도 모르게 신경이 뾰족 솟아 가슴이 설레는 심정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푸른 제모의 그 공군이 나를 알아 볼 수 있는 소속부대 장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 마음이 가라앉는 반면 나도 저렇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다면 하는 부러운 심정으로 변해버린다.

서울 시내를 이리 저리 방황한지도 어언 3개월이 가까워 왔다. 어느덧 내 주머니도 거의 텅 비다 시피 됐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찾아 갈 것인가? 쿠오봐이스를 연달아 외쳐야 하는 내 심정은 무질서한 생활에서 쌓이고 쌓인 신체적 허약과 어두운 생활에서 젖을 대로 젖은 정신교란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나를 사로잡아 버렸다. 자수를 할 것인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나는 내 앞길을 종잡을 수가 없었다. 자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도망이기 때문에 거기다 3개월이라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중형을 받을 것은 틀림없겠지 아니 그보다 동료들과 상관들을 무슨 면목으로 대할 것인가? 내가 왜 무단이탈을 하여 도망병의 초라한 신세가 되었을까? 그때 그 순간만 좀 참았더라면 나도 사랑스러운 푸른 유니폼으로 거리를 활보할 수 있을 터인데 지금은 누구 한 사람 의논할 데도 없다. 그러고 보니 내무반장 x하사가 가끔 호통을 치며 여러 가지로 주의도 주고 충고도 해주던 때가 정말 행복했다고 느껴졌다. 친구들도 처음 한두 번 찾아 갔을 때는 반가워했으나 이제는 찾아가도 본체만체 꺼려하고 냉대를 하지 않는가. 괴로운 심정을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금방 미칠 것만 같았다. 불안과 초조와 공포는 매일 매일 살과 뼈를 갉아내고 있었다. 이렇게 고민에 쌓여 있던 중 마침 돌아가신 어머니와 제사가 오자 나는 불현 듯 고향생각에 젖어 집으로 내려 잘 궁리를 했다. 그러나 고향에 내려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님께 상의라도 해보려는 결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도망생활 90여일 만에 고향으로 내려갔다. 고향에 내려가자마자 나를 수배한 지서에 즉시 연행되어 xx헌병대에 인계되었다.

재활의 길을 찾아

나는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그러나 현재의 생활이 수개월 전에 방황하던 도망병 생활보다 훨씬 더 즐겁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 마음의 고통과 부담이 없으며, 형기만 마치면 다시 밝은 세상에 나가 떳떳하게 재생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비겁한 순경의 생활보다는 떳떳한 역경의 생활이 더욱 값있는 것임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도망병이 걷는 길은 바로 내가 걸어온 그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상관없다. 결과는 나처럼 된다. 이제 나는 나의 뼈저린 산 경험에서 부르짖는다. 도망의 이유나 동기가 무엇이든 그것이 도망으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도망의 결과는 나처럼 비참하게 된다. 이제 다시는 우리 공군전우들 가운데서 나처럼 불행한 전철을 밟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양심의 고백을 끝맺는다.

<단편>

노을

이규희(李揆憙)

높직이 난 창살너머, 반쯤 내려와 있는 거뭇한 추녀 밑으로 분홍빛 노을이 엉키고 있다.

이곳으로 끌리어 오기 바로 직전 의 사촌 누이가 타다 주었던 그 수박화채 같은 저 빛깔. 가슴이 찌르르 저리어 든다. 너무도 고운 때문일까. 지금의 길우(吉雨)에겐 그 노을이 이상스럽도록 잔인하게 느껴졌다.

눈을 감아 버린다.

고요하다. 기척이 없는 주위가 어쩐지 불안스럽다. 그는 다시 눈을 번쩍 떴다.

껌껌한 방에 되는 대로 뒹굴어져 있는 사십여 명의 육체들. 아직 살아 있다는 듯 멀뚱거리고 있는 눈동자 뿐, 숨결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반사상태의 생명들.

무엇이 꼼지락거리며, 늘어져 있는 손등 위를 지나가고 있다. 노내기란 놈이 출출해 기어 나온 모양이다.

겨드랑에서 따끔한 것 같은 순간, 옆구리가 후벼 파게 가렵다. 반사적으로 어깨를 오뜰 틀었다가, 그는 그냥 지질펀펀하게 누워 나무토막처럼 움직일 줄을 모른다. 물것들에게 그대로 몸뚱이를 통째 던져준 듯.

처음 며칠은 벼룩, 빈대, 노래기 사냥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그러나 이젠 이 생활에 어지간히 무감각해 지기도 했지만 잡을 만한 기력이 없었다.

길우는 창살 쪽으로 눈을 돌렸다. 좀 더 짙어진 노을.

이놈들이 왜 꿈적도 않나?

오늘은 웬일인지 통 내무서원의 모습이 나타나질 않는다.

하루 두 덩이씩 들이밀어 주던 주먹밥도 끊어진지 벌써 이틀, 아니 사흘, 그보다 더 된 것도 같고, 기억이 분명치가 않다.

이냥 굶겨 죽일 텐가?

허기증마저 까마득해진 바짝 탄 입술을 벌린 채, 길우는 생각했다.

죽는구나..

그는 손을 들어 불을 쓸어 보았다. 가죽만 아른거리는데다 구레나룻이 텁수룩하다.

그러자, 배추밑동 모양 턱이 쪽 빤 세모꼴 얼굴이 떠올랐다.

꼭 그놈 때문이지 그놈 때문이야, 개죽음을 하다니, 에잇..

자기를 밀고한 것은 중학교 동창 학성이란 녀석이 틀림없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거기서 그 녀석을 만날 건 뭐람

부대에서 낙오되어, 주막으로 들어가 주인 옷과 바꿔 입고, 남하하던 중, 인민군이 앞지르는 바람에, 독 안에 든 쥐 격이 되고 말았었다. 더는 갈래야 갈 수가 없었다, 곳곳마다 나와 선 보초들의 검문 망을 피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도 따를 수 없었던 것은 인민군들의 전진이었다.

아군의 포성이 점점 멀어져 이젠 들리지도 않게 되었을 때, 길우는 생각다 못해 외삼촌 집을 찾아 지내온 길을 되올라갔다. 자기 집이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몸을 숨기기엔 그쪽이 수월할 듯싶었다. 곧 우방 여러 나라의 손길이 뻗쳐 오면 아군은 다시 북상하게 되리라는 심산에서였다.

읍내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길우는 주춤 걸음을 멈췄다. 등줄기가 꼿꼿하게 서고 푹푹 찌는 폭염도 잊은 듯 머리끝이 섬뜩했다.

불볕이 새하얗게 내리붓는 신작로 저만큼 앞에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얼굴.

순간. 아주 짧은 그 순간. 두 사람은 시선을 비키었다. 그리고는 마치 햇살을 피하듯 어색하게 비틀걸음을 쳤다.

그러나 어느 샌지 두 사람의 눈길은 다시 얼크러지고야 말았다.

"아니, 이거, 학성이 아니냐?"

길우는 자기 목소리가 몹시 괴로움에 시달려 나오는 것을 느꼈다. "정말"

빙긋이 웃는 학성의 그 유난히 뾰죽한 턱이 떨리고 있음을 길우는 보았다.

"웬일이지?"

"정말"

학성은 말문이 막힌 듯 대답을 못하고 연신 똑같은 탄성만을 되풀이 했다.

"참 오랜만이구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

길우는 언젠가 휴가 때, 장터에서 만났을 적과 다름없이 빼빼 말라있는 학성을 쳐다보고 말했다.

"정말 너두 고대루야"

학성은 말을 더듬으며, 길우 자신의 모습을 아래 우로 훑어 살피었다. 그의 시선이 너무도 오랫동안 제 몸에 머물러 있음을 깨닫자, 길우는 통이 좁아 어거지로 꿰어 입은 저고리를 앞섬을 눌러 여몄다. 등골에 찬물이 스치는 듯 했다.

"자, 그럼 가 보렴, 바빠 놔서."

어물어물 주어 섬기고 길우는 발자국을 옮겨 놓았다.

"그럼."

학성은 여전히 무언가 미진한 듯한 표정으로 그를 쏘았다.

돌아서서 쳐다보는 학성의 눈초리를 느끼며 길우는 허둥지둥 걸었다. 학성이가 두려웠다. 자기의 정체를 알고 있는 학성으로부터 빨리 도망치고만 싶었다.

그는 외삼촌 집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마루 밑에 구덩이를 파고 숨었다.

그러나 얼마 못가 그는 내무서원들의 손에 끌리어 나왔다.

<그놈이..>

죽음이라는 커다란 아구리를 향해 송두리째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지금, 길우는 학성의 환영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노리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내무서원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었고, 마침내 자기를 찾아 내놓고 다그친 첫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고 그는 생각했다.

"남조선 괴뢰군 장교였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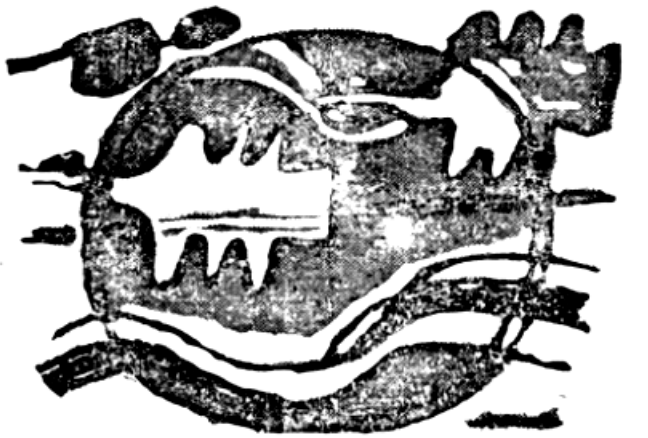
총 뿌리를 덜미에 들이대고 웃어 제끼던 기고만장한 그 목소리.

어떻게 그토록 단박 자기 신분을 알아맞힐 수 있단 말인가.
누구의 밀고를 받기 전에야.
분명, 그놈, 그 학성이 짓임에 틀림없다고 그는 단정했다.
이놈이 지금쯤은 고향 동네에서 활개를 치고 살판 난 듯 날뛸 것을 상상하자, 길우는 눈 속에서 불꽃이 튀는 듯 했다.
"속알 머리 없는 놈 같으니"
하필 이웃에 사는 자기를 미워할 건 뭔가 싶어 새삼 괘씸한 생각이 치올랐다.
재학 중에도 비슷한 성적에 학성은 늘 길우를 겨누어 이를 갈고 공부를 했다. 사내답지 못하게 노트 필기를 할 때도 곁에 앉은 길우가 보지 못하도록 손으로 가리고. 물론 길우 자기도 학성이 못지 않게 지지 않으려고 시새웠었다.
졸업하고 시골에만 박혀 있던 학성은 그때의 마음을 그대로 꼬누고 있던 것이 아닌가.
둘이서 마주쳤을 때의 그 당황하던 모습.
저도 동네에서 반장을 지내 먹었으니 멀찍이 몸을 피해 달아나는 길이라 그러는 줄만 알지 않았던가. 그 이면에 무서운 독이 숨 쉬고 있었던 것을.
큼지막한 제물을 하나 잡아 받치고, 그 대가로 동네에서 또 무슨 감투를 쓰고 의젓하게 지낼 학성이.
길우는 어금니를 악물었다.
나가기만 하면, 살아서 이 감방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그놈, 그 학성이 놈을.
결코 그대로는 두지 않으리라 길우는 마음속에 몇 번이고 매듭을 졌다.
그러다가도 의혹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었다.
"설마, 학성이가"
하지만, 그 가느다란 의혹 뒤엔 더욱 더 굳어지는 보복심에 그는 떨었다.
남쪽으로 밀리어갔으리라 고만 들 알고 있을 자기의 숨어있는 곳을 누가 꼬집어 내었단 말인가. 변소 가는 길에 옆집 영감과 담 너머로 몇 번 얼굴이 마주친 것이 깨름 하긴 했지만, 그는 자기와 생판 모르는 사이가 아닌가.
갑자기 구린내가 코를 찌른다.
모두들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인다. 길우는 손으로 코를 막았다.
구석에 놓인 똥통에 누구인지 엎드려 있는 것이 얼핏 눈에 띄었다. 내리 굶어도 창자에 무엇인가 들어 있었던 모양. 뚜껑도 없는 똥통이었지만, 새로 누는 냄새는 더 참기 어려웠다.

길우는 코를 막은 채 생각했다. 자기는 언제 똥을 누었던가. 주먹밥이 끊어진 이후, 한 번도 뒤를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러자, 이제 더 뱃속에서 무엇을 뽑아낸다면 자기는 영 죽고 말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덮어 눌렀다.
"이렇게 오스라니 굶겨 죽이다니. 혹시, 무슨 변동이라도?"
그는 기어 일어나 복도로 난 창살을 끌어 잡고 바깥 동정을 살폈다. 긴 복도와 닫혀 있는 유리창.
멀리서 울리는 발자국 소리와 두세두세하는 기척.
사람이 없지는 않은 모양인데, 잠시도 비우지 않던 복도에 따발총 멘 간수가 나타나질 않는다.
"이놈들이 몽땅 쫓겨 달아나게 생겼나?"
희망이 번득이는 듯했지만, 길우는 다시 바닥에 허리를 깔고 늘어져 버렸다.

확 확 끼치는 열기에 길우는 잠을 깼다.
주위가 온통 분홍빛이다.
잠결에 노을인가 했지만, 다음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났다.
"우와"
옆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자, 바닥에 깔아져 있던 사람들이 허우적허우적 일어나기 시작했다.
복도 쪽 앞 벽이 시뻘겋게 타들고 있었다.
팔을 쭉 쭉 내뻗으며 맹렬하게 기세를 울리고 있는 불길 속에 검게 드러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미친 듯 날뛰었다. 어느 것이 불줄기고 어느 것이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불길이 그대로 몸뚱이를 싹 싹 핥아갔다. 사람들은 모두 뒷벽으로 달라붙었다. 높다란 창살을 잡으려고 아우성을 쳤지만 닿지 않았다.
어느새 불길은 방안을 뺑 돌고, 천장까지 이글이글 타며 무너져 내리고 있다. 바람결처럼 사납게 타오르는 불기둥. 붉다 못해 검은 화염의 소용돌이.
사람들은 활활 타드는 입구 쪽으로 내뛰기 시작했다. 한 걸음도 못나가 퍽 엎어지고, 그 위에 또 덮쳐 쓰러지고.
"우와아악"
악을 쓰며, 앞 사람을 밀치며 나가려고 덤벼드는 길우의 무릎에 무엇인지 탁 걸리었다. 똥통이었다. 순간, 번갯불같은 것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길우는 그 통을 번쩍 들었다. 찰름거리는 똥물을 입구쪽으로 좌륵 끼얹었다. 그러나 불길은 물러가지 않았다.
길우는 재빨리 통을 뒤집어쓰고 닥치는 대로 뛰쳐 달리기 시작했다.

이를 악물고 무작정 뛰었다.
무엇인지 딱 머리를 치받았다. 더 앞으로 나가려고 버둥 겼지만 앞이 막히어 말을 듣지 않았다.
얼마를 실갱이 쳤는지 알 수 없었다.
시원한 바람결이 몸에 닿는 것 같고 아랫도리가 온통 쓰리고 아파왔다.
길우는 조금씩 통을 위로 들어 올려 보았다. 자기의 두 다리는 검푸른 풀 섶에 묻혀 있질 않은가. 그제야 그는 통을 홀러덩 벗어 제 꼈다.
앞에 둘려 쳐 있는 철망 울타리를 잡고 주위를 둘러본다.
멀리 회색 산줄기 위로 불그레 노을이 끼고, 맑게 틔어오는 새벽하늘 아래로 잔잔한 굽이를 만들며 펴져 있는 시가지 복판에 높이 솟아 펄렁거리고 있는 깃발. 그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 태극기가 아닌가.
인민군은 불 지르고 달아나고, 밤새 국군이 입성한 모양 같았다. 자기의 예상이 너무나 일찍이 이루어져 있었다.
그는 뛰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때다.
불길이 무섭게 하늘로 뻗쳐오르고 있는 감방 쪽에서 누구인지 통을 쓰고 이편으로 달려오고 있지 않는가.
"벗어! 통 벗으란 말야."
길우는 배에 힘을 주며 외쳤다.
그러나 그 사람은 못 들은 듯 내쳐 뛰기만 한다.
"벗어! 벗으라니까"
길우가 쫓아 갔지만 너무나 빨라 잡히지 않았다.
"벗으라는 데두"
길우는 뒤따르며 잇달아 소리쳤다.
그러나 그 사람은 풀이 우부룩한 마당을 끝까지 달려, 길우의 경우처럼 철망에 가 걸리었다.
길우는 가까이 가서, 미처 벗지 못하고 있는 통을 훌쩍 들어 빗겼다. 눈만 반짝이는 시커멓게 그슬려진 얼굴. 불길이 불그름 비치는 그 얼굴은 깎은 듯 날이 선 세모꼴이었다.
"너, 너.."
길우는 중얼거리며 넋이 나간 듯 서 있는 학성을 와락 얼싸안았다. 그제서야 학성이도 길우를 꽉 끌어 잡았다. 길우는 학성의 뜨거운 체온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단편>

추모

오상원(吳尙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떠한 말끝에 일어나는 그러한 무거운 침묵이었다. 다만 테이블위에 놓인 전기스탠드의, 푸른 색 캡을 이고 사선으로 비치는 불빛만이 반원형을 탁상위에 던지고 있을 뿐이었다.
둘은 묵묵히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빛은 캡의 면사를 뚫고 희미하게 비쳐 나오는 불빛에 젖어 더욱 침울하게 보였다.
"왜 진작 좀 연락을 취해주지 않았어? 인제 와서 유감스럽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
한쪽 남자가 상대편 남자에게 이윽고 입을 열고 무겁게 입속에서 한숨을 죽였다.
두 시선은 잠시 어둠속에서 서로 마주쳤다. 그것은 서로를 원망하는 그러한 눈빛이었다. 마주쳤던 두 시선은 서로 다시 물러섰다.
"나도 그럴 생각이었으나 그녀가 결코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오."

상대방은 침울한 어조로 천천히 말하였다. 삼십이 너덧 넘어 보이는데 비하여 먼저 입을 연 쪽은 인제 겨우 삼십이 되 보일까 하는 청년이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는 것과 함께 청년의 시선이 상대방의 침울히 젖은 얼굴 위에 가 박혔다.
"그럼 왜 지금 와서?"
날카로이 빛나는 청년의 눈동자위에 살 풋 그늘이 한 점 스쳐가며 물기와 함께 흐렸다. "그것도 그녀의 부탁이었소."
상대방은 퍽 침착하였다. 수많은 연민과 비애가 걷힐 대로 걷혀간 뒤에 오는 그러한 마음의 무거움에서 오는 침착 – 아니 정숙이었다.
"왜 그토록 연락을 거절하던 그녀가 하필?"
청년의 얼굴에는 의문의 그림자가 가득 차 있었다.
"나도 모르겠소. 임종하기 바로 직전 그녀는 내 손을 더듬었소.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것 같기에 입가에다 귀를 기울였더니 '상혁씨 상혁 씨에게 제가 숨을 거두었다고 전하여 주세요.'하고 시골에 있는 김형의 주소를 가르쳐 주었소."
상대방은 말끝과 함께 무겁게 한숨을 입속에서 죽였다. 그리고 청년의 얼굴빛을 힐끗 살피었다. 청년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고 있었다. 잠시 후 청년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소리 없이 주루루 뺨을 스치며 흘러내렸다.
"그리고 또?"
청년은 그녀가 임종 시에 한 다른 말들을 듣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것뿐이었오."
상대방은 무겁게 말하였다. 적의에 찬 청년의 시선이 그러한 상대방의 표정을 잠시 훑어갔다.
"그것 뿐이 아닐 거요. 또 딴 말이 있었을 거요. 당신은 그 말을 나에게 물론하고 싶지가 않을 거요. 왜?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소.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 더욱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임종 시에 자기 아닌 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의 그 실망과 비애는 너무나도 컸었을 테니까……."
청년은 겸연쩍은 웃음을 연상 지어가며 상대방에게 도전적인 말투로 말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 아니 정숙이 그대로 흐르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청년은 일종의 불안감에 사로 잡혔다. 청년은 이 적수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고 생각하였으나 도리어 그 공격의 화살이 표적을 뚫지 못하고 부러지고 말았기 때문이었다.
청년은 몹시 초조하였다. 그것은 일선지구에서의 자기

모습의 한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는 격렬한 전투가 지나간 다음이라든가 또는 다음 전투를 위하여 어떤 산간에서 일주일 열흘 휴식하고 있을 때 동료들과 함께 계곡에 가서 사격연습을 하는 수가 있었다.
그는 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바위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다. 바위에 명중되는 순간 표면이 부스러지면서 날카로운 금속성과 함께 총탄이 사선을 그으며 공중으로 튀어나갈 때 그는 무언가 지금껏 가슴에 맺혀있던 무겁던 감정이 허공 속으로 터져 나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오는 것은 더욱 초조하게 가슴속으로 조여드는 불안감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참기 힘든 것이었다. 그렇다고 그는 초목이나 또는 만들어 놓은 표적을 쏘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은 너무도 반응이 없기 때문이었다. 총탄이 간 자국도 없이 푹하고 잠깐 일어나는 흙 연기와 함께 사라지는 그러한 것은 싫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위를 쏘는 것이었다.
그는 또 방아쇠를 당겼다. 이번에도 총탄은 멋지게 정면 표면에 명중하여 돌부석지와 함께 위웅하고 방향을 전환하며 세차게 튕겨나갔다. 바위는 까딱도 없었다. 그 순간 그는 다시 가슴속으로 육박하여 오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리고 총탄에 부서지는 바위표면처럼 자기가슴속의 일부가 작렬하는 총탄에 부서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다음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잊었다. 그는 연달아 바위를 향하여 방아쇠를 마구 당기고 있었다. 그는 연달아 바위를 향하여 방아쇠를 마구 당기고 있었다. 뒤이어 초연과 함께 바위표면에 부서지는 탄혼과 허공으로 튀어나가는 총탄, 어깨 위에 격렬하게 이어오는 개머리판의 진동, 바위에 부서지는 수많은 탄혼처럼 그의 가슴속에도 부서지는 수많은 탄혼이 연달아 흩어지는 것이었다.
그는 개머리판을 어깨에서 내렸다. 그의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이 흐르고 전신이 세찬 물결 속에서 뛰노는 것처럼 고동하고 있었다.
무너져가는 젊음, 무위한 행위 속에 발광하는 자기 모습이 눈앞에 떠오르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금 상대방 앞에 그러한 자기 모습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는 생각하였다. 전선에서처럼 나는 이 곳에서도 무위한 행위 속에 발광을 계속하여야 하는 것인가.
그는 상대방의 얼굴을 힐끗 바라 보았다.
"그녀가 숨을 거둘 때의 광경을 좀 얘기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
상대방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 대신 그를 마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담배를 꺼내었다.

"우리 담배나 태웁시다."
상대방의 내미는 담배를 그는 거절할까 하다가 그냥 받아들었다. 상대방도 담배를 한 대 꺼내어 물었다.
담배 연기와 함께 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형이 그녀를 퍽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소."
상대방은 담뱃재를 재떨이에 조용히 떨구며 말을 이었다.
"나 역시 퍽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오."
두 시선이 또 마주쳤다. 상대방의 시선은 어둡게 흐려있었다. 그러나 청년의 시선은 퍽 적의(敵意)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우리 둘 중 누구를 더 사랑하였나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요."
청년은 날카롭게 말하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우리와는 유명을 달리하고 있어. 지금 와서 그것을 따졌대야 무얼 하겠오. 당신이나 나나 같이 사랑하던 그녀에 대한 생각이나 서로 나누며 명복이나 빕시다."
상대방은 그녀의 생각이 다시 가슴속에 솟는 듯 눈을 내려 감았다.
청년은 담배를 부벼 껐다. 상대방의 말이 도저히 수긍되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그녀가 왜 죽어야 했는지를 알고 있소."
청년의 말이 끝나자 두 시선이 또 어둠속에서 석연치 않은 벽을 이루면서 마주쳤다.
상대방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다가 혼자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아마 그 책임을 피하지는 못 할거요.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면 왜 그녀가 자살을 해야만 하였 겠오. 그러고 보면 어쩌다 당신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까지는 하였다 하겠지만 그녀의 마음은 항시.."
청년은 말끝을 흐리며 상대방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상대방은 말없이 시선을 다시 떨구 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적막이 조용히 깔려 있었다.
"물론 그녀는 자살을 하였오. 그러나 누구에게도 그 책임은 묻지 말기로 합시다. 그 대신 우리 서로 만난 기회에 그녀에 대한 좋은 이야기나 같이 주고받읍시다. 서로 자기가 그녀를 아는 범위에서. 그러면 그녀도 무덤 속에서 더 없이 기뻐 할 거요. 자기를 사랑하여 주던 사람들이 서로 마주 앉아 자기와 지냈던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죽은 사람으로선 그처럼 감사한 일이 없을 거요. 서로 적의를 품고 싸우는 것 보다는.."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조용한 태도로 말하였다. 그러나 청년은 겸연쩍은 웃음을 입가에 흘렸다. 그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기와 그녀가 학생시절부터 얼마나 서로 사랑하였고 또 순결한 애정을 서로 나누어 왔던가를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사변으로 인하여 불행히도 그들은 헤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녀가 모진 세파에 전전하다 끝내는 다시 상봉하였으나 결합될 수가 없게 되어 드디어는 상대방에 의하여 자살의 경지에 까지 들어가게 되었나를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살하게끔 된 책임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고 스스로 가책의 쓰라림을 받게 하고 싶었다.
그는 확실히 그녀가 죽을 때 자기를 찾았고 자기의 죽음을 전하여 달라고 한 그 사실로써 그녀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자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의 마음은 참으로 벅찼다. 그녀와 지난 과거의 아름다운 가지가지가 꼬리를 물고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가는 것이었다.
처음 그녀와 만나던 일, 그녀와 같이 가슴을 울리면서 교외를 산책하던 일, 그는 말하기 시작하였다.
상대방은 조용히 담배를 피우면서 듣고 있었다.
"나는 몹시도 그녀의 눈동자를 사랑하였고 그녀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기보다도 그녀의 눈동자만을 쳐다보기를 즐겼습니다. 조용히 그녀의 눈동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그녀의 맑은 눈동자 속에 들어있고 그녀가 그러다가 눈을 감으면 나는 마치 그녀의 눈동자 속에 영원히 잠겨져 들어간 것 같은 행복감에 도취되어 버리는 것만 같았었오."
그의 말은 끝일 사이 없이 계속되었다.
아! 지금도 가장 생생하게 기억 속에 떠오르는 그날 밤. 그것은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하숙집을 방문한 날 밤이었다.
잠옷을 걸친 채 찾아온 그를 발견하자 깜짝 놀라는 그녀의 얼굴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등진 전등불빛에 가리워지면서 희미한 어둠 속에서 떠오르는 그녀의 그늘진 얼굴은 쳐다만 보기에도 만족스러운 것이었다. 그는 그 이상 더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바라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문 앞에서 숨은 채 그녀의 얼굴만을 언제까지나 황홀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잠깐 누추하지만 들어오셨다 가지죠."
그녀는 상냥스러운 눈 웃음을 쳐가며 말하였다. 상혁은 가벼이 고개를 저어보였다.
"왜요"
"조용히 이대로 십분만 있게 해주십시오. 말없이 지금의 정연씨 얼굴만을 쳐다보고 싶습니다."

상혁의 마음은 지금의 이 상태가 서로의 대화 때문에 흩어지지 않기를 원했다. 말 없는 속에 이 순간이 그대로 지속되어 주기만을 원했다.

"아이, 남이 보면 이상히 생각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는 입속에서 나즉히 속삭였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얼굴 하나 가득히 받으며 살포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잔잔한 웃음이 그대로 감돌고 있었다. 어두운 문밖에서 그녀의 어깨 너머로 처지는 희미한 광선을 한쪽 뺨 위에 받으며 황홀한 듯 말을 잊은 채 자기를 바라보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을 그녀는 이처럼 마음속에서 가까이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

아름다운 황홀감이 다시금 그녀의 가슴속에서 잔잔한 호수가의 수면이 어쩌다 지나가는 바람결에 흩어지는 잔물결처럼 조용히 가슴속에서 흔들렸다.

그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자기감정을 종합치 못하는 듯 창가로 가서 조용히 머물러서며 달빛이 은은히 내려 비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잠시 그녀의 등 뒤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지키고 있던 그는 하얗게 살결이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위에 손을 얹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동요의 빛도 없이 그대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러한 그녀의 옆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녀에게로 더욱 다가섰다.

그 어떤 욕망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고무풍선처럼 그의 마음을 뒤덮었다. 그는 그녀의 허리 위로 손을 돌리며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 순간 그녀의 전신이 자기 몸 위로 겹쳐 왔다. 엷은 파자마의 깃을 통하여 이어오는 풍만한 살결의 부드러운 감각. 감미하게 풍겨오는 살결의 냄새.

그녀의 몸은 완전히 그의 품안에 있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황홀하기만 하였다.

그녀의 호흡소리가, 자기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조용히 죽이는 그녀의 호흡소리가 따뜻한 입김과 함께 가슴속으로 들려 오는 것만 같았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달빛에 젖어 윤이 흐르는 까만 그녀의 머리카락을 그는 자기 뺨 위에 가져다 대어볼 수 있었다. 참으로 부드러운 촉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향기가 더없이 가슴에 흐뭇하게 젖어드는 것이었다.

"정원씨.."

그는 잠시 후 입술을 그녀의 옆머리에 대인 채 이렇게 속삭였다.

"..."

그녀는 대답 없이 고개를 약간 그의 가슴에서 들어 보였다.

두 시선이 달빛 속에서 부드러이 마주쳤다. 맑게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가 살며시 겹치는 속눈썹 사이로 스러지면서 반짝 빛났다.

상혁은 그녀의 전신을 꾹 껴안았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한 그녀의 모습이 무언지 모르게 신비스럽게만 느껴졌다. 다음 순간 그는 달빛을 가로막으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얼굴 위로 자기의 얼굴을 파묻었다.

두 얼굴은 점점 거리 없이 겹쳐져 갔다. 그는 마치 깊은 산속에서 샘터의 맑은 물위에 조심스러히 입술을 얹어 가듯이 그녀의 입술위에 자기의 입술을 얹어갔다.

입술과 입술위에서 두 얼굴은 말없이 겹쳐졌다. 다만 숨소리만이 조용히 두 얼굴을 가리우고 흘러올 뿐이었다.

그녀의 조그만 입술은 부드러우면서도 뜨거웠다. 그는 그러한 그녀의 입술에 자기의 입술이 닿았다는 사실이 무한히 신비스럽게만 느껴졌다.

그는 약간 고개를 들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눈을 내려감은 채 떨리듯 방긋이 열린 그녀의 입술사이로 하얀 이빨이 소곳이 들여다보였다.

잠시 후 그는 그녀의 속눈썹이 눈물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원씨.."

하고 나즉히 불렀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뜨고 그를 마주보았다. 맑은 그녀의 눈동자는 눈물에 가득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다시 속눈썹 사이로 젖어들면서 반짝 빛났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에는 웃음이 하나 가득히 떠돌고 있었다.

참으로 순진한 처녀가 처음으로 남성에게 보내는 순결한 눈물이었다. 그리고 순결한 웃음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끝일 수 없이 이어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같이 아름다운 것이었고 순결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쟁은 이처럼 아름답던 우리들의 애정을, 그리고 우리들의 기대를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당신과 만난 이후로.. 더욱이 왜 자살에 까지 이르러야 했는지를 알고만 싶습니다."

청년은 말을 끝마치고 상대방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번 노려보았다.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상대방의 얼굴에는 적막이 그대로 물을 끼얹은 듯이 흐르고 있었다.

"참으로 좋은 얘기였오."

상대방은 나즉히 청년에게 담배를 권하였다.
그리고 같이 담배를 피어 물며 말을 이었다."그리고 보니 당신은 그녀를 사변 전에 사랑했고 나는 사변 후에 사랑한 셈이 될 거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은 말을 계속하려다 곧 중단하며 담뱃재를 조용히 털었다. 청년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다 마는 것인가 하고 상대방에서부터 시선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상대방은 좀처럼 말을 계속하려는 눈치가 아니었다.
잠시 침묵. 참으로 무거운 침묵이었다. 청년은 다시금 초조감에 못 이겨 담배를 부벼 껐다.
어디선가 한 점을 치는 괘종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깨치고 들려왔다. 또 다시 무겁게 덮이는 침묵. 청년은 괘종소리가 다시 한번 쳐 주었으면 싶었다.
"사변 전엔 확실히 그녀가 당신을 사랑했을 거요. 그러나 사변 후엔, 나를 만나기전엔 모르지만 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그러나 그런 얘기는 우리 그만두기로 합시다. 그것보다는 당신이 그녀를 만났을 때부터 얘기한 것처럼 나도 그녀와 만나던 그때부터 얘기하는게 더 흥미로울 거요. 어떤 나일 클럽에서였소. 그녀는 몹시 술에 취해 있었오. 나도 술이 약간 취했다고 생각되는데..."
상대방은 그때를 회상하는 듯 잠시 허공에 눈을 주고 있다가 다시 시선을 서서히 떨구며 담뱃재를 털었다.
"아마 복도에서 였을 거요. 화장실엔가 갔다 오는 길이 었을 거요. 어떤 남자하고 말다툼을 하던 그녀가 상대방의 붙잡는 손을 휙 뿌리치며 돌아서려다가 술김에 휙 나한테로 넘어져 왔오. 나는 기계적으로 그녀가 넘어지지 않게끔 양 팔을 붙들었오. 나는 마땅히 곧 그녀가 몸의 중심을 가누며 바로 설 줄만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오. 그녀는 도리어 내 품안에 몸을 안기듯이 기대며 밤거리의 여자들이 하듯이 요염하게 추파를 던지는 것이었오. 그러면서'선생님, 오늘밤 저를 어디로라도 데리고 가 주세요. 모든 것이 귀찮아졌어요. 돈은 필요없어요.'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무런 대답없이 고개를 저으며 그녀를 나의 품에서부터 일으켜 세웠오.'흥! 점잖을 빼시면 어느 계집이 공짜로 붙을 줄 아세요? 그만 한건 알만한 나이가 돼 보이는데 보기 보다는 무척 어리시군!'하고 내 손을 휙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가버렸오. 이것이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요. 그 다음날 길가에서 였오."
상대방은 담배연기와 함께 숨을 길게 내쉬었다. 청년은 묵묵히 시선을 떨구고 듣고 있었다. 광화문 네거리에서였다. 우연히 그들은 길가에서 마주친 것이었다. 어젯밤 보다는 그녀는 퍽 초라해 보였다. 그러나 어젯밤에 비하여 어딘가 퍽 기품이 있어 보였다.
그녀도 상대방을 알아보는 눈치였다.

한두 마디 겉 인사가 오고간 다음 그들은 누가 먼저 말을 건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곳에서 가까운 어느 다방으로 들어갔다.
봄과 함께 새로이 단장된 다방이었다. 묘하게 선과 곡선으로 데코레이션이 이어간 곳곳에는 봄 기분을 담뿍 실은 여러 가지 꽃들이 아담하게 화병에 배열되어 있고 부드러이 음악은 봄비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아득히 적시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레지가 올 때까지 그들은 서로 얼굴을 한번 마주 보았을 뿐이었다.
"무엇 드시겠어요?"
남자 쪽에서 그녀에게 물었다.
"커피"
그녀는 조그만 입술 사이로 하얀 이빨을 약간 드러내 보이며 대답하였다. 어젯밤과는 달리 퍽 창백한 얼굴 탓인지는 몰라도 인상이 온화해 보였다.
"커피 둘."
레지가 물러가자 둘 사이에 잠시 어색한 순간이 흘렀다. 그녀의 안색은 싸늘히 식어 있었다.
"어제 그 나이트클럽에 나가시나요?"
"..."
그녀는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어색한 순간이 흘러갔다. 그는 공연히 그러한 질문을 하였다고 후회하였다. 아무리 밤에는 그러한 곳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다시 묻는 것은 그녀를 모독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레지가 커피를 가져왔다. 그녀는 커피를 따르기 전에 커피 잔에 있던 설탕을 모두 따라내었다. 커피 포트를 기울이는 레지의 손과 함께 커피향기가 흐뭇하게 두 사람의 코에 스몄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모습만 지키고 있었다.
"드시죠"
"..."
그녀는 대답 없이 쓸쓸히 웃었다. 나는 스푼으로 커피를 저으며 다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차를 조금 마시고 내려놓으며 그를 보고 약간 웃음기를 띠어보였다. 그 빨간 조그만 입술가에는 커피 물기가 잠잠히 흐르고 있었다.
"아주 '블랙' 이군요"
나는 넌지시 말하였다.
"네, 믹스하면 커피 맛이 나질 않아요. 블랙을 하면 까만 커피의 향기가 언제까지나 입가에서 감도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생활도 이렇게 단순한 속에 향기로우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생활이란 아마 그럴 수는 없는가 보죠."

그녀는 나즉한 음성으로 혼잣말처럼 말하였다. 그 음성은 그녀의 표정처럼 싸늘하고 차가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들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그녀를 쳐다 본 것이다. 어제 밤 그녀가 하던 말에 비하여 지금 이 말은 너무도 고귀한 여운을 풍기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저도 바로 그랬으면 싶습니다"

"그러세요."

그 순간 그녀의 눈 속에는 무엇인가 반짝 빛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이 순간이 있는 이후부터 그들은 맺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자주 만났다. 외로움과 외로움이 서로 엉킬 때 그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결코 서로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또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똑같이 전쟁에 피해 입은 기댈 데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그들이 이루는 출발에 있는 것이지 그들의 과거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해는 새로 이해를 낳는다. 오해는 끝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오직 서로의 입장의 이해만이 필요하였다.

시들대로 시들고 매마를 대로 말랐던 두 사람의 사이에는 점점 따뜻한 서로의 입김과 체온이 오고갔다.

그는 사변으로 인하여 사랑하던 처자를 모두 잃어버린 몸이었다. 그리하여 자포자기적인 자기 생활 속에서 그는 그녀를 만난 것이었다.

그들은 새 살림을 꾸몄다. 그들의 눈앞에는 행복한 그날 그날 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거리에 나왔다가는 꼭 전화를 걸었다.

"저어 김형식씨 좀 대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수화기를 통하여 인제 울려 올 그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저 김형식이 올시다. 어디시죠?"

수화기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굵다란 그의 음성과 함께 그녀의 눈앞에는 굵다란 그의 눈썹 밑에 조용히 빛나는 그의 시선이 떠올라 혼자 빙긋이 웃음이 솟는 것 이었다.

"저어 여보십시오?"

이쪽의 대답이 없으므로 그는 독촉하는 것이었다.

"..."

그러나 역시 대답이 없자

"오-당신이군."

하고 곧 알아차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웃음을 살 풋 던져주곤 하였다.

"저 거리에 나왔어요."

"그럼 몇시에?"

"다섯시반."

"장소는?"

"바로 그 곳, 그 자리."

그들만의 대화는 늘 이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만나 같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그녀의 얼굴을 덮어버린 창백한 그늘은 좀처럼 사라지지를 않았다.

상대방은 조용히 말을 맺고 한숨을 머금었다. 청년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침묵이 물을 끼얹은 듯 둘 사이에 흐르는 속에 석점을 치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런지 두달 후.."

상대방은 말을 멈추었다. 부드럽게 빛나던 눈이 어둡게 흐렸다. 그는 담배를 한 모금 더 빤 후 그것을 천천히 부벼끄며 말을 이었다.

"처음 그녀가 음독을 하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놀라움과 함께 걷힐 수 없는 의혹에 잠겼었오. 왜 자살을 기도하였을까? 그녀의 몸이 퍽 허약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식욕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오. 나는 약간의 부채를 가져가면서 그녀에게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게끔 노력 하였오. 그런 어느 날 밤이었오. 그녀는 술이 약간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오. 당신도 아마 그날을 기억하고 있을거오. 그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어느날 보다 유 다르게 나의 목을 쓸어안으며 나의 품안에 안겨왔오. 그녀는 나의 어깨위에 머리를 묻고 말하는 것이었오.'아! 참 즐거웠어요. 당신은 이해해 주시겠죠? 옛날 애인을 만나 술을 같이 했어요. 역시 인간은 복잡한가보죠. 그이도 울었고 저도 울었어요. 그러나 저는 당신과의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그러면서 그녀는 나의 뺨에 자기의 뺨을 대고 마구 문지르는 것이었오. 그대로 그녀는 울고 있었오. 그러나 그 입가에는 웃음이 연신 감돌고 있는 것이었오. 그때의 그 눈물과 그 웃음..., 당신도 아까 그러한 얘기를 하였었오. 그러나 그 눈물과 그 웃음은 당신이 옛날에 받았던 그러한 눈물과 웃음은 아니었오. 그야말로 수많은 삶의 고비를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느끼는 그러한 눈물과 웃음 이었오. 그녀는 이제 나에게서부터 떠나갔오. 그러나 그녀가 나에게 남기고 간 그 눈물과 그 웃음은 아직도 나의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있오. 아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속에서 살고 있소. 그녀가 자살한 이유를 나는

그녀가 운명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달았오. 당신이 퍽 의아했듯이 나도 처음에는 그랬으나 실은 그것이 아니었오. 간호부를 통하여 들었지만 그녀는 위암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던거요. 도저히 건질 수 없는 자기의 몸, 그로 인하여 늘어가는 나의 부채, 그녀는 나를 더 늘어가는 부채로 인하여 괴롭히고 싶지가 않았던거요."

상대방은 말을 맺고 묵묵히 허공에 잠시 눈을 주었다가 청년을 마주보았다.

두 시선은 서로 마주친 채 헤어지지를 않았다.

"인제 임종시의 얘기를 해 드리겠소. 그녀는 감았던 눈을 조용히 뜨고 나를 쳐다 보았오. 그녀는 시종 웃음을 띄우고 있었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 가까이로 몸을 굽혔오.

'죽는 것같지가 않아요. 아니, 죽어도 나의 죽음을 슬퍼하여 눈물을 흘려줄 두 사람이 있으니 행복해요. 두 분이 이다음에 만나면 서로 제 얘기를 해 줄 것 아니예요. 두 분은 퍽 다정해 질수 있을 거예요. 아-. 두분.. 나는 만족해요.' 그 후 그녀는 숨을 거두었오. 눈을 뜬 채.. 그러나 그 눈은 웃고 있었오. 나는 그 눈을 차마 감겨주고 싶지가 않았오. 그 눈은 아마 지금도 무덤속에서 웃음을 흘리며 우리를 쳐다보고 있을거요."

상대방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루루 흘러내리고 있었다. 청년은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 후 고개를 쳐들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청년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다.

"자- 담배나.."

상대방은 청년에게 담배를 권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담배를 한 대씩 나누었다. 그러나 누구도 성냥을 그으려 하는 사람은 없었다.

조용한 적막이 점점 둘 사이에서 깊어 가고만 있었다. 나누어 든 그들의 담배에는 언제까지나 불이 당겨지지를 않고 있었다.

남자는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알면 기뻐하지만 그렇다고 번번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듣는 날엔 진저리를 내고 만다. 여자는 날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듣지 못하면 혹 남자의 마음이 변하지나 않았나 하고 의심을 품는다.

〈스토리〉

편집후기

○ 1964년도 어느새 오후 3시를 지나간다. 지나간 한 해를 정리하고 연초에 세웠던 의욕에 찬 계획들이 알찬 열매를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손질을 해야 할 때다. 아무런 후회도 없이 흐뭇한 마음으로 한해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쉬운 일 같으면서도 실은 가장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날그날 현실에 보다 충실해야 할 줄 믿는다.

○ 6·25 전란이란 힘에 겨운 홍역을 치룬 우리국군은 이제 앳된 소년의 티를 벗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적 막강을 자랑하고 대외군사원조로 세계에 떨치는 우리 국군의 백년대계를 위해 스스로 우리들의 것, 우리들의 특질을 찾아 확립해 보자는 뜻에서 특집'한국적 군인상의 발견을 위하여'를 꾸몄다. 워낙 넓고 깊은 문제가 되어서 좁은 지면 속에 다루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 같다. 못 미친 것은 다음기회로 미루고 먼저 일을 권한다.

○ 특집 '새로운 차원에의 모색'은 앞의 특집보다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들의 생활주변을 헤쳐 본 것이다. 이제껏 당연한 것, 기정사실인 것으로 여겨왔던 것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되새겨 보자는 것이다. 읽는 사람마다 무언가 다시 생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으면 한다.

○ 신예기 도입을 눈 앞에 두고 F-5A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 보았다. 그리고 조각난 칼 맑스의 유산은 고민하는 공산권의 밑바닥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리라 생각한다.

○ 여러 장병들의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다. 보다 유익한 책, 보다 재미있는 책을 꾸미기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요즘 장병투고가 좀 뜸하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때문일까? 정신적인 성장은 스스로 찾고 닦는데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계속 건투를 빈다.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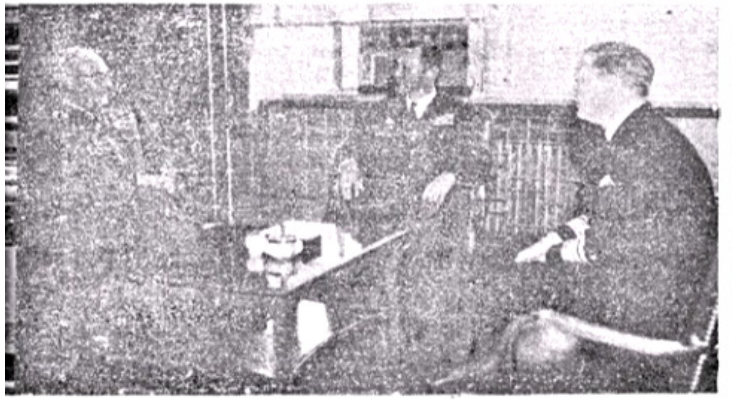
○ 책을 낸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요즘 새삼스럽게 통감한다. 인쇄소에서 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불안하고 긴장된 마음의 압박을 느낀다. 조금만 마음을 풀고 손을 놓으면 이내 사고가 난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골라도 이따금 오자가 나타날 때는 아예 질겁을 할 지경이다. 교정은 마치 바람부는 나무아래서 낙엽 쓸기와 같은 것이라고 한 어느 동료의 비유에 전적으로 공감이 간다.

○ 더구나 요즈음엔 인쇄소 일이 겹친데다가 또 엎친데 덮치기로 후방지원사항까지 원활치가 못해서 곱으로 힘이 든다. 모든 것이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그럴수록 과학적인 관리가 아쉽다. 그런 가운데서도 짜증을 모르고 협력을 아끼지 않는 인쇄소 일선 실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 마지막 교정을 넘기고 아스라이 피어오르는 보람을 느껴 본다. 우리 딴에는 최선을 다 한 노력의 결정이다. 독자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계속 성원이 있기를 바란다. 〈준〉

국군의 날맞아 유공장병포상(褒賞)

박참모총장은 10월 4일 국군의 날을 맞아 유공장병을 포상하였다.



신임브흐전위 수석대표 본부방안

신임 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 브랙버언 해군소장이 10월 29일 인사차 본부로 박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공군체육대회 성료(盛了)

공군 체육대회가 9월 23, 24일 본부에서 열렸는데 기교단이 영예의 우승을 차지하였다.

나라의 방패

하늘을 달리는 우리 꿈을 보아라
하늘을 지키는 우리 힘을 믿어라
죽어도 또 죽어도 겨레와 나라
가슴속 끓는 피를 저 하늘에 뿌린다

공 군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